

제4회

# 울주세계산악영화제

4<sup>th</sup> Ulju Mountain Film Festival

2019. 9. 6 - 9. 10

#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서울원자력본부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심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추진)



ENERGY  
4.0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추진** 인천연료전지, 청송풍력, 고흥풍력, 서남해해상풍력, 삼랑진양수태양광

**운영** 경기연료전지, 노을연료전지, 부산연료전지, 한빛슬라, 예천태양광, 고리태양광, 영월태양광,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9

**STANLEY**  




# SOME THINGS STAY HOT **LO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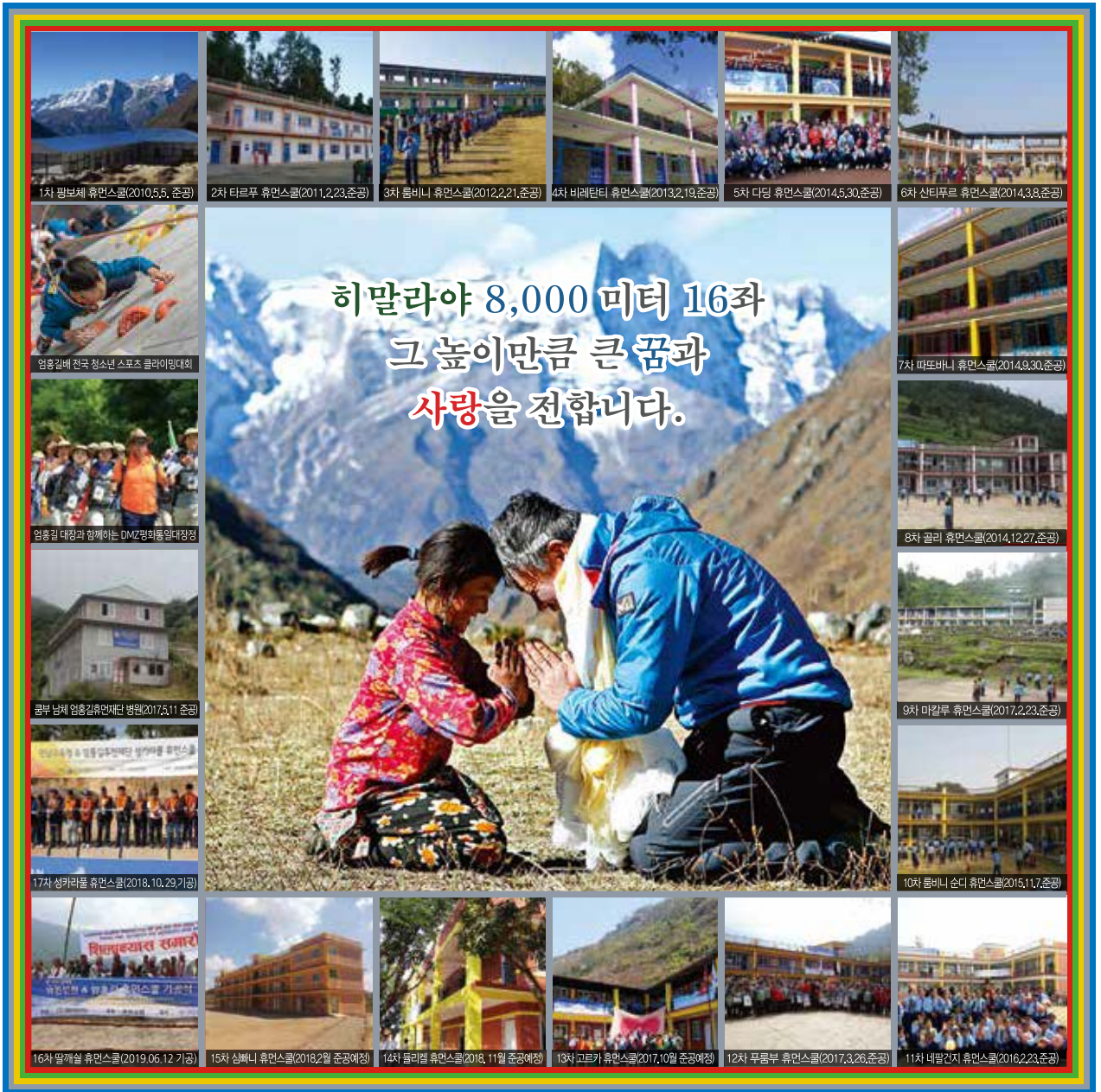
REDISCOVERED SINCE 1913

한국 공식 디스트리뷰터  
 시티핸즈컴퍼니

Tel. 02. 979. 7960 | Fax. 02. 979. 7962

yoo@cityhands.com | www.cityhands.com | www.facebook.com/cityhands | blog.naver.com/cityhands  
STANLEY station in COEX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삼성동, 코엑스) 상사전시장 2층 C-20 Tel. 02. 6000. 7770

| 모바일 최적화로 더 편리하고, 더 재미있고, 더 풍성해진 새로운 스탠리 공식 온라인몰 | [www.citycreek.co.kr](http://www.citycreek.co.kr)



“함께 하면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8길 12 장충빌딩 7층

Tel 02.736.8850 | Fax 02.736.8858

홈페이지 : [www.uhf.or.kr](http://www.uhf.or.kr) | e-mail : [uhfg8848@hanmail.net](mailto:uhfg8848@hanmail.net)

# 울산 커피



국보 제285호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_탁본

박현울 화백의 '선사이야기 불' 작품은 국보 제285호 울산시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얻은 모티브를 통해 울산의 대표 상징 동물 고래와 호랑이, 멧돼지, 사냥하는 사람 등을 통해 선사시대 생활상과 풍습을 명확적으로 표현하였다.

2017~2018년 2년 연속 드립백커피 어워드에서 3개 부분을 수상하였습니다.

**케냐 Guama AA** 지역: kirinyaga 품종: SL28, SL34 고도:1700~1800M 가공방법: 워시드



주최 | 주관 Presented by



후원 Supportor



협찬 Sponsor



## 목차 Contents

---

06	인사말 및 축하	Greetings and Congratulations
10	공식 포스터/트레일러	Official Poster & Trailer
11	홍보대사 움피니스트	UMFFinist
12	2019 울주세계산악문화상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2019
14	경쟁부문	Competition
18	행사장 안내	Festival Map
20	셔틀버스 안내	Shuttle Bus Information
22	상영 및 티켓 안내	Screening & Ticket Information
23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32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Film & Closing Film
34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51	알피니즘	Alpinism
55	클라이밍	Climbing
59	모험과 탐험	Adventure & Exploration
66	자연과 사람	Nature & People
71	움프 포커스	UMFF Focus
95	움프 라이프	UMFF Life
116	움프 프로젝트	UMFF Project
124	페스티벌 프로그램	Festival Program
138	협력 프로그램 : 오영수 원작영화 특별 상영전	Cooperation Program
140	조직 & 스태프	Organization & Staff
141	도움주신 분들 & 관객 리뷰단	Acknowledgements & Audience Review Board
142	색인	Index
146	상영본 제공처	Contacts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장  
이선호

산을 사랑하는 여러분! 산악 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롯이 자연과 산악영화를 만날 수 있는 이곳,  
영남알프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악영화제에 함께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울주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한국을 처음 방문하신 '8천  
미터의 카메라맨' 쿠르트 디메르거씨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슬로건은 '함께 가는 길(The Road  
Together)'입니다. 모두와 함께하는 영화제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산과 자연, 인생이 그러하듯 함께하는  
건 가치를 더합니다. 인생을 담은 산악영화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영화제는 여러분 덕분에 벌써 4회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경쟁 부문 출품작과 국가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작년  
영화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1박 이상 방문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영화제의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늘 도전하는 산악인과 같습니다.  
산악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산에 특화된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을 통해 산악영화가 가진 본질적인 차별성을 추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산악영화제로 성장하겠습니다. 또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더해 대중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아시아 대표 산악영화제를 넘어 세계  
3대 산악영화제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영남알프스에서 만난 산악 영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즐거운 기억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UMFF Chairman  
LEE Sun-ho

Welcome to you lovers of mountains! Welcome to you lovers of  
mountain films! It's a pleasure to have you visit us at Yeongnam  
Alps, Where nature and mountain films meet and can be  
experienced together!

Welcom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rom around the world.  
We give special thanks and a sincere welcome to the "Cameraman  
of 8,000 meters", Kurt DIEMBERGER, who visits Korea for the first  
time to attend the film festival.

Ulju Mountain Film Festival's slogan this year is "The Road  
Together". We are determined to become a film festival for  
everyone. Just as it is true for mountains and nature, being  
together adds meaning to life. We hope the experiences, scenery  
and events you see within our selection of mountain films will  
become good memories for you.

Our film festival is already in its 4th year. Every year, the number  
of entries and countries in the competition are increasing. Last  
year saw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visitors staying overnight  
for the festival. It fills me with joy to see that the film festival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Ulju Mountain Film Festival is like a mountaineer, always  
challenging himself.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distinguish  
the festival as fundamentally a mountain film festival, by  
strengthening the network for mountaineers and providing  
special programs and events geared towards the mountain.  
Above all, we will continue to develop programs for people who  
love mountains, to become a well-loved mountain film festival  
around the world. We will also provide more and more programs  
for the locals to help celebrate the local region and grow the  
festival's popularity.

Please continue to suppor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s it grows  
to become the top Asian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timately  
one of the top mountain film festivals in the world.

Once again, thank you for visiting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e  
hope that you will make beautiful memories with the mountain  
films you view at our beautiful Yeongnam Alps. Thank you.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배창호**

UMFF Festival Director  
**BAE Chang-ho**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부터 여러 사람들이 산악영화제에는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기가 오염된 도심에서 벗어나 산을 찾아 청정한 산소를 마시며 고요함 속에서 자연을 느끼듯이, 극장에서 쏟아내는 말초적인 자극과 공상으로 가득 찬 영화들에서 벗어나 산과 자연의 풍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화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지난해 말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국제산악영화협회의 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의 산악영화제 회원국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산악영화제에 대한 열의가 가득했으며 영남 알프스 산 자락에서 열리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특색과 규모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에서의 관심뿐 아니라 우리 영화제는 국내 영화인, 산악인, 매스컴, 관객들의 관심과 이해를 보다 폭넓게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4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함께 가는 길' 이며 인생길이든 등반 길이든 동반자들의 협력 없이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우리나라 영화계와 산악계에 꼭 필요한 영화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는 저희들의 등을 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ince I've become festival director for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many people have asked me what type of films are screened at mountain film festivals. I always answer that just like we escape the city with its polluted air into the mountain to enjoy clean air and quiet nature, our films allow for escape from films full of meaningless stimulation and fantasies with films filled with mountains and nature.

I had the chance to attend the IAMF general assembly last year at Bilbao, Spain. Representatives of mountain film festivals from some 20 different countries were full of passion for their mountain film festivals and showed much interest in the size and characteristic of UMFF. It is imperative that we add to this international attention more understanding and interest from filmmakers, mountaineers, media and audience within Korea.

Our 4th slogan is 'The Road Together'. Be it the road in life or the road we climb, we can't make it well without the cooperation of companions. I ask that you become a companion to UMFF, so we can walk the road to becoming a film festival essential to Korea's film and mountain communities. Be that companion that pushes us to climb further. Thank you.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영남알프스는 삶의 길이었습시다.

배내골 주민과 울산 소금 장수, 박해를 피해 숨어든 천주교 신자들과 총을 든 빨치산 등이 시간을 달리하며 넘던 길이 바로 영남알프스 간월재였습니다.

이처럼 삶의 애환과 민족사의 아픔이 오롯이 스며있는 길, 영남알프스에서 <함께 가는 길 The Road Together>를 주제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UMFF), 그 네 번째 막이 올라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71개국 434편의 영화를 출품하신 세계 각국의 영화인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120만 울산시민과 더불어 무한한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성공적인 영화제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선호 울주군수님(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장), 열과 성을 다하신 배창호 집행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처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기대로 막을 열었고, 두 번째는 희망의 막을 열었으며, 세 번째는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올해는 함께 가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울주의 영남알프스는 국민의 산, 세계인의 산이 되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찾아가는 움프극장 등의 확대를 통해 관객들이 세계의 산악영화와 다양한 산악문화를 만날 수 있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힐링영화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영화제가 자연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담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금 함께하신 영화인 여러분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명품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에서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Mayor of Ulsan Metropolitan City SONG Cheol-ho

Yeongnam Alps was a way of life.

This is where the residents of Baenaegol Valley, Ulsan salt sellers, prosecuted Catholics, and North Korean partisans holding rifles travelled day after day.

It is fitting then, that in this place filled with life's joys and sorrows, and our nation's pains, we raise the curtains to the 4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with the theme "The Road Together." Congratulations on this feat.

First off, I would like to applaud, along with the 1.2 million Ulju citizens, all you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and the filmmakers from 71 countries who have submitted a total of 434 films.

A special thanks goes to LEE Sun-ho, governor of Ulju (UMFF Chairman), for his unending support, BAE Chang-ho, our festival director, for his undying passion, and all concerned parties for their participation.

In 2016, the first UMFF began with expectations. The second UMFF opened hope, and the third gave confidence. This year, we open the road to walk together. Thus, Ulju's Yeongnam Alps became everyone's mountain.

I have heard that this year's film festival will be a healing experience bringing people and nature together, through such expanded programs as the Travelling UMFF Theater, which will bring mountain films and various mountain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closer to the people.

With such growth in mind, we ask for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We hope this festival becomes a forum connecting nature and people, people and people.

Once again, thank you to all you filmmakers and visitors. Wishing you good health and happiness here at the luxurious culture and arts city, Ulsan.

Thank you.



울주군의회 의장  
간정태

Chairman of Ulju Council  
GAN Jeong-tae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산세와 천혜의 풍광을 품은 울주군 영남알프스에서 개최되는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축하드리며, 자연을 사랑하는 국내·외 관람객 여러분들을 울주군의회 전 의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화제 준비에 힘써주신 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선호 이사장님과 배창호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과 자연을 주제로 개최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산악 국제영화제로서 산악문화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전문 산악등반 및 산악스포츠 관련 영화부터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뭉클한 영화까지 산과 자연과 영화를 사랑하는 관람객들의 감성을 만족시키고, 현대사회에 지친 마음을 힐링시켜줄 많은 작품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복합웰컴센터 뿐 아니라, 언양읍행정복지센터, 울주선바위도서관에서도 영화를 상영하기로 하여 많은 사람이 함께 이번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니, 영화제를 찾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인상과 좋은 추억 남겨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모쪼록, 영화제를 찾은 모든 분이 울주군 영남알프스의 천혜 절경을 마음껏 둘러보시고, 산악영화가 주는 매력과 감동을 마음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제 곳곳에 준비된 다양한 이벤트들과 울주군이 자랑하는 맛있는 먹거리도 함께 즐기시고 돌아가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everyon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4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here at the beautiful, blessed mountains of Yeoungnam Alps. The members of Ulju council are happy to welcome all you lovers of nature visiting our town.

We would also like to thank UMFF Chairman LEE Sun-ho and Festival Director BAE Chang-ho, as well as all who participated in making the festival possible.

UMFF is Korea's first, and only,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and is contributing greatly to the popularization of mountain culture. An array of films have been prepared to provide a healing experience and appeal to the sensibility of those tired of modern life, from films about professional mountain climbing and mountain sports, to films about people living amid nature.

This year, special provisions have been made to screen films at the Welcome Center, Eonyang Service Center, and Ulju Seonbawi Library in order to reach as many people as possible. We are certain that our efforts will make a positive impact.

Please enjoy the natural magnificence of Yeongnam Alps and be moved by the charm of mountain films. Make sure to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prepared throughout the film festival and try our delicious Ulju food.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4th UMFF. Wishing all UMFF visitors and their families much happiness and laughter. Thank you.



작가 김태홍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는 하나의 능선으로 이어지는 부드럽고 온화한 산맥을 사계절의 색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치 동양화를 보는 듯 선으로 표현된 능선의 높고 낮음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산과 함께 합니다. 때로는 청량한, 때로는 굴곡진 그 산과...(김태홍)

Graphic Designer KIM Tae-hong

The 4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s official poster portrays one ridge along a smooth and temperate mountain range with the colors of the four seasons.

Reminiscent of an oriental painting, the highs and lows of the ridge are also the road we walk.

We are one with our mountain, at times feeling refreshed, and at other times hanging precariously... (KIM Tae-hong)



감독 김동기

출연 락클라이밍 - 윤기연, 최정 / 백패킹 - 김정훈, 예석준, 김유정 / MTB - 윤다원, 최나혜, 강유진 / 트레일러닝 - 서보원, 박완식, 김영목, 강현지, 김진희 / 프리다이빙 - 김성우, 김준영 / 서핑 - 한동훈, 임수정, 브랜든 스미스

Director KIM Dong-gi

Actor Rock Climbing; YOON Gi-yeon, CHOI Jeong / Backpacking; KIM Jeong-hun, YE Seok-jun, KIM Yu-jeong / MTB; YOON Da-wit, CHOI Na-hye, KANG Yu-jin / Trail Running; SEO Bo-won, PARK Wan-sik, KIM Yeong-mok, KANG Hyeon-ji, KIM Jin-hui / FreeDiving; KIM Seong-woo, KIM Jun-yeong / Surfing; HAN Dong-hun, IM Soo-yeong, Brandon SMITH

바다 깊은 곳의 프리다이버 부터 산 정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백패커까지... 영상의 모든 장면에는 자연을 배경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이 잠깐씩 등장합니다. 비록 이들의 모습은 다르고 향하는 곳도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길은 혼자서도 갈 수 있지만 동반자와 함께할 때 그 길은 더 가볍고 즐거워지며 더욱더 의미 깊어집니다. 이를 통해 영화제 슬로건 "함께 가는 길"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영상에는 여섯 그룹만을 보여주었고 있지만 "함께 가는 길"은 특정 스포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길의 형태나 목표 지점은 모두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론가 향하는 길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상에는 남녀노소, 프로, 아마추어 선수 등 다양한 이들이 등장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매니아 뿐 아니라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영화제의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김동기)

From a free diver in the deep seas to a backpacker silently trekking to the top of the mountain... Everywhere in the image, there are people who appear somewhere in the background with nature as the backdrop. Though each person looks different and has a different destination, they all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are walking together with someone. Most roads can be travelled alone, but having a companion makes the trip more light, delightful, and meaningful. This idea is expressed in the UMFF slogan, "The Road Together". Though the poster only shows six groups, "The Road Together" is not limited to certain sports. Even if the shape of the road or the finish line are all different, all of us are on the road of life headed somewhere. Also displayed in the poster are men, women, old, and young, amateurs and professionals -- all are there to portray the UMFF tone, where anyone, not just professionals and enthusiasts, can participate. (KIM Dong-gi)

## 홍보대사 움피니스트 UMFFinist

움피니스트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홍보대사를 일컫는 단어로, 영화제의 약칭인 움프(UMFF)와 알피니즘의 정신과 전통을 지키는 등반인을 뜻하는 알피니스트(Alpinist)의 합성어다.

역대 움피니스트로는 배우 이다희, 클라이머 김자민, 배우 서준영, 산악인 김창호와 배우 예지원, 그리고 배우 안소희가 활동했다. 또한, 프레페스티벌 움피니스트로 활동한 이후 꾸준히 영화제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산악인 엄홍길도 명예 움피니스트로 함께 하고 있다.



### 엄홍길

영화제의 처음부터 함께 한 엄홍길 대장은 올해도 역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명예 움피니스트로 함께 한다. 프레페스티벌 초대 움피니스트로 활동한 이후 지속적으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특별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엄홍길 대장은 명예 움피니스트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함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교류 사업 및 기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UM Hong-gil

Having been a part of the UMFF since its very beginning, Um Hong-gil returns this year as UMFF's honorary UMFFinist. After working as an invited UMFFinist at the Pre-festival, he has continued to have special relations with UMFF. Um is not only active as an UMFFinist, but also making headway in activities related to donation and cultural exchange for the culturally disadvantaged.

UMFFinist stands for UMF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Alpinist, with the basic meaning of public ambassador for UMFF.

Past UMFFinists included actress Lee Da-hee, climber Kim Ja-min, actor Seo Jun-young, mountaineer Kim Chang-ho, actress Ye Ji-won, and actress An So-hee. Mountaineer Um Hong-gil has been a part UMFF since the Pre-festival, and remains as our honorary UMFFinist.



### 진기주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의 배우 진기주는 영화제의 자연스럽게 친근한 이미지를 관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배우이다. 올해 움피니스트로 영화제와 함께 하는 배우 진기주는 건강하고 밝은 연기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배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이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그녀가 가진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관객들과 나눌 예정이다.

### JIN Ki-joo

Jin Ki-joo is known for her innocence and purity, an image that the film festival wants to portray. Working as an UMFFinist this year, Jin is loved for her cheerful and lively acting, as well as for her many roles outside of acting. We hope to convey her bright and cheerful energy to the audience at the 4th UMFF.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전 세계 자연과 환경, 등반, 영화, 문학 등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 중 영화제 슬로건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여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7년 처음 시행된 울주세계산악문화상에는 '지구의 아들' 릭 리지웨이가, 2018년 울주세계산악문화상에는 '최초의 프로 산악인' 크리스 보닝턴 경이 선정되었다.



### 쿠르트 디베르거

2019년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는 오스트리아의 산악인 쿠르트 디베르거입니다.

쿠르트 디베르거(Kurt Diemberger · 86)는 현재 생존해있는 산악인 중 유일하게 8천 미터급 고봉 14개 중 2개를 초등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957년 카라코람의 브로드피크(8,047m)와 1960년 네팔 히말라야의 다울라기리(8,167m) 초등이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쿠르트 디베르거는 산악인으로서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현재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산악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고산 전문감독으로 '8,000미터의 카메라맨'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쿠르트 디베르거는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을 담은 영화로 트렌토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3년 황금피켈상의 평생공로상을, 2018년에는 국제산악영화협회(IAMF)에서 수여하는 그랑프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9년 그의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은 한국의 산악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동서양의 산악문화 교류에도 지대한 공헌이 될 것입니다.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시상식은 2019년 9월 6일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되며 영화제 기간동안 UMCA 강연, 전시, 영화 상영 후 게스트와의 만남으로 다양하게 국내외 관객들과 울주에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선정위원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is awarded to those who have made exceptional contributions to the progress of mountain culture, such as nature, environment, climbing films and literature.

The first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was awarded to 'son of earth' Rick Ridgeway in 2017 and the UMCA 2018 was awarded to 'a professional mountaineer pursuing future-oriented mountaineering' Sir Chris Bonington.



### Kurt DIEMBERGER

Selected as the recipient of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2019 is 'Filmmaker of the 8000s' Kurt Diemberger (born in 1932), the only surviving mountaineer who has made the first ascents on two mountains over 8,000 meters.

Diemberger began climbing mountains as he hunted crystals in the Alps. At the age of 16, he became a full-fledged mountaineer with a climb of Larmkogel (3,014 meters). He gained spotlight of the European mountaineering community in 1956 when he climbed the overhang cornice 'Meringue' atop the Gran Zebrù, and was invited to Austria's Broad Peak expedition the following year in 1957, making a successful first ascent with Hermann Buhl. Though he reached the top first, he helped the limping Hermann Buhl back to the top, becoming legendary for true friendship in the history of Himalayan climbing. In 1960, he joined the Swiss International Expedition to make first ascent of Dhaulagiri.

Diemberger has also made connections with a Korean expedition team at K2 in 1986, and received the Gold Gentian at the Trento Film Festival for his autobiographical film *K2 - trauma und schicksal*. He has also received the Piolet d'Or Lifetime Achievement Award in 2013, and the Grand Prize at the 2018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The award ceremony will be held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4<sup>th</sup> Ulju Mountain Film Festival. Diemberger will hold various sessions to interact with the audience, including UMCA lecture, UMCA exhibition, and Guest Visit after film screening.

UMCA Committee

## 2019 울주세계산악문화상 행사

### 핸드프린팅 & 책 사인회

일시 9월 7일(토) 13:00 ~ 14:00  
장소 영남알프스 영상체험관 1층

### UMCA 강연

일시 9월 7일(토) 16:00 ~ 18:00  
장소 영남알프스 영상체험관 알프스 시네마 2

### 영화 상영(<수정산>, <K2 - 꿈 그리고 운명>)

일시 9월 8일(일) 09:30 ~ 11:30  
장소 영남알프스 영상체험관 알프스 시네마 2

### UMCA 전시(8000미터의 카메라맨 쿠르트 뎀베르거)

일시 8월 13일(화) ~ 9월 10일(화) 09:00 ~ 18:00  
(월요일 휴관)  
장소 영남알프스 영상체험관 지하 1층

##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선정위원

**김영도**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선정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산서회 고문

**최중기**  
사단법인 한국산서회 회장

**정영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정호진**  
(주)넬슨 스포츠 대표이사

**정일근**  
(사)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

## 실무위원

**김동수**  
(사)한국대학산악연맹 부회장

**배경미**  
아시아산악연맹 사무총장

## Schedule of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2019

### Hand Printing & Book Signing

Time Sep. 7(Sat) 13:00 ~ 14:00  
Venue 1F, Yeongnam Alps Experience House

### UMCA Lecture

Time Sep. 7(Sat) 16:00 ~ 18:00  
Venue Yeongnam Alps Experience House Alps Cinema 2

### Screening of *Mountain of Crystal, K2 - Mountain of Dreams and Destiny*

Time Sep. 8(Sun) 09:30 ~ 11:30  
Venue Yeongnam Alps Experience House Alps Cinema 2

### UMCA Exhibition(*The Filmmaker of the 8000s Kurt DIEMBERGER*)

Time Aug. 13(Tue) ~ Sep. 10(Tue) 09:00 ~ 18:00  
(Except Monday)  
Venue B1, Yeongnam Alps Experience House

## UMCA Committee

**KIM Young-do** (Chairman of UMCA Committee)  
Advisor of Korea Alpen Book Club

**CHOI Joong-ki**  
President of Korea Alpen Book Club

**CHUNG Young-mok**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JUNG Ho-Jin**  
President of Nelson Sports Inc

**CHUNG Il-keun**  
Board Member of UMFF

## Administrative Committee

**KIM Dong-soo**  
Vice President of Korea Student Alpine Federation

**Christine PAE**  
General Secretary, UAAA

올해 경쟁부문 공모에는 71개국 434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31편의 작품이 국제경쟁부문 본선에 진출했다. 영화제 기간 중 심사를 통해 대상과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하고 관객상은 관객투표로 선정된다.

넷팩상 후보로는 11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단일 시상이었던 넷팩상 부문에 청소년심사단 특별상을 신설하였으며 모든 시상은 폐막식에서 이루어진다.

At the 2019 Ulju Mountain Film Festival, 434 films from 71 countries have been submitted for Competition in total, and 31 titles were selected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A Grand Prize and the Best Films from each section will be picked by the jury during the festival, and an Audience Award will go to the film that is voted by festival audiences.

Eleven films are nominated for the NETPAC Award. This year, the Youth Jury (Award) in NETPAC Award, which was a single award, is newly created, and all Awards will be presented at the Closing Ceremony.

### 시상내역

####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대상 Grand Prize	10,000,000 KRW
알피니즘 작품상 Best Alpinism Film	5,000,000 KRW
클라이밍 작품상 Best Climbing Film	5,000,000 KRW
모험과 탐험 작품상 Best Adventure & Exploration Film	5,000,000 KRW
자연과 사람 작품상 Best Nature & People Film	5,000,000 KRW
관객상 Audience Award	부상 A prize

#### 넷팩상 NETPAC Award

넷팩상 NETPAC Award	부상 A prize
청소년심사단 특별상 Youth Jury Award	부상 A prize

### 예선 심사위원 Preliminary Jury

#### 김세진

국문학과 영화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시나리오 컨설팅과 스토리텔링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1970년대 국책영화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시나리오와 연출, 영화학에 관한 다양한 강의경력과 칼럼 기고 등 저술도 지속하였으며, 전주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일해 왔다. 최근 부산팻팩페스티벌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다.

#### KIM Se-jin

Kim Se-jin studied Korean literature and film, and currently works on scenario consulting and storytelling. After completing an MA in Film Studies at Hanyang University, she went on to a Ph.D course at the same university and researched government-directed films of the 1970s Korean Film industry. She has been lecturing about scenarios, film direction and film studies, and writing columns. She also has participated in the Jeonju IFF and the Busan ISFF. She currently works as a programmer at Busan Pet & Family Festival.



#### 서도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 철학,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파리 1대학에서 영화학 석사 졸업, 박사 수료하였다. 주불한국문화원 및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서울문화재단의 『문화 서울』 및 『씨네21』에 글을 게재했다. 시각 예술과 영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하였으며,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일한 후 현재는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 재직 중이다.

#### SEO Do-eun

Seo Do-eun studied Sociology, Philosophy and Art History at Ewha Women's University. After completing a Master Degree in Cinema Studies, she finished a doctorate course at University Paris 1. She's been working in France and South Korea,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Paris* and *Cine 21*. After working at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Seoul Eco Film Festival, she is currently a programmer at Seoul Guro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 국제경쟁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 수잔 베라자

수잔 베라자는 카리브해에서 태어나고 자란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영화감독이다. 그녀의 영화는 인디펜던트 렌즈, PBS(미국 공영 방송), 피벗 티비(Pivot TV)와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 <우라늄 드라이브 인>은 여성 영화 기자 연합에서 최고의 다큐멘터리 작품에 주는 영예, 빅 스카이 어워드(Big Sky Award)를 수상했다. 그녀의 최근 프로젝트, <매서커 리버>는 핫독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수잔 베라자는 2017년 콜로라도의 텔루라이드 산악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으로 초대되었다.

### 존 포터

존 포터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20세에 영국으로 석사 유학을 떠났다. 그는 알파인 스타일로 만다카 북동벽, 창가방 남쪽 버트레스, 란라풀카 남벽 등정 및 겨울 에베레스트의 서쪽 능선과 K2의 북서 능선 등정 시도를 최초로 해냈다. 그의 책 「하루를 살아도 호랑이처럼」은 2014년 밴프산악영화제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했고 한국어로도 출간이 되었다. 존 포터는 1980년 켄달산악축제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1857년에 시작된 알파인 클럽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번재란

서울에서 태어나서 영화보기를 즐기다가 그것이 꿈이 되고 직업이 되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화를 만들고 보는 일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영화제와 함께 해왔다. 2001년부터 순천향대학교에서 미래의 영화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요즘은 영화의 과거와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안에서 재현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다.

### 오영훈

인류학자이자 산악인이다. 네팔 세르파의 히말라야 등반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리버사이드 캠퍼스에서 인류학과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다. 에베레스트 4회 등반, 암푸1봉(6741m) 초등 등 히말라야·파미르·코카서스 등에서 여러 고산등반 원정대를 이끌기도 했다. 현재 미국 조슈아트리 국립공원 암벽등반 문화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 진모영

1997년부터 다큐멘터리 교양 부문에서 방송 PD로 일했다. 2014년 100세 부부의 품격 높은 사랑을 다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발표하였다. 480만명의 관객을 기록한 이 영화는 독립예술영화 전 부문 역대 1위에 올랐다. 100여개 국제영화제와 주요 방송사에 초청되었으며 대상, 심사위원상, 관객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2017년에는 강원도 동해바다에서 심해 잠수부로 살아가는 탈북자의 이야기를 다룬 <올드마린보이>를 발표했다.

### Suzan BERAZA

Suzan is a Latina-American filmmaker who was born and raised in the Caribbean. Her films have been shown on Independent Lens, PBS, Pivot TV and at many festivals. Her last project, *Uranium Drive-In* was awarded the Big Sky Award, and honored for documentary excellence by the Alliance of Women Film Journalists. Her current project, *Massacre River* recently premiered at Hot Docs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She became Festival Director for Mountainfilm festival in Telluride, Colorado in 2017.



### John PORTER

American by birth, at 20, John moved to the UK for postgraduate studies. He has made alpine-style first ascents around the world: NE Face of Bandaka, S. Buttress of Changabang, S. Face Ranrapulka and attempts on West Ridge of Everest (winter) and NW Ridge of K2, etc. His book *One Day as a Tiger* won the Grand Prize at the Banff Centre Mountain Film & Book Festival in 2014. It is published in Korean. He established the Kendal Mountain Festival in 1980. John is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Alpine Club (est. 1857).



### BYUN Jai-ran

Born in Seoul, she enjoyed watching films, and it became a dream, then a job. Looking at the world with the eye of woman, and curious about the pleasure of making and watching movies, she has been with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since 1997, when it was established. She has been teaching students who will work at the film industry in the future, in Soon Chun Hyang University from 2001. She currently imagines the past and future of cinema and raises interest in various people, who are represented there.



### OH Young-hoon

Oh's expertise lies in both anthropology and mountaineering. His PhD research in anthropology was on Sherpa intercultural experiences in Himalayan mountaineering. Currently, he teaches anthropology and comparative relig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Among his many climbs in Himalaya, Pamir, Caucasus, and others, he was four times on Mt. Everest and made the first ascent of Amphu 1. His current project is on the history of rock climbing in Joshua Tree National Park in California.



### JIN Mo-young

Jin Mo-young has been making TV documentaries since 1997. He made his feature directorial debut in 2014 with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which attracted over 4.8 million viewers in theaters. That film garnered numerous awards from various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and became the most successful documentary film in Korean history. His second feature documentary *Old Marine Boy* was also invited to many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had its theatrical release in 2017.



## 네팅상 심사위원 NETPAC Award Jury

### 다니엘 에브너

다니엘 에브너는 1981년생으로, 비엔나국제단편영화제 아트디렉터이자 공동창립자이다.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문화/영화이론을 빈과 베를린에서 전공했다. 오스트리아기자연합에서 문화와 영화평론을 썼고, <십일분>이라는 축구 단편영화를 프로듀싱하기도 했다. 현재 비엔나시와 보랄버그주의 영화 자문위원이자 오스트리아 영화제 연합 공동창립자로, 그리고 영화와 예술 큐레이터로 활동중이다.

### Daniel EBNER

Daniel Ebner (1981) is the co-founder and Artistic Director of VIS Vienna Shorts. He has an MA degree in Political Science and studied Cultural and Film Studies in Vienna and Berlin. Daniel has been cultural editor and film critic at APA for many years. He co-produced the football short-film *Eleven Minutes* (A/CH 2008), a film advisor for the city of Vienna and the state of Vorarlberg, co-founder of the Association of Austrian Film Festivals, and also works as a film and art curator.



### 수라즈 프라사드

뉴델리 라이트큐브의 공동 창립자이자 기술이사. 「움브라」의 발행인이자 네팅 회원이고, 「아시아 에이지」의 리뷰어로 활동중이다. 지난 5년 간의 라이트큐브 활동을 통해, 인도 전역 350여회의 영화상영과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데누키영화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라이트큐브 운영 전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프로듀싱했고, 현재는 네팅, 다람살라국제영화제, 델리국제아트축제, 세렌디피티아트축제에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이다.

### Suraj PRASAD

Co-Founder and Technology Head of Lightcube Film Society, New Delhi. He is also the publisher of *Umbra*, NETPAC member and reviewer for *The Asian Age*. In five years of running Lightcube, he has helped organise nearly 350 film screenings across India and leading the Dhenuki Cinema Project which is a cinema education program. Before Film work, Suraj spent four years hosting radio shows and producing radio programs. Suraj advised with his expertise to NETPAC, DIFF, DIAF and Serendipity Arts Festival.



### 파나요티스 코자타나시스

파나요티스 코자타나시스는 1981년 그리스 테살로니키 출생으로 동북아시아 영화를 중심으로 기사와 영화 평론을 쓰고 있다. 「아시아무비펄스」를 만들었고, 「아시아영화볼트」의 공동 창립자이며, 「테이스트 오브 시네마」, 「한시네마」, 「필름보이」에 고정적으로 기고중이다. 중국정책연구소와 「이스턴키스」를 비롯, 그리스와 유럽의 다양한 사이트와 잡지에 영화 리뷰와 평론을 기고하고 있다.

### Panagiotis KOTZATHANASIS

Panagiotis Kotzathanasis was born in Thessaloniki, Greece, in 1981. He is a journalist/film critic specializing in (East-South) Asian cinema. He is the owner of *Asian Movie Pulse*, founder of *Asian Film Vault* and a regular contributor to *Taste of Cinema*, *Hancinema* and *Filmboy*. His reviews, interviews, lists, and tributes also feature on Chinese Policy Institute, *EasternKicks* and several websites and publications in Greece and Europe.



## 청소년심사단 Youth Jury

2019년 새롭게 운영하는 청소년심사단은 청소년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직접 네팅상 경쟁작을 보고 회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네팅상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네팅상과는 별도로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각으로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 청소년심사단-다운고등학교

박수현, 서하늘, 이하늘, 임예슬, 정선아, 정영교, 정현우, 주민영, 지동인, 황지혜

A new program beginning in 2019 is the Youth Jury program, in which teenagers become the jury. They will watch the films from the NETPAC nominees, hold a discussion, and decide on the winner. This program will be separate from the existing NETPAC Award program and will give a fresh perspective o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winning film.

### Youth Jury – Daun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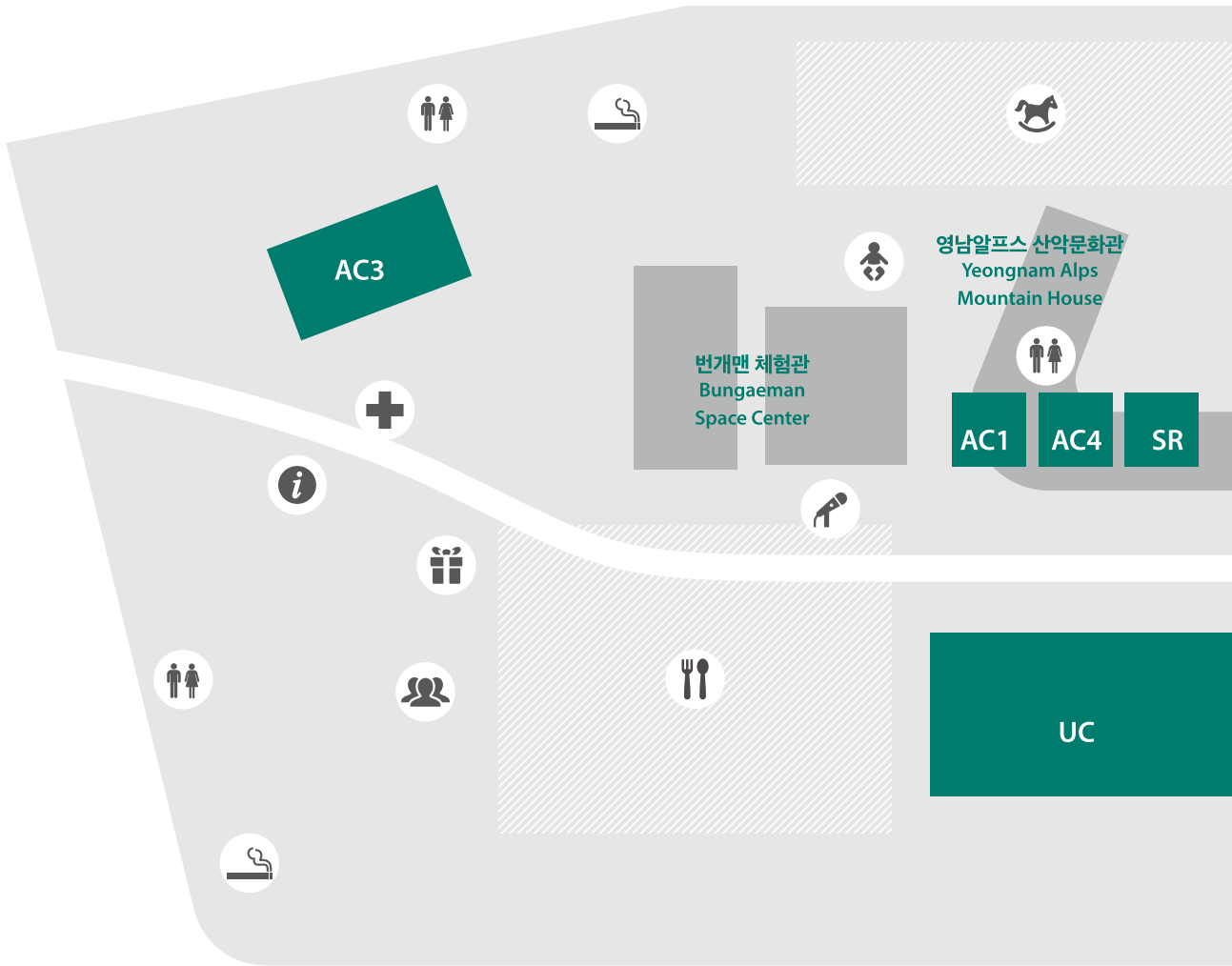
SEO Ha-neul, JUNG Young-gyo, JI Dong-in, HWANG Ji-hye, IM Ye-seul, PARK Su-hyeon, JOO Min-young, LEE Ha-neul, JEONG Seun-A, JEONG Hyun-woo

# FUR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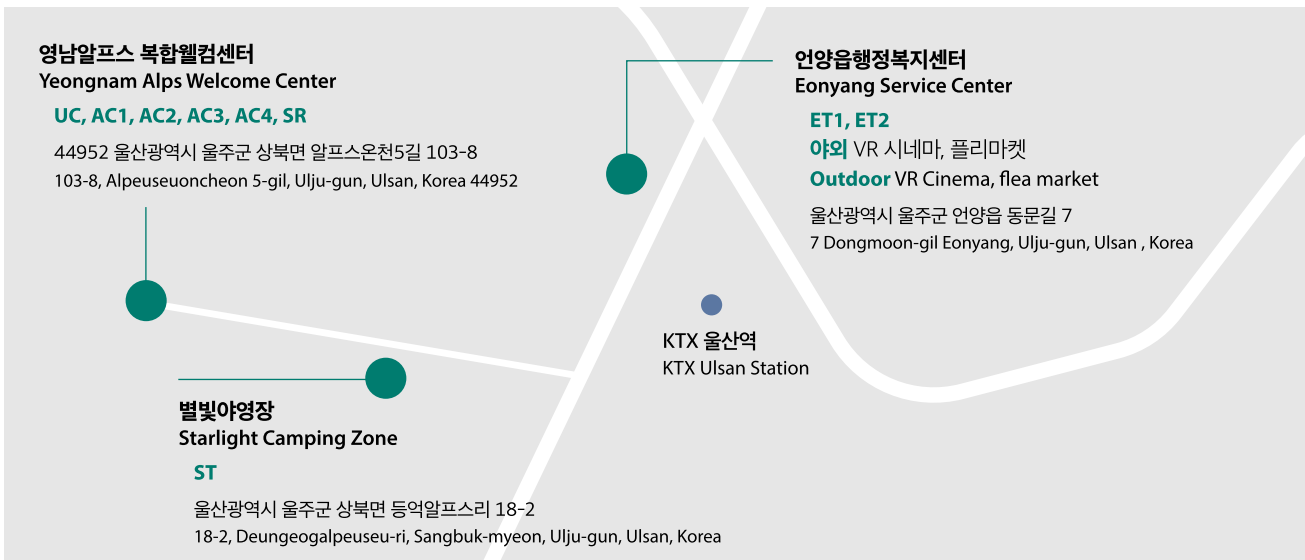


When it feels like Mount Sisyphus, Furmo lightens your load

영어자막, 산 넘어 산이지요? 전문 번역프로덕션 푸르모디티



행사장 안내 Festival Map





	<b>움프 아고라</b>	UMFF Agora
	<b>달팽이 책방</b>	Cittaslow
	<b>놀이터</b>	Playground
	<b>푸드존</b>	Food Zone
	<b>움프 라디오</b>	UMFF Radio
	<b>미디어 버스</b>	Media Bus
	<b>안내</b>	Information
	<b>기념품</b>	Souvenir Shop
	<b>수유실</b>	Nursing Room
	<b>응급의료</b>	Emergency Care
<b>UC</b>	<b>움프 시네마</b>	UMFF Cinema
<b>AC1</b>	<b>알프스 시네마 1</b>	Alps Cinema 1
<b>AC2</b>	<b>알프스 시네마 2</b>	Alps Cinema 2
<b>AC3</b>	<b>알프스 시네마 3</b>	Alps Cinema 3
<b>AC4</b>	<b>알프스 시네마 4</b>	Alps Cinema 4
<b>SR</b>	<b>세미나실</b>	Seminar Room

**알려드립니다!**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함께 언양읍행정복지센터와 범서 울주선바위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예약 혹은 방문 시 반드시 관람하실 영화의 상영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tice**

The 4<sup>th</sup>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ill be held at the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Eonyang Service Center, and Beomseo Seonbawi Library. Please check the venue for your film before visiting.



**울주선바위도서관**  
Seonbawi Library

**BT**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3길 40 2층 시청각실  
Seonbawi Library: Floor 2, audiovisual room  
40 Jeomchon 3-gil, Beomseo, Ulju-gun, Ulsa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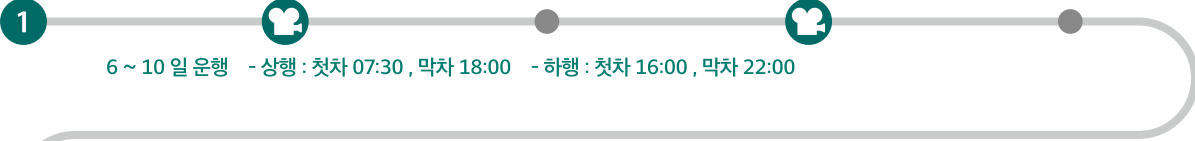
<b>ST</b>	<b>별빛 극장</b>	Starlight Theater
<b>ET1</b>	<b>언양 극장 1</b>	Eonyang Theater 1
<b>ET2</b>	<b>언양 극장 2</b>	Eonyang Theater 2
<b>BT</b>	<b>선바위 극장</b>	Seonbawi Theater

**선착순 비지정 좌석 Designated seat**  
**AC1, AC2, AC3, ET1, BT**

**자유석 Free seats**  
**UC, AC4, ET2, ST**

# 셔틀버스 안내 Shuttle Bus Information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작천정 별빛야영장 입구** Dung-eok Camping Site (Starlight Cinema)  
**작천정 카페촌 도로변** Jakcheonjeong Cafe Village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Eonyang Service Center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Eonyang Public Parking Lot



**KTX 울산역** KTX Ulsan Station  
**울주선바위도서관** Seonbawi Library  
**울주문화예술회관** Ulju Arts Center  
**신복환승센터** Shinbok Bus Terminal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자수정동굴나라** Amethyst Cavern Park  
**작천정 별빛야영장 입구** Dung-eok Camping Site (Starlight Cinema)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Eonyang Service Center  
**울주선바위도서관** Seonbawi Library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Eonyang Public Parking Lot  
**KTX 울산역** KTX Ulsan Station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자수정동굴나라** Amethyst Cavern Park  
**울산도시공사(상행)** Ulsan Metropolitan City Authority



**청량면행정복지센터** Cheongryang Service Center  
**온산읍행정복지센터** Onsan Service Center  
**남창2교** Namchang 2Bridge

● 자세한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052-248-6451 ● 당일 교통 및 도로 환경에 따라 시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Stonellery

## 알려드립니다

-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와 함께 언양읍 행정복지센터와 범서읍 울주선바위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예약 혹은 방문 시 반드시 관람하실 영화의 상영관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약 기간을 한정하고, 행사기간에는 현장 발권만으로 운영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상영관 운영 안내

- 모든 상영관은 선착순 비지정 좌석제입니다.
- 모든 상영관은 티켓 소지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UMFF시네마와 알프스 시네마 4, 언양 극장 2, 별빛 극장은 티켓 발권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 상영시작 15분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정시상영이 원칙이며, 제한입장 후 입장이 불가합니다. 제한입장 : 장편-상영 10분 후 입장  
단편-상영 10분 이하 상영 시 종료 후 입장  
상영 10분 이상 상영 시 상영 5분 후 입장
- 영화상영 중 이동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상영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 쾌적한 영화 관람을 위해 음식물 반입이 불가합니다.
- 상영작 관람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티켓 안내

- 티켓은 무료로 발권됩니다.
- 온라인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상영화차별 1인 4매까지 가능합니다.
- 예약한 티켓은 해당 상영관 입구에서 상영시작 20분 전까지 발권 가능하며, 미수령 시 자동 취소됩니다.
- 당일 상영관별 입구에서 15분 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권을 발권 및 배부합니다. (052-248-6451)
- 발권 후 관람 취소를 원하시는 분은 관람을 원하는 다른 관객을 위하여 입장권을 해당 상영관 입구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안내

사전예약기간 8월14일(수)~9월3일(화)

현장발권 9월6일(금)~10일(화)

	사전 예약	현장 발권
장소	공식 홈페이지 (www.umff.kr)	움프 시네마, 알프스 시네마 4, 언양 극장 2, 별빛 극장을 제외한 모든 상영관
발권매수	1인 4매	
운영기간	8월14일(수) ~ 9월 3일(화)	9월6일(금) ~ 10일(화)
운영시간	24시간(예약오픈부터)	09:00 ~ 상영관별 마지막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발권	해당 상영관 입구에서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발권	해당 상영관 입구에서 15분 전부터 선착순 발권
취소	해당 영화 상영 전일 24시까지 단,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발권하지 않은 티켓은 자동 취소 됨	발권 후 취소를 원하는 경우 해당 상영관 입구로 반환

## 티켓문의

- 공식 홈페이지 (www.umff.kr) '1:1문의' 게시판
-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상영관 운영팀/ 052-248-6451

## Notice

- The 4<sup>th</sup>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ill be held at the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Eonyang Service Center, and Beomseo Seonbawi Library. Please check the venue for your film before visiting.
- In order to prevent no-shows after making an online reservation, the pre-reservation period will be limited, and during the period of the event, only on-site ticketing will be available.

## Theater Information

- There is no seat number on your ticket. You can select your own seat upon arrival in all theaters.
- Tickets are required at all theaters for admission except for the UMFF Cinema, Alps Cinema 4, Eonyang Theater 2, Starlight Theater, the outdoor venue.
- Admissions will begin from 15 minutes prior to your screening.
- All the screenings will start on time. Once the screening starts, entering cinema will be limited under the conditions as follows. Feature films: Admission will only be allowed once the film has surpassed ten minutes in duration.  
Short films: If the film is shorter than ten minutes, admission will only be allowed after the screening is over. If the film is longer than ten minutes, admission will only be allowed once the film has surpassed five minutes in duration.
- Please refrain from moving to other seats or existing and reentering the theater during screenings.
- All audio, video recording and/or photography is strictly prohibited at all screenings.
- Food and drinks are not allowed in the theater.
- Ratings must be strictly observed.

## Ticket Information

- Tickets are free of charge.
- The online ticket reservation site on the festival's homepage allows a maximum of four tickets per person for each screening.
- Tickets reserved online can be printed at kiosks located in front of each cinema until 20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starts. Tickets not printed will be automatically cancelled.
- Tickets will be distributed by the order or arrival from 15 minutes prior to the screening in front of each cinema. (052-248-6451)
- If you want to cancel your tickets after you receive them, please return them to the person in charge in front of each cinema so that other audiences can enjoy the screenings instead.

## Booking Info

Pre-reservation period Aug. 14(Wed) ~ Sep. 3(Tue)

On-site ticketing Sep. 6(Fri) ~ 10(Tue)

	Pre-reservation	On-site ticketing
Place	Official Homepage (www.umff.kr)	At all the theaters except for UMFF Cinema, Alps Cinema 4, Eonyang Theater 2, Starlight Theater
Number of tickets	Max. 4 per person	
Period	Aug. 14(Wed) ~ Sep. 3(Tue)	Sep. 6(Fri) ~ 10(Tue)
Time	24 Hours (from the date reservation opens)	09:00 ~ until 20 minutes prior to the last screening at each cinema
Ticketing	Available until 20 minutes prior to the screening in front of each cinema	Available from 15 minutes prior to the screening by order of arrival in front of each cinema
Cancellation	Available until 24:00 of the day before the screening date. Tickets not printed until 20 minutes prior to the screening will be automatically cancelled.	Any audiences who want to cancel the tickets are encouraged to return them to the person in charge in front of each cinema.

## For more information

- Official homepage (www.umff.kr) '1:1 Q&A' board
- Ulju Mountain Film Festival Cinema Operation Team / 052-248-6451



#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 시간표 보는 법 How to Read

상영 Film Screening

페스티벌 프로그램 Festival Program

국문 작품명 영문 작품명 (관람등급) 상영시간 기타	페이지번호
------------------------------------	-------

Film Title(Korean) Film Title(English) (Rate) Running time Etc	Page Number
--	-------------

국문 프로그램명 영문 프로그램명	페이지번호
----------------------	-------

Program Title(Korean) Program Title(English)	Page Number
---	-------------

### 기타 Etc

- \* GV 게스트와의 만남 Guest Visit / SG 무대인사 Stage Greetings / Cine Talk 씨네 토크 Cine Talk
- \* Live Dubbing 마지막 영화 <가을의 마지막 날>은 라이브 더빙으로 진행됩니다.  
The last film, *The Last Day of Autumn*, will be presented with live dubbing.

### 상영관 Cinema & Theater

UA	움프 아고라	UMFF Agora
UC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AC 1~4	알프스 시네마 1~4	Alps Cinema 1~4
ST	별빛 극장	Starlight Theater
ET 1, 2	연양 극장 1, 2	Eonyang Theater 1, 2
BT	선바위 극장	Seonbawi Theater

### 안내 Notice

- \* 대사가 있는 모든 상영작에는 영어, 한국어 자막 및 대사가 지원됩니다.
- \* 연양 극장 1, 2와 선바위 극장에서 게스트와의 만남이 없을 시, 모든 상영에 해설이 진행됩니다.
- \* GV(게스트와의 만남)은 사전 고지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경쟁1~11, 산악영화 1~10, 임일진 특별전 1, 2, 루카스 막스트 단편, 레드불 단편, 마운틴 라이프 단편, 록키 - 캐나다 단편, 쿠르트 뎀베르거 특별상영, 다비드 라마 특별상영, 움프 투게더 1~4, 랜드스케이프 1, 2, 울주서밋, 울주멘터리는 여러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 All dialogue films will be provided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 \* Every screening at Eonyang Theaters and Seonbawi Theater will be serviced introduction before or after the screening except GV screening.
- \* GV(Guest Visit)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evious notice.
- \* The following programs will screen multiple films: Competition Films 1~10, Mountain Films 1~10, LIM Il-jin Films 1,2, Lukas MARXT Shorts, Red Bull Shorts, Mountain Life Shorts, Rockies - CANADA Shorts, Kurt DIEMBERGER Films, David LAMA Films, UMFF Together 1~4, Landscape 1, 2, Ulju Summit, and UljuMentary.

## 9. 6. Fri

북한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알프스 시네마3 Alps Cinema 3
12:00		산악영화 1 Mountain Films 1	
12:30	루카스 막스트 단편 p. 76, 77 Lukas MARXT Shorts	(G) 75min	
13:00	(15) 64min		움프 투게더 3 p. 105, 106
13:30			UMFF Together 3
14:00		월든 p. 113 Walden	(12) 79min GV
14:30	겨울, 그리고 겨울 p. 97 Winter after Winter	(18) 107min	
15:00	(15) 110min		움프 투게더 4 p. 106, 107
15:30			UMFF Together 4
16:00			(12) 79min GV
16:30			
17:00			
17:30			
18:00			
18:30	그린카펫 Green Carpet Ceremony		
19:00	개막식		
19:30	Opening Ceremony		
20:00	피아노를 히말라야로 p. 32 Piano to Zanskar		
20:30	(G) 86min SG		
21:00			

### 산악영화 1 Mountain Films 1

<우리 엄마 Mi Mamá> p.64, <15.7 KM> p.67, <달리는 가족 The Wolfpack> p.61, <토르 Tor> p.65

# 9. 7. Sat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오프 아고라 UMFF Agora	오프 시네마 UMFF Cinema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알프스 시네마3 Alps Cinema 3
09:30			커커시리 p. 111 Kekexili: Mountain Patrol (15) 89min	
10:00	숲산책 p. 136 Forest Walk	스틱스 p. 74 STYX (15) 94min		
10:30				
11:00	북토크 김병준 p. 134 Book Talk KIM Byung-jun			여전히 푸른 인생 p. 99 As Green As It Gets (15) 115min
11:30				
12:00	엄홍길휴먼재단 캠페인 UM HONG GIL Human Foundation Campaign		영혼의 산 p. 35 마나슬루 Manaslu - Mountain of the Spirit (G) 101min GV	
12:30		아가 p. 35 Ága (12) 96min GV		
13:00	울주인 한마당 p. 133 Ulju IN Festival			경쟁 1 p. 36 Competition Films 1 (G) 75min GV
13:30				
14:00				
14:30	시청자미디어 p. 135 프로그램 Community Media Program			
15:00		보이지 않는 p. 37 물의 무게 The Weight of Water (12) 79min GV		
15:30				
16:00			UMCA 강연 p. 12 UMCA Lecture	경쟁 2 p. 37, 38 Competition Films 2 (G) 85min GV
16:30				
17:00				
17:30	마케팅 이벤트 Marketing Event	디스 마운틴 p. 38 라이프 This Mountain Life (G) 78min GV		
18:00				
18:30	무대인사 Stage Greetings			
19:00	고래사냥 p. 92 Whale Hunting (12) 110min			
19:30			울주서밋 p. 117, 118 Ulju Summit (12) 76min GV	
20:00		알피니스트 - p. 88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 Alpinist - Confession of a Cameraman (G) 100min Cine Talk		
20:30				
21:00	김수철 & p. 132 크라잉넛 KIM Soo-chul & Crying Nut			
21:30				

숲산책 Forest Walk  
10:00, 15:00 벽천광장 Casade Zone

	별빛 야영장 Starlight Camping Zone	언양읍행정복지센터 Eonyang Service Center		선바위도서관 Seonbawi Library
	별빛 극장 Starlight Theater	언양 극장 1 Eonyang Theater 1	언양 극장 2 Eonyang Theater 2	선바위 극장 Seonbawi Theater
09:30				
10:00				
10:30		24 스노우 p. 113 24 Snow		
11:00		(15) 90min		추수의 계절 p. 84 Harvest Moon
11:30			초콜릿 데이 p. 101 The Day of Chocolate	(15) 70min
12:00			(12) 86min	
12:30				
13:00		록키 - 캐나다 단편 p. 85, 86 Rockies - CANADA Shorts		
13:30		(12) 73min		자오관으로 가는 길 p. 93 Crossing the Border -
14:00			타이키 p. 101 Taiki	Zhaoguan
14:30	레드불 단편 p. 79 Red Bull Shorts		(G) 86min	(G) 93min GV
15:00	(12) 106min			
15:30				
16:00		축제일 p. 111 The Big Day		자연에서 p. 130 이야기하다: 황선미
16:30		(G) 79min	봄을 짊어지고 p. 98 Climbing to Spring	Reading in Nature: HWANG
17:00	네 번째 단계 p. 78 The Fourth Phase		(G) 116min	Sun-mi
17:30	(12) 92min			
18:00				
18:30		산악영화 2 Mountain Films 2		
19:00	어쿠스틱 음악 공연 p. 133 Acoustic Music Performance	(G) 62min GV	어쿠스틱 음악 공연 p. 133 Acoustic Music Performance	저 멀리- p. 93 그들의 세계여행 이야기
19:30	임일진 특별전 1 p. 89 LIM Il-jin Films 1		프리 솔로 p. 56 Free Solo	FAR. The Story of a Journey
20:00	(G) 93min GV		(12) 100min	around the World
20:30				(12) 127min
21:00				
21:30				

**산악영화 2 Mountain Films 2**

<클라이밍 브로 *Brothers of Climbing*> p.58, <물의 사람들 (*People*) of Water> p.62, <스피드가 최고 *Up to Speed*> p.57, <클라이밍 픽처스 *Climbing Pictures*> p.58

# 9. 8. Sun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옴프 아고라 UMFF Agora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알프스 시네마3 Alps Cinema 3	알프스 시네마4 Alps Cinema 4	
09:30		강 그리고 장벽 p. 39 The River and the Wall (12) 110min GV	쿠르트 디베르거 특별상영 Kurt DIEMBERGER Films (12) 83min GV			
10:00	숲산책 p. 136 Forest Walk					
10:30						
11:00	북토크 유학재 p. 134 Book Talk YOO Hak-jae			파인 라인 p. 39 Fine Lines (G) 97min		
11:30						
12:00	마케팅 이벤트 Marketing Event		경쟁 4 p. 41 Competition Films 4 (G) 72min			
12:30		경쟁 5 p. 42 Competition Films 5 (12) 78min GV				
13:00		울주인 한마당 p. 133 Ulju IN Festival			홀리 투어 p. 60 Holy Tour (G) 70min GV	
13:30						
14:00						
14:30	시청자미디어 p. 135 프로그램 Community Media Program		경쟁 6 p. 43 Competition Films 6 (G) 71min GV			
15:00		경쟁 7 p. 44, 45 Competition Films 7 (G) 84min GV				
15:30						
16:00				밤빛 p. 45 Night Light (G) 108min GV		
16:3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로그램 ChildFund Program					
17:00			경쟁 8 p. 46 Competition Films 8 (15) 71min GV			
17:30		아라비아의 로렌스 p. 110 Lawrence of Arabia (12) 229min				
18:00						
18:30	무대인사 Stage Greetings					
19:00	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 p. 98 Goodbye, My Girlhood (G) 81min	*휴식시간 10분 포함 Including intermission for 10min.				
19:30			마운틴 라이프 단편 p. 80, 81 Mountain Life Shorts (15) 75min Cine Talk			
20:00						
20:30						
21:00						
21:30					키드 The Kid p. 94 (G) 60min	
22:00					진수영 p. 132 시네마 앙상블 CHIN Soo-young Cinema Ensemble	

숲산책 Forest Walk  
10:00, 15:00 벽천광장 Casade Zone

쿠르트 디베르거 특별상영 Kurt DIEMBERGER Films  
<수정산 Mountains of Crystal> p.54, <K2 - 꿈 그리고 운명 K2 - Mountain of Dreams and Destiny> p.52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별빛 야영장 Starlight Camping Zone	인양읍행정복지센터 Eonyang Service Center		선바위도서관 Seonbawi Library
	세미나실 Seminar Room	별빛 극장 Starlight Theater	인양 극장 1 Eonyang Theater 1	인양 극장 2 Eonyang Theater 2	선바위 극장 Seonbawi Theater
10:30			레퀴엠 p. 92 The Sweet Requiem (12) 91min		
11:00					경쟁 3 p. 40 Competition Films 3 (12) 84min
11:30				로카 라퀴 p. 97 Hang in There, Kids! (G) 90min	
12:00					
12:30					
13:00	포럼: 김창호, p. 129 히말라야의 방랑자		월로씨의 휴가 p. 110 Mr. Hulot's Holiday (G) 87min		
13:30	Forum: KIM Chang-ho, Himalayan Wanderer				피아노를 히말라야로 p. 32 Piano to Zanskar (G) 86min GV
14:00				어린이업사이클 p. 136 자동차극장 Kid's Boxcar Theater	
14:30		미션 투 스페이스 p. 78 Mission to the Edge of Space (12) 120min			
15:00				움프 p. 103, 104 투게더 2 UMFF Together 2 (G) 44min	
15:30					
16:00			산악영화 3 Mountain Films 3 (12) 69min GV	무대인사 Stage Greetings	타이키 p. 101 Taiki (G) 86min
16:30		무대인사 Stage Greetings		고래사냥 p. 92 Whale Hunting (12) 110min	
17:00		자오관으로 p. 93 가는 길 Crossing the Border - Zhaoguan (G) 93min			자연에서 p. 130 이야기하다: 서천석 Reading in Nature: SUH Cheon-seok
17:30					
18:00					
18:30			산악영화 4 Mountain Films 4 (12) 62min GV		
19:00		어쿠스틱 p. 133 음악 공연 Acoustic Music Performance		어쿠스틱 p. 133 음악 공연 Acoustic Music Performance	에릭과 에리카 p. 74 Erik & Erika (18) 88min
19:30		초콜릿 데이 p. 101 The Day of Chocolate (12) 86min		천상의 유목민 p. 100 Heavenly Nomadic (12) 81min	
20:00					
20:30					
21:00					

#### 산악영화 3 Mountain Films 3

<자유롭게 Free Flow> p.58, <반센트 199 Little Heroes: Vincent from Austria> p.69, <타카이나 Takayna> p.70,  
<시절인연: 지리산 Accidental Ties: on Jirisan> p.70

#### 산악영화 4 Mountain Films 4

<가자! 남극으로 Let's Go to Antarctica!> p.61, <오직 아내뿐 Just Anna> p.57, <아르티코 Artiko> p.63, <워킹 온 에어 Working on Air> p.65

# 9. 9. Mon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옴프 아고라 UMFF Agora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알프스 시네마3 Alps Cinema 3	알프스 시네마4 Alps Cinema 4	
09:30			옴프 p. 102, 103 투게더 1			
10:00	어린이 p. 136 업사이클 자동차극장 Kid's Boxcar Theater	빅토리아 p. 75 Victoria (15) 63min	UMFF Together 1 (G) 63min			
10:30				벽 p. 88 The Wall (G) 79min		
11:00	옴프 p. 103, 104 투게더 2 UMFF Together 2 (G) 44min					
11:30			경쟁 9 p. 47 Competition Films 9 (G) 81min			
12:00						
12:30		봄을 짚어지고 p. 98 Climbing to Spring (G) 116min				
13:00	옴프 p. 102, 103 투게더 1 UMFF Together 1 (G) 63min Live Dubbing			산악영화 5 Mountain Films 5 (12) 90min		
13:30						
14:00						
14:30	시청자미디어 p. 135 프로그램 Community Media Program		경쟁 10 p. 48, 49 Competition Films 10 (12) 85min			
15:00		랜드 스케이프 1 p. 114 Landscape 1 (12) 86min GV				
15:30						
16:00				임일진 p. 90 특별전 2 LIM Il-jin Films 2 (G) 97min		
16:30						
17:00	북토크 p. 134 정일근 Book Talk CHUNG Il-keun		경쟁 11 p. 49, 50 Competition Films 11 (G) 83min			
17:30		파인 라인 p. 39 Fine Lines (G) 97min				
18:00						
18:30						
19:00	온리 더 브레이브 p. 99 Only the Brave (12) 133min					
19:30			랜드 p. 115 스케이프 2 Landscape 2 (12) 89min GV			
20:00		울주멘터리 p. 122 UljuMentary (G) 49min GV				
20:30						
21:00					산악영화 6 Mountain Films 6 (12) 89min	
21:30						

### 산악영화 5 Mountain Films 5

<산이 준 선물 A Time to Remember> p.69, <킬리언 조넷: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 Kilian Jornet: Path to Everest> p.53

### 산악영화 6 Mountain Films 6

<왈마푸 Wallmapu> p.64, <절대 고요를 찾는 남데브 아저씨 Namdev Bhau in Search of Silence> p.67

# 9. 10. Tue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옴프 아고라 UMFF Agora	옴프 시네마 UMFF Cinema	알프스 시네마 1 Alps Cinema 1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알프스 시네마 3 Alps Cinema 3
09:30			옴프 p. 102, 103 투게더 1 UMFF Together 1 (G) 63min	
10:00	어린이업사이클 p. 136 자동차극장 Kid's Boxcar Theater	산악영화 7 Mountain Films 7 (G) 66min		
10:30				산악영화 1 Mountain Films 1 (G) 75min
11:00	옴프 p. 103, 104 투게더 2 UMFF Together 2 (G) 44min			
11:30			산악영화 8 Mountain Films 8 (12) 59min	
12:00				
12:30		유령 마을 p. 84 Ghost Town Anthology (15) 97min		
13:00	옴프 p. 102, 103 투게더 1 UMFF Together 1 (G) 63min <b>Live Dubbing</b>			산악영화 9 Mountain Films 9 (G) 71min
13:30				
14:00				
14:30	시청자미디어 p. 135 프로그램 Community Media Program	산악영화 10 Mountain Films 10 (G) 71min	위드 더 윈드 p. 100 With the Wind (18) 86min	
15:00				
15:30				
16:00				다비드 라마 특별상영 David LAMA Films (15) 109min
16:30				
17:0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로그램 ChildFund Program			
17:30				
18:00				
18:30				
19:00		폐막식 Closing Ceremony		
19:30				
20:00		허니랜드 p. 33 Honeyland (12) 85min <b>SG</b>		
20:30				
21:00		폐막공연: p. 131 타이거 JK, 윤미래, 비지 Closing Performanc: Tiger JK, Yoonmirae, Bizzy		
21:30				

**산악영화 7 Mountain Films 7** <드림라이드 3 DreamRide 3> p.62, <빅 월드 Big World> p.63, <낭가파르브의 꿈 Dream of Nanga> p.53, <크리스탈을 찾아서 The Mountain of the Crystal Diggers> p.54

**산악영화 8 Mountain Films 8** <여우 The Fox> p.70, <바얀달라이 - 타이가의 주인 Bayandalai - Lord of the Taiga> p.68, <그리즐리 세상 Grizzly Country> p.68, <산울타리 The Hedge> p.69

**산악영화 9 Mountain Films 9** <러브 오브 더 게임 For the Love of the Game> p.68, <니콜라스 뮐러의 동행 Where We Roam: Nicolas Müller> p.61, <블러치 Blutch> p.62

**산악영화 10 Mountain Films 10** <스키 형제단 Brotherhood of Skiing> p.63, <아이스 콜링 - 헌팅턴산 Mt. Huntington - Ice Calling> p.54, <챔피언 RJ RJ Ripper> p.65, <위대한 루카스 Lukas the Climber> p.57

**다비드 라마 특별상영 David LAMA Films** <우를 찾아서 The Search for the Wooo> p.64, <다비드 라마의 세로 토레 Cerro Torre - A Snowball's Chance in Hell> p.52

**10**  
Million

PLASTIC  
BOTTLES  
ARE IN THIS  
SEASON'S  
BAGS.



Black Hole® Duffel 55L

SHOP NOW AT [PATAGONIA.CO.KR](https://www.patagonia.co.kr)

**patagonia**®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Film & Closing Film

# 피아노를 히말라야로 Piano to Zanskar

UK | 2018 | 86min | Color | Documentary



09. 06 | 20:00 | UC | SG | Asian Premiere  
09. 08 | 13:30 | BT | GV

**Producer**

Jarek KOTOMSKI

**Cinematographer**

Michal SULIMA

**Editor**

Kevin PALMER,  
Agathe BARBIER,  
Michal SULIMA

**Music**

Ernst REIJSEGER,  
Daniel SONABEND

**Sound**

Simon BATCHELAR

**Main Cast**

Desmond O'KEEFFE,  
Anna RAY, Harald HAGEGARD,  
Kristina NADLER

평생을 런던에서 피아노 조율사로 일해온 65세의 데스먼드는 은퇴를 앞두고 길도 없는 히말라야의 작은 산골 마을인 잔스카의 학교로 피아노를 가져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데스먼드는 연금이나 받으며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나냐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피아노 운반과 재조립을 도와줄 조수이자 길동무인 20대의 애나와 해럴드와 함께 길을 나선다. 경사가 심한 산비탈로 피아노를 이고 지고 아슬아슬하게 내려가는 위험천만하고 고된 여정이지만,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아끼는 서로의 마음 덕분에 가는 내내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다. 본인이 가장 사랑하고 잘하는 것을 기꺼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뉘어 가지려는 사람, 그리고 이 선한 의지에 고생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동참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법처럼 펼쳐진다. (최선희)

Having worked as a piano tuner in London all his life, Desmond is now 65 and almost at retirement. He begins a journey to a school in Zanskar, a remote little mountain village in the Himalayas to deliver a piano. Those around him can't understand why he won't just take it easy cashing his pension checks, but unperturbed, Desmond treks on, taking 20 some year-old Anna and Harold as helpers and companions. Despite the perilously steep mountainsides they must travel while carrying a piano, there is no shortage of smiles as they care and show consideration for one another. Here is a magical journey of a person who wants to share what he loves the most with others, and his beautiful companions who want to take part in that goodwill despite hardships. (Billy CHOI)



**미하우 술리마**

미하우 술리마는 바르샤바 출생의 영화감독이자 촬영감독이다. 런던예술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한 후 영화감독으로 전향하고 예술과 광고계에서 수년간 일을 하였다. <피아노를 히말라야로>는 그의 독립영화 데뷔작으로 이 작품으로 장편 다큐멘터리의 세계에 입성했다.

**Michal SULIMA**

Michal Sulima is a Warsaw-born film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He graduated in photography from the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He took a turn towards film-making and spent several years working in art and advertising fields. *Piano to Zanskar* is his independent debut, marking an entrance into the feature-length and documentary territory.

# 허니랜드 Honeyland

Macedonia | 2019 | 85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20:00 | UC | SG

**Producer**

Atanas GEORGIEV

**Script**

Ljubomir STEFANOV,  
Tamara KOTEVSKA

**Cinematographer**

Fejmi DAUT, Samir LJUMA

**Editor**

Atanas GEORGIEV

**Music**

Foltin

**Sound**

Rana EID

**Main Cast**

Hatidze MURATOVA

마케도니아 외딴 산골 마을, 50세 즈음의 아티제는 강아지 채키와 고양이들, 그리고 팔순의 노모를 모시고 양봉을 하며 살아간다. 그녀에게 벌은,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동업자이면서 친구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와 일곱 아이들이 150마리의 소 떼를 끌고 옆집으로 이사 오면서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자본주의와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이웃의 등장은, 그들이 가진 욕심이 더 높은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으로 이어져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도 같이 모두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이 영화는 소박한 자연주의 삶과 물질 만능주의에 기반한 대량생산체제를 훌륭하게 극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은 2019년 선댄스영화제 월드 시네마 부문 다큐멘터리 대상을 수상 후 30여개 이상 영화제에 소개되었다. (이정진)

In an isolated mountain village in Macedonia, 50-some year old Hatidze lives with her dog Jackie, cats, and old mother. The honeybee are her friends and partners at work. When a couple and their 7 children move in next door with 150 cows, her life is turned upside down. The greed that tagged along the neighbors demands higher goals, more production, and more work, like a runaway engine that devastates everything in its path. The film is a brilliant satire of simple naturalism and materialistic mass production. This film was first premiered at the 2019 Sundance Film Festival, and received the World Cinema Grand Jury Prize: Documentary, and Best Documentary Award at the Doc Aviv & Doc Barcelona. (Jinna LEE)



**루보미르 스테파노프, 타마라 코테브스카**

1975년 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태어난 스테파노프는 환경 문제, 개발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커뮤니케이션 콘셉트의 개발과 제작에 종사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는 UN 에이전시, 유럽자연유산기금, 스위스컨택트와 같은 단체와 일을 해왔다. 코테브스카는 1993년 마케도니아 프리레프 출생이다. 스코페드라마예술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후 프리랜서 영화감독으로 5년째 활동 중이다.

**Ljubomir STEFANOV, Tamara KOTEVSKA**

Stefanov was born in 1975 in Skopje, Macedonia. He has been engaged in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communication concepts and documentaries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and human development for over 20 years. Kotevska was born in 1993 in Prilep, Macedonia. She graduated in film directing from the Faculty of Dramatic Arts Skopje. She worked as a freelance film director for five years.

# 국제경쟁

## International Competition

매년 출품 편수가 늘고 있는 국제경쟁 부문에 올해는 71개국에서 434편이 출품되었다. 전 세계에서 제작된 거의 모든 산악영화 신작들이 모였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434편 중에서 선정된 20개국의 31편이 알피니즘, 클라이밍, 모험과 탐험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라는 네 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상영된다.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에베레스트 초등을 다룬 <1953 에베레스트 등정>과 라인홀트 메스너가 본인의 최초 무산소 등반을 직접 연출한 <에베레스트 - 최후의 한 걸음>을 통해 에베레스트 등반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오르다: 여성의 외침>은 차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표현으로 산에 오르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용감한 모습을 보여준다. <크레이그 효과>, <꽂 잡아!>, <보이지 않는 물의 무게>에서는 신체적 장애에 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클라이밍과 모험을 즐기는 진정한 모험가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홀로세>는 울주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일본에서 제작한 정통 산악 스키 영화이며,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국내 산악영화 제작 지원 프로젝트 '울주서밋'의 지원작인 한국 단편영화 <밤빛>의 새로운 장편 버전을 국제경쟁 부문에서 상영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Every year, the number of entries increase in the competition section, and this year, a total of 434 films were submitted from 71 countries.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almost all newly made mountain films from around the globe were entered. Of the 434 entries, 31 films from 20 countries were selected and will be screened under four categories: Alpinism, Climbing, Adventure & Exploration, and Nature & People.

The history of climbing Mt. Everest can be seen in *The Ascent of Everest*, which deals with the first summit of Mount Everest in 1953 and in *Mount Everest - The Last Step* a film directed by Reinhold Messner himself during his climb without supplemental oxygen, a feat thought to be impossible at the time. *Ascending Afghanistan: Women Rising* shows the courageous women who climb in defiance against discrimination. *Craig's Reaction, Hold Fast, and Weight of Water* are films about true adventurers who are passionate about climbing and kayaking despite physical disabilities. *Holocene* is screened for the first time in Ulju, and is a film about traditional mountain skiing produced in Japan. Another very meaningful screening is that of the feature-length version of *Night Light*, which was a Korean short film created with the support of the 'Ulju Summit' project, which supports the production of Korean mountain films.

## 영혼의 산 마나슬루 Manaslu - Mountain of the Spirit

Austria | 2018 | 101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2:00 | AC 2 | GV



### 제럴드 살미나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전문 서퍼로 활동했다. 돈을 벌기 위해 태평양 바다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감독과 프로듀서의 일을 스스로 배웠다. 1996년부터 아내와 함께 플래닛 워치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자연 속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영상에 담고 있으며 이 모든 놀라운 광경을 카메라에 포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

### Gerald SALMINA

Salmina was a windsurf pro from 1989 to 1994. While he was gaining experience, he was driven to capture the beauty of the Pacific Ocean to make money to survive. Since 1996 he has been running Planet Watch Film Productions with his wife, Ruth. Their aim is to document the athletes playing with mother nature and feel privileged to record all these amazing features on camera.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담아냈다는 만다라는 가장 완벽한 균형과 정형을 이루지만 티베트 승려들은 그 완성의 순간 손바닥으로 쓸어버리며 결국 이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였음을 이야기한다. 8,000m 14개를 오르는 일은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다. 하지만 그중 13개를 오르고 나머지 하나, 마나슬루는 절대 오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다. 한스 캄머란더. 한때 메스너의 파트너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가 마나슬루의 번쩍이는 섬광 속에 본 것은, 그리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영준)

The Mantra, which conveys the realm of Buddhist enlightenment, may represent the perfect balance and standard, yet Tibetan monks brush off such moments of completion, calling them fictions created by the heart. For any mountaineer, climbing 14 eight-thousanders is a goal to achieve at least once in a lifetime. Nevertheless, there is one man who has declared never to ascend Manaslu after managing to climb 13 peaks. He is Hans Kammerlander, the one-time partner of Reinhold Messner who earned worldwide attention and stardom. What could he have witnessed through the flashing lights of Manaslu that led him to enlightenment? (LEE Young-jun)

## 아가 Ága

Bulgaria | 2018 | 96min | Color | Fiction



09. 07 | 12:30 | AC 1 | GV | Korean Premiere



### 밀코 라자로브

1967년 출생 불가리아의 영화감독. 불가리아, 소피아의 국립연극영화아카데미를 졸업했고 그곳에서 영화과의 강사로 재직했다. 그의 데뷔작 <소외>는 제70회 베니스영화제의 '베니스의 날들'이라는 부문에 공식 선정되어 상영되었고 수상도 하였다.

### Milko LAZAROV

Milko Lazarov is a Bulgarian film director born in 1967. He graduated from the National Academy for Theatre and Film Arts (NATFA) in Sofia, Bulgaria, and he was a lecturer in NATFA's film department. His feature debut *Alienation* premiered and was awarded at Venice 70' in the official selection of Venice Days.

100여 년 전, 로버트 플래허티의 <북극의 나누크>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누이트족의 고달픈 삶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그로부터 백 년도 더 지난 지금, 영화 <아가>는 다시 한번 지구상의 마지막 위대한 사냥꾼인 나누크 가족을 다룬다.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영화의 제목은 아버지 '나누크'가 아닌 딸 '아가'이다. 순록을 숭배하며 살아온 부모와 달리, 아가는 광산 노동자가 되어 있다. 죽어가는 아내의 꿈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북극의 운명에 대한 예지몽이자, 그들이 더 이상 자식들과 같은 세계에 속할 수 없게 된 서글픈 현실에 대한 계시몽이다. (맹수진)

A hundred years ago, Robert Flaherty's *Nanook of the North* captured on camera the harsh living conditions of the Inuit. A hundred years later, the film *Ága* again talks about the last great hunter in a Nanook family. In a significant twist, the title is not taken after the father 'Nanook', but his daughter 'Ága'. Unlike her parents who have worshipped the reindeer, Ága became a miner. The dying wife's dream is a prophetic dream about the fate of the tribe, which has already become the past. It is also a revelation about the sad reality that no longer allows them to be in the same world with their children. (MAENG Soo-jin)

## 100마일을 완주하는 방법 How to Run 100 Miles

USA | 2018 | 29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3:30 | AC 3



### 브랜든 레오나드, 에이단 할리, 힐러리 올리버

브랜든은 세미-라드닷컴의 크리에이터이자, 작가, 영화감독이다. <Chocolate Spokes>, <사막의 에이스> 등 그의 작품은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에이단은 프로듀서, 감독, 편집자로서 파타고니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REI와 일을 하고 있다. 힐러리는 작가 겸 감독으로 그녀의 단편 <Being Here>은 2016년 5포인트 영화제에서 피플스 초이스상을 받았다.

### Brendan LEONARD, Aidan HALEY, Hilary OLIVER

Brendan is the creator of Semi-Rad.com, an author, and filmmaker. He directed and produced several award-winning films like *Chocolate Spokes*, *Ace and the Desert Dog*. Aidan produces, directs and edits films for Patagonia, National Geographic, REI etc. Hilary is a writer and director. Her short film, *Being Here* won the People's Choice Award at the 2016 5Point Film Festival.

제이슨 사임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하고 혼자된 어머니 아래 가난, 난독증, 왕따 등 시련과 아픔을 안고 자랐다. 그는 거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노력 끝에 정치 조직원으로, 나아가 동기부여 연설자로도 거듭났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50~70마일의 거리를 달리며 배고픔, 폭식, 갈증, 탈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두려움, 후회, 슬픔, 기쁨 같은 감정을 통과했다. 그리고 2017년 9월, 생애 처음 100마일을 달리기 위해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런 래빗 런 100'의 출발선에 섰다. (장보영)

Jayson Sime had to live through the pain and hardships of poverty, dyslexia and being treated as an outcast. He was forced to learn how to deal with the harsh world and protect himself. He worked hard and finally became involved in politics and eventually, a motivational speaker. But he never stopped there and continued to run. Through the repeated course of running 50 – 70 miles, enduring hunger, bingeing, thirst and exhaustion, he experienced various emotions including fear, regret, sadness and happiness. And on September 2017, he stood at the starting line of the Colorado 'Run Rabbit Run 100' race to run the entire 100 miles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JANG Bo-young)

## 핀 팜 포우 Pin Pam Pou

Peru, Spain | 2018 | 46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3:30 | AC 3 | GV | Asian Premiere



### 리나 슈츠, 루이스 리조

리나 슈츠는 프로듀서, 감독, 촬영감독, 편집자이다.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50편 이상의 뮤직비디오를 만든 후, 전문 독립영화 감독이 되었다. 루이스 리조는 프로듀서, 사진가, 스토리텔러이다. 예술가로서 그는 등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직업적 경험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마요르카섬에서 발견하였다.

### Lina SCHÜTZE, Luis RIZO

Lina Schütze is a producer, director, of photography & editor. After working as a creative director producing over 50 music videos, she became a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filmmaker. Luis Rizo is a producer, photographer, storyteller. As an artist, he finally finds his perfect location in Mallorca, where he can apply all his professional experiences and passion for climbing.

스페인 바스크 출신의 포우 형제는 정상급 수준의 등반가들로 쉬지 않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거벽 신루트를 개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도전은 페루의 아마존 정글에 위치한 200m 높이의 폭포 암벽과 안데스의 850m의 거벽이다. 천하 막강의 포우 형제도 지금까지 해 본 등반 중 가장 악조건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페루에서의 등반 환경은 까다롭다. 하지만 늘 그랬듯 포우 형제는 불평 한마디 없이 웃으며 동료들을 챙기고 과정을 즐기며 등반에 임한다. 전염성 강한 포우 형제의 해피 바이러스가 물씬 느껴지는 유쾌한 영화. (최선희)

Top-class climbers the Pou brothers from Basque, Spain are famous for opening new big wall routes all over the world. This time it's the Peruvian Amazon jungle 200m and the Andes 850m. Named as the most challenging by the Pou brothers themselves, the Peruvian route offers the most difficult climbing conditions. Nevertheless, the Pous smile as they climb, looking after their teammates and enjoying the experience. This is a delightful film that spreads the contagious happiness of the Pou brothers. (Billy CHOI)

## 보이지 않는 물의 무게 The Weight of Water

USA | 2018 | 79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5:00 | AC 1 | GV | Korean Premiere



### 마이클 브라운

마이클 브라운은 뛰어난 어드벤처 선수이자 영화감독이다. 그의 취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에 도전하는 것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도 다섯 번이나 올랐다. 모험의 끝에는 항상 놀라운 도전기와 영상이 있었으며 그 결과 그는 감독 및 촬영 감독으로서 다수의 에미상, 인더스트리상, 그리고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 Michael BROWN

Michael Brown has excelled as both an adventure athlete and as a filmmaker. Michael has made a habit of going to the world's most dangerous environments, including five times to the summit of Mount Everest, and always comes back with incredible footage and compelling stories. He is a multiple Emmy Award, industry award and festival award-winning cinematographer and director.

2001년 시각 장애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눈먼 탐험가 에릭 웨이헨메이어가 새로운 형태의 모험에 도전했다. 바로 솔로 카약을 타고 팀원들과 함께 21일 동안 그랜드 캐니언 콜로라도 협곡을 중단한 것. 회오리치며 하얗게 부서지는 용암 폭포를 몇 차례나 향해해야 하는 그랜드 캐니언에서 솔로 카약을 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눈이 안보이는 경우는 더더욱. 예기치 않게 움직이는 물 위를 가로지르며 에릭은 상실과 공포와 불안에 직면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물의 무게를 온전하게 느끼며 최고의 팀워크로 결국 승리한다. (장보영)

Erik Weihenmayer, the first blind person to reach the summit of Mt. Everest in 2001, attempted a new kind of challenge: Solo-kayaking through the Grand Canyon Colorado Gorge for 21 days with his teammate. Kayaking through the gorge, notorious for its numerous and formidable whitewater lavacascades is more than demanding, especially for someone with a visual disability. As he paddles through the unpredictable currents, Erik faces a sense of defenselessness, fear and anxiety, but eventually ends up feeling the weight of water in its entirety and succeeds in accomplishing his mission with the best teamwork possible. (JANG Bo-young)

## 퀸모드랜드 Queen Maud Land

USA | 2018 | 28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6:00 | AC 3



### 테일러 키팅, 시더 라이트

라이트는 노스페이스의 프로 등반가면서 모험과 스토리텔링에 사랑에 빠졌고, 키팅은 수입이 전혀 없는 등반가다. 두 모험가들은 주 5시간 근무시간과 열정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시더라이트프로덕션을 창립하였다.

### Taylor KEATING, Cedar W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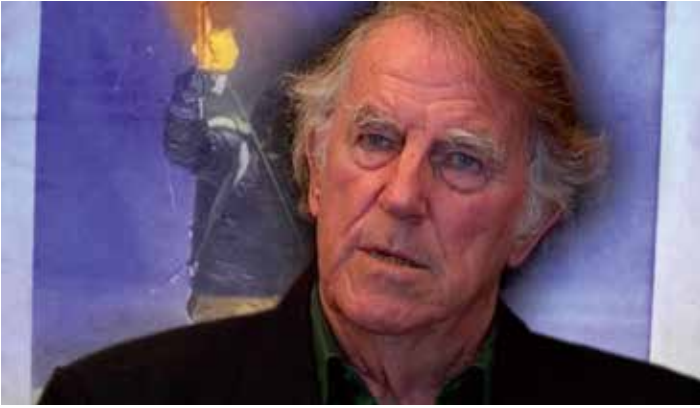
Wright is a longtime professional climber for The North Face and has married his love for adventure and storytelling. Keating is also a climber but makes a grand total of \$0 doing so. Together they make up Cedar Wright Productions, a production house dedicated to the 5 hour work week and passion projects.

2017년 12월, 미국 노스페이스 소속의 등반가 6명(지미 친, 콘래드 앵커, 사반나 커민스, 안나 파프, 알렉스 호놀드, 시더 라이트)은 남극 퀸모드랜드 지역으로 탐험을 나선다. 그들의 목표는 뾰족뾰족한 암봉으로 이루어진 '늑대의 턱' 산군에서 가능한 한 많은 봉우리를 등정하는 것으로, 두 명씩 짝을 이루어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등반을 이어간다. 그중 호놀드와 라이트 조는 무려 13개의 암봉에 새로운 루트를 개척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겁 없는 사나이'로 불리는 호놀드는 등반 중 연신 "지금까지의 등반 중 가장 두렵다"고 말한다! (곽정혜)

On December 2017, 6 North Face-sponsored climbers (Jimmy Chin, Conrad Anker, Savannah Cummins, Anna Pfaff, Alex Honnold and Cedar Wright) set off on an expedition to the Antarctic Queen Maud Land. Their goal was to climb as many peaks on the Wolf's Jaw group of mountains - famed for its perilous mountains protruding from the ice cap - by creating smaller 2-3 person teams who had to endure the deadly cold as they continued their journey. Especially the Honnold and Wright team paved 13 new routes which Honnold, recognized as the 'world's most fearless man', constantly exclaimed as "the scariest I have ever led!" (GWAK Jeong-hye)

## 1953 에베레스트 등정 The Ascent of Everest

UK | 2019 | 57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6:00 | AC 3 | GV | Asian Premiere



### 안토넬로 파도바노

극영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시리즈를 제작자이다. 전 세계 27개 나라의 텔레비전에 방영된 39개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후 자신의 제작사 Hands That Should Be Farming Productions과 티양보체 제작사를 설립하였다. 35밀리 장편 영화 <The Four Doors of the Desert>의 감독 및 프로듀서이며 현재 이탈리아 공영 방송 RAI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

### Antonello PADOVANO

Film & documentary director and series producer. Before founding Hands That Should Be Farming Productions, and Thyangboche productions, he directed 39 documentaries for worldwide television in 27 countries. Recently completed a Cambodia Angkor Wat film. Produced and directed 35mm feature-length film *The Four Doors of the Desert*. Frequent Producer & Director for RAI Television Italy.

제3의 극지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정상. 1953년 5월 29일 인류 최초로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가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른다. 영국이 초동을 이루기까지의 도전했던 역사와 산악인들의 희생. 귀한 그 당시 영상과 함께, 생전의 에드먼드 힐러리가 직접 내레이션으로 그 등반 과정을 상세히 들려준다. 힐러리는 고용인이 아닌 동등한 등반 파트너로서 네팔인 텐징 노르가이를 평가한다. 그리고 왜 자신이 에베레스트를 올랐는지 철학적 배경을 분명히 들려준다. (신영철)

Everest summit is also known as the Third Pole. On May 29th, 1953, Edmund Hillary and Tenzing Norgay were the first to reach Mt. Everest summit. Valuable archival footage and a first-hand voice-over from Hillary give detailed accounts of his climbing endeavors and introduce England's history of challenge and sacrifice made by mountaineers until the first British ascent. He also comments on his Nepalese Tenzing Norgay, not as an employer but an equal climbing partner and state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n why he ventured up Mt. Everest. (SHIN Young-chul)

## 디스 마운틴 라이프 This Mountain Life

Canada | 2018 | 78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7:30 | AC 1 | GV



### 그랜트 볼드윈

캐나다 밴쿠버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촬영감독, 편집자, 작곡가이다. <더 클린 빈 프로젝트>와 <먹을래? 먹을래?>를 만들었다. 볼드윈은 <Search and Rescue> 시리즈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 BBC의 '살아있는 지구'를 촬영하고 있다.

### Grant BALDWIN

Grant is a director, cinematographer, editor, music composer based in Vancouver who directed *The Clean Bin Project* and *Just Eat It: A Food Waste Story*. Grant is in production on a series on *Search and Rescue* and has also been filming with BBC's *Planet Earth* team.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산악 지대를 무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마르티나와 그녀의 60세 어머니 타니아는 밴쿠버에서 알래스카까지 이어지는 2,300km의 해안 산맥을 여성 듀오 최초로 6개월 동안 스키 등반한다. 한 커플은 50년 동안 산속에서 살아가고, 한 무리의 수녀는 산에서의 수련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 체험을 한다. 눈사태를 목도하는 사진가, 눈을 소재로 공고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예술가. 이들이 삶으로 전하는 숭고의 메시지는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장보영)

This is a tale of people who live in the mountains of British Columbia, Canada. Female duo team Martina and her 60-year old mother Tania spend six months sky hiking 2,300km through the Vancouver to Alaska coast mountains. One couple spends 50 years in the mountains, while a group of nuns experience a more intense spiritual connection with God as they go through mountain training. A photographer who witnesses an avalanche, an artist who creates art inspired by snow. The noble messages they convey through their lives can inspire all of us who live in this day and age of civilization. (JANG Bo-young)



## 강 그리고 장벽 The River and the Wall

USA | 2019 | 110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09:30 | AC 1 | GV



### 벤 마스터스

텍사스에서 자라났고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야생 생물학을 공부했다. 그의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인 <언브랜디드>는 무스탕 16마리를 입양하고 훈련해서 멕시코부터 캐나다까지 4,828km를 타고 가는 걸 담은 영화이다. 그는 책을 출간한 작가, 사진가, 그리고 영화감독이다.

### Ben MASTERS

Ben Masters grew up in west Texas, studied Wildlife Biology at Texas A&M University, and is best known for *Unbranded*, a feature documentary in which he adopted 16 wild mustangs, trained them, and rode 3,000 miles from Mexico to Canada. He is a published author, photographer and filmmaker.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에 있는 리오 그란데 강을 따라 감독과 네 명의 친구들이 12,000마일의 여행을 시작한다. 트럼프 시대에 국경 장벽 건설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이 장벽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5명의 일행은 자전거와 무스탕, 카누를 타고 국경을 여행한다. 카메라가 잡아내는 아름다운 풍경 위로 세심하게 준비된 정치적인 질문이 삽입된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에 과연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장벽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가? 장벽의 건설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가? (맹수진)

The filmmaker and four friends set out on a 12,000-mile journey along the U.S.-Mexico border and the Rio Grande. As the border wall construction has become a real issue in the Trump era, the wall's impact on the eco-system has become an unavoidable question for environmentalists. The group of 5 travels through the border on bike, Mustang and canoe. Carefully prepared political questions are raised against a backdrop of breathtaking scenery captured on camera. Is it possible to build a human-made wall across this beautiful and great nature? Can problems be solved with a wall? (MAENG Soo-jin)

## 파인 라인 Fine Lines

UAE, Hong Kong | 2018 | 97min | Color, B&W | Documentary



09. 08 | 11:00 | AC 3 | Korean Premiere  
09. 09 | 17:30 | AC 1



### 디나 크레이노

디나 크레이노는 국경과 인종, 그리고 계급을 초월하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녀는 사람을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며 그녀가 다루지 않았으면 소외되었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등산가는 아니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갖추고 삶에 대한 존중과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등산가들에게 이끌려 그들에 관한 영화를 찍고 있다.

### Dina KHREINO

Dina Khreino's focus is on stories that transcend border, race, and class. Her mixed cultural background gave her unique access to understand people and highlight narratives, which would otherwise be marginalized. Not a climber herself, Dina was drawn to the people of the mountain because of their iron will, and their universal respect for life paired with uncommon bravery.

목숨을 걸고서라도 미지의 장소에 존재하는 높은 산과 벽을 기어오 올라가 봐야 하는 게 본능인 사람들이 있다. 굳이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한 등반가들이 그들이다. 라인홀트 메스너, 콘라드 앵커, 다비드 라마, 토미 칼드웰, 아담 온드라, 린 힐 등. 생존하는 최고의 등반가들을 모두 망라한 인터뷰만으로도 볼만하고 값진 다큐멘터리이다. 하지만 영화는 전설적 등반가들의 형식적인 답변 모음이 아닌 그들의 마음 속에서 깊게 우러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끊임없이 자신을 탐험할 하며 등반을 통해 인생을 배우다는 그들의 대답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최선희)

Some people are inclined to risk their lives, climbing towering mountains and walls in unknown places. They are mountaineers who go out of their way, seeking more challenging paths such as Reinhold Messner, Conrad Anker, David Lama, Tommy Caldwell, Adam Ondra and Lynn Hill. The extensive selection of the best existing climbers itself makes this documentary more than worth watching. It isn't just a typical collection of Q&As from legendary mountaineers, but truthful accounts from the heart. It is moving to hear their testimonies about how they have learned to live through climbing. (Billy CHO)

## 전조 Auspice

Spain, Italy | 2019 | 14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1:00 | BT | International Premiere



### 엘레나 고아텔리, 앙헬 에스테반

스페인 출신의 앙헬 에스테반과 이탈리아 출신의 엘레나 고아텔리는 현재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2012년 KOTTOMfilms를 설립한 이후 공동으로 작업해오고 있다. 공동 연출한 <자취자를 위한 1분>(2013)은 국내에서도 개봉되었으며, 영국의 신약인 톨 발라드에 대한 다큐인 <톨>(2015)은 1회 올주세계산악영화제를 비롯해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 Elena GOATELLI, Angel ESTEBAN

Elena Goatelli and Angel Esteban founded KOTTOMfilms in 2012. Since then they never stopped exploring new narratives and subjects, moved by a deep sense of curiosity and need of expression. Among their filmography: *One minute for conductors*, world premiere at Idfa in 2013 and *TOM*, the film about the British alpinist Tom Ballard, winner of more than ten international awards.

예로부터 선조들은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앞일을 내다보는 새짐을 쳤다고 한다. 이탈리아 돌로미티 산 종택에서 철새의 이동을 관찰하는 조류학자는 철새들의 이동 시기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밝힌다. 기후변화로 인해 먹잇감이 벌레가 많아지는 시기가 바뀌었고 새들도 이에 적응하기 위해 이동 시기를 변화시킨 것이다. 조류학자는 미물인 벌레와 새도 이미 기후변화에 맞춰 변화했는데, 인간은 왜 여전히 개발과 파괴를 멈추지 않고 자신을 멸종시킬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나며 일침을 가한다. 날카로운 주제를 신비하고 아름답게 담아낸 완성도 높은 단편. (최선희)

Since the old times, people have been predicting the future by looking at birds flying. An ornithologist observing migratory routes of birds from the Dolomites in Italy reveals that the migratory period of birds has changed. This is because the birds have readjusted their calendars to the climate change-induced timetable shift in their food source, insects. The ornithologist critiques humanity's endless development and destruction that will only lead to catastrophe when even insects and birds have already adapted to climate change. This superb short presents a marvellously beautiful take on a critical subject. (Billy CHOI)

## 북극의 여왕 Queen without Land

Norway | 2018 | 70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1:00 | BT | Korean Premiere



### 아스겔 헬게스타

아스겔 헬게스타는 1991년 엔지니어로 직업 교육을 마쳤지만, 야생의 부름을 선택했다. 6장의 사진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하고 BBC의 야생 사진가로 발탁되어 활동하였다. 2002년 단편 다큐멘터리 <야생 사슴>을 만들고 이 영화는 와일드스크린영화제에서 BBC 신인상을 받았다. 뒤이어 2005년 그의 또 다른 수상작이자 데뷔작인 <야생을 동경하는 소년>을 연출했다.

### Asgeir HELGESTAD

Asgeir Helgestad completed his education as an engineer in 1991 but chose the call of the wild. After working as a BBC Wildlife photographer, he made a short documentary called *Wild Reindeer* (2002) which won the prestigious BBC Newcomer Award at the Wildscreen Film Festival. He followed his debut with another award-winning film, *The Boy Who Adored the Wilderness*, in 2005.

얼음이 녹아 살 땅을 잃은 북극곰은 기후변화를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되었다. 야생 사진가 아스겔 헬게스타는 '땅을 잃은 여왕' 프로스트와 그 새끼들을 쫓으면서, 더 이상 얼지 않는 바다가 북극곰의 생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생하게 담는다. 집안의 온도를 사시사철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기후 위기를 외면하기 쉬운 인간과 달리 야생동물에게 기후변화는 임박한 실질적 위협이다. 먹이사슬의 터전을 제공하는 온화한 여름과 눈보라 치는 어두운 겨울의 순환에 균열이 일어나고, 북극곰은 점점 살 땅을 잃어간다. 이들이 얼음 위를 걷는 모습을 보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감독의 우려가 생생히 다가온다. (서도은)

The polar bear has lost its home when the ice began melting and has since become a mascot representing climate change. Wildlife photographer Asgeir Helgestad follows Frost, the 'Queen without Land', and her cubs to capture on camera vivid images of what the no longer freezing ocean is doing to the polar bear. Unlike people who can control home temperature at will and ignore the climate crisis, wild animals are truly threatened by the climate change. With the crack on the cycle of seasons that provide the conditions for the food chain, the polar bear continues to lose ground. The director's concern that we may be the last generation to see polar bear walking on ice is vividly screened. (SEO Do-eun)

## 숨 Breath

Mexico | 2018 | 18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2:00 | AC 2 | Asian Premiere



### 울리세스 피에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십 년 이상 활동해오고 있다. 그는 우리를 규정하는 인간 신체의 형태와 가능성, 그리고 환경과 인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현재 하는 일을 도식적으로 구분해본다면 영상 작품을 만드는 것과 암벽 등반이다.

### Ulises FIERRO

Fierro is a filmmaker who has been focused on the documentary genre for more than ten years; interested in creatively exploring what defines us, the human body - its form and possibilities - as well as our conflicting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His current work could be divided into two: audiovisual creation and rock climbing.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은 없지만, 특히 등반, 그중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에 있어 호흡은 매우 중요하다. 근육의 긴장과 이완, 그리고 추락의 공포로부터의 마인드 컨트롤은 기본이 '호흡'이다. 주인공 마르가리타 카르도소는 멕시코시티 인근 암벽의 5.13d 급 고난도 루트 '끼엔 뽀뽀?'를 시도하고 있다. 반복되는 추락 속에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영화는 카르도소의 호흡과 표정의 변화에 주목한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퍼붓는 소나기를 지나 다시 암벽을 찾은 주인공, 결국 여성 최초로 등반에 성공한 그녀가 짓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이영준)

No life form can live without breathing, but when it comes to climbing, especially sport climbing, it's crucial. The basics of tension and relaxation, and performing mind control in the face of fear of falling is all about 'breathing'. The film's protagonist Margarita Cardoso is attempting the high-level 5.13d rock climbing route 'Quién pompó?' in Mexico City. Her breathing becomes coarser with repeated falls. The film focuses on the changes in Cardoso's breathing and expression. After the dark clouds gather and a rain shower passes through, she's back at it again and becomes the first female climber to succeed. Her expression when she reaches her goal is priceless. (LEE Young-jun)

## 딱 잡아! Hold Fast

USA | 2017 | 55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2:00 | AC 2 | Asian Premiere



### 짐 에이크만

미시간 대학에서 영화와 영문학을 전공했다. 다수의 상을 받은 영화 및 광고 감독으로 오레곤의 포틀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노스페이스, REI와 일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영화를 찍었고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다섯 편, 극 영화 한 편, 단편 다큐멘터리 수십 편과 광고 캠페인을 만들었다.

### Jim AIKMAN

Aikman studied Film and English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He is an award-winning filmmaker and commercial director living in Portland, Oregon. His work has taken him around the world, creating content for brands like National Geographic, The North Face and REI. He directed five documentaries, one feature film, and dozens of short documentaries and commercial campaigns.

콘라드 앵커는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등반가로 손꼽힌다. 요세미티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등반인생은 히말라야, 파타고니아 등 세계 각지의 산악지대에서 고난이도의 루트들을 섭렵함으로써 명성을 다져왔다. 그러나 2016년 다비드 라마와 함께 네팔의 미답봉인 루낙 리(6,907m)를 등반하던 중 극심한 심장 통증이 찾아오며 위기감을 느낀다. 그 무렵 만난 알렉스 윌드먼은 오랜 기간 투병해오던 심장암을 이겨낸 인물. 등반 초보자인 알렉스와 의기투합하여 요세미티 엘케피탈을 오르면서, 그는 삶의 가치와 클라이밍의 즐거움을 되새긴다. (곽정혜)

Conrad Anker is considered the most influential mountaineer in the U.S. His mountain climbing career which began in Yosemite escalated into fame as he conquered highly-challenging world mountain routes including the likes of the Himalayas and Patagonia. However, in 2016, during his journey with David Lama to Nepal's untrodden peak, Lunag Ri(6,907m), he experienced a life-threatening situation when he was hit with extreme pain in his chest and suffered a heart attack. It was while he was recovering from heart surgery that Anker met Alex Wildman. He joined forces with mountain climbing rookie Alex to venture up Yosemite's El Capitan, an experience which led Anker to reflect upon the value of life and the joy of climbing. (GWAK Jeong-hye)

## 아이티의 울림 Anba, in the Depths of Haiti

France | 2018 | 25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2:30 | AC 1



### 블라디미르 셀리에

물리학과 음악을 공부한 후, 그는 극장에서 세트 디자이너와 사운드 기술자로 근무했다. 산악인이자 촬영감독인 줄리엔 나디라스를 만난 후, 그는 진로를 수정하고 영상제작사인 바라카 필름에 취직했다. 작품으로는 <플라잉 프렌치 밴드>(2014), <The Mont Rebei Project>(2015), <Petzl roctrip Argentina>(2013), <Petzl roctrip China>(2009) 등이 있다.

### Vladimir CELLIER

After having studied physics and attended the conservatoire, he began work in the theatre as a set designer and sound technician. His meeting with Julien Nadiras, a climber and cameraman, convinced him to found BarakaFilms, an audiovisual production company. His main works include: *Metronomic* (2014), *The Mont Rebei Project* (2015), *Petzl roctrip Argentina* (2013), *Petzl roctrip China* (2009).

작열하는 태양 아래 푸른 바다와 아자수를 배경으로 전통 악기로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는 아이티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다. 그리고 프랑스인 동굴 탐험가의 지휘 아래 동굴 탐험 가이드 양성 프로젝트에 참가한 아이티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동굴 속을 누빈다. 영화는 아이티의 신비로운 동굴 탐험이란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은 나라 전체를 초토화할 정도의 강력한 허리케인이 닥쳤던 힘든 상황조차 밝고 빠른 템포의 노래로 만들어 부울 수 있는 삶의 여유와 지혜를 갖춘 아이티의 강한 민족성과 풍요로운 문화에 닿아있다. (최선희)

It is peaceful to see the Haitian people who play upbeat music with traditional instruments, surrounded by the blue sea and palm trees in the scorching sun. Also, there are Haitian youths passionately crisscrossing a cave. They participate in a project to train guides for cave explora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a French cave explorer. The film looks at the expedition of a mysterious cave and reveals the strong ethnicity and rich culture of Haiti, where the people have composed minds and the wisdom of life. The film shows people overcoming a devastating situation caused by a powerful hurricane with lilting and fast tempo music. (Billy CHOI)

## 하늘을 타는 서퍼 Surf the Line

France | 2017 | 53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2:30 | AC 1 | GV | Asian Premiere



### 제레미 프레이

제레미 프레이는 영화감독이자 촬영감독, 그리고 디지털 메이커이다. 그의 영화 <7 days in Kigali>은 제네바, 외가두구, 파리에서 수상하였고 촬영 감독으로는 안 아르투스 베르트랑의 장편 영화 <Human>과 <Woman>에 참여했다. 안과 함께 마다가스카르의 삼림 벌채와 인도의 바이오 가스, 아프리카의 농업 생태학에 관한 짧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다.

### Jeremy FREY

Jeremy Frey is a film director, director of photography as well as a digital maker. He directed *Seven Days in Kigali*, which was awarded in Geneva, Ouagadougou, Paris. Also, he worked on Yann Arthus-Bertrand's two films, *Human* and *Woman* as a director of photography. With Yann, he directed shorts programs about deforestation in Madagascar, biogas in India, agroecology in Africa.

600m 산 정상에 서퍼가 있다면? 파도가 아닌 시속 75km/h의 바람을 가르다면? 상상 속 익스트림 아웃도어를 신나고 자유롭게 상공 위에서 실현하는 플라잉 프렌치스가 또 한 번의 아찔한 모험에 성공했다. 바로 Surfing the Line! '서핑'과 '집라인', 그리고 '스카이다이빙'을 합친 도전으로, 이들은 집라인에 연결한 서프보드를 타고 1,000m의 하이 라인을 활주하다가 공중에서 베이스 점프한다. 이 서핑 아이디어는 2016년 추락사한 팀 리더 탄 클레드가 선사했고, 팀원들은 2년 후 현실로 이뤄냈다. (장보영)

What if there are surfers on the top of a 600m mountain, who break through 75km/h winds instead of waves? The Flying Frenchies, who are known for their extreme outdoor activities in the air, have once again succeeded at another daring adventure. This so-called 'Surfing the Line!' is a challenge that combines surfing, zipline and skydiving where team members ride surfboards connected to a zipline to glide through a 1,000m high line until they base jump in the air. This surfing idea was first proposed by team leader Tancrede who fell to his death in 2016 and was made into reality by his teammates two years later. (JANG Bo-young)

## 온두라의 시대 Age of Ondra

USA | 2018 | 47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4:30 | AC 2



### 조시 로웰, 재커리 바, 피터 모티머

조시 로웰 1997년부터 획기적인 산악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재커리 바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그린 <하이텐션>으로 다수의 작품상을 수상했고, 콜로라도 공영 라디오 방송을 제작했다. 피터 모티머는 1999년 암벽등반 영상제작 프로젝트로 시작된 센터필름스의 창립자다.

### Josh LOWELL, Zachary BARR, Peter MORTIMER

Josh Lowell has produced groundbreaking climbing films since 1997. Zac began his career here with a trip to Mt. Everest that resulted in the multiple-award winning film *High Tension*. Peter Mortimer is the founder of Sender Films, which he started as a do-it-yourself rock climbing video production project in 1999.

스포츠클라이밍은 아담 온두라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올해 26세의 체코 출신 클라이머 아담 온두라는 6살 때 암벽등반을 시작해 청소년 클라이밍 선수로 활동하여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대회를 휩쓸었다. 13살에 이미 남들이 평생 동안 훈련해도 오르기 힘든 5.14d 급 루트를 등반했으며 급기야 2017년 노르웨이의 '사일런스' 루트를 오르며 5.15d라는 상상하기 힘든 세계를 열었다. 온두라의 시대, 2020년 도쿄 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종목 첫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그에게 세계 클라이머들의 눈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이영준)

Sports climbing entered a new chapter in its history after Adam Ondra arrived the scene. The 26-year old Czech climber started as a rock climber at the age of 6, later storming the scene as a professional youth climber by grabbing numerous wins at various World Cup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s. At the age of 13, he managed to redpoint his first 5.14d, a dream achievement many spend a lifetime of training to reach, then accomplishing what was considered unimaginable in 2017 by climbing the 5.14d-grade 'Silence' route in Norway. As Ondra gains momentum, worldwide climbers are turning their attention to him, and he is now considered the strongest contender for the first gold medal in sports climbing at the 2020 Tokyo Olympics. (LEE Young-jun)

## 크레이그 효과 Craig's Reaction

USA | 2018 | 24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4:30 | AC 2 | GV



### 카메론 마이어

'베어캠'이라고 알려진 카메론 메이어는 유명 산악인 친구들과 다니며 그들의 암벽 등반 장면을 촬영했는데 이 영상들은 현재 컬트가 되었다. 베어캠미디어를 기반으로 그는 그가 가장 잘 아는 분야인 등산계의 휴먼 드라마를 영화화할 예정이며 <크레이그 효과>는 그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훌륭한 출발점이다.

### Cameron MAIER

Cameron Maier (aka. Bearcam) followed around famous climber friends, making bouldering videos which became cult classics. Nowadays, with Bearcam Media, he is passionate about making human-interest documentaries in the context of climbing; the world he knows best. *Craig's Reaction* was a great start to this for him.

콜로라도 출신 클라이머 크레이그 드마르티노는 2002년 선댄스 버트레스에서 100피트를 추락하면서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다. 그는 인생의 꿈쩍한 시간을 견디어내고 엘캐피탄 조디악 루트를 하루 만에 등정한 최초의 장애인 클라이머로 다시 태어난다. 매일 통증완화제를 달고 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전달하는 등반전도사로, 친구들에게는 유머 넘치는 폴타임 클라이머로 활약중이다.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 펼쳐지는 그의 일상이 인상적이며 추락장면의 일러스트 편집이 영화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배경미)

Colorado-native climber Craig DeMartino lost his right leg and seriously injured his spine when he fell 100ft from the Sundance Buttress in 2002. He survived this terrible experience to start over as the first physically-impaired climber to ascend the El Capitan Zodiac route in one day. Each day he must depend on pain killers but, as a climbing missionary who preaches endless possibilities, to his friends he's a full-time climber with a great sense of humor. It is quite impressive to see the daily life he goes about with the warm support from his family, while the illustration of the fall and how it happened is portrayed expertly in the film. (Christine PAE)

## 홀로세 Holocene

Japan | 2018 | 13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5:00 | AC 1



### 와타나베 유타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전문 스노우 보더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영화감독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대자연과 산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 WATANABE Yuta

Yuta has been riding as a professional snowboarder for ten years in Canada. He has slowly been changing his career to filmmaker since 2016. He has been getting lots of inspiration from mountains and mother of nature.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돌로미티는 약 2억 8천만 년 전에 형성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산맥이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때 군용품 운송과 참호 설치를 위해 산맥의 곳곳이 파헤쳐졌고 이는 아직도 상처처럼 남아있다. 전문 스키어인 일본의 와타나베 유타와 고노 켄지는 돌로미티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자 산맥에서 스키를 타기로 한다. 흰 눈과 구름에 휩싸인 돌로미티는 웅장하며, 경사가 심한 좁은 협곡 사이를 가르며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스키어의 모습은 장쾌하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일본 제작의 정통 산악 다큐멘터리. (최선희)

The Dolomites located in Northeastern Italy are a mountain chain created about 280 million years ago. Unfortunately, the chain was ravaged during the 1st World War with all the military supply transportation, and trenches dug here and there, which still remain like wounds. Professional Japanese skier Watanabe Yuta and Kono Kenji decided to experience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Dolomites by skiing through the mountain chain. The Dolomites covered in white snow and surrounded by clouds are magnificent, while the images of the skiers speeding down through the steep and narrow gorges are thrilling. It is the first time for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o show a Japanese mountain film produced in Japan. (Billy CHOI)

## 트리라인 Treeline

USA | 2018 | 40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5:00 | AC 1



### 조단 맨리

조단 맨리는 밴쿠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웃도어 문화 사진작가이자 영화제작자로, 스포츠와 자연과의 관계를 다룬 작품을 주로 만든다. 대표작으로 자연풍경과 문화, 스키의 연관성을 성찰한 11개의 단편영화 시리즈인 <스키어의 여정>이 있다. <스키어의 여정> 시리즈는 카슈미르, 배핀섬, 이란 등에서 촬영한 작품으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여러 상을 받았다.

### Jordan MANLEY

Jordan Manley is a North Vancouver based outdoor culture photographer and filmmaker, focused on the connection between sport and nature. His films are an effort to explore the human relationship with nature. He produced and directed four seasons of the award winning *A Skier's Journey*, a film series that examined the ties between landscape, culture, and skiing.

'나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영화는 곧 뒤틀러있지만, 여전히 위를 향해 가지를 뻗은 채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아직도 살아있는 신비로운 형태의 고목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흰 눈으로 덮인 나무들이 이룬 숲 사이를 눈가루를 흩뿌리며 미끄러져 내려가는 스노보드, 스키어의 모습이 교차하여 나타난다.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일본을 찾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을 만나고 그 나무들이 새겨 온 역사와 생명에 교감하며 삶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바람과 눈을 맞으며 그 자리에서 수천 년을 살아 온 나무들을 조용히 응시하는 아름다운 영화. (최선희)

The film begins with the question, 'what is a tree?' Following this question, it shows twisted old trees, bent into mysterious shapes, which still stand even after thousands of years holding their branches stretched upward. And, there are intercut scenes of sliding snowboarders and skiers going through a forest covered with snow. This film introduces the people who encounter the oldest trees in Canada, US and Japan and learn the wisdom of life, communing with their history and the lives they have lived. It is a beautiful movie that quietly stares at trees which have been living for eternity, facing winds and snow. (Billy CHOI)

## 파라솔 피크 Parasol Peak

Austria, UK | 2018 | 30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5:00 | AC 1 | GV



### 요하네스 아이츠클러, 켈럽 하드윅

아이츠클러는 오스트리아인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이다. <Balloonskiing>가 밴프영화제 필름 투어에 선정되어 전 세계에서 상영되었고 <The White Maze>는 10개 이상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하드윅은 브라이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감독 및 애니메이터이다. 그의 작품 중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1시간 길이의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것은 문화 올림픽에서 전시되었다.

### Johannes AITZETMÜLLER, Jeb HARDWICK

Johannes Aitzetmüller is an Austrian film producer, director. His film *Balloonskiing* was screened at the BANFF film tour all over the world. *The White Maze* won awards from more than ten film festivals. Jeb Hardwick is a Brighton based filmmaker and animator. One of his most exciting projects was creating an hour-long 360° panoramic film exhibited as part of the Cultural Olympiad.

세계적인 행드럼 연주자인 마누 델라고와 그의 앙상블 팀이 알프스에서 라이브로 녹음한 산악 음악회. 행드럼, 첼로, 실로폰과 트럼펫뿐만 아니라 나무 그루터기를 두드리는 소리, 개울에 떨어지는 돌맹이 소리와 마이크에 스치는 산 중턱의 바람소리도 곡조에 녹아들며 놀라운 산의 노래를 만든다. 안개 낀 초원지대와 봉우리 사이에 숨은 호수에서, 깎아지른 암벽에 매달려서, 연주자들은 고도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는 풍경 속에서 그 장소에서만 들려줄 수 있는 화음을 펼친다. 산이 들려주는 음악회라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선물 같은 작품. (서도은)

World-renown hang drum performer Manu Delago and his ensemble team held a live mountain music concert on the Alps which was recorded on site. Hang drums, cello, xylophone and trumpet as well as sound collections of tree stump beats, rocks dropping into a brook, and the hillside winds brushing through recording mics all come together to create amazing tunes. From foggy plains, a lake hidden in the mountaintops to steep rocks they hang from, the performers present harmonies unique to the diverse landscapes that change by altitude. This film is like the mountain's gift through which one can experience a special music concert from the very heart of the mountains. (SEO Do-eun)

## 밤빛 Night Light

Korea | 2018 | 108min | Color | Fiction



09. 08 | 16:00 | AC 3 | GV



### 김무영

김무영은 영화를 만들며 리서치 기반의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다양한 나라의 여러 장소에서 전시되고 상영되었다.

### KIM Moo-young

While making movies, Kim has also engaged in exhibiting research-based media art, which is being introduced to several countries.

희태는 전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우리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이 편지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어렵게 느끼는 뿐이다. 화면이 바뀌고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들과 산에서의 짧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둘은 매우 다르지만, 산에서의 며칠 동안 서로 조금씩 이해하며 닮아간다. 영화는 시간 자체를 느끼게 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산과 바람, 자연을 통해, 삶을, 당신을, 우리를, 운명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선물한다. (맹수진)

Hee-tae, who only has a short period left to live, receives a letter from his ex-wife. While it is not certain what the letter is about, it shifts his life in a different direction. After the scene transitions, Hee-tae is spending a brief time in the mountains with his son, who doesn't know his father. They are different but come to understand and look like each other through the time they share. Within the flow of time, mountains and winds, and through nature, this film presents wisdom on how to embrace life, yourself, us and fate. (MAENG Soo-jin)

## 꼬마 유목민 Boy Nomad

Mongolia, Canada | 2018 | 22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7:00 | AC 2 | Asian Premiere



### 니오브 톰슨

인류학자인 톰슨 박사는 캐나다의 영화감독이자 유명한 과학소 진행자이다. 프로듀서와 감독, 그리고 진행자로서 그는 모험과 과학 이야기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전달해왔다. 캐나다영화시상식에서 최고 자연&과학 다큐멘터리상을 3번이나 수상하였다. 그의 다큐멘터리 <Vital Bonds>는 환자의 죽음을 영상에 담아낸 최초의 영화이다.

### Niobe THOMPSON

Anthropologist Dr. Thompson is a Canadian filmmaker and science host, well known around the world. He has developed a unique style of adventure and science storytelling. Three-time winner of Canadian Screen Awards for the Best Science & Nature Documentary, His documentary *Vital Bonds* was the first film in history to capture on screen the death of a patient.

9살 자니베크는 몽고의 알타이산맥에 사는 유목민 소년이다. 이른 나이에 가축을 돌보고 계절에 따라 이주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유목민의 일생에서 유년기는 매우 짧다. 그의 아버지는 자니베크가 소중한 유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한편 그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익히고 생존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아빠와 같은 목자가 되고 싶으며 말타기를 사랑하는 자니베크는 가축떼를 몰고 혹독한 겨울 산을 넘어야 하는 겨울 이주에도 동참할 만큼 훌륭하게 자랐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대를 이어가는 유목민 전통의 전승을 가까이에서 담은 작품이다. (서도은)

9-year old Janibek is a young nomad boy living in the Mongolian Altai. A nomad life which requires tending to livestock at an early age and constant seasonal migration makes the experience of being young short-lived. Janibek's father wishes his son to enjoy his precious youth as much as he can while learning the traditional ways of life and survival. Like his father, Janibek hopes of becoming a shepherd, and his love for horse riding enables him to become an outstanding young man who carries out the mission of herding livestock over the harsh winter mountains. This film captures the passage of nomad tradition from father to son,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SEO Do-eun)

## 아프가니스탄을 오르다: 여성의 외침 Ascending Afghanistan: Women Rising

USA | 2017 | 49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7:00 | AC 2 | GV



### 에릭 오스터홀

에미상을 수상한 감독 겸 프로듀서인 에릭은 알래스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여행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오지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원격 백내장 수술에 관한 단편 다큐멘터리로 2011년 하트랜드 에미상을, CNN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이란 에피소드로 2015년 프라임타임 에미상을 수상했다.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두 편을 만들고 있다.

### Erik OSTERHOLM

An Emmy award-winning director and producer, Erik is best known for telling stories from the hard to reach, remote corners of the globe like Alaska, and Afghanistan. He was awarded the Heartland Emmy in 2011 for a documentary-short focused on remote cataract surgeries, and the 2015 Primetime Emmy for the CNN *Parts Unknown* episode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전쟁과 종교문제에 여성의 인권이 피해를 입은 아프가니스탄 여성 13명이 아프가니스탄 최고봉 노샤크에 오른다. 사회가 여성의 등반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비영리단체 어센드의 지원과 20여년 등반 가이드를 해온 여성 클라이머 단카 길버트의 지도 아래 기초 등산기술을 배우고 자신들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산을 오른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제도의 굴레로 대원들은 매일 두려움과 싸우고 힘든 과정을 겪고, 결국 등반중 부상과 고소증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유의지로 노샤크 정상에 우뚝선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위대한 등반 스토리. (배경미)

Thirteen women from Afghanistan, where the human rights of women are ravaged by war and religious issues, decide to climb Afghan's highest peak, Nushaq. Although from a society that prohibits women from climbing mountains, the women, with the support of U.S. non-profit organization Ascend and instructions from 20-year veteran female climber Danka Gillbert, slowly learn basic climbing techniques to move closer to their dream of mountain climbing. Unfortunately, the social system constantly forces them to fight against fear and hardships, yet in the end, despite injuries during the climb and having to deal with the fear of heights, they finally step on to the top of Nushaq at their own will. This is a great story of a group of female Afghani climbers mountain climbing. (Christine PAE)



## 둘이서 하나 Connected

Poland | 2018 | 20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2:00 | AC 2 | Korean Premiere



### 알렉산드라 마치에이제크

1993년 우쯔 출생. 그녀는 우쯔 국립영화학교의 5학년으로 영화 & 텔레비전 연출을 전공하고 있다. 그녀가 연출한 많은 다큐멘터리와 영화들은 폴란드와 외국의 영화제에서 다수 상영되었고 단편 다큐멘터리, <Nils>는 시버드니차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현재 졸업 영화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있다.

### Aleksandra MACIEJCZYK

She was born in Łódź, in 1993. She is a 5th-year student of Lodz Film School, Film and Television Directing department. She shot many documentaries and fiction films which took part in many film festivals in Poland and abroad. Her short documentary film *Nils* was awarded at the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n Świdnica. Presently she is pre-producing her diploma film.

영화가 시작되면 어둠 속 흰 눈 위를 활강하는 노부부 스키어가 보인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스키를 타기 위해 아내는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리시버를 세팅한다. 남편은 리시버를 통해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에 맞춰 움직임을 조절하고, 이들은 연결되었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면서 함께 스키를 탄다. 부부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는 포커스 인-아웃, 사운드 온-오프를 반복하면서 그들이 함께 스키를 타는 순간을 기록한다. 서로 의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하는 노년의 아름다운 사랑을 설원의 풍경 위에 더없이 아름답게 그려낸 영화다. (맹수진)

An opening scene of the movie shows an old couple skiing downhill on the snow in darkness. The wife sets up the receiver to connect her husband, who is blind, for skiing together. The husband manages his movements to her voice through the receiver, and they both ski, repeatedly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The camera attached to both records the moment they ski together, by focusing in-out and sound on-off over and over. The film describes a beautiful love of the old, who lean on and are independent, but also care for each other and share their life, on the snowy landscape. (MAENG Soo-jin)

## 에베레스트 - 최후의 한 걸음 Mount Everest - The Last Step

Austria | 2018 | 61min | Color, B&W | Documentary



09. 09 | 12:00 | AC 2 | Asian Premiere



### 라인홀트 메스너, 한스 피터 스타우버

메스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알피니스트 중의 한 명으로 피터 하벨러와 함께 보조 산소 기구 없이 8,848미터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등산가이다. 스타우버는 베테랑 텔레비전 저널리스트이자 프로듀서이다. 인간과 산의 관계, 유럽에서의 등산, 그리고 전 세계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루나 리>를 연출하였다.

### Reinhold MESSNER, Hans-peter STAUBER

Messner is known as one of the most famous alpinists in the world. Together with peter Habeler, he was the first human to reach the 8,848m high summit of Mount Everest without additional oxygen in 1978. Stauber is an experienced television journalist and producer. His filmmaking features show mountaineering in Europe and expeditions around the world. He is the director of *Lunag Ri*.

1978년 8월, 라인홀트 메스너와 피터 하벨러는 최초로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한다. 그때까지 산소 도움 없이 정상을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스너의 무산소 등정은 새로운 알피니즘의 시대를 연 역사적 사건. 역시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모조리 오른 메스너. 철인이라는 별명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쾌거라는 칭송을 받았다. 이런 성공의 과정을 메스너는 자신이 직접 만든 영상으로 보여준다. 메스너는 등반가로서 산을 성찰하는 삶과 철학도 담았다. (신영철)

On August 1978, Reinhold Messner and Peter Habeler made the first non-supplemental oxygen ascent of Mt. Everest. Up till that point, it was considered impossible to reach the mountain summit without supplemental oxygen. Messner's non-oxygen ascent has been recognized as a historical event that opened a new era for Alpinism. Messner, as the first climber to climb all 14 eight-thousanders won the nickname of iron man and was praised for his feat to overcome human limitations. Messner introduces various stages of success through self-made video works, which also reveals his life and philosophical introspections of mountains as a mountaineer. (SHIN Young-chul)

## 아름다운 바보 Beautiful Idiot

Canada | 2018 | 14min | Color | Experimental



09. 09 | 14:30 | AC 2



### 해리스 멘델, 롬 톰슨

영화감독 해리스 멘델과 사진가 롬 톰슨은 액션 스포츠 영화 <아름다운 바보>를 공동으로 연출하였다. 둘 다 스포츠계에 종사했던 경력과 산악자전거에 대한 지식은 총동원하여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자신들의 모험에 대한 갈망을 영화화했다.

### Harrison MENDEL, Robb THOMPSON

Filmmaker Harrison Mendel and photographer Robb Thompson take their collaborations one step closer to produce action sports film *Beautiful Idiot*. Both come from a sports background, and the two used their knowledge of mountain biking to produce their story about always being hungry for more.

불같은 뜨거움으로 다가와 우리를 삼켜버리는 집착에 가까운 열정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는 도전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프리라이드 산악자전거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브렛 리더가 야생의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는 캐나다 오키나간 계곡과 토피노 해변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라이딩을 펼친다. 보는 내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절묘한 라이딩 장면들은 그 어느 MTB 영화보다도 더 탁월한 촬영과 연출력을 자랑한다. 계속해서 꿈을 좇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모험가이자 '아름다운 바보'들에게 바치는 찬사이자 헌사. (최선희)

What is the passion that borders on obsession that makes some relentlessly pursue their goals? Top freeride mountain biker, Brette Rheeder sets out on a fantastic riding trip through Canada's Okanagan Valley and Tofino Beach which carry the mystical qualities of the wild. The breathtaking riding landscapes boast cinematography and directorial skills more superb than any other MTB film. This film is a celebration and homage to all the 'beautiful idiots', the true adventurers with the unstoppable drive to follow their dreams. (Billy CHOI)

## 블러드 문 Blood Moon

UK | 2018 | 37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4:30 | AC 2



### 엘라스터 리

아웃도어 전문 감독 겸 카메라맨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20년 동안 경력을 쌓은 베테랑으로서, 아름다운 장관과 인간미를 결합한 뛰어난 영화와 TV 광고를 통해 약 100 차례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이름을 널리 떨치기도 했다.

### Alastair LEE

Director and camera man specialising in the outdoor world. His special talent for combining the spectacular with the human has made him one of the leading forces in his industry with over 100 international awards to his name.

마다가스카르의 700미터 수직벽 타라노로, 미담의 빅월에 멋진 등반라인을 발견한 로비 필립스와 캘럼 커닝햄, 앨런 카른은 볼트 작업을 병행하며 프리클라이밍을 시도한다. 루트 중하단부에서 앨런이 추락하면서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처절한 수송작전이 펼쳐진다. 사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등반에 나선 로비와 캘럼은 총 13피치(8a+, 5.13c)를 프리클라이밍으로 오르는데, 준비한 연료와 물이 바닥을 보이고,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 벽 상단부는 야간등반을 병행하면서 끝내 정상에 오른다. (배경미)

Robbie Phillips, Calum Cunningham and Alan Carne discovered a wonderful climbing line at Madagascar's 700m untrodten vertical big wall, Tsaranoro, and started bolt work in a free-climbing attempt. But at the lower end of the route, Carne fell and snapped his right ankle. With the help of nearby villagers, he was evacuated under difficult conditions. After overcoming the trauma from the accident, Phillips and Cunningham set out again to free-climb a total of 13 pitches (8a+, 5.13c). While climbing the upper part of the wall at night due to the scorching sun, they ran out of food and water but finally reached the summit. (Christine PAE)

## 썰로 키시트와르 - 극한의 도전 Cerro Kishtwar - An Ice Cold Story

Germany | 2018 | 34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4:30 | AC 2



### 율리안 장커

등산과 비행은 율리안 인생의 꿈이었다. 자연과 산을 너무 좋아해서 하이킹과 등산을 꾸준히 다녔다. 산악가 율리 스테크와 스테판 지그리스트를 롤모델로 삼고, 스스로 직업훈련을 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7년 결국 전문 산악 가이드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9년 2월 24일 28세의 나이로 아이거 노스페이스 상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Julian ZANKER

Mountaineering and flying were Julian's life dreams. He expressed his deep connection with nature and mountains by hiking and climbing. He based his vocational training on his great idols, Ueli Steck and Stephan Siegrist. In 2017 he finally became a mountain guide but died in the upper area of the Eiger North Face by falling on February 24, 2019.

외국인의 등반이 금지되었던 인도 캐쉬미르산군의 썰로 키시트와르에 2017년 스위스와 바바리안 클라이머 스테판 지그리스트, 율리안 장커, 토마스 후버가 도전장을 내민다. 총 세번의 등반을 허락한 이 봉우리는 25년 전 영국의 앤디 퍼킨스가 처음으로 시도했고, 2016년 다비드 라마와 스테판이 함께 오르다 후퇴. 다시 스테판은 중앙 북서벽 필라를 찾아 끝없이 펼쳐진 플랭크와 오버행울 고난도 기술 등반으로 11일 만에 해치운다. 루트명은 '할랄마하데르', 인디언 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만큼 용감해져라' 라는 뜻으로 붙였다. (배경미)

In 2017, Swiss and Bavarian climbers Stephen Siegrist, Julian Zanker and Thomas Huber try to ascend Cerro Kishtwar in the Indian Himalayas, where foreigners had been banned from climbing. Only three climbs have ever been attempted. Britain's Andy Perkins made the first attempt 25 years ago, and David Lama and Siegrist were forced to turn back in 2016. But in 2017, Siegrist's team exhausted their expertise working through rocks and overhangs in search of the central route of the NW Face and conquered it in 11 days. The new route is called Har Har Mahadev meaning 'to become brave enough to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Christine PAE)

## 토네이도 추격자 Chasing Monsters

Australia | 2018 | 5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7:00 | AC 2



### 크리스탈 라이트, 토비 파이크

오스트레일리아 감독인 크리스탈 라이트와 토비 파이크는 지난 3년 동안 캐논 오스트레일리아의 단편 영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작업했다. 영화 후반 작업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한 토비는 세련되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전문가이다. 모험 사진가로 경력을 쌓은 크리스탈은 포토 저널리즘적인 요소를 영상에 붙여넣고 있다.

### Krystle WRIGHT, Toby PIKE

Australian Directors Krystle Wright and Toby Pike have collaborated on a series of short film projects for Canon Australia over the last three years. Toby started his career in post-production and is specialized in creating stylized and hyper-real worlds. Krystle established her career as an adventure photographer with a strong photojournalism background.

토네이도는 평원을 지배하는 괴물이다. 그 무시무시한 힘 앞에 굴복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파괴적인 매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인가? 토네이도 사진작가 닉 모어는 두려움 없이 이 거대한 자연현상의 뒤를 쫓는다. 그가 토네이도 앨리의 평원에서 촬영한 이미지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강렬한 편집으로 구성되어, 마치 광기 어린 자의 환각과도 같이 괴수와 사랑에 빠진 사냥꾼의 심리를 시각화한다. 거대한 공간을 점령하고 주변의 모든 존재를 압도하는 송고미의 현현 앞에서 공포와 경이의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친다. (서도은)

A tornado is a monster that rules the plains. So should you succumb to its terrifying force and run, or be sucked into its irresistible destructively seductive powers? Tornado photographer Nick Moir fearlessly pursues this great natural phenomenon. The images he captures of Tornado Alley are cut into heart-pounding edits that become visual accounts of the psychology of the hunter who is in love with the beast, like someone in a crazed hallucination. In the face of the incarnation of the sublime, as it invades vast spaces and overpowers every existence around it, you are hit by a whirlwind of complex emotions. (SEO Do-eun)

# 하늘 Cielo

Canada, Chile | 2017 | 78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7:00 | AC 2 | Korean Premiere



## 앨리슨 맥알핀

앨리슨은 십 대부터 시를 써왔고 이십 대 초반에는 자신의 시집을 출간했다. 밴프에서 열린 글쓰기 워크숍에서 소설가 알리스테어 맥레오드는 그녀의 작품을 '시적 영화'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중편 <세컨드 사이트>(2008)은 논픽션 귀신 이야기로 35개 이상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하늘>는 그녀의 장편 데뷔작이다.

## Alison MCALPINE

Alison's roots are in poetry, which she began writing as a teenager, publishing in her early twenties. At a writing workshop in Banff the novelist Alistair MacLeod described her work as film poetry. Her mid-length film *Second Sight*(2008), 'a nonfiction ghost story', was screened at more than 35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Cielo* is Alison's first feature film.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바스라질 듯 말라버린 나무, 그 위를 가득 채운 밤하늘의 별들, 그리고 정적만이 감도는 이곳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다. 다채로운 색깔로 빛을 내는 은하수, 일출, 석양,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까지 도시에선 숨겨져 있던 하늘이 이곳에선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진다. 그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인간은 광대한 우주 속의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라는 지혜를 자연스레 깨우친다. 지금까지 이렇게 깊고, 푸르고, 광활하며, 신비로운 생명체로서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는 없었다. (최선희)

This place with its endless sand dunes, dry trees shrivelled up to the point of crumbling apart, the stars filling the night sky, and the silence that fills the space is the Atacama Desert in Chile. From the Milky Way shining in various colors, the sunrise and sunset to the clouds quickly floating by, the sky hidden in the cityscape seems like a living entity here. The people occupying the space under this sky and looking up at it at night will naturally realize that humans are minuscule compared to the vast cosmos. Up till now, no film has shown the sky as such a deep, blue, vast and mystical life form like this film. (Billy CHOI)

## 관객상 투표 안내

- \* 국제경쟁부문의 작품 상영 시 관객투표를 진행합니다.
- \* 해당 상영회차의 상영관 입장 시 투표용지를 나눠드립니다. 퇴장 시 관람하신 작품의 점수를 투표해주세요.
- \* 관객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관객상 수상작이 선정됩니다.
- \* 수상작 발표와 시상상은 9월 10일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폐막식에서 진행됩니다.

## Vote Guide for Audience Award

- \* Audience vote is held at the screen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titles.
- \* Ballot papers will be given to the audience for the screening at the entrance of the theatre. Please participate in the vote and give marks on them when leaving.
- \* The winner of the Audience Award will be chosen by the vote from the audience's participation.
- \* The Award will be announced and presented on 10th September at the Closing Ceremony of the 4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 알피니즘

## Alpinism

전문 산악인들의 등반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를 보여주는 섹션. 올해 알피니즘 섹션의 상영작은 총 7편으로 여전히 여러 이슈의 중심에 있는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와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K2와 낭가파르bat 그리고 남미의 세로 토레와 북미의 헌팅턴산까지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대륙을 아우르는 광대한 고산 등반의 여정이 펼쳐진다.

8,000m의 카메라만으로 불리는 올해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인 쿠르트 디베르거도 히말라야등반 역사상 최대의 비극으로 불리는 1986년 K2 등반에 참여했었다. 디베르거가 직접 촬영하고 연출한 <K2 - 꿈 그리고 운명>을 통해 당시의 상황은 물론 이때 함께 K2를 올랐던 한국등반대의 모습도 생생히 볼 수 있다. <다비드 라마의 세로 토레>는 올 봄 로키 산맥 등반 도중 세상을 떠난 젊은 산악인 다비드 라마가 진정한 산악인으로 인정받게 된 세로 토레 자유 등정 전체 과정을 담고 있으며, <킬리언 조넷: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은 세계 최고의 속도 등반가인 킬리언 조넷이 그토록 꿈꿔왔던 에베레스트 도전을 보여준다. 또한 <아이스 콜링 - 헌팅턴산>은 작년 클라이밍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멕시코 영화 <아이스 콜링>의 후속편이다.

A section about the endless courage and persistence of professional alpinists. This year, there will be seven films taking you on a climb of the vast alpine mountains of Asia, Europe and America, including Mount Everest, still at the core of many issues, the death mountain K2, Nanga Parbat, Cerro Torre, and Mount Huntington.

This year's Ulju Mountain Culture Award recipient Kurt Diemberger, also known as the Filmmaker of the 8,000s, was part of the disastrous 1986 K2 expedition to the Himalayas. *K2 - Mountain of Dreams and Destiny* was filmed and directed by Diemberger himself and gives a vivid picture of the situation at the time, as well as the Korean group expedition also climbing the K2. *Cerro Torre: A Snowball's Chance in Hell* shows the entire process of free climbing the Cerro Torre by David Lama, who was killed this spring while climbing the Rocky Mountains. *Mt. Huntington - Ice Calling* is a sequel to the Mexican film *Ice Calling*, which won the Best Climbing Film last year.

## K2 - 꿈 그리고 운명 K2 - Mountain of Dreams and Destiny

Germany | 1988 | 60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09:30 | AC 2 | GV | Korean Premiere



### 쿠르트 디베르거

1932년 출생. 2019년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8000미터의 카메라맨' 쿠르트 디베르거는 현재 생존해있는 산악인 중 유일하게 8천 미터급 고봉 2개를 초동하였다. 자전적인 영화 <K2 - 꿈 그리고 운명>으로 트렌토영화제에서 황금용달상을 수상하였고 2013년에는 황금피클상, 그리고 2018 국제산악영화협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 Kurt DIEMBERGER

Born in 1932. Selected as the recipient of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s 2019 is 'Filmmaker of the 8000s' Kurt Diemberger, the only surviving mountaineer who has made the first ascents on two mountains over 8,000 meters. His film, *K2 - Mountain of Dreams and Destiny* won the Gold Gentian at the Trento Film Festival. He has also received the Piolet d'Or in 2013, and the Grand Prize at the 2018 IAMF.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산악인 쿠르트 디베르거가 직접 만든 작품. 히말라야 K2 등반 과정을 영상화한 다큐멘터리. 발토르 빙하를 거슬러 오르는 현지 포터들의 카라반과 주변 고봉 풍경들이 시선을 압도한다. 1986년 54세의 쿠르트와 48세의 영국 여성 산악인 줄리 툴리스는 K2를 무산으로 등장한다. 늦은 등정 때문에 그들은 비박 후 C4까지 하산한다. 줄리는 하산 도중 잠을 자다 뇌수종으로 사망한다. 쿠르트는 그때의 경험을 책과 영화로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쿠르트의 구조를 도운 한국 원정대원들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다. (신영철)

A self-made film documenting the Himalayan K2 ascent by world-renowned alpinist Kurt Diemberger presents overwhelming scenery of caravans of local porters passing through the Baltoro Glacier and surrounding mountain peaks. In 1986, the 54-year old Kurt and 48-year old female British alpinist Julie Tullis set out on a non-oxygen ascent up K2. Due to the late ascent, they were forced to bivouac, later descending to C4. Tullis died in her sleep, possibly from high altitude cerebral edema. Diemberger turned this experience into a book and film which gained public attention. Korean members of the expedition can be seen in the film. (SHIN Young-chul)

## 다비드 라마의 세로 토레 Cerro Torre - A Snowball's Chance in Hell

Austria | 2013 | 99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6:00 | AC 3



### 토마스 딘호퍼

열정적인 산악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스위스에서 자랐다. 알프스의 부름을 받고 등산을 시작하였으나 16살에 등산사고를 당한 후 작가와 영화연출로 진로를 전환한다. 1990년대에 뮤직비디오를 연출하기 시작했고 이후 몇 편의 광고 시리즈를 연출하였다. <다비드 라마의 세로 토레>는 그의 첫 다큐멘터리 연출작이다.

### Thomas DIRNHOFER

He is the son of two climbing enthusiasts, grew up in Switzerland and soon felt the call of the Alps. However, following a harrowing climbing accident at the age of 16, he set his sights on storytelling and filmmaking. Thomy started directing music videos in the 90s. He later went on to direct a series of commercials. *Cerro Torre - A Snowball's Chance in Hell* is his first documentary.

스프츠클라이밍 스타였던 다비드 라마(1990~2019)는 알파니스트로 전향하며 자신의 첫 번째 목표로 세로 토레를 자유등반으로 오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2009년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영상팀이 남긴 수많은 볼트와 고정로프로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2011년, 얼음으로 덮인 벽에서 자유등반에는 실패했지만, 인공 보조물을 사용해 등정하고 2012년 세 번째 시도에서 결국 자유등반으로 정상에 선 다비드 라마. 1950년대부터 세로 토레를 둘러싼 산악인들의 도전은 다비드 라마의 등반으로 다시 한 세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영준)

Sport climbing star, David Lama(1990~2019) announced his plan to free climb Cerro Torre as his first goal after becoming a full-fledged alpinist. His first attempt in 2009 failed, and the numerous bolts and fixed rope his film crew left behind were heavily criticized. He had to abort his free ascent in 2011 due to the ice-filled head wall, but his third ascent in 2012 succeeded. David Lama launched a new generation of climbers reaching for Cerro Torre since this challenge began during the 1950s. (LEE Young-jun)

## 킬리언 조넷: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 Kilian Jornet: Path to Everest

Spain | 2017 | 85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3:30 | AC 3



### 조셉 세라

1965년, 팔라모스 출생. TV3와 카탈루냐 라디오와 일을 하면서 1990년부터 영상계에 몸담게 되었다. 더불어 폼페우파브라대학교와 다른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 대표작은 <The Seeds of Anger>, <Alzheimer's, Living in Oblivion>, <The Peacemaker>, <Any Day After 9/11> 등이 있다.

### Josep SERRA

Born in Palamós in 1965. He has been working in the audiovisual field since 1990 with experience in media such as TV3 and Catalunya Ràdio. In addition, he also teaches at the Pompeu Fabra University and different schools. Documentary films he has made for television include *The seeds of Anger*, *Alzheimer's*, *Living in Oblivion*, *The Peacemaker* or *Any Day After 9/11*, among others.

19세에 이미 국제 스카이라닝 대회를 우승하며 '최고 속도등반가'의 자리에 오른 킬리언 조넷. 몽블랑, 마터호른, 아콩카구아 등의 고산에서 최단 시간 등하산 기록을 차례로 세운 그 앞에 남겨진 마지막 목표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다. 스카이라닝 선수이기도 한 여자친구와도 나누기 어려운 조넷의 위험과 열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90분 내내 팽팽하게 보여준다. 주변 인물 및 '살아 있는 전설' 라인홀트 메스너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는 극한등반가의 내면세계가 산소통 없이 홀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하는 조넷과 오버랩된다. (오영훈)

Kilian Jornet earned the reputation as the 'fastest sky runner' after winning an international sky running competition at the age of 19. Holding the fastest known time for the ascent and descent of Mont Blanc, Matterhorn and Aconcagua, his last goal is climbing the world's highest peak of Mt. Everest. During its 90 min running time, the film discloses the tension-packed rollercoaster ride between physical danger and passion, which Jornet struggles to share with his girlfriend who is also a sky runner. Interviews with colleagues and 'living legend' Reinhold Messner, who relates the inner world of extreme mountain climbers, are overlapped with Jornet's endeavors to reach the top of Everest alone and without any oxygen support. (OH Young-hoon)

## 낭가파르바트의 꿈 Dream of Nanga

Poland | 2018 | 12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0:00 | AC 1



### 바바라 젠드레이제크

폴란드의 TV 저널리스트. 2013년부터 폴란드 국영 TV의 카토비체 사업부에서 르포 취재를 맡고 있다. 「우리의 베스키디」 프로그램의 작가인 동시에 실종자와 그들의 가족을 돕는 전국 프로그램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분」의 리포터로 활약하고 있다. 춤과 사진 촬영, 그리고 여행을 좋아한다.

### Barbara JENDRZJCZYK

Polish Television journalist. Since 2013 she has been making reportages at Katowice division of the Polish National TV. She is the author of the *Our Beskidy* program and reporter of *Has Anyone Seen, Does Anyone Know* that helps missing people and their families.

토마즈 맥키에비치는 폴란드의 촉망받는 등반가였다. 그는 2015년부터 동계 낭가파르바트(8,126m)에 도전했는데 3번째 시도였던 2018년 1월, 프랑스인 엘리자베스 레볼과 정상에 서며 첫 번째로 동계 히말라야 알파인 스타일 등정에 성공했다. 하지만 하산 중 돌은 조난당하고, 레볼은 구사일생으로 돌아오지만 맥키에비치는 7,400m 지점에서 영원히 산이 되어버린다. (이영준)

Tomasz Mackiewicz was a promising Polish alpinist. His attempt to climb the winter Nanga Parbat (8,126m) from 2015 finally came to fruition during his 3rd round in January 2018 when he succeed in reaching the summit with French alpinist Elisabeth Revol. This marked the first ever winter Himalayan Alpine style ascent. Unfortunately, they were stranded during descent, and while Revol was rescued, Mackiewicz never made it out and remained at the 7,400 point for eternity. (LEE Young-jun)

## 수정산 Mountains of Crystal

Italy | 2013 | 23min | Color, B&W | Documentary



09. 08 | 09:30 | AC 2 | Korean Premiere

쿠르트 뎀베르거는 8,000m급 2개 봉을 초동한 유일한 산악인이다. 1957년 브로드피크(8,047m)와 1960년 다울라기리(8,167m)가 그것. 수정을 찾아 산을 헤매던 소년이 헤르만 불의 동반 파트너이자 마지막 목격자로, 그리고 '8,000m의 카메라맨'이라는 별명을 달기까지, 쿠르트 뎀베르거의 생애에 황금피켈상 심사위원회는 2013년 평생공로상을 수여 했다. (이영준)

Kurt Diemberger is the only Mountaineer who has made the first ascents on two mountains over 8,000m which are Broad Peak (8,047m) in 1957 and Dhaulagiri (8,167m) in 1960. From a young boy roaming through mountains in search of crystal to becoming the climbing partner and last person to see Hermann Buhl, and also earn the nickname, 'Filmmaker of the 8000s', his achievements were recognized when the Piolet d'Or awarded Kurt Diemberger with a Lifetime Achievement award. (LEE Young-jun)



### 루카 비

볼로냐공연예술학교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전공 하고 1990년부터 아마추어 영화감독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현재 체르비노산악영화제의 공동 집행위원장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La plume de fours> (2006), <Per gentie per ghiacci>(2006)이 있다.

### Luca BICH

He majored in documentary cinematography. He has been an art director, alongside Luisa Montrosset, of the new Cervino Cine Mountain Festival. His works include *La plume de fours* (2006) and *Per gentie per ghiacci* (2006).

## 아이스 콜링 - 헌팅턴산 Mt. Huntington - Ice Calling

Mexico, USA | 2017 | 15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5:00 | AC 1 | Asian Premiere

알래스카 등반의 절반은 '기다림'이다. 멕시코인 최초로 드날리 산군의 헌팅턴 봉(3,731m)을 오르기 위해 이곳을 찾은 헥터 폰세 드 레온과 다니엘 아라이자에게도 마찬가지. 둘은 매일 일기예보를 체크하며 탈기트나에서 무려 12일을 기다린 끝에 결국 헌팅턴으로 가는 경비행기에 오른다. 하지만 도착해서 본 헌팅턴 봉에선 계속된 폭설로 눈사태가 쏟아지는데... (이영준)

Half of an Alaskan climb is about 'waiting'. It's no different for the first Mexicans to climb the Denali Huntington summit (3,731m), Hector Ponce de León and Daniel Araiza. They wait 12 days in Talkina, daily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until they finally get to board the light plane to Huntington. But once they arrive, they are met with continuous snowstorms and avalanches. (LEE Young-jun)



### 벤야민 소토 페라리스, 크리스토팔 드 알바 드 라 페나

크리스토팔과 벤야민은 팀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좋은 공동으로 연출 및 촬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어드벤처 스포츠 전문가로서 진정한 모험의 정수와 첫인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특징을 찾고 있다.

### Benjamin SOTO FERRARIS, Cristobal DE ALBA LA PENA

Cristobal and Benjamin have worked as a team since the beginning of their careers, co-directing and co-photographing their projects. They specialize in adventure sports, finding the essence of adventure and characters that transcend first impressions.

## 크리스탈을 찾아서 The Mountain of the Crystal Diggers

France | 2017 | 34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0:00 | AC 1

샤모니 출신의 클라이머 조엘, 올리비에, 조르쥬, 마샬은 몽블랑 산군의 전통인 수정채취를 위해 크리스탈 오븐, 일명 수정굴 찾기에 몰입한다. 쌍안경을 이용해 벽의 균열부를 탐색하던 중 레쇼지역에 수정굴 가능성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탐색을 통해 엄청난 양의 질 좋은 수정채취에 성공한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단순한 산을 통해 순수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이색 스토리. (배경미)

Chamonix-native climbers Joel, Olivier, Georges and Marshall immerse themselves in the crystal oven, a so-called crystal cave, for the crystal picking tradition of Mont Blanc. Using their binoculars to examine cracks in the wall, they discover the possibility of finding a crystal cave in the Leschaux area and eventually succeed in gathering enormous amounts of high-quality crystals. An unusual story about discovering and experiencing pure joy through the simple act of journeying up a mountain they love so much. (Christine PAE)



### 피에르 카도

피에르와 토마스는 3년 전 유카 필름을 설립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아웃도어 필름 프로젝트를 연출 및 촬영하고 있다. 아름다운 산악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그들의 진실과 정상의 순간을 영화화하고 있다.

### Pierre CADOT

Pierre & Thomas created Yucca Films 3 years ago. They direct and film outdoor projects around the world. Attracted to beautiful stories of people in the mountains, they try to create films that follow the truth and bring back true moments from mountain summits.



# 클라이밍

## Climbing

암벽등반, 스포츠 클라이밍, 빙벽등반 등 다양한 분야의 등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섹션으로 총 7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현재 등반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논란거리인 스포츠 클라이밍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과 프리 솔로 등반부터 인종에 대한 편견 그리고 등반의 정당함과 스포츠맨십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등반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다.

2019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으며 화제가 된 <프리 솔로>는 세계 최고의 프리 솔로 등반가인 알렉스 호놀드의 엘캐피탄 등반 과정은 물론 호놀드의 삶과 등반 철학에 대한 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흑인들은 등반을 안 해'라는 편견을 통쾌하게 깨주는 <클라이밍 브로>, 스포츠 클라이밍의 메달 획득에 가장 큰 난제가 돼버린 스피드 클라이밍의 속살을 유쾌하게 해부한 <스피드가 최고>, 등반의 밝은 미래를 접쳐 볼 수 있는 신세대 등반가들의 열정을 다룬 <위대한 루카스>와 <오직 애나뿐>은 자칫 심각해질 수 있는 주제를 쉽게 풀어냈다. <클라이밍 픽처스>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일반인 영상 공모전 '울주 플랫폼' 수상자의 신작으로 한층 성장한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어 의미가 크다.

This section will screen seven films about various climbing methods - rock climbing, ice climbing, and sport climbing. The hottest topic of debate in the climbing world today is the adoption of sport climbing as an official Olympic sport. This, along with issues such as free solo climbing, racism, fairness and sportsmanship can be discussed through the various films in this section.

*Free Solo* received the limelight when it received the feature documentary award at the 2019 Academy Awards. It's about a free solo climber Alex Honnold, his climb of the El Capitan, and his philosophy on life and climbing. Some films bring serious issues to the table with style: *Brothers of Climbing* is a satisfying kick to the prejudice, 'black men don't climb'; *Up to Speed* is a delightful dissection of speed climbing, which became the biggest obstacle to the sport climbing medal; *Lukas the Climber*, *Just Anna* deal with the passion of the young generation of climbers. *Climbing Pictures* is a new film by a Ulju Platform (UMFF's public contest) winner, meaningful as it shows improvement over the last film.

# 프리 솔로 Free Solo

USA | 2018 | 100min | Color | Documentary

클라이밍 Climbing



09. 07 | 19:30 | ET 2



### 지미 친, 엘리자베스 차이 바사헬리

지미 친은 사진작가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며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탐험가들과 작업했다. 그의 사진은 *National Geographic*의 표지를 장식했으며 다수의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상업광고의 촬영 및 연출을 진행했다. 엘리자베스 차이 바사헬리는 트라이베카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노멀 라이프>(2003)와 SXSW영화제 수상작인 <투바>(2013)를 연출했다. <프리 솔로>는 친과 바사헬리가 <메루>(2015) 이후 공동 연출한 두 번째 작품이다.

### Jimmy CHIN, Elizabeth Chai VASARHELYI

Chin combine his career as a photographer, documentary filmmaker. His photography has graced the cover of *National Geographic* and Chin has shot and directed documentaries and commercial projects. Vasarhelyi directed several documentaries including *A Normal Life*(2003); and *Touba*(2013) which won the Special Jury Prize Best Cinematography at SXSW in 2013. Chin and Vasarhelyi co-directed *Meru*(2015).

수직 고도 1km에 육박하는 요세미티 엘캐피탄. 이곳을 프리 솔로로 등반하고 싶었던 알렉스 호놀드는 극한의 도전을 즐기는 클라이머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죽음을 부르는 이 루트를 오르기 위해 수많은 동작을 반복하며 익혔고, 등반 루트의 시각화와 정신훈련에 올인한 결과, 2017년 6월 3일 출발한 지 3시간 56분 만에 엘캐피탄 정상에 선다. 평소와 같은 움직임으로 자신감에 넘쳐 등반을 시작한 알렉스는 600피트에서 성공을 예상했고, 로프도 파트너도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오르는 프리 솔로의 세계를 맘껏 펼친다. 제91회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 (배경미)

El Capitan in Yosemite stands close to 1km tall in vertical elevation. Alex Honnold enjoys extreme climbing and wanted to climb the El Capitan free solo. To climb this route, where one mistake leads to death, he mastered many movements and gave his all to train mentally and to visualize the climbing route. Finally, on June 3 2017, he summited the El Capitan in 3 hours and 56 minutes. After beginning the climb with the same movements he had practiced over and over, he knew that it would be a successful climb at 600ft, and continued to enjoy the world of free solo, without ropes, partners or equipment. The documentary received the 91st Academy Award for feature documentary. (Christine PAE)



**딱!** 여러분이 선택한 소주!

#딱!맛있어서 #딱!맛있는소주 #딱!좋은데이

가게  
온 김에  
부드러게!



본 광고는 영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는 오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 2018 Maekju Soju Co., Ltd. All rights reserved.

## 스피드가 최고 Up to Speed

USA | 2018 | 21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8:30 | ET 1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이 '리드'와 '볼더링' 외에 '스피드'까지 포함하여, 세 종목의 종합순위를 매기는 '컴바인'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소식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릴락 특파원 재커리 바는 미국에서부터 프랑스 및 동남아시아를 거쳐 러시아까지 찾아다니며, 클라이밍 경기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스피드 종목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알아본다. (곽정혜)

A storm of controversy arose when it was announced that sport climbing would feature three disciplines at its 2020 Tokyo Olympic debut: lead climbing, bouldering and speed climbing, with the final rankings being determined by the combined results. REEL ROCK correspondent Zachary Barr examines how speed climbing contributes to the future of climbing competitions as he journeys from the U.S. to France, Southeast Asia and Russia. (GWAK Jeong-hye)



### 피터 모티머, 재커리 바, 닉 로젠

피터 모티머는 1999년 암벽등반 영상 제작 프로젝트로 시작된 센터필름스의 창립자다. 재커리 바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그린 <하이텐션>으로 다수의 작품상을 수상했고, 콜로라도 공영 라디오 방송을 제작했다. 닉 로젠은 센터필름스 소속 파트너, 작가 및 제작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Peter MORTIMER, Zachary BARR, Nick ROSEN

Peter is the founder of Sender Films, started as a DIY Rock Climbing video production in 1999. Zac began his career here with a trip to Mt. Everest that resulted in the multiple-award winning film *High Tension*. Nick is a partner, writer, and producer at Sender Films.

## 오직 애나뿐 Just Anna

UK | 2018 | 14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8:30 | ET 1

영국의 전통적 등반지역 레이크 디스트릭트에 사는 20세의 애나 테일러는 새로운 스포츠 루트와 전통루트를 모두 등반하는 여성 클라이머. 훗치 클로즈, 게코(7b+), 로취스 온사이트 등반 및 자신이 발견한 킬버스웨이트 코스 완등을 위해 몇 개월에 걸쳐 등반을 시도했지만, 며칠 사이로 다른 사람에 의해 완등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담대한 애나는 홀로 등반길에 나서고 지역의 새로운 라인을 계속 개발해나가는 중이다. (배경미)

20-year old Anna Taylor, who lives in the Lake District, a longtime climbers region in the U.K., is a female climber who ascends both new sport and traditional routes. For several months, she works on an on-sight climb to Hodge close, Gecko (7b+) and The Roaches and also a new route at the Tilberswaite which she discovered herself, but unfortunately, someone else beats her to her goal by a couple of days. The brave Anna continues her course of climbing journeys and discovering new lines on her own. (Christine PAE)



### 엘라스터 리

아웃도어 전문 감독 겸 카메라맨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20년 동안 경력을 쌓은 베테랑으로서, 아름다운 장관과 인간미를 결합한 뛰어난 영화와 TV 광고를 통해 약 100차례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이름을 널리 떨치기도 했다.

### Alastair LEE

Director and camera man specialising in the outdoor world. His special talent for combining the spectacular with the human has made him one of the leading forces in his industry with over 100 international awards to his name.

## 위대한 루카스 Lukas the Climber

Germany, Czech, Slovakia, Austria | 2018 | 25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5:00 | AC 1 | Korean Premiere

다섯 살부터 부모님과 함께 클라이밍을 해온 소년 루카스는 "클라이밍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일상이 클라이밍에 맞춰져 있다. 그의 꿈은 아담 온드라처럼 세계 최정상급의 클라이머가 되는 것. 아직은 바위에서의 추락이 두려고, 대회에서 긴장감을 떨쳐내기 힘들지만, 언젠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최고지점에 도달할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곽정혜)

Lukáš, who has been climbing with his parents since he was five, declares he cannot imagine a life without climbing. His dream is to become one of the world's greatest climbers like Adam Ondra. He's still fearful of falling from a rock and struggles to shake the tension when he competes, but he firmly believes one day he'll reach the highest point of his career. (GWAK Jeong-hye)



### 버나뎃 하우케

독립 작가 및 감독으로 20년 이상 활동해오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전 연령대의 사람들과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열정을 쏟고 있으며 영화에서 주로 사회적, 환경적,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 Bernadette HAUKE

For over 20 years she has worked as an independent author and director. Her passion belongs to documentary work with people of every age and everywhere in the world. The focus of her work is on social, environmental and historical subjects.

## 자유롭게 Free Flow

UK | 2018 | 5min | Color | Documentary

클라이밍 Climbing



09. 08 | 16:00 | ET 1

정통 스포츠클라이밍의 계보를 잇는 세계적인 등반가 중 한 명인 헤이즐 핀드레이. 그녀는 대자연의 품에 안겨 인생에 대해 고찰하고 등반 기술을 연마하곤 한다. 동틀 무렵 길을 나선 그녀는 영국 북부 스노도니아의 웨일 산군을 달리며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암벽화가 필요한 장소에선 발을 멈춰 세우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안전장치 없이 솔로로 벽을 오른다. (곽정혜)

Hazel Findlay is among a list of world-renowned climbers continuing the legacy of traditional climbing. She is a person who seeks nature to contemplate life and polish her mountain climbing techniques. Setting out on her journey at daybreak, she listens to her inner voice as she runs through the Snowdonia Welsh mountains of Northern England. She stops at a location that requires climbing shoes, and with great confidence in herself, she starts solo climbing the rock before her without any safety gear. (GWAK Jeong-hye)



### 폴 디플리

모험 영화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는 폴 디플리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영화 제작사 핫 에이크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카메라맨, 감독, 편집자 등의 신분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맡기도 한다. 폴은 영화적인 관심 외에도 암벽등반, 아웃도어 스포츠를 오랫동안 즐겨왔다.

### Paul DIFFLEY

Paul is a multi-award winning adventure film maker, based in Scotland. As well as creating his own productions under his Hot Aches label, he also works as a freelance cameraman, director and editor. He is a lifelong rock climber and general outdoor enthusiast.

## 클라이밍 브로 Brothers of Climbing

USA | 2017 | 8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8:30 | ET 1

미국 내에 수많은 클라이밍 짐이 있지만, 그곳에서 암벽등반을 즐기는 유색인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BOC(Brothers of Climbing)의 공동설립자인 미하일 마틴은 소수민족 출신의 젊은이들이 아웃도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민족 다양성이 증가하고,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차츰 변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곽정혜)

There are several climbing gyms in the U.S., but just a few people of color who enjoy rock climbing at these venues. Co-founder of BOC (Brothers of Climbing) Mikhail Martin looks forward to encouraging more young minority members to participate actively in outdoor activities. And through the positive energy that comes out of this, he hopes for more ethnic diversity and gradual change in deep-rooted stereotypes. (GWAK Jeong-hye)



### 던컨 설리반

필라델피아 외곽 출생. 그는 촬영 감독 및 감독으로 사람들과 그들의 삶, 그리고 공간에 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찍었다. 강렬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화면에 담아낸 그의 영화는 윌리엄스버그 독립영화제, 뉴욕매거진 등에 초청되었다.

### Duncan SULLIVAN

Cinematographer & director. He has spent his life telling docu-style stories about people, their lives, and their habitats. His works combining beautiful cinematography with strong storytelling were invited to the Williamsburg Independent Film Festival.

## 클라이밍 픽처스 Climbing Pictures

Korea | 2017 | 10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8:30 | ET 1 | GV | World Premiere

남해원 감독은 벽을 오르는 등반자들에게 매력을 느껴 등반 사진 촬영을 시작했고, 이젠 사진을 넘어 등반 영화에 도전했다. 영화는 인공암벽, 자연암벽, 빙벽, 리지등반까지 각각의 촬영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친절하게 소개하는 등반 사진 촬영 입문서 같다. 한 컷 한 컷 스치듯 지나가는 등반 사진들 속에서 한국의 여러 암벽, 빙벽 그리고 산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최선희)

Nam Hae-won whose climbing photography career began after witnessing rock climbing is now taking it further by making a climbing film. The film gives a step-by-step introduction to sport climbing, rock climbing, ice wall climbing and ridge climbing in a series of videos and photos. As the climbing photos are presented cut by cut, a panorama of the various rock walls, ice walls and mountains of Korea unravel before your eyes. (Billy CHOI)



### 남해원

2012년 암벽등반을 알게 되면서 촬영을 위해 등반을 배우기 시작했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암벽에 점처럼 매달려 있는 등반가들의 풍경에 매료되어 지금까지 암벽등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NAM Hae-won

When he started rock climbing in 2012, he started photography, and realized that climbers wanted records but were not good at photography. After that, he started climbing to film and record them as best as he could. He has continued taking pictures of rock climbers.

# 모험과 탐험

## Adventure & Exploration

다양한 산악 스포츠, 스릴 넘치는 모험과 탐험, 그리고 가슴 설레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으로 총 16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링, 남극과 북극 탐험, 스키, 트레일 러닝, MTB, 카약, 스키, 패러글라이딩, 서핑, 스카이 점핑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종류의 아웃도어 활동과 모험을 다룬 영화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취향에 맞춰 골라 볼 수 있다.

<홀리 투어>, <달리는 가족>, <우리 엄마>, <빅 월드>는 사이클링, 달리기, 카약 탐험 등 서로 다른 종목을 다루고 있지만, 함께 하는 야외 활동을 통해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들이다. 북극 탐험에 나선 화가의 성찰적 에세이인 <아르티코>, 남극 탐험이란 평생의 꿈을 이룬 한 남자를 코믹하게 보여주는 <가자! 남극으로>는 신비하고 광대한 극지에 대한 경탄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에 자연이 보내는 경고를 전해준다.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드림라이드 3>는 MTB로 이룰 수 있는 상상력의 끝을 보여준다. <워킹 온 에어>는 먼 이국땅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행복한 한국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This section will introduce 16 films about various mountain sports, thrilling adventures and explorations, and exciting journeys. Choose from the diverse lineup of outdoor activities including Tour de France, North and South Pole explorations, skiing, trail running, MTB, kayaking, paragliding, surfing, and sky jumping.

*Holy Tour*, *The Wolfpack*, *Mi Mamá*, and *Big World* are about different events (cycling, running, kayaking), but all have the same theme of family ties getting stronger through outdoor activities. Two films don't just marvel at the mystical and vast ends of the world but relay Mother Nature's warning through the changing climate: *Artiko*, a reflective essay about a painter headed for the North Pole, and *Let's Go to Antarctica!*, a comedy about a man realizing his dream of exploring the Antarctic. The final part of the trilogy, *DreamRide 3*, shows the limits of imagination that MTB can accomplish. *Working on Air* is the story of a happy Korean youth working hard to realize his dreams in a foreign land.

## 홀리 투어 Holy Tour

Belgium, France | 2018 | 70min | Color | Documentary

모험과 탐험  
Adventure & Exploration



09. 08 | 13:30 | AC 3 | GV | Korean Premiere



### 발레리 호시에, 메릴 포투나-호시

두 감독 모두 벨기에의 방송예술학교에서 수학하고 단편영화 <E411>을 공동연출하였다. 각자 단편 영화 작업을 하다가 다큐멘터리 <사일런스 라디오>를 같이 만들었고 이 영화는 2013년 바이리츠국제시청각프로그램페스티벌에서 황금피파상을 수상하였다.

### Valéry ROSIER, Méryl FORTUNAT-ROSSI

They both studied at the Institut des Arts de Diffusion. They co-directed *E411*, their first short film. After separately directing other short films, they got together again to write the documentary *Silence Radio*, which won the Golden FIPA in Biarritz in 2013.

3주간 프랑스 전역을 달리는 자전거 경기인 투르 드 프랑스는 매해 여름 돌아오는 바캉스의 상징이자 전 국민적인 축제다. 그래서 경주를 구경하기 위한 팬들이 길목마다 모여든다. 길을 달리는 자가 아니라 길 옆에서 응원하는 자의 시선에서 투르 드 프랑스를 담은 이 새로운 다큐드라마는 알프스의 길 위에서 선수들을 기다리는 은퇴자들의 일상을 따라간다. '대미사'라는 뜻의 제목이 보여주듯 이들에게 투르 드 프랑스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경건하게 참여하는 성스러운 의식이다. 선수들이 눈앞을 지나갈 영광의 디데이를 손꼽는 이들의 열띤 기다림에 동참해보자. (서도은)

Le Tour de France, the bicycle race running for three weeks throughout France, has become a symbol of the annual summer vacation as well as a national celebration. Likewise, fans flock to key routes to witness the race. This docudrama offers a fresh new take on the race not from the competitors' point-of-view, but from those cheering at the side of the road they pass through by following retirees waiting for the competitors along the Alps roads. As indicated in its original title *Le Grand-Messe*, to these people, Le Tour de France is not simply a sport, but a holy ritual that must be attended with reverence. How about joining the crowd's passionate wait for the day of glory when competitors pass by right before their eyes. (SEO Do-eun)

ADVENTURE DNA, ZEROGRAM

# ZEROGRAM



**ZEROGRAM**  
GO LIGHT GET MORE

## 가자! 남극으로 Let's Go to Antarctica!

Spain | 2018 | 5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8:30 | ET 1 | Asian Premiere

'자연 애호가'이자 '환경론자'인 카를로스는 휴가차 남극에 와 있다. 중국산 디젤 연료로 운행하는 배 덕분에 그는 여기 올 수 있었고, 남미에서 공수해온 양고기를 즐기 위해서도 탄소 배출은 피할 수 없었다. 영화는 환경론자이자 자연애호가인 카를로스의 이 아이러니한 휴가를 유머와 풍자를 총동원해 보여준다. 탄소 배출 없는 휴가는 과연 불가능한가? (맹수진)

An avid 'nature enthusiast' and 'environmentalist', Carlos is spending his holiday in the Antarctic. He was able to make it here thanks to a Chinese diesel-fueled ship making carbon emissions unavoidable. The film employs humor and satire to present environmentalist and nature enthusiast Carlos' ironic holiday. Is it really impossible to enjoy a holiday free of carbon emission? (MAENG Soo-jin)

### 곤자가 만소

영화감독이자 사진작가. 주로 광고와 예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펍시, 맥도날드, DDB, 맥킨-에릭슨 등과 일했고 몇몇 작품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촬영 감독으로서 하비에르 페서, 이자벨 코이젯트와 같은 스페인 감독과 작업했다.



### Gonzaga MANSO

Director and photographer. He is mainly focused on advertising and artistic work. He has worked for clients like Pepsi, McDonald's, DDB, McCann-Erickson. Some of these works have received awards at international festivals. He worked as a director of photography with Javier Fesser, Isabel Coixe.

## 니콜라스 뮐러의 동행 Where We Roam: Nicolas Müller

Switzerland, Tanzania, USA, Canada, Japan | 2018 | 12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3:30 | AC 3

스노보드 세계의 현존하는 전설 니콜라스 뮐러는 이제 스노보드를 통해 더 넓고 의미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바로 자신의 전기 영화 <니콜라스 뮐러의 삶과 꿈>의 크라우드 펀딩 수익금의 5%를 아프리카 우물 건축에 기부하기로 한 것. 그 에피소드 중 하나인 이 작품은 니콜라스 뮐러가 우물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로 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장보영)

Legendary snowboarder Nicolas Müller is trying to build a more meaningful world through snowboarding. He has decided to donate 5% of the crowdfunding profits of his biopic film *Fruition, The Life and Dreams of Nicolas Müller* to the construction of wells in Africa. This piece is one of the episodes in his film, and it follows Müller's journey to Africa for his well project. (JANG Bo-young)

### 손 피

감독이자 촬영감독인 손 피는 미국 출신으로 십 대 때부터 형과 함께 아웃도어 영화를 제작해왔다. 스케이트 보딩, 서핑, 스노보딩에 대한 열정으로 광활한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접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처한 다양한 상황이 가진 복잡성을 탐구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



### Sean FEE

Sean Fee is a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His passion for Skateboarding, Surfing and Snowboarding has helped him develop a connection for nature, culture and adventure. His storytelling reflects his desire to engage with the complexities of the human condition.

## 달리는 가족 The Wolfpack

USA | 2018 | 13min | Color | Documentary



09. 06 | 12:00 | AC 2  
09. 10 | 11:00 | AC 3

엄마, 아빠, 세 자녀로 구성된 브래포드-레페브르 가족은 콜로라도주 실버턴에 있는 산 후안 산맥에 살면서 숲을 거닐고, 목장과 초원을 횡단하며, 높고 거친 봉우리를 탐험한다. 산과 자연, 달리기는 이들 가족에게 견고한 치유의 도구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마치 '한 무리의 늑대처럼(Wolfpack)' 그들은 오늘도 야생을 달린다. (장보영)

The Bradford-Lefebvre family consisting of mom, dad and three siblings who reside in the San Juan Range in Silverton, Colorado, explore high and rugged mountaintops as they pass through forests and traverse through ranges and plains. The way they race along mountains and nature is the family's holy tool for healing, and a means for a proper life. Like a pack of wolves, they continue their course in the wilderness. (JANG Bo-young)

### 닉 와고너

뉴욕시의 뒷골목 출생. 수줍고 겸손한 성격 때문에 감독과 프로듀서가 되었다. 콜로라도대학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전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적 리듬과 감정이 풍부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



### Nick WAGGONER

Born in a back-alley dumpster in New York City, Nick lends his shyness and modesty to Sweetgrass Productions as Director/Producer. Nick uses his Colorado College BA in Documentary Film to tell stories through poetic rhythm and soulful narrative.

## 드림라이드 3 DreamRide 3

New Zealand | 2018 | 7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0:00 | AC 1

영화감독이자 MTB 전문 라이더인 마이크 홉킨스의 <드림라이드> 3부작의 마지막 시리즈. 뉴질랜드 전역을 무대로 촬영한 6분 분량의 이 짧은 필름은 지구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거칠고 아름다운 야생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바위산, 능선, 둔덕, 밀림, 협곡, 연안, 사막, 용암 등 모든 곳에서 가능한 사이클링의 꿈만 같은 세계. (장보영)

This is the last episode of the 3-part *DreamRide* series directed by filmmaker and professional MTB rider, Mike Hopkins. This 6min short set across New Zealand takes us into the grandest, but severe and breathtaking wilderness that can be found on earth. The world introduced here is a cycling dream come true with all the rocky mountains, ridges, knolls, jungles, canyons, coasts, deserts and lavas to be conquered. (JANG Bo-young)



### 마이크 홉킨스

홉킨스는 프로 모험가이면서 제작자 및 감독이다. Juicy Studios와 함께 모험을 즐기는 팀을 만들고 세계를 탐험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거주하며 모험과 놀이를 결합한 아웃도어 전문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 Mike HOPKINS

Hopkins is a professional adventure athlete, producer, and director. By working alongside agencies like Juicy Studios, he has built an adventure loving production team that has won awards and the opportunity to meet people and explore the world.

## 물의 사람들 (People) of Water

USA | 2019 | 23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8:30 | ET 1

깊은 계곡을 흐르는 물이 결국 바다에 도달하는 것처럼, 급류타기 래프팅 선수들은 마치 필연인 양 바다 위에서 노를 저기에 이른다. 미국 국가대표 래프팅 팀의 롬 프레츨과 동료들은 세대를 이어 온 아우트리거 카누 장인들에게서 그 역사와 정신을 이어받고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나팔리 챌린지에 참여한다. 급류에서 대양으로 이어지는 '물의 사람들'의 아우트리거 카누 도전기. (서도은)

Like water passing through a deep valley to reach the sea, whitewater rafters paddle along the sea as if they were born for it. The USA Men's Raft Team's Rob Prechtl and teammates follow the legacy and spirit of outrigger canoe masters passed down for generations to participate in the Kauai Na'Pali challenge. This film follows the 'People of Water' outrigger canoe journey from the whitewaters to the sea. (SEO Do-eun)



### 포레스트 우드워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모험 전문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서핑, 등산 등에 조예가 깊으며 이주 노동자나 거리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많다. 주요 연출 작품으로 울주세계산악영화에서도 상영된 <소중한 순간들>(2015), <시간 여행자>(2017)가 있다.

### Forest WOODWARD

Adventure photographer who was born and raised in North Carolina, but his career has seen him log many miles across the globe as he has captured the beauty of sports, such as surfing and climbing, as well as intimate portraits of migrant workers and street kids.

## 블러치 Blutch

France | 2018 | 52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3:30 | AC 3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네팔을 지나 히말라야를 패러글라이딩으로 종단하는 환상적인 모험기. 니콜라스 엘리엇은 텐트와 찌그러진 냄비, 바이올린 만을 짊어지고 홀로 4개월에 걸친 하늘길 여정에 나선다. 지역 경찰에 체포당하고 추락해 부상을 입는 어려움의 와중에도 친절한 지역민들과 산등성이 곳곳에서 맞이해주는 친구들 덕에 힘을 얻는다. (서도은)

This is a fantastic tale of adventure that spans a paragliding journey from Tajikistan, Pakistan, India and Nepal to the Himalayas. Nicolas Alliot sets out on a 4-month airborne trip with just the comforts of a tent, a dented saucepan and a violin. He meets adversities, getting arrested by the local police or enduring crash-induced injuries, but despite all the hardships, he is able to find the energy and strength to move on with the help of kind locals and friends who greet him at a number of stopover ridges. (SEO Do-eun)



### 니콜라스 엘리엇

패러글라이딩 감독. 자유 비행과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된 그는 그 둘을 결합해서 스포츠와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

### Nicolas ALLIOT

Nicolas Alliot is a paragliding director. Passionate about free flight and beautiful images, he combines his two disciplines, to share with the greatest number the beauty of this sport & nature.



## 빅 월드 Big World

USA | 2018 | 13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0:00 | AC 1

등반 가이드인 아빠 데이비드와 그의 7살짜리 아들 손이 패들보드를 타고 서부 네팔의 카날리와 베리 강을 일주일간 여행한다. 수영, 다이빙, 캐너닝 등을 통해 아들 손은 내면에 살아 숨 쉬는 야생성과 마주한다. 데이비드는 말한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호기심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장보영)

Mountain climbing guide David and his 7-year old son Thorne spend a week-long trip to Bheri and Karnali Rivers located along western Nepal on paddleboards. As he swims, dives and rafts through the currents, Thorne gets to face wild nature alive and thriving inside of him. David says that you have to keep your kids safe, but you also have to teach them to take risks and follow curiosity. (JANG Bo-young)



### 데이비드 모튼, 피츠 카홀

청태이프와 맥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츠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가로 시작했다. 현재는 행동 경제학과 다른 이들의 창의성을 일깨워 주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데이비드 모튼은 히말라야 전문 가이드, 사진작가, 그리고 커피 애호가이다.

### David MORTON, Fitz CAHALL

Creative Director of Duct Tape Then Beer, Fitz started his career as a true dirtbag writer and is currently passionate about behavioral economics, and helping others realize their creativity. David is a professional Himalayan guide, photographer and coffee snob.

## 스키 형제단 Brotherhood of Skiing

USA | 2018 | 11min | Color, B&W | Documentary



09. 10 | 15:00 | AC 1

1970년대, 흑인들이 한겨울 눈 위에서 스키를 타는 것은 무척 전위적이고 고무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그들은 흑인들은 스키를 타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맞서 계속 스키를 탔고, 당시 결성한 전국스키어협회(NBS)는 미국을 대표하는 스키 클럽이 됐다. NBS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차세대 흑인 스키어들을 양성한다. (장보영)

It was an extremely radical and inspiring attempt for African Americans to ski on the winter snow during the 1970s. However, a few challenged the stereotype that African Americans do not ski by skiing, and the NBS (National Brotherhood of Skiers) founded at this time has become one of the key ski clubs in America. The NBS continues its activities, fostering the next-generation skiers of African descent. (JANG Bo-young)



### 콜린 아리즈먼, 타이러 윌킨슨 레이

타일러 윌킨슨 레이는 영화감독이고 콜린 아리즈먼은 지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 그들 각자의 영화는 밴프, 텔룰라이드산악영화제를 포함한 유수의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았다. 그들은 와일더스튜디오의 공동 창립자이다.

### Colin ARISMAN, Tyler WILKINSON-RAY

Tyler Wilkinson-Ray is a filmmaker. Colin Arisman tells a story that elevates our planet's most pressing causes. Their works have received widespread recognition including from Banff and Telluride Mountain Film Festival. They are the co-founders of The Wilder Studio.

## 아르티코 Artiko

Spain | 2019 | 17min | Color, B&W | Documentary



09. 08 | 18:30 | ET 1 | World Premiere

화가인 헤수스 마리 라즈카노는 2017년 6월, 뉴욕 북극권 재단과 함께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군도로 떠난다. 그는 북극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미지의 감각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극한에 마주했을 때 솟아나는 호기심은 그에게서 새로운 이미지를 이끌어내고, 북극을 담은 그림은 마음의 지형도가 되어 끝없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풍경으로 재탄생한다. (서도은)

On June 2017, painter Jesus Mari Lazkano set out on a journey with the New York's Arctic Circle Foundation to the Svalbard Archipelago in Norway. His firsthand experience of the vast and overwhelming Arctic landscapes is expressed in a painting. The inquisitive drive when faced with the extreme inspires new images in him, and his painting of the Arctic becomes an indication of the map of the soul, reborn into a landscape that endlessly stimulates the realm of imagination. (SEO Do-eun)



### 헤수스 마리 라즈카노, 호수 베네로

헤수스 마리 라즈카노는 화가이자 바스크 국립대학교 회화과의 정교수이고, 호수 베네로는 영화감독이다. 그들은 박물관의 여러 시청각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작업했다. 단편 다큐멘터리 <아르티코>는 그들의 첫 공동연출작이다.

### Jesus Mari LAZKANO, Josu VENERO

Jesus Mari Lazkano is a painter and professor of the Dept. of Painting in the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Josu Venero is a film director. They have worked together in several audiovisual projects for museums. *Artiko* is their first short documentary film.

## 왈마푸 Wallmapu

Chile | 2018 | 6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21:00 | AC 4

현재의 칠레 일대를 아우르는 왈마푸 지역에는 오랫동안 자신들의 신화와 언어를 지켜온 원주민들이 있다. 그들은 지금도 별이 지구에 가져다준 생명과 지혜를 숭배하며 살아간다. 위험하고 경이롭고 아름다운 야생의 오지에서 극한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지만, 그러한 모험을 원주민의 신화와 철학, 문화의 품 안에 끌어안은 영화는 흔치 않다. (맹수진)

In the Wallmapu area, which encompasses current Chile, there are aborigines who have been preserving their myths and language for a long time. They still worship wisdom and life on earth, which originates from the stars. Unlike many other films about the aborigine people, this film shows that they enjoy extreme sports in the dangerous, wondrous and beautiful wild. These aborigine people embrace adventure from their own indigenous mythical, philosophical and cultural perspective. (MAENG Soo-jin)



### 벤 스테르글루스키

미국 알래스카 출신으로 스테지필름의 창업자이다. 감독, 카메라맨, 편집자, 작가로서 두루 재주를 갖춘 그는 스포츠, 다큐멘터리, 서사, 상업 등 다양한 영화를 제작한다. 거친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세상의 끝을 찾아 탐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작품을 주로 만들어왔다.

### Ben STURGULEWSKI

Sturgefilm founder, director, cinematographer, editor, and writer. He's worked in definitely nasty and awe-inspiring conditions around the world—all while bringing a unique and critical cinematic perspective to action sports, documentary, and narrative.

## 우를 찾아서 The Search for the Woo

Austria | 2018 | 10min | Color | Fiction



09. 10 | 16:00 | AC 3 | Korean Premiere

오스트리아 출신의 젊은 산악인 다비드 라마, 등반 기량이나 활동에서는 최고임을 인정받고 있지만 어린 시절 등반을 하면서 느꼈던 순수한 즐거움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다비드는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고자 친구들과 함께 모험에 나서고, 드디어 그곳에서 새로운 즐거움이자 놀이인 서핑을 발견한다. 지난 6월 아깝게 세상을 떠난 다비드 라마가 출연한 마지막 영화. (최선희)

Young Austrian mountaineer David Lama is well known for his climbing skills, but feels like he is losing the pure joy of climbing he used to have when he was a kid. To rekindle his passion, he starts off in an adventure with friends, and discovers a new joy – surfing. It is the last film featuring Lama, who sadly passed away last June. (Billy CHOI)



### 마틴 페지엘

13년 동안 영국, 스페인, 브라질,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4편의 다큐멘터리와 수많은 상을 받은 광고를 찍었다. 그는 작품의 주인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독특한 부조리의 미학을 선보인다. 데뷔작, <이것은 캘리포니아가 아니다>는 다수의 국제상을 수상했으며 전 세계에서 상영되었다.

### Marten PERSIEL

He has made four documentaries, and countless award-winning commercials for 13 years. Persiel's trademarks are his close bonds with his protagonists and his very own, off-key aesthetics. His debut Film *This Ain't California* has won a host of international awards.

## 우리 엄마 Mi Mamá

USA | 2019 | 6min | Color | Documentary



09. 06 | 12:00 | AC 2

09. 10 | 11:00 | AC 3

스카이다이버, 달리기 선수이자 등반가인 나디아 이리스 메르카도는 길을 달리는 순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 느낀다. 그가 아웃도어 스포츠를 통해 조상과 연결되고 대자연과 하나 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 전승된 유산 덕분이다. 이주민이자 여성으로서, 후손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산 한 어머니에게 딸이 바치는 헌사이자 모계로 전승되는 역사와 우면 파위에 바치는 찬가. (서도은)

Skydiver, runner and climber, Nadia Iris Mercado believes she becomes her true self when she starts running on the road. The fact that she can feel a connection with her ancestors through outdoor sports and experience herself becoming one with the great nature is due to the legacy her mother passed on to her. This film is a homage to her mother who lived life to the fullest as an immigrant and a woman, and an anthem to a history handed down through the maternal line as well as the power of women. (SEO Do-eun)



### 제이드 베게이, 제임스 Q 마틴

베게이는 여러 수상 경력을 보유한 사진작가 겸 감독. 본인에게 영감을 주는 운동선수나 작가, 환경보호 활동가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Q는 아웃도어 전문 사진가이자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산악영화 전문 감독이다. 환경 보전 활동과 정성급 전문가들에 대한 영화를 주로 제작했다.

### Jade BEGAY, James Q Martin

Begay is a multimedia artist and filmmaker. Her work explores the intersections of indigenous rights, women's rights and climate change. Q is a photographer and award-winning filmmaker. He documents the stories of athletes, artists, and conservationists who inspire him.

## 워킹 온 에어 Working on Air

Korea, Australia | 2019 | 26min | Color, B&W | Fiction



09. 08 | 18:30 | ET 1 | GV | Asian Premiere

헬조선을 떠나 외국에서 삶을 개척하려는 젊은이에게 현실의 팍팍함은 여기나 거기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유머와 무데뽀 정신을 장착한 이 어수룩한 한국 청년의 호주 생존기는 끝내 꿈꿨던 나날의 현실을 밀어내고, 꿈은 이루어진다는 유쾌한 낙관주의를 관객에게 선물한다. 이들의 삶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충분했기에 하늘을 일터로 만든 그들의 꿈은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맹수진)

The young Koreans leaving the hardships life of 'hell Korea' to carve out a new life overseas face experiences no different from those in Korea. However, the tale of survival this naïve young Korean man armed with humor and determination experiences in Australia presents the audience with a delightful optimism whereby a stinking reality is pushed aside by a dream fulfilled. Their earnest efforts are enough to turn the sky into their workplace, and this is what makes their dream shine so brightly. (MAENG Soo-jin)



### 이로빈

2013년 호주에 이민한 후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향하다가 뒤늦게 영어 공부를 마치고 영상학과를 졸업했다. 첫 단편 작품의 실패로 인해 한동안 좌절도 있었지만 두 번째 작품을 도전하게 되었다. 그 계기는 바로 불타는 청춘과 영화에 대한 열정이었다.

### LI Robbin D.

Ever since migrating to Australia in 2013, He wandered amongst different paths, completing his English studies and studies in film. Although he had lost faith and motivation due to an unsuccessful first attempt at a short film, he endeavored to create a second piece of work.

## 챔피언 RJ RJ Ripper

Nepal, USA | 2018 | 20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5:00 | AC 1

네팔 출신 MTB 챔피언이자 2018 내셔널 지오그래픽 모험가 라제쉬 마가르의 성장 스토리.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 대한 열정을 키웠던 그는 열여섯 살에 버려진 금속 배관 파이프와 오토바이 쇼크를 용접해 만든 자전거로 인생 첫 산악자전거 경기에 출전한다. 쓰레기와 매연이 가득한 거리에서 히말라야를 질주하는 라이더가 되기까지의 여정. (장보영)

*RJ Ripper* is a coming-of-age tale of Nepalese MTB champion and 2018 National Geographic adventurer Rajesh Magar. Magar pushed forward with his passion for bike riding despite growing up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He entered his first mountain biking competition on a self-modified bike using discarded plumbing pipes welded with a coil spring from a scooter at the mere age of 16. This film follows Magar's journey from the trash and fume-filled streets to become a bike rider speeding through the Himalayas. (JANG Bo-young)



### 조이 슈슬러

전문 어드벤처 선수, 사진작가, 그리고 감독이다. 아웃사이드 매거진의 아웃도어 산업에서 큰 발전을 이룬 '30세 이하의 30대에 뽑히기도 하였다. 사진가로서의 창의력과 경기력을 결합하여 영화를 만들고 있다.

### Joey SCHUSLER

He is a professional adventure athlete, photographer, and filmmaker. Named as one of Outside Magazine's '30 under 30' of young people making big strides in the outdoor industry. He makes the film combining his athletic skills with his creative drive as a photographer.

## 토르 Tor

Spain | 2018 | 41min | Color | Documentary



09. 06 | 12:00 | AC 2 | International Premiere  
09. 10 | 11:00 | AC 3

2017년, 40대 여성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실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장거리 트레일 레이스인 이탈리아 토르 데 지앙에 도전한다. 실거리 330km, 누적 고도 24,000m, 제한 시간 150시간의 이 극한 레이스에서 그녀는 추위, 잠, 눈과 비와 바람 등 악천후와의 사투 끝에 5위에 오르고, 이듬해 재도전해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한다. (장보영)

In 2017, a mother of 2 in her forties, Silvia Trigueros decided to challenge the Italian Tor des Geants, known as the world's most difficult long-distance trail race. During this extreme race spanning 330km, an accumulated altitude of 24,000m, and a 150 hr time limit, she fought the cold, sleep deprivation, snow, rain, wind and other bad weather to finally finish the race in 5th place, and take the crown when she competed the following year again. (JANG Bo-young)



### 이나키 우레스티 아르부르, 미켈 우레스티 아르부르

바스크 지역 아팍손도 출생. 그들은 등산, 스포츠, 음악, 영화 연출이라는 공통의 취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두 형제는 아마추어 프로젝트 <가라코다다>를 공동으로 연출하면서 영화의 시나리오, 음악, 촬영을 모두 직접 하였다.

### Iñaki URRESTI ARBULU, Mikel URRESTI ARBULU

Born in Atxondo, Basque Country. They are united by hobbies and passions: mountains, sports, music and filmmaking. They have created *Garakordada*, an amateur project where they create and tell stories through storytelling, images and music.

# 자연과 사람

## Nature & People

산,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는 섹션으로 총 11편을 상영하며, 이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한국 등 아시아 영화가 다수 포진되어 있다. 산과 자연에서 받는 혜택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과 그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그리즐리 세상>은 처음 마주친 회색곰의 매력에 빠져 평생을 산에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펼치는 한 남자의 감동적 이야기이며, <여우>는 탐욕스러운 인간을 동물의 방식으로 처단하는 여우를 강렬한 터치와 색감으로 표현한 애니메이션이다. 툰드라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순록을 키우는 사람들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바얀달라이 - 타이가의 주인>과 알타이에 사는 농부의 마지막 순간을 연극적으로 담아낸 <산울타리>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조용히 일깨워준다. <타카이나>는 세계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여전히 자행되는 채광과 벌목에 맞서 숲을 지키려는 호주 태즈메이니아 사람들의 연대와 투쟁을 보여준다. 한국 영화인 <시절인연: 지리산>은 우리 산의 아픈 역사를 현재로 다시 불러들인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단편이다.

This is a section introducing the lives and culture of people living in mountains and nature. Eleven films will be screened from many Asian countries including Iran, Indonesia, Pakistan, India, and Korea. They will talk about the people who are thankful for the blessings they receive from the mountain and nature and take pains to preserve that precious nature.

*Grizzly Country* is a touching film about a man who spends his entire life protecting wild animals after being enthralled by grizzly bears, and *The Fox* is an animation portraying a fox punishing greedy humans with intense touches and colors. Two films remind us that humans are also part of nature: *Bayandalai - Lord of the Taiga*, a lyrical portrayal of people raising reindeer in a traditional manner in a tundra area, and *The Hedge*, a theatrical exploration of an Altai farmer's last moments. *Takayna* shows the solidarity and struggles of the people of Tasmania, Australia, as they fight to protect the rainforest from mining and logging that persists despite it being designated as a World Cultural Heritage. The Korean film *Accidental Ties: on Jirisan* is a brilliant short film bringing back the memories of the painful history of our mountains.

## 절대 고요를 찾는 남데브 아저씨 Namdev Bhai in Search of Silene

India, Ukraine | 2018 | 83min | Color | Fiction



09. 09 | 21:00 | AC 4



### 다르 가이

다르 가이의 장편 데뷔작, <Teen Aur Aadha>는 인도의 유명 감독 아누락 카시얏과 공동 제작하였다. 이 영화는 40개가 넘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으며 18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두 번째 장편 <절대 고요를 찾는 남데브 아저씨>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그녀의 다음 영화 <In-Law>는 베를린국제영화제의 공동제작 마켓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 Dar GAI

Dar's feature debut, *Teen Aur Aadha* is being co-produced by noted Indian filmmaker Mr. Anurag Kashyap. The film has traveled to over 40 International Festivals and won 18 Awards. Dar's second film, *Namdev Bhai in Search of Silence* was invited to various film festivals including BIFF. Her project titled *In-Law* has been selected as 1 of 10 projects for the Berlinale Co-production market.

밤낮없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뭄바이의 소음에 지친 남데브씨는 아내의 저주 섞인 욕설을 뒤로한 채 '침묵의 계곡'으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침묵을 찾아 나선 여행에서 고요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한기도 입을 다물지 않는 수다스러운 소년을 혹처럼 붙이고 만다. 세상의 소음을 피해 도피한 노인과 수다스런 소년의 좌충우돌이 시종일관 코믹하게 펼쳐진다. 그러나 이 코믹한 짝패의 여행은 남데브씨가 우연히 소년이 수행 중인 게임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한다.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에 필적할만한 아름다운 영화다. (맹수진)

Namdev is fed up with the noise in Mumbai torturing him day and night. He decides to go to 'Silent Valley' despite the heavy grumbling of his wife. However, while he expected to find peaceful silence, he ends up travelling with a boy who talks all the time as a companion. Thus unfolds the comic situation of an old man who wants to escapes from the noise and a talkative boy. This amusing journey completely turns into a new story when Namdev accidentally figures out the truth of the game which the boy practices. This film is comparable to *Life is Beautiful* by Roberto Benigni. (MAENG Soo-jin)

## 15.7 KM 15.7 KM

Indonesia | 2018 | 15min | Color | Fiction



09. 06 | 12:00 | AC 2 | Korean Premiere

09. 10 | 11:00 | AC 3



### 리안 아프리안시아

인도네시아, 방카섬 출신의 독립영화감독.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연출뿐만 아니라 촬영감독, 음향감독,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15.7 KM>는 그의 세 번째 단편 영화로 국내외의 영화제에서 수십 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 Rian APRIANSYAH

He is an independent filmmaker. He is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in many divisions. In film production, he is involved in directing, camera, sound, and editing. His third film, *15.7 KM* received dozens of awards,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15.7 KM. 인도네시아 방카섬 소년 부디가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동 거리이다. 영화는 별다른 사건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고, 걷고, 배를 타고, 운 좋게 남의 오토바이를 얻어타고, 그리고서 또 하염없이 걸어서 학교에 도착하는 소년의 일상을 말없이 보여줄 뿐이다. 이러한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하게 소년의 현실을 드러낸다. (맹수진)

15.7 KM. This is the total distance a young boy named Budi from Banka Isle, Indonesia must travel to get to school. Not much really happens in the film. It just shows the daily routine of the boy leaving home and walking, riding a boat, maybe lucky enough to hitch a motorcycle ride, and then walking again to finally reach his school. The lack of dialogue in the film reveals the young boy's reality more powerfully than any words could do. (MAENG Soo-jin)

## 그리즐리 세상 Grizzly Country

USA | 2018 | 12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2:00 | AC 2

기후변화와 야생 서식지의 감소로 회색곰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작가이자 자연보호 활동가인 더그 피콕은 회색곰과 최초로 마주쳤던 강렬한 경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후, 와이오밍과 몬타나의 회색곰 서식지에서 그들을 관찰하며 산다. 그는 옐로스톤의 회색곰이 위협을 받음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이 아름다운 동물을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서도은)

The grizzly bear is in danger due to climate change and the decline of its wild habitat. Doug Peacock is a writer and conservationist. He has been living and observing them in their habitat of Wyoming and Montana since an intense experience when he first encountered a grizzly bear and then changed his whole life. As grizzly bears in Yellowstone are threatened, he tries to disseminate the importance of wildlife habitats and protect this beautiful animal. (SEO Do-eun)



### 벤 문

사진가로서 파타고니아와 16년간 일하고 난 후 감독이 되었다. 자신의 직장암 투병기와 그의 반려견, 드날리와의 관계를 다룬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1,500만 명 이상이 이 영화를 관람했고 아직도 영화는 상영 중이다. 벤은 현재 오리건 해안의 퍼시픽 시티에 살고 있다.

### Ben MOON

After working as a photographer with Patagonia for 16 years, he became a filmmaker. Most recently, he told his personal story about his own battle with cancer & relationship with his dog Denali, in a short film that has reached over 15 million people.

## 러브 오브 더 게임 For the Love of the Game

UK, Pakistan | 2019 | 7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3:30 | AC 3

파키스탄의 가장 먼 곳, 해발 4천 미터가 넘는 산두르패스에서 매년 폴로 경기가 열린다. 계곡을 끼고 라이벌 관계인 치트랄과 길기트의 부족이 맞붙는 이 게임은 수 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전통이다. 치트랄의 주장 시칸다는 20년이 넘도록 팀을 이끌어왔다. 평생을 폴로 선수로만 살았지만, 후회는 없으며, 육체가 허락하는 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싶다고 그는 말한다. (곽정혜)

Every year, a polo match is held in Shandur, the furthest region in Pakistan located above an altitude of 4,000m. This match in which the Chitral and the Gilgit, who are set on each side of a valley, fight each other has been a tradition held for centuries. The Chitral head Sikander UI Mulk has led his team for more than 20 years. He spent a lifetime as a polo player and has no regrets. He says he would like to continue his mission as long as his health permits. (GWAK Jeong-hye)



### 트로이 에디지

감독 및 촬영 감독으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 런던에서 터키인 부모님 산하에 태어났고 이스탄불에서 성장기를 보내면서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였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 생생하고 역동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 영화적 목표이다.

### Troy EDIGE

Director and DP. He was born in London to Turkish parents and spent his formative years in Istanbul, where he was exposed to a rich mix of cultures. Driven by capturing visceral moments, he aims to bring his vibrant and dynamic style to documentary.

## 바안달라이 - 타이가의 주인 Bayandalai - Lord of the Taiga

Spain | 2018 | 12min | Color | Documentary



09. 10 | 12:00 | AC 2 | Asian Premiere

이 영화는 순록의 근접 촬영에서 시작해서 순록의 근접 촬영으로 끝나는 영화다. 신의 뜻과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사는 북부 몽골 두카족에게 순록은 운명 공동체와도 같은 존재다. 순록을 통해 신의 뜻이 전달되며, 순록이 사라질 때 그들도 사라진다고 믿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물들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박하고 조화로운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헌사와도 같은 영화다. (맹수진)

The film begins and ends with a close-up scene of a reindeer. For the Dukha in Northern Mongolia, who see life as an adaptation of God's will and as the order of nature, reindeer are regarded as creatures which share the fate of the community. The Dukha believe that messages from God will be conveyed by reindeer. Also, the messages will disappear when the deer vanish. They are dedicated to the simple and harmonious beauty of life in a pristine region, which is still not polluted by neo-liberalism. (MAENG Soo-jin)



### 아네르 에체베리아 모랄, 파블로 비달 산토스

아네르는 자연과 인간에 관심이 많은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로서 많은 다큐멘터리 및 TV쇼에서 일했다. 파블로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겸 프로듀서로 국경 없는 NGO 교육용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 Aner ETXEBARRIA MORAL, Pablo VIDAL SANTOS

Aner is a filmmaker and screen writer passionate about nature and the human race. He has worked on many documentary films and TV shows. Pablo is a documentary filmmaker and producer. He directed documentary films for the NGO Education Without Borders.

## 빈센트 199 Little Heroes: Vincent from Austria

Germany | 2015 | 8min | Color | Documentary



포이어코겔 산 정상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부모님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사는 열한 살 소년 빈센트. 산기슭 마을인 에벤제의 학교에 가려면 이른 새벽에 스키를 신고 안개를 헤치며 위험한 산길을 내려가야 한다. 최근 그의 관심사는 기후변화로, 눈이 적게 내리면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는 건 물론, 어른이 되었을 때 스키를 타는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 걱정이다. (곽정혜)

Vincent is an 11-year old boy living with his cat and his parents who run a guest house on the top of the Feuerkogel mountain. For him to get to his school in Ebensee, locate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he puts on his skies early in the morning and descends through the misty, gruelling and mountainous path. Recently climate change has captured his attention as he is worried that less snow will not only put constraints on his family's business but also rob him of his joy of skiing. (GWAK Jeong-hye)

09. 08 | 16:00 | ET 1 | Asian Premiere



### 시그리드 클라우스만

푸르트벵겐 출생. 7 형제 중 세 번째로 태어났다. 현대 무용 선생님이로 근무하면서 아이들과 연극을 몇 편 올렸는데 이 연극의 인무도 담당했다. 2003년부터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청소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찍고 있다.

### Sigrid KLAUSMANN

Born in Furtwangen, she grew up as the third of seven children. She worked as a modern dance teacher and choreographed and staged several full-length plays with kids. She has been working since 2003 as a documentary film maker. The themes of her films are the affairs of adolescents.

## 산울타리 The Hedge

Russia | 2018 | 25min | Color | Fiction



강변을 따라 늘어선, 들판과 산의 경계가 되는 산울타리는 그 너머의 것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문턱의 지표이다. 알타이 지방을 가로지르는 카툰강변의 산울타리 역시 하늘과 땅을 가리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담는다. 강처럼 흘러온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제 무한한 시간의 영토로 넘어가는 한 남자의 의식 속에서, 그의 지나온 인생과 후손에게 이어질 삶의 지혜가 펼쳐진다. (서도은)

A hedge stretching along the riverside marks the border between the fields, and the mountains is an indicator of a threshold that protects what's within its boundaries. The hedge along the Katun River running through the Altai region also stretches across the sky and the land to capture the lives of the people occupying the spaces it covers. For a man whose life has flowed like the river to reach the end of his life's journey and enter the land of the infinite, his life and the wisdom of life that will be passed down to his descendants unravel. (SEO Do-eun)

09. 10 | 12:00 | AC 2 | Korean Premiere



### 미하일 쿨루나코프

1986년 알타이 출생. 영화 및 텔레비전 연출을 전공하였다. 2012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 보리스에이프만 아카데미 발레극장에서 일하다가 고르노알타이스크로 이주하여 스튜디오 CES와 알타이 필름을 설립하였다.

### Mikhail KULUNAKOV

He was born in Altai in 1986. He graduated from Spbgukit with a degree in Film and TV Directing. He worked at the St. Petersburg state academic ballet theatre of Boris Eifman in 2012. And he moved to Gorno-Altaysk, opened a theater Studio CES and the Studio Altayfilm.

## 산이 준 선물 A Time to Remember

UK | 2018 | 5min | Color | Fiction



이제는 노인이 된 한 남자는 젊은 시절 자신의 고향 스코틀랜드 북부의 야생 겨울 고원 지대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탐험했던 시간을 추억한다. 남자는 말한다. 누군가는 작가의 글이나 작곡가의 노래에서 삶의 답을 찾겠지만 나에게 삶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을 주는 것은 산이라고. 실존했던 스코틀랜드 산악인이자 작가 W. H. 머레이의 글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영화. (장보영)

A man who has now reached old age reminisces about the time when he freely travelled and explored the winter highland wilderness of his hometown in Northern Scotland during his younger years. The man states that some find life's answers in an author's writings or a composer's music, but for him it was the mountains that presented him with life's greatest lessons. This film was inspired by the writings of a real character, Scottish alpinist and writer, W. H. Murray. (JANG Bo-young)

09. 09 | 13:30 | AC 3



### 벤 페이지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감독이자 모험가, 사진가이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닿을 수 있는 세계의 가장 구석진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야생 속에서 다양한 모험을 하고 있다.

### Ben PAGE

Ben Page is a multi-award winning filmmaker, adventurer and photographer based in the UK. He spends his time travelling to some of the world's remotest corners in search of wild and diverse adventures and experiences.

## 시절인연: 지리산 Accidental Ties: on Jirisan

Korea | 2019 | 18min | Color | Fiction



09. 08 | 16:00 | ET 1 | GV | World Premiere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빚쟁이에게 독촉받는 영화감독 한솔은 안개 속 지리산을 오른다. 여기까지는 공핍한 예술가 지망생들의 자의식에 관한 고만고만한 영화 같다. 그러나 산속에서 의식을 잃은 한솔 앞에 느닷없이 빨치산이 나타나 두 사람의 대화가 펼쳐지면서 영화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어긋난 시간을 거슬러 만난 두 명의 돈키호테가 나누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 (맹수진)

Film director Han-sol climbs Mt. Jirisan when his girlfriend betrays him, and a creditor presses him to pay a debt. So far, it seems like a typical film about a poverty-stricken artist wannabe's ego trip. But when a communist sympathizer suddenly appears in front of the unconscious Han-sol, and they engage in a lengthy conversation, the film moves into a totally different dimension. This is a tale about art when two Don Quixote-like men meet through dislocated time. (MAENG Soo-jin)



### 허만훈

대한민국 부산 출신으로 민족의 상흔을 지닌 영산(靈山)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산행을 통해서 치유되는 이야기를 담으려 제작, 연출하게 되었다. 현재는 영화 영상 산업 지원 기관인 부산영상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 HEO Man-hoon

Heo directed this film to tell viewers about the people who heal the wounds of their nations by climbing Mt. Jirisan, which has a mysterious spirit. He is from Busan, South Korea and currently working at the Busan Film Commission - the public agency that supports the film production industry.

## 여우 The Fox

Iran | 2018 | 10min | Color | Animation



09. 10 | 12:00 | AC 2 | Korean Premiere

여우 사냥을 즐겼던 이란 카자르 왕국 첫 번째 왕의 실화를 여우의 시점에서 창조해낸 애니메이션. 인간에게 포획되어 방울을 목에 걸게 된 여우는 첫사랑에 대한 정념과 자신을 포획한 인간에 대한 복수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 절제된 그림과 선, 실루엣을 통해 여우의 터질 듯 복잡한 감정이 창백한 겨울 날씨를 배경으로 강렬하고도 날카롭게 묘사된다. (맹수진)

This is an animation about the true story of the Iranian Qajar Kingdom's first king who enjoyed fox hunting from the fox's point-of-view. A fox who wears a bell on its neck after being captured by humans is engulfed with sentiments for its first love and vows revenge towards the humans who captured it. Restrained drawings, lines and silhouettes create a powerful and piercing portrayal of the fox's complex emotions on the verge of exploding set against the pale winter landscape. (MAENG Soo-jin)



### 사데흐 자바디 니케

1982년 테헤란 출생으로 그래픽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애니메이션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이다.

### Sadeh JAVADI NIKJEH

Born in Tehran in 1982, he majored in graphic design and has been active in animation since 1999. He is a director, animator, illustrator, character designer, storyboard artist.

## 타카이나 Takayna

USA | 2018 | 38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6:00 | ET 1

전 세계 환경 파괴의 현장을 기록해온 파타고니아 제작진의 카메라가 이번에 찾은 곳은 호주 태즈메이니아다. 청정 자연과 종 다양성, 원주민 문화로 인해 세계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도 경제, 개발 논리를 앞세운 채광, 벌목, 원주민 문화의 절멸은 시작된다. 숲속을 달리면서 자연을 느끼고, 일자리와 환경 모두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싸움이 생겨난다. (맹수진)

The Patagonia team who has been documenting the sites of worldwide environmental destruction this time goes to Tasmania, Australia. Mining, logging and the extinction of native culture enforced in the name of economics and development are also taking place in this location designated as a world heritage site for its clean nature, species diversity and native culture. One must run through the forests to feel nature, and with this comes the fight to protect jobs and the environment. (MAENG Soo-jin)



### 알렉스 로우더

그는 파타고니아에서 영화 영상 부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근무하며 뉴욕타임스, 뉴스위크와 미국의 대부분의 등산 잡지에 원고를 기고한다. 암벽 등반과 스키를 즐기고 컬럼비아대학교의 언론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 Alex LOWTHER

He works at Patagonia as a creative director. He's written stories for The New York Times, Newsweek and most of the American climbing magazines. He goes rock climbing and skiing a lot. He studied at The Graduate School of Journalism at Columbia University.



# 움프 포커스

## UMFF Focus

움프 포커스 프로그램은 매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주목하는 다양한 특별전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먼저, 올해 길고 높은 산맥에 위치한 나라의 독특한 산악 문화를 영화를 통해 집중 조명하는 국가 특별전의 주인공은 '알프스 - 오스트리아'다. 이 특별전을 위해 다양한 상영 프로그램과 더불어 전시프로그램 '8000미터의 카메라맨 쿠르트 디베르거와 '오스트리아 보랄버그, 건축 환경의 진화'에, 특별전 파티까지 풍성하게 준비했다. 특히 2019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의 수상자인 '쿠르트 디베르거'도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영화제 기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 국가 특별전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내년 국가 특별전의 주인공이 될 '프리퀼: 록키 - 캐나다'도 준비했다. 내년 국가 특별전에 어떤 영화들이 본격적으로 선보일지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히말라야-알프스-록키 산맥으로 이어지는 국가 특별전에, 이후 어떤 산맥의 국가가 소개될지 궁금증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또한 유일무이한 국내 산악영화 감독인 고(故)임일진 감독의 특별전 '울주비전: 임일진 - 한국 산악영화의 역사'를 통해, 산악인과 기록자, 카메라맨과 연출자, 방송과 영화 사이에 경계인으로, 오로지 산에 집중하고 온전히 삼을 담아내고자 한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6편이 소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슬로건 '함께 가는 길'을 주제로,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스태프의 열정과 노력이 영화를 통해 관객과 만나는 여행이자, 영남 알프스의 자연과 함께 영화와 인간이 어우러지는, 함께 가는 길의 축제로 이어 줄 다양한 영화 5편이 소개된다.

Every year, the UMFF Focus program presents various special areas of focus at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First this year is a special on a country that has unique mountain cultures to share through films - 'Alps - AUSTRIA'. This special will include various screenings, as well as programs like 'The Filmmaker of the 8000s Kurt Diemberger', 'Evolution of the Built Environment in Vorarlberg', and an Austrian Party. This year's country special will be especially memorable, as the recipient of the 2019 Ulju Mountain Culture Award, Kurt Diemberger, is from Austria and plans to visit the film festival. In addition, a little preview of next year's lineup has been prepared in the 'Prequel: Rockies - CANADA'. It will be interesting to predict what mountainous country will be introduced following the Himalayas, Alps, and the Rockies. Also, the special 'Ulju Vision: LIM Il-jin - The History of Korean Mountain Film' will bring to light the late director Lim Il-jin, Korea's one and only mountain film director. As a marginal man between cinematographer and director, broadcasting and cinema, his passion for the mountain will be evident in 6 of his films screened at the festival.

Lastly, 'The Road Together' is this year's UMFF slogan. It symbolizes the passion and efforts of the staff working to make the festival happen, as they meet with the audience coming to share in their appreciation of film. Five films will be showcased in this selection as man and nature meet in the Yeongnam Alps.

#FEELAUSTRIA

die nichts  
stört den Blick  
Vollkommenheit



오스트리아  
떠나다, 채우다



# 알프스-오스트리아

## Alps-AUSTRIA

2018년부터 시작한 움프 포커스 내 국가 특별전은, 거대한 산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을 엿볼 수 있는 영화들을 소개하는 장이다. 영화를 통해 한 나라의 문화까지 관찰할 수 있는 여행으로 안내하는 이 특별전은, '히말라야 - 네팔'에서 출발, '알프스 - 오스트리아'로, 올해 그 두 번째 여정이 예정되어 있다.

보통 오스트리아는 한국인에게, 유럽 방문 시 꼭 들러야 하는 도시 비엔나가 있는 곳, 중세 합스부르크 왕가의 중심, 왈츠의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와 잘츠부르크 태생의 모차르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비엔나 커피하우스로 잘 알려져 있다. 좀 더 오스트리아를 소개하자면, 독특한 산악문화 안에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티롤 지방 사람들의 모습, 알프스 산맥에 연결된 천혜의 자연 속에서 스키, 캠핑, 트래킹, 등반 등 다양한 야외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문화적 유산과 함께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얀 리본>과 <아무르>로 칸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2회나 수상했던 미카엘 하네케 감독을 기억할 것이며 수많은 훌륭한 다큐멘터리 감독과 실험 영화의 거장들이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알프스 - 오스트리아' 특별전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산, 자연, 인간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 엿볼 수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바다 한가운데서 생존과 구조의 기로에 놓인 한 여의사의 이야기 <스틱스>, 국가대표 여성 스키선수로 활동하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한, 흥미로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극영화 <에릭과 에리카>는 오스트리아 극영화로의 재미로 관객을 인도할 것이고, 자연을 소재로 영화의 형식성을 고민하는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감독 '루카스 막스트 특별상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이들이 즐기는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은, 레드불미디어하우스를 통해 익스트림 스포츠와 합합 음악 등 수 많은 영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데, '레드불 특별상영'은 광활하고 거친 자연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장르의 6편의 단편 영화를 만날 수 있는 '마운틴 라이프 단편'까지, 오스트리아 특별전이라는 코스 요리에 에피타이저와 메인까지 차려 놓았다. 올해의 산악문학상 수상자 쿠르트 디메버거 전시와 보랄버그 우수 건축물 사진전은 식사 후 즐길 수 있는 후식이다. 특히 올해 알프스 - 오스트리아 특별전에 많은 도움을 준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레드불미디어하우스, 비엔나국제단편영화제에 감사드린다.

UMFF Focus began in 2018 as a special section to get a glimpse into the lives of the people living in the majestic mountains. The films in this section will allow us to peek into a country's cultures. After beginning with 'Himalaya-NEPAL' last year, the journey will continue this year into 'Alps-AUSTRIA.'

Austria to an average Korean is where one must go on a European trip (Vienna), and is the center of Habsburg Haus, home of Johann Strauss, father of Waltz, and Wolfgang Amadeus Mozart, and where one can visit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Vienna Coffee Haus. A closer look into Austria will reveal the people of Tirol, a deeply religious people living in a unique mountain culture, and the various outdoor sports to be enjoyed in the beautiful Alps such as skiing, camping, tracking, and climbing. Those interested in such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in film, will remember Director Michael Haneke, who has received the Palme d'Or twice at the Cannes Film Festival for *The White Ribbon* and *Amour*. There are also many other outstanding documentaries and experimental film directors presently active in Austria.

We hope that 'Alps-AUSTRIA' will afford you the chance to enjoy the mountains, nature, and people of Austria through films. Feature films to bring amusement are *STYX*, a story about a doctor at the crossroads of survival and rescue in the middle of the ocean, and *Erik & Erika*, a film based on the true story of an Olympic female skier who chose to live the life she wanted. There will also be a 'Lukas MARXT Special', with films by a director adamant about making films with nature as his material. Red Bull Media House produces numerous films and documentaries about extreme sports and hip hop. The 'Red Bull Special' will vividly showcase people testing their limits in the vast and wild great outdoors. This Austria Special is a several course meal with appetizer and entree, including six shorts of various genres in the 'Mountain Life Shorts' section. The dessert will be this year's recipient of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 Kurt Diemberger Special and the Voralberg Best Architecture Photo Exhibition. A special thanks to the Austrian embassy in Seoul, Red Bull Media House, and Vienn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for their support of this year's Alps-AUSTRIA Special.

## 스틱스 STYX

Germany, Austria | 2018 | 94min | Color | Fiction



09. 07 | 10:00 | AC 1



### 볼프강 피셔

1970년 오스트리아 빈 출생. 뒤셀도르프예술대학과 쾰른미디어아트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폴 모리세이와 낸 후버의 조수로 일하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예쁜>(2000), <회색>(2001),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2009), 오스트리아영화상이 수여하는 최고감독상을 포함하여 총 29개의 상을 수상한 <스틱스>(2018)가 있다.

### Wolfgang FISCHER

Born in 1970 in Vienna, Austria. He studied film at the Art Academy of Düsseldorf and at the Academy of Media Arts (KHM) in Cologne. He was working as an assistant for Paul Morrissey and Nan Hoover. His films include: *Schoen*(2000), *Grau* (2001), and *What You Don't See*(2009), *STYX*(2018) which won 29 awards including Best Director Award at the Austrian Film Award.

응급의학과 의사 리케는 지브롤터에서 어센션 섬까지 요트 항해를 떠난다. 그러나 큰 폭풍을 만난 후, 난파된 배에 구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 여러 도움을 요청하지만 누구도 도움을 손길을 보내주지 않는다. 영화는 초반에 등장하는, 도시/ 전문직 여성/ 준비성/응급 상황 대처능력, 리케가 맞이하는 망망대해 바다에서의 상황을 대비시켜 극적 효과를 높인다. 난민 정책과 이슈를 넘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선택상황에 봉착할 경우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해결에 대한 숙제를 던지는 영화다. (이정진)

An emergency doctor named Rike sets off on vacation on a yacht from Gibraltar to Ascension Island. After weathering an intense storm, she spots a sinking boat full of people waiting for rescue. She radios for help repeatedly, but no one wants to get involved. The beginning of the film shows a city, career woman, preparation for a sailing, and powerful ability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s. This contrasts with Rike's situation out in the open sea for a heightened dramatic effect. The film talks about something beyond issues and policies regarding refugees. It questions the road we must take when faced with a choice beyond our ability, and what the best choice is for man in the perilous nature. (Jinna LEE)

## 에리카와 에리카 Erik & Erika

Austria, Germany | 2018 | 88min | Color | Fiction



09. 08 | 19:00 | BT | Asian Premiere



### 라인홀트 빌저리

1980년에 락가수, 작곡가, 소설가, 각본가로 경력을 시작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의 노래 중 25곡이 오스트리아, 남미, 유럽 등지에서 1위를 차지했고 골드상, 플래티넘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 그의 소설 「천국의 입김」을 영화로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둔다. 이후 <All Meat is Gross>, <조용한 산> 등의 장편 영화를 제작 및 연출하였다.

### Reinhold BILGERI

In 1980, he started his career as a rock singer, songwriter, novelist and screenplay writer. From the 70's to 90's, he landed 25 top hits in Austria, South America etc, receiving several gold and platinum awards. In 2010 he made a successful movie of his own Novel *A Breath of Heaven*. Since then he produced & directed feature films like *All Meat is Gross*, *The Silent Mountain*.

에리카 쉬네거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 부엌보다는 차고에서 차를 고쳤고 속도를 즐겼다. 스키를 타고 싶어 직접 나무 스키를 만들었고 눈이 없어도 스키를 탔다. 여기까지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스키어의 탄생스토리다. 그러나 올림픽에 나가기 전, 그녀가 사실은 유전적으로 남성임이 밝혀진다. 동계 스포츠연맹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그의 성별을 마음대로 정하는 동안, 에리카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선택에 내몰린다. 한 스키어에 담긴 성 정체성 혼란과 적응과정을 섬세하게 다룬 실화로, 이를 스캔들처럼 여기는 1960년대 대중들의 반응에는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마지막 대사가 바뀐 성별에의 완벽한 적응 같아 웃음을 자아낸다. (한송이)

Erika Schinegger was special ever since she was a child. Her desire to ski pushed her to make her own skis out of wood, and ski even when there was no snow. This is the story of a natural born skier. However, right before she was to compete in the Winter Olympics, it was revealed she was genetically of male gender. When the Winter Olympics committee wanted to determine her gender, Erika was forced to make a life-changing decision. This is a true story that delicately portrays a skier's confused sexual identity and her acceptance of it. The response from the 1960s public highlights how much times have changed. (HAN Song-i)



**루카스 막스트**

1983년 슈타이어마르크주 출신. 독일 쾰른과 빈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2004년까지 지리학과 환경 시스템을 전공하고, 린츠예술대학에서 오디오 비주얼 전공으로 전환 후 2007, 2008년도에 포르투갈 리스본의 예술학부에서 예술과 멀티미디어를 전공했다. 2009, 2010년에는 라이프치히 비주얼아트 아카데미에서 석사과정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쾰른 미디어아트 아카데미에서 박사 후 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 작 <임페리얼 계곡>은 베를린영화제 단편 경쟁 진출 후 전 세계 40여 개가 넘는 영화제에 소개되었고, 2019년에는 신작을 완성하였다.

**Lukas MARXT**

Lukas Marxt (1983, Austria), lives and works in Cologne and Vienna. Born in the Steiermark and he studied geography and environmental system sciences in Graz until 2004. He then switched to audiovisual design at the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Linz. From 2007 to 2008 he studied art and multimedia at the Faculdade de Belas-Artes in Lisbon, Portugal. From 2009 to 2010, he took up a master pupil program at Academy of Visual Arts Leipzig and from 2009 to 2012, took a postgraduate course at the Academy of Media Arts Cologne. Following the short film *Imperial Valley (Cultivated run-off)* was in competition in the Berlinale Shorts and introduced over 40 film festivals and recently finished 2 films.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Nella Fantasia	Reign of Silence It seems to be loneliness but it is not Two Skies; short film	Low tide High Tide Double Dawn Black Rain White Scars	Captive Horizon Wunderschön und ruhig gelegen	Cape Ground Circular Inscription	Fishing is Not Done On Tuesdays, Co-Director: Marcel Odenbach Shadowland, Co-Director: Vanja Smiljanić	Imperial Valley (cultivated run-off)	Loading Pit / Ralls Farben

**빅토리아 Victoria**

Austria, Germany | 2018 | 63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0:00 | AC 1 | Asian Premiere

루카스 막스트 Lukas MARXT

흰색 세단을 따라 남부 캘리포니아의 황무지들을 거쳐 간다. 이 여정은 황폐한 길, 불모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도시의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다. 백색소음과 함께 광활한 대지 위를 떠다니다 보면 자막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영화 <이지 라이더>, <자브리스키 포인트> 등에서 대사를 따온 것이다. 이 가상의 속살거림을 친구삼아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근심 없이 따라 가보자. 이는 우리 자신을 스크린 위에 존재하는 비실재적 풍경에 밀어 넣음으로써 살아있고 숨 쉬는 어떤 생명체의 감각을 그리워하게 되는 기묘한 경험을 제공한다. (한송이)

*Victoria* follows a white sedan through the Californian wastelands. The journey is surrounded by desolate roads and barren lands which succeed in erasing the memories of the city. As it floats across the land to white noise, it is subtitles that address us. They are lines from films such as *Easy Rider* and *Zabriskie Point*. Step away from your worries and lose yourself in this nomadic trip with no destination and immerse yourself in the non-existent scenery on screen. (HAN Song-i)

## 침묵의 영역 Reign of Silence

Austria, Germany | 2013 | 8min | Color | Documentary



09. 06 | 12:30 | AC 1

루카스 막스트 Lukas MARXT

모터보트 한 대가 나타나 바다에 원을 그리기 시작한다. 소용돌이는 점차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침묵에 잠긴다. 이 과정은 현실 시간과 공간을 환기하는 동시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보다 자연의 회복하는 힘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대지예술의 연장선 위에 있으나 그것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이 풍경이 보여주는 강력한 고요함이 영상의 기록적 의미를 더 부각한다. (한송이)

A motorboat appears to circle the sea. The whirlpool slowly dissipates, restoring the sea to its previous silence. This process reminds one of time and space as well as urging us to focus on the power of nature's ability for restoration rather than human intervention. The stillness of the scenery gives meaning and purpose to the film. (HAN Song-i)

## 만조 High Tide

Austria, Germany | 2014 | 8min | Color | Documentary



09. 06 | 12:30 | AC 1

루카스 막스트 Lukas MARXT

차가운 회색 톤으로 맞춰진 하늘과 바다 그 사이에 눈으로 덮인 산이 길게 누워있다. 카메라가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화면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이 일정하게 높아지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만조에 어울리는 그 차오름은 단단히 유지되고 수평선은 정확한 균형감을 보여준다. 덕분에 카메라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고 이 회색의 풍경은 우리 내면에 각자 다른 관념을 일으킨다. (한송이)

A snow-covered mountain lies between the sky and the sea, which are both painted in cool gray tones. As the camera starts circling, the horizon expands across the screen and captures the eye. The chaos of high tide contrasts with the balance of the horizon. We focus on the camera movements to let this grey scenery arouse all different kinds of emotions from within. (HAN Song-i)

## 케이프 그라운드 Cape Ground

Austria, Germany | 2016 | 27min | Color | Documentary



09. 06 | 12:30 | AC 1 | Korean Premiere

루카스 막스트 Lukas MARXT

단조로운 구조물이 자연을 가리고 시야를 점령한다. 인간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것들-선박, 마을, 공장, 건물을 입체감을 제거한 채 보여준다. 자연과 불화하는 인공의 구조물은 아름답지도 개성적이지도 못한 채 덩그러니 놓여있다. 영화는 보스포루스 일대에 대한 보고이자 인간 문명의 한 단면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명한다. (한송이)

A monotonous structure conceals nature and seizes our view. Instead of going into the realm of human life, the film presents a series of human-made objects such as ships, villages, factories and buildings in a non-three-dimensional manner. These artificial structures in discord with nature stand stripped of beauty or personality. The film is a report that expresses concern about a certain aspect of human civilization. (HAN Song-i)

## 각인 Circular Inscription

Austria, Germany | 2016 | 7min | Color | Documentary



09. 06 | 12:30 | AC 1 | Asian Premiere

루카스 막스트 Lukas MARXT

촬영장소는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의 엘미라주 건조호이다. 산맥 아래 넓게 뻗은 사막에 차 한 대가 화면 안으로 들어와 원을 그려낸다. 대지예술의 일환으로, 자연 공간을 대상화하여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곳은 할리우드와 각종 매체의 인기 촬영장소로 그 이미지를 소비해 왔다. 사막에 그려진 원이 사막 위 마른 호수 그 자체를 각인시킨다. (한송이)

The shooting location is California Mojave Desert's El Mirage Dry Lake. A vehicle enters the screen, driving in circles and hinting at a desire to expand the idea of natural space by objectifying it as a means to transform it into land art. The image of this popular location shooting site has been exhausted by Hollywood productions and various other mediums. The circle drawn on the desert itself is a carved image of a dry lake. (HAN Song-i)

## 임페리얼 계곡 Imperial Valley (Cultivated run-off)

Austria, Germany | 2018 | 14min | Color | Documentary



09. 06 | 12:30 | AC 1 | Asian Premiere

루카스 막스트 Lukas MARXT

미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 계곡의 광활한 경작지대를 공중 촬영했다. 지평선을 보여주지 않은 채 카메라는 경작지의 끝도 없는 고랑들을 시선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정도로 훑어낸다. 생태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관개 시스템, 그것으로 유지되는 기업적 농업생산의 실체를 눈 아프게 담아내는 것은 과도함과 위기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열어준다. (한송이)

The film presents an aerial shot of the vast farming area in California's Imperial Valley. Without exposing the horizon, the camera scours the endless furrows along the farmlands and shows up something difficult to perceive. The irrigation system that will inevitably become an ecological disaster is sustained by industrial agricultural production. And by tirelessly capturing this, the film broadens our awareness of excess and crisis. (HAN Song-i)



**DAMP**  
don't ask my plan®

www.damp.co.kr

## 네 번째 단계 The Fourth Phase

USA | 2016 | 92min | Color | Documentary

레드불 특별상영 Red bull Special



09. 07 | 17:00 | ST | Korean Premiere



### 존 클라츠키에비츠

"JK" 닉 네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감독은, 클래식 스키의 컬트 영화 <스위프트, 사일런트, 딥>과 <레제미 존스의 더 깊이>가 대표작이다. 그는 전직 스포츠 선수이자 잭슨 홀 공군소속이었고, 영화를 찍기 위해 알프스, 북극권, 일본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작업해왔다. <네 번째 단계>는 레드불을 위해 만든 영화인데, 트레이비스 라이스와 그의 친구들의 여정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의 파괴까지 다룬 영화이다.

### Jon KLACZKIEWICZ

Jon "JK" Klaczkiwicz is a director and producer of numerous adventure sports films, from the cult classic ski doc *Swift. Silent. Deep* and *Jeremy Jones' Further*. A former athlete and member of the Jackson Hole Air Force, JK has traveled, skied and snowboarded across the Alps, the Arctic Circle and Japan on assignment.

위대한 성취를 위한 열정과 광기. 6년 전, <아트 오브 플라이트>에 관한 글의 말미에 "미치려면 이틀처럼"이라고 쓴 바 있다. 사실 그때 쓰고 싶었던 표현은 "제발 그만 좀 해 이 미친놈들아!" 였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 이상 미치지 않았다. 다만 진화했을 뿐. 트레이비스는 자신의 미친 짓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일까? <네 번째 단계>는 <아트 오브 플라이트>의 후속 성격으로, 역시 스노보딩의 전설 같은 존재인 트레이비스 라이스의 스노보딩 여행을 담아내며, 눈과 스노보드에 미친 이들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산까지)

Passion and madness are required to achieve great accomplishments. Six years ago, the review *The Art of Flight* closed by stating "If you want to be crazy, just act crazy." But in fact, what should have been said was, "Please stop being crazy!" Perhaps Travis may have wanted to give meaning to his mad acts? *The Fourth Phase* is a follow up to *The Art of Flight* which also documents the snowboarding of Travis Rice, who is a legend of snowboarding, and the king of snow and snowboarders. (H.Jay LEE)

## 미션 투 스페이스 Mission to the Edge of Space

Austria | 2013 | 120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4:30 | ST | Korean Premiere



### 레드불 미디어 하우스

레드불 미디어 하우스는 2007년 설립,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멀티 플랫폼 미디어 회사이다. 이 콘텐츠는 TV 시리즈 외에도 장편영화, 모바일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극장 배급은 물론, 각종 영화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특히 유명 스포츠 선수의 다큐멘터리나 다양한 스포츠 어드벤처 TV 시리즈, 합함 음악 콘텐츠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 Red Bull Media House

Red Bull Media House is an award-winning, globally distributed multi-platform media company founded in 2007. With a focus on sports, culture and lifestyle content which are offered across TV, feature films, mobile, digital, audio, and print.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것인가, 아니며 반대로 도전욕이 과학기술을 견인하는 것인가? 혹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레드불 스트라우스는 "레드불, 날개를 펼쳐줘요" 캠페인의 정점에 있는 프로젝트로, 영화 제목처럼 성층권에서 지구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이다. 펠릭스 바움가트너가 행한 4분 20초의 짧은 스카이다이빙을 위해 장장 5년여에 걸친 대장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주는 이 다큐멘터리는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 (산까지)

Is it advancement in science technology that inspires a challenging spirit in humans, or is it the opposite whereby a challenging will is what pushes science technology ahead? Is it science technology that enables humans to leap beyond their limitations, or is it human will power that makes this possible? The Red Bull Stratos project is the epitome of the 'Red Bull, Gives you Wings' campaign, and like the title of the film, it introduces skydiving from the stratosphere to earth. This documentary contains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s it presents Felix Baumgartner's 5-year course that leads up to his short 4 minutes 20 seconds skydiving feat. (H.Jay LEE)



## 오픈 스페이스 Open Space – FAT Biking the Wilderness

Austria | 2016 | 53min | Color | Documentary



오랜 가뭄으로 강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말라버린 나미비아의 대지. 한낮 49도에 이르는 열기 속에서 탈수와 혼절을 겪으며 산악자전거에 의지해 홀로 950km를 완주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극도의 고독감을 통해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 참고로 나미비아의 'Namib'의 뜻은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기도 한 'open space'다. (산까치)

A long-lasting drought has dried up a location in Namibia, erasing all traces of possible river sites. So what would it feel like finishing a 950m course alone through 49 degrees Celcius heat during the day on a mountain bike, enduring dehydration and passing out? Can one feel a bond with nature through extreme loneliness? As a footnote, the 'Namib' in Namibian means the same as the title of this documentary, 'open space'. (H.Jay LEE)

09. 07 | 14:30 | ST | Korean Premiere



**리사 머피 오라일리**  
재능있는 스토리텔러이자 경험 많은 편집자인 그녀는 2017년 방송 「Hot Shot」을 제작했고 또다른 제작 방송인 「One to Watch」는 에든버러 국제 TV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다.

**Lisa MURPHY-O'REILLY**  
Strong storyteller and experienced edit producer. She produced the broadcast *Hot Shot 2017*, *One to Watch* was screened at Edinburgh International TV Festival 2017.

## 트윈 갤럭시 Into Twin Galaxies - A Greenland Epic

Austria | 2016 | 53min | Color | Documentary



극지 전문가 사라와 두 명의 카약 전문가 에릭과 벤은 구글어스를 통해 광활한 그린란드의 빙하 아래 연결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한다. 세 탐험가는 전인미답의 이 탐험지를 '트윈 갤럭시'라 명명하고 카야킹과 카이트 보딩으로 횡단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46일간 펼쳐진 트윈 갤럭시 탐험은 경이로운 그린란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스킨 넘치는 탐험의 묘미를 제공한다. (산까치)

Polar expert Sarah and two professional kayakers Erik and Ben discover two connecting rivers under the vast Greenland glacier through google earth. The expedition team of three names this unexplored destination 'Twin Galaxies' and put their plan to journey there by kayaking and kiteboarding into action. The 46 day Twin Galaxies expedition introduces Greenland's nature as well as the exciting qualities of an expedition. (H.Jay LEE)

09. 07 | 14:30 | ST | Korean Premiere



**요한 슈몰**  
요한 슈몰은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이자 촬영감독이다. 바르셀로나에서 주로 작업하며, 사무실은 독일에 있다. 스포츠 영화 전문가로, 다큐멘터리, 상업 영화 외에도 고어텍스, 잭 울프스킨, 레드불의 선수들을 담은 영화들로 잘 알려져 있다.

**Jochen SCHMOLL**  
Filmmaker, director and DOP. Based in Barcelona with an office in Germany. He became known in the sports filming scene, commercials and branded content productions for brands like Gore Tex, Jack Wolfskin and Red Bull covering some of their top athletes.



# 등산은 자신 있다고?

극강의 UPHILL 러닝 **레드불 400** 에 도전해봐

RED BULL GIVES YOU WIINGS.

## 정상에서의 만남 Hands Up to Heaven

Austria | 2013 | 18min | Color | Documentary



산으로 향하는 곤돌라를 따라가다 보면, 오스트리아 유명 가수 한지 힌터지어의 팬들이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 키츠부헬 알프스 산 중턱 목초지에 모여 그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의 공연을 기다리며 함께 노래를 부르고, 미사를 지내며 그들의 우상을 기다리는 모습은, 관객을 독특한 오스트리아 여름 산악 문화의 한 단면으로 인도한다. 우리에게 BTS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한지 힌터지어가 있다. (이정진)

09. 08 | 19:30 | AC 2 | Cine Talk



### 울리케 풋제, 마티아스 반 바렌

울리케 풋제는 1982년 빈 출생으로 빈영화아카데미와 빈미술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다. 마티아스 반 바렌은 1977년 빈 출생으로 빈응용예술대학을 다니고 있다.

Following a gondola towards mountains, the scene reveals a group of fans who are waiting for a famous Austrian singer, Hansi Hinterseer in the pasture in the middle of Kitzbühel Alps of Tirol. While waiting for his concert, they sing a song together and celebrate mass. The film shows the audience a unique aspect of the Summer Mountain Culture of Austria. For us, we have BTS; they have Hansi Hinterseer. (Jinna LEE)

### Ulrike PUTZER, Matthias van BAAREN

Ulrike Putzer was born in Vienna in 1982. She studies at the Vienna Film Academy and at the Academy of Fine Arts, Vienna. Matthias van Baaren was born in Vienna in 1977. He studies at the University for Applied Arts, Vienna.

## 숲속의 목소리 Forest of Echoes

Austria | 2016 | 30min | Color | Fiction



십 대 소녀 크리스티나는 함께 숲속을 달리던 친구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맞이하고 이어서 어린 세 소녀가 강가에 시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영화는 무엇이 실재이고, 환상인지 관객의 호기심을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유럽의 오랜 역사를 관통하는 종교와 신화적 은유가 풍부한 화면과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순환고리는, 감독의 미술적 리얼리즘 세계를 영속적 회귀의 신화로 만든다. (이정진)

09. 08 | 19:30 | AC 2 | Cine Talk | Korean Premiere



### 루스 올리바흐 카펠르

아르헨티나 루피노 출생. 빈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연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유수의 영화제에 상영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최고단편상, 토마스 플루쉬 시나리오상을 포함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A Teenage girl, Christina, has been through the disappearance of her friends who hung out together in the forests. She then finds three girls who are dead by the river. The film draws the curiosity of the audience to the extreme events and asks what is real and what is an illusion. The characters are linked based on a religion that penetrates the long history of Europe and is full of mythical metaphor scenes and dense forest. This circular linkage between characters reveals the magical realism view of the director looking into the myth of eternal return. (Jinna LEE)

### Luz Olivares CAPELLE

Born in Rufino, Argentina. She obtained a MA Degree in film directing at the Film Academy Vienna. Her works have been featured in many film festivals, and won many awards including the Austrian Film Prize for shortfilm, and the Thomas Pluch Screenplay Award.

## 순간 O.T

Austria | 2013 | 4min | Color | Documentary



고정된 카메라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우뚝 솟은 산의 위용과 맑은 하늘에 백설탕 같은 눈이 덮인 모습으로 화면을 채운다. 어느 순간, 검은 점이 나타나, 하얀 눈 위로 일직선이 그어지고, 관객은 약 20초 동안의 스노보딩을 보게 된다. 원 테이크 원 씬으로 촬영한 이 영화는, 역동적인 스포츠와 영화의 형식적 도전이 만난 결과물이다. (이정진)

09. 08 | 19:30 | AC 2 | Cine Talk



### 마르쿠스 쉐러

1963년 빈 출생. 그는 요제프 다베르니그, 노베르트 파싱, 크리스토프 헨들러와 공동작업을 하였다. 그의 작품은 다수의 예술제와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The fixed camera completely fills with the screen showing the dignity of towering mountains with snow-covered like white sugar on them, under a cloudless sky. At some point, a black spot appears, then, a straight line is drawn on the white snow. Following this, the film shows snowboarding for around 20 seconds. Shot by One Take One Scene, the film is the outcome of dynamic sports and the methodological challenge of films. (Jinna LEE)

### Markus SCHERER

Born in Vienna in 1963. He worked together with Josef Dabernig, Norbert Fasching, Christoph Herndler. His works were invited to numerous art and film festivals.

## 산경 Mountain View

Austria | 2018 | 3min | Color | Experimental



사운드를 배제한 이 영화는, 보는 이가 온전히 영상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한 건물의 창문을 통해 보이던 산의 풍경은, 불연속적 프레임과 함께 3단계의 줌인을 통해 저 멀리 보이는 산까지 도달하고, 산과 구름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는 규칙적인 운동성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다. 감독은 16mm의 필름 질감이 살아 숨 쉬는 영화의 형식적 도전을 보여준다. (이정진)

This film allows the audience to concentrate on fully the images it shows. The panorama of mountains seen through a window in a building reaches up to mountains visible in the distance by three stages of zooming along with discontinuous frames. Following the regular movement, overlapping the image between mountains and cloud, the ultimate shot goes beyond our expectations. The director uses challenging methods to show that the texture of 16 mm film is vivid and alive. (Jinna LEE)

09. 08 | 19:30 | AC 2 | Cine Talk | Asian Premiere



### 마르쿠스 마이어

실험 영화감독. 슈퍼8mm와 16mm로 찍은 그의 작품은 영화의 물질성 자체를 다른 변증법적 시와 맞물려왔다. 그는 빈공과대학교에서 예술적 연구를 가르치면서 오스트리아 영화박물관에서 영상 기사와 기록보관원으로 근무한다.

### Markus MAICHER

An experimental filmmaker. His work on Super 8 and 16mm film engages with the dialectical poetry of film's materiality. He teaches artistic research at the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works as a projectionist and archivist at the Austrian Film Museum.

## 사과 Applesauce

Austria | 2019 | 7min | Color | Animation



각각 2인조의 대화로 구성된 3개의 에피소드로 결합해 있다. 새 둥지에 앉아 있는 새의 대화에서 산을 지키는 두 명의 경비원, 그리고 북극곰 커플까지. 이들의 에피소드는 빨간 사과라는 독특한 연결고리로 이어진다. 지극히 현실적 대사와 현상의 이면을 고민하는 현학적인 대화의 충동을 따라가다 보면 감독의 건조한 유머와 만나게 된다. (이정진)

Three episodes combine in a film with each episode composed of a conversation by a pair. The stories in the film are the conversations between two birds in a nest, two security guards in the mountains, and a couple of polar bears. They connect with a red apple, which is a unique item. The episodes show conflicts and pedantic conversations and reveal the director's dry sense of humour. (Jinna LEE)

09. 08 | 19:30 | AC 2 | Cine Talk | Asian Premiere



### 알렉산더 그라쳐

1993년 오스트리아 할라인 출생.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빈응용예술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2018년부터 부다페스트에 있는 모홀이나지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 Alexander GRATZER

Born in 1993 in Hallein, Austria. He studied painting at the University of Applied Arts Vienna from 2012 to 2018. Since 2018, he has been studying for a master degree in animation at the Moholy - Nagy Universität Budapest.

## 마운틴 프로포즈 Guy Proposes to His Girlfriend on a Mountain

Austria | 2019 | 13min | Color | Fiction



다니엘과 그의 친구는 스노보드를 타고 산에서 내려와 스키 산장에 도착하고, 기다리던 막스를 만나 드디어 그들의 원대한 계획을 점검하고 실행하려 한다. 과연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까? 산속 스키 산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벌어질 법한 상황과 이야기로 힘있게 끌고 가는 이 영화는, 원 씬 원 컷의 형식성에 다양한 상황적 재미가 버무려져, 유튜브 세대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을 관객에게 던진다. (이정진)

Daniel and his friend snowboard down a mountain, arriving at a mountain cabin, where they hope to finally meet Max and carry out their ambitious plan. Can they succeed? The film shows the tense situation and storyline that could happen in a cabin in a deep forest, where is limited space. It asks the audience a question that a generation who grew up with 'YouTube' might know the answer to. The film uses the technique of One Scene One Cut to show the various situations and events. (Jinna LEE)

09. 08 | 19:30 | AC 2 | Cine Talk | Asian Premiere



### 베른하르트 뵐거

1992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빈으로 간 후 영화이론 공부를 하고 전문촬영 현장을 경험하였다. 2014년 연출 전공으로 빈영화아카데미에 입학하였다.

### Bernhard WENGER

Bernhard Wenger was born in 1992 in Salzburg, Austria.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he moved to Vienna, where he studied film theory and gained professional set experience. He was accepted to the Vienna Film Academy in 2014, where he studies directing.



Government of Canada  
Embassy of Canada

Gouvernement du Canada  
Ambassade du Canada

Canada

#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을 축하합니다

프 리 퀴얼 **록키 - 캐나다**

PREQUEL **Rockies - CANADA**  
**Rocheuses - CANADA**



@CanadaROK @CanadainKorea @CanadaenCoree



@CanEmbROK @CanEmbKorea @AmbCanCoree



@Canadarok @Canadakorea @Canadacoree

# 프리퀄: 록키-캐나다

## Prequel: Rockies-CANADA

캐나다 록키 산맥은 광활하고 원시적인 캐나다의 자연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와 알버타주의 경계가 되는 이 산맥은, 미국 북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산맥으로, 밴프산악영화제가 개최되는 밴프 국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국립공원이 존재하는 거대한 산맥이다. 캐나다는 천혜의 자연을 함부로 개발하지 않고, 이를 보존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 같은 기후변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또한, 네이티브나 원주민과 같은 단어가 아닌, '캐나다 퍼스트네이션'이라 부르는 이전 주민에 대해 인정하는 문화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공용어로 쓰는 현재의 언어와도 연결되어,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대목이다.

올해는 다양한 영화제에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잘 알려진 드니 코테 감독의 신작과 문화 인류학적 시선을 담은 <추수의 계절>, 그리고 캐나다 퍼스트네이션의 이야기부터 불법이민의 문제까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미학적 성취를 엿볼 수 있는 단편 묶음을 통해, 캐나다 문화의 다양성과 상호 존중성, 그리고 그들의 자연까지 함께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프리퀄 섹션 준비에 많은 도움을 준 주한캐나다대사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he Canadian Rockies represent the vast and primitive nature of Canada. Bordering Canada's western British Columbia and Alberta provinces, the Rockies are a vast mountain range that extends to Northern US. It entails four national parks including Banff National Park, home of the Banff Centre Mountain Film and Book Festival.

Canada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preserve and protect its natural habitat, which leads to active participation in movements related to climate change, such as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Canada is also respectful and considerate to cultural diversity and coexistence, which is evident in how they use terms like 'First Nation' rather than 'native' or 'indigenous' and have both English and French as official languages.

We have prepared films that portray Canada's cultural diversity, mutual respect, and nature: a new film by director Denis Côté who is known to represent Canadian Film in many film festivals; a film with a cultural anthropological perspective, *Harvest Moon*; and a series of shorts dealing with various social issues like Canada First Nation and illegal immigration. A big thank you to the embassy of Canada for helping to prepare this prequel section.

## 유령 마을 Ghost Town Anthology

Canada | 2019 | 97min | Color | Fiction



09. 10 | 12:30 | AC 1



### 드니 코테

2005년부터 드니 코테는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확고한 명성을 구축하고 있다. 여러 단편 영화를 연출하고 저널리스트와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난 후 <방랑자>로 장편 데뷔를 하였다. <유령 마을>은 그의 11번째 장편영화이다.

### Denis CÔTÉ

Since 2005, Denis Côté has gained a solid reputation as an independent filmmaker on both the local and international scenes. After directing many short films and working a few years as a journalist and film critic (1995-2005), he makes his feature film debut with *Drifting States*. *Ghost Town Anthology* is his 11th feature film.

캐나다의 퀘벡을 대표하는 드니 코테 감독의 11번째 영화이자 첫 16mm 장르 영화. 퀘벡지역에 위치한 인구 215명의 쇠락한 가상 소도시에서 한 청년이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얼마 뒤 과거에 죽었던 자들이 유령이 되어 마을에 나타난다. 감독은 갑자기 등장한 유령보다 이에 대응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유령 마을>은 기본적으로 유령이 등장하는 호러영화지만 갑자기 돌아온 유령이라는 존재를 통해 '제노포비아'라는 주제를 은유적이면서도 명확하게 담아낸 장르적 정치 영화에 더 가깝다 할 수 있다. (조지훈)

This is the 11th film and first 16mm genre piece from Quebec's leading filmmaker Denis Côté. A young man dies in a car accident in a small and declining imaginary city in Quebec with a population of 215. Soon after, those who have died in the past return to the village as ghosts. The filmmaker seems more interested in the villagers' response to the unexpected apparitions than the ghosts themselves. *Ghost Town Anthology* is a horror film with ghosts, but through these uninvited intruders, the filmmaker seems to be presenting a political film by clearly using them as a metaphor for 'xenophobia'. (Jo Ji-hoon)

## 추수의 계절 Harvest Moon

Kyrgyzstan, Canada | 2018 | 70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1:00 | BT | Asian Premiere



### 자히드 마와니

자히드 마와니는 미들베리대학에서 정치 과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워싱턴 DC에서 공공정책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토론토로 이동하여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오크대학교에서 영화 제작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Zaheed MAWANI

Zaheed Mawani received his Bachelor of Arts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rom Middlebury College. He subsequently worked in public policy research in Washington, DC before moving to Toronto to seek a career in documentary film. He completed an MFA in film production at York University.

키르기스스탄, 광대한 산맥 사이에 펼쳐진 오래된 호두나무 숲은 오랜 시간 동안 인근 마을 주민들의 수확처로 생계 수단이 되어왔다. 이 작품은 가을의 호두 수확을 하는 타가에브 가족을 조용히 담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다큐멘터리이다.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의 일상은 그 자체로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배우며, 둘러앉아 함께 일하는 속에서 가족애와 함께 문화가 세대로 전승된다. 이미 숲과 인간 사회에 변화는 시작되었고 다소 불안한 위기감도 존재하지만, 고대의 숲처럼 변하지 않을 가치를 보여주는 따뜻한 작품이다. (김세진)

In Kyrgyzstan, the old walnut forest between vast mountains has supported the people living in nearby villages for a long time. This beautiful and peaceful documentary silently portrays the Tagaev family harvesting the walnuts in autumn. The daily life of 3 generations shows how they preserve their traditional lifestyle. The children learn it through conversation and the behaviour of their parents, and the culture is inherited along with family love and passed o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Although the shift of the forest and human society has already begun, and anxiety remains, this is a heart-warming film, which introduces the value and legacy of the ancient forests. (KIM Se-jin)

## 우리, 둘만의 비밀 Just Me and You

Canada | 2019 | 22min | Color | Fiction



8살 에바는 트럭 운전사인 아버와의 첫 여행 - 추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따뜻한 멕시코 해변까지-로 들떠있다. 하지만 따뜻한 해변에서 즐겁게 지내고 싶던 에바의 계획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되는 에바는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2019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섹션 Kplus 단편영화 크리스탈곰상과, 사그네이국제단편영화제 국내경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정진)

Eva, 8 years old and her father are doing a road trip Montréal-Mexico in a big 18-wheels truck. They immigrated in Quebec and Eva is very excited to have her holiday with her father. On the way back, Eva witnesses a secret which she needs to keep. This film received awards: Crystal Bear Award for Best Short Film at Berlinale 2019 and Grand National Prize at Saguenay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2019. (Jinna LEE)

09. 07 | 13:00 | ET 1 | Asian Premiere



### 상드린 브로듀 데로지에

영화제작 학사학위와 연기 전공으로 석사학위, 그리고 장편 시나리오 작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음악가로서 본인 영화의 음악을 직접 작곡하기도 하였다. 단편 영화를 16편 이상 연출하였으며 이 영화들은 유수의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현재 장편 데뷔작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 Sandrine BRODEUR-DESROSIERS

She has a BFA in film production, MA in acting and certificate in feature writing. She is also a musician and scored some of her films. She directed over 16 short films, that were screened worldwide. She is now writing her first feature.

## 야수 Fauve

Canada | 2018 | 17min | Color | Fiction



타일러와 그의 친구는 버려진 광산 근처에서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며 놀던 중, 작은 호수가 있는 공터에서 유사(流沙)를 발견하고, 사건이 벌어진다. 황량한 대지에 버려진 기차와 건물들,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두 소년이 처한 위기와 사건은 관객을 충격으로 이끈다. 전 세계 150여개의 영화에서 소개되면서, 4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다. (이정진)

Tyler and his friend are playing power games near an abandoned mine when they discover a quicksand by a small lake. The danger faced by the two boys in this desolate land devoid of people is shocking. It was screened over 150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and won over 40 awards. (Jinna LEE)

09. 07 | 13:00 | ET 1



### 제레미 콩테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열정으로 제레미 콩테는 18살 때 첫 단편 다큐멘터리 <언덕을 느껴봐>를 만들었다. 이 영화는 밴프산악영화제에 상영되고 이후 전 세계에 상영되었다. 그의 최근 단편 극영화 <야수>는 2018년 선댄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 Jérémy COMTE

Driven by a passion for skateboarding, Jeremy Comte directed his first short documentary *Feel The Hill* at eighteen years old, landing him a world tour with the Banff Mountain Film and Book Festival. His latest short fiction film *Fauve* won a Special Jury Award at the 2018 Sundance Film Festival.

## 늑대 Wolves from Above

Canada, UK | 2018 | 6min | Color | Documentary



'위에서 내려다 본 늑대'라는 원제처럼, 카메라가 공중에서 한 무리의 늑대를 관찰한다. 어느 자연 다큐멘터리와 다르게, 늑대에 대한 설명이나 클로즈업 등은 배제되어 있다. 카메라를 의식하기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듯 보이는 늑대 무리와 숲 속 녹음 짙은 나무와 파란 잔디와 대조를 이루는 늑대의 모습을 담아낸 카메라는 관객을 화면으로 유입시킨다. (이정진)

Like described in the title, a camera observes a pack of wolves from the air. Unlike other nature documentaries, there is no explanations or closeups of the wolves. The wolves seem to notice the camera, and are evidently able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The dark green trees and grass of the forest contrasting with the wolves, and the camera floating on air draw the spectator in. (Jinna LEE)

09. 07 | 13:00 | ET 1 | Asian Premiere



### 데멜자 코이

예술가 및 영화감독이자 리버풀 존무어대학의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과의 부교수이다. 그녀의 작품은 여러 영화제, 박물관, 예술 전시회에서 상영되었고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동물에 대한 실천'이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 Demelza KOOIJ

She is an artist, filmmaker and senior lecturer in fiction and documentary filmmaking at Liverpool John Moores University. Her work is presented at film festivals, museums, art exhibitions. She is currently finishing a PhD by practice about animals in documentaries.

## 삼천 개의 이야기 Three Thousand

Canada | 2017 | 15min | Color | Documentary



1920년부터 현재까지의 캐나다 이누이트 퍼스트네이션의 모습을 담은 캐나다영화위원회의 아카이브 푸티지와 뉴스릴 이미지에 감독의 애니메이션이 더해져 만들어진 영화다. 이에 영화 초반 이누이트 언어로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몽환적인 사운드와 전통 음악, 속삭임과 같은 사운드로 통합하며 영화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 (이정진)

The film is a compilation of NFB's archival footage and newsreel images of the Canada Inuit First Nation from 1920 to present, with the addition of an animation by the director. It begins with the Inuktitut language, then different images are stitched together with added dreamlike sounds, traditional music, and whispering sounds, all adding to this luminescent film. (Jinna LEE)

09. 07 | 13:00 | ET 1



### 아신나자크

아신나자크는 영화감독 겸 예술가로, 주로 인권 존중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누이트의 유산을 탐구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 그녀의 첫 단편 <삼천 개의 이야기>는 이누이트의 역사적 영상 자료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하여 만들었다.

### Asinnajaq

Asinnajaq is a filmmaker and artist whose work is fuelled by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a desire to explore her Inuit heritage. Her first film, *Three Thousand* (2017), combines historical footage of Inuits and original animation.

## 자이언트 베어 Giant Bear

Canada | 2018 | 13min | Color | Animation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북극 설원. 사냥꾼은 개를 데리고 사냥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몰속 거대한 곰의 존재를 아는 사냥꾼은 자신의 검을 던져 곰을 물 밖으로 유인한다. 거대한 자연 속 인간과 거대한 북극곰의 사투는 2D와 3D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되어 그 현실감을 더하고 있으며, 영화 전반을 흐르는 음악과 의성음은 사냥꾼의 고독함과 비장함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마치 이누이트의 주술 의식을 보는 듯하다. (이정진)

In the Artic snowfields devoid of any food, the hunter and his dog fail at finding any game. Knowing about the giant bear underwater, the hunter throws his sword to lure the bear out of the water. The deadly combat between man and giant bear in the great outdoors is animated in a hybrid 2D and 3D style, adding to the sense of reality. The score and the onomatopoeic sounds are like an Inuit incantation that amplifies the hunter's solitude and grim resolve. (Jinna LEE)

09. 07 | 13:00 | ET 1 | Asian Premiere



### 다니엘 페이지, 넬 크리스토퍼

넬 크리스토퍼는 오래 전 누나부트로 이주하여 북극과 사랑에 빠졌다. 첫 장편 애니메이션 <아마쿠트 누나트: 더 컨트리 오브 울브스>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다니엘 페이지는 성공한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발명가로 20년 이상 활동해오고 있다.

### Daniel PAIGE, Neil CHRISTOPHER

Neil Christopher moved to Nunavut and fell in love with the North. He directed his first animated film, *Amaqut Nunaat: The Country of Wolves* (2012), which was very successful. With 20 years of projects behind him, Daniel is an accomplished animator and inventor.

"전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 공급하는 아웃도어 전용 스마트 디바이스"





# 울주비전: 임일진 - 한국 산악영화의 역사

## Ulju Vision: LIM Il-jin - The History of Korean Mountain Film



유일무이했던 한국의 산악영화 감독인 임일진은 지치지 않고 산악영화를 제작했다. 돌아보면 임일진은 늘 산악인과 기록자, 카메라맨과 연출자, 방송과 영화 사이의 경계에 선 채 어느 한 곳에도 속하지 않았었다. 그렇기에 임일진 만의 고민과 특유의 관점이 녹아든 영화를 만들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별전에선 2005년부터 제작된 임일진 감독의 전작 6편을 상영한다. 특히 <더 트립>과 <알피니스트 -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은 각각 임 감독의 <문순>과 <알피니스트>를 재탄생시킨 영화들로 이번 특별전을 통해 최초로 상영된다.

### 임일진

1988년 한국외국어대 입학과 함께 등반을 시작했으며 일본으로 건너가 카메라를 배웠다. 2008년 다큐멘터리 영화 <벽>으로 아시아 최초로 트론토영화제 본상을 수상했으며,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울주서밋 지원작으로 <알피니스트>가 선정, 상영된 바 있다. 한국 영화 <히말라야>의 네팔 에베레스트 특수 촬영 감독이기도 하다. 산악영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에서 30년 가까이 카메라를 들고 산에 오르는 한 길을 걸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산악영화 감독으로 통했다. 김창호 대장의 영화 제작을 위해 떠난 2018년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 도중 불의의 사고로 원정대 전원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

Being the only mountain film director in Korea, Lim tirelessly produced mountain films. Looking back, Lim was never stuck in one position, but always crossed the line between mountain climber and recorder, cameraman and director, television and film. Perhaps that is why he was able to produce films uniquely from his perspective. At this Special, we will be screening 6 of Lim's films made since 2005. Take special note of *The Trip* and *Alpinist - Confession of a Cameraman*, as they are being screened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is Special. They are the films that created the subsequent *Monsoon* and *Alpinist*.

### LIM Il-jin

Lim began climbing in 1988, when he entere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learned photography in Japan. In 2008, he became the first Asian to be awarded at the Trento Film Festival with his documentary *The Wall*. *Alpinist* was selected as the Ulju Summit film at the firs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here it was screened. He was also a special director for the Korean film *The Himalayas*. Korea is pretty much barren when it comes to mountain films, but Lim climbed mountains with a camera for the last 30 years, coming to represent Korean mountain film directors. He was with Kim Chang-ho and the Korean Way Gurja Himal expedition that perished in 2018.

## 벽 The Wall

Korea | 2008 | 79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1:00 | AC 3

**출연**  
전양준  
조형국  
박희용

**Main Cast**  
JEON Yang-joon  
CHO Hyung-kook  
PARK Hee-Yong

캐나다의 험준한 거벽 '부가부', 들리는 건 오로지 오름  
짓에 목숨을 건 클라이머들의 거친 숨결과 황량한 바람  
소리뿐. 오를수록 간절해지는 고독과 그리움... 그들에게  
벽은 간절히 넘고 싶지만, 지독히도 넘기 힘든, 현실의  
벽일 뿐이다. 연출자로서의 성찰적 고민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작품. 눈으로 뒤덮인 거대한 바위산을 오르려는  
한없이 작은 인간의 모습. 정상에 오르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아닌 현실 세계와 등반 세계를 오가며 등반가들이  
겪는 깊은 혼란과 외로움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2008년  
트렌토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작. (최선희)

The only sounds you can hear on the rugged Canadian  
bigwall, 'Bugaboo' are the heavy breathing of climbers  
who risk their lives climbing and the bleak wind.  
Loneliness and yearning grow as the ascent proceed.  
It's their greatest desire to climb the wall, but it's an  
almost impossible reality to overcome. This is a film  
which fully reveals the filmmaker's self-reflective  
dilemma. Humans seem too small as they attempt to  
climb up the snow-covered great rocky mountain. And  
the climbers' deep confusion and loneliness as they  
shift between reality and the world of climbing are  
delicately presented to reveal a strong will to climb to  
the top. Winner of the 2008 Trento Film Festival, Jury  
Special Prize Award. (Billy CHOI)

## 알피니스트 -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 Alpinist - Confession of a Cameraman

Korea | 2019 | 100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20:00 | AC 1 | Cine Talk | World Premiere



### 임일진, 김민철

레코드가게 아들로 태어나 비디오 대여점 아들로  
자랐다. 한국에서 저널리즘을, 네덜란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유럽과 한국에서 방송,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제작과 연출을 경험했다. 흥대  
클럽에서 파티와 콘서트를 만들었고 인디 레이블을  
운영했다. <아이언 크로우스>(2009), <달팽이의  
별>(2011), <나인뮤지스>(2012) 등 다큐멘터리를  
프로듀싱했다.

### LIM Il-jin, KIM Min-chul

Born into a record shop that turned to a video  
rental store, Kim Min-chul studied journalism in  
Korea and communication in the Netherlands. He  
has extensive experiences in audio-visual industry  
from film and TV to Ads and M/V productions. He  
produced parties and concerts and ran a record  
label before producing award winning docs such as  
*Iron Crows*(2009), *Planet of Snail*(2011) and *9 Muses  
of Star Empire*(2012).

이 영화는 산악전문 카메라맨인 (故)임일진 감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참여한 네 번의 히말라야  
원정에 대한 기록이다. 김형일 대장은 파키스탄의  
'스판틱'을 인공산소와 세르파의 도움없이 올라 스타가  
되지만 곧이어 막명 높은 '출라체'를 도전하던 중 사망하고,  
이어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의 서성호 또한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반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임일진 감독 자신도 결국 2018년 가을 김창호 대장의  
구르자히말 원정대와 함께 히말라야에 영면한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터뷰를 통해 완성한 이 영화는 그의  
유작으로 남았다. (최선희)

The film is a record of the 4 Himalayas expeditions  
participated by the late mountain film director Lim  
Il-jin from 2009 to 2013. Mountaineer Kim Hyung-  
il becomes a celebrity upon summiting the Pakistani  
'Spantic' without the aid of supplemental oxygen or  
Sherpas, but is killed in his subsequent climb of the  
notorious 'Cholatse'. Mountaineer Seo Seong-ho is  
also killed during an expedition of Mount Everest  
without supplemental oxygen led by Kim Chang-ho.  
In fall of 2018, Lim is also killed along with the entire  
expedition to Mt. Gurja led by Kim Chang-ho. This  
posthumous film by Lim was completed with the aid  
of his last interview. (Billy CHOI)

## 더 트립 The Trip

Korea | 2019 | 24min | Color | Experimental



09. 07 | 19:30 | ST | World Premiere



### 김민철

레코드가게 아들로 태어나 비디오대여점 아들로 자랐다. 한국에서 저널리즘을, 네덜란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유럽과 한국에서 방송,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제작과 연출을 경험했다. 홍대 클럽에서 파티와 콘서트를 만들었고 인디 레이블을 운영했다. <아이언 크로우즈>(2009), <달팽이의 별>(2011), <나인뮤지스>(2012) 등 다큐멘터리를 프로듀싱했다.

### 원작 <문순> (임일진 연출)

Based on *Monsoon* directed by Lim Il-jin

### KIM Min-chul

Born into a record shop that turned to a video rental store, Kim Min-chul studied journalism in Korea and communication in the Netherlands. He has extensive experiences in audio-visual industry from film and TV to Ads and M/V productions. He produced parties and concerts and ran a record label before producing award winning docs such as *Iron Crows*(2009), *Planet of Snail*(2011) and *9 Muses of Star Empire*(2012).

산악인이자 인류학자인 오영훈은 에베레스트 등정 중 동료 서성호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이듬 해 영훈은 연구차 네팔의 왈롱 마을에 도착해 평온한 마을 사람들과 섞여 지내지만, 성호의 마지막 등반 모습이 파편처럼 끊임없이 찾아 든다. 어느덧 영훈은 햇불 하나를 들고 초현실적 모습의 동굴 속을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간다. 고산 등반에서 죽음의 위험은 뎀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죽음을 목도한 자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는 과정을 몽환적으로 표현한 실험 다큐로 임일진 감독의 <문순>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최선희)

Oh Young-hoon, a mountaineer and anthropologist, suffered from the loss of one of his group members, Seo Seong-ho, during the ascent of Mount Everest. The following year, Young-hoon visits the village Wallung in Nepal for research and mixes with the peaceful people there. However, he keeps being reminded of Seong-ho's last climb and feels sharp pain. Following this Young-hoon wanders through a surreal cave with a torch, then moves forward to a bright light in the distance. In fact, the danger of death and alpine climbing are inseparably linked. This experimental documentary is directed from Oh's own perspective based on *Monsoon* by Lim Il-jin, and the film portrays, through a dreamlike atmosphere, the process that a person who witnessed a death goes through to accept it and move on. (Billy CHOI)

## 브리드 투 클라이م Breathe 2 Climb

Korea | 2005 | 69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9:30 | ST | GV

### 출연

손상원  
고미영

### Main Cast

SON Sang-won  
KO Mi-young

선운산 장군바위를 국내 최고의 암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클라이머 손상원과 고미영이 길을 나섰다. 장군바위의 '두이노 길'(손상원, 5.13b)과 자유 2000길(고미영, 5.14a) 등반 모습을 비롯해 두 등반가와의 인터뷰, 북한산 볼더링 등 약 1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임일진 감독의 초기 영화. 경쾌한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 현란한 영상은 마치 클라이밍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하다. 손상원과 고미영, 전성기에 오른 두 클라이머의 손동작과 발동작 하나하나와 그들이 쏟아부은 응축된 힘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최선희)

Two talented climbers, Son Sang-won and Ko Mi-young embarked on a mission to turn Mt. Seonunsan Janggun Rock into the best rock climbing site in Korea. This early piece from filmmaker Lim Il-jin consists of 15 episodes following the two climbers' ascent up Janggun Rock's 'Duino road' (Son Sang-won, 5.13b) and Freedom 2000 road (Ko Mi-young, 5.14a), their interviews and Mt. Bukhansan bouldering scenes. The complex mix of images unravelling to a lively soundtrack seems like a climbing music video, and with each hand and foot work of the climbers captured in moving images, one can feel all the energy they put out. (Billy CHOI)

## 호은 - 아쇼카의 전설 Hoewn - Legend of Ashoka

Korea | 2017 | 36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6:00 | AC 3

**출연**  
차호은  
조형국  
조경아

**Main Cast**  
CHA Ho-eun  
CHO Hyung-kook  
CHO Kyung-ah

정처 없이 이 산 저 산을 떠돌아다녀야만 했던 인도의 신 하누만의 전설을 좇아 호은도 인도로 떠났다. 돌무더기 산이 모여있는 인도의 함피, 호은은 이 바위 저 바위를 계속 오르고 떨어지고 또 오른다. 아침에 깨어나서 올라야 할 바위가 없으면 불안을 느낀다는 호은은 그저 오르기에만 집중하고 카메라는 호은의 오름 짓 하나하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닌다. 목적 없이 그저 떠돌기만 하는 하누만처럼 바위를 올라야만 하는 호은의 모습 위로 오직 오르는 순간에만 현실의 고민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감독의 운명과 내면을 투영시킨 실험성 강한 다큐멘터리. (최선희)

Hoeun has left for India to follow the legend of Hanuman, the god of India and has had to wander between mountains. Hampi is a village filled with mountainous piles of stones, which Hoeun constantly climbs up and then falls from. He often feels anxiety when he wakes up in the morning without rocks to climb, and so Hoeun focuses on ascending, and the camera unceasingly follows his movement in detail. This experimental documentary reflects the director's fate and inner mind and reveals that he can be free from the conflicts and pain in real-life only in the moment of climbing. This is Hoeun's journey, which looks like the aimless path of Hanuman. (Billy CHOI)

## 어나더 웨이 Another Way

Korea | 2007 | 61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6:00 | AC 3

**출연**  
김형일  
장기현

**Main Cast**  
KIM Hyung-il  
JANG Ki-hyun

임일진 감독의 클라이밍 다큐멘터리 <브리드 투 클라이밍>의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거벽이다. 카메라는 김형일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를 따라 인도 탈레이사가르와 파키스탄의 그레이트 트랑고 타워를 오르는 길고 긴 여정을 함께 한다. <알피니스트>의 주요 등장인물인 김형일 대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영화. 거벽의 크랙에 간신히 확보 장치를 하나 끼워 넣고, 자일을 걸고, 주마링으로 힘겹게 한 발을 밟는 지난한 등반의 과정이 그대로 보인다. 산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인공 김형일에 대한 임일진 감독의 따뜻한 시선이 잘 느껴지는 영화. (최선희)

This is a follow up to Lim Il-jin's climbing documentary *Breathe 2 Climb*. This time, Lim deals with the big wall. The camera joins the long journey with team leader KIM Hung-il and his team up India's Thalay Sagar and Pakistan's Trango Towers. This is the first film appearance of Kim Hung-il, the main protagonist of *Alpinist*. The film exposes the extremely difficult task of climbing by inserting a single security device in the big wall's crack, slinging a rope through it and then jumaring. One can feel the warm gaze the filmmaker places on Kim Hung-il who has no choice but to climb mountains. (Billy CHOI)

# 함께 가는 길

## The Road Together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슬로건은 '함께 가는 길'이다.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스태프의 열정과 노력이 영화를 통해 관객과 만나는 여행이 될 수 있고, 영남 알프스의 자연과 함께 영화와 인간이 어우러지는, 함께 가는 길의 축제가 벌어질 예정이다. 함께 가는 길의 시작은 여정, 여행이다. 누구에게나 그 출발의 시작 앞에는 설렘으로 가득하다. 그 여행은 평소 가지 않은 곳을 가보는 방문처럼 일상의 일탈이 될 수도, 생각을 정리하거나 휴식을 위해 혼자 떠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전쟁이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도 있다. 넓게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여행의 연속이라 할 수도 있겠다. 또한 그 길은 일반 도로가 될 수도, 바닷길이 될 수도 있으며, 험준한 산길을 따라가야 할 수도 있다. 그 길은 말 그대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 될 수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라는 긴 항해가 될 수도 있다. 이 섹션에서는 '함께 가는 길'의 다양한 모습들, 방식들을 담아 보았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무성영화의 거장 감독, 찰리 채플린이 어린 꼬마와 함께 가는 길을 다룬 <키드>로 시작해, 1980년대 총무로 영화의 전성시대, 대학생 병태와 민우가 춘자의 고향 우도로 향하는 본격 로드무비 <고래사냥>을 지나, 티베트를 떠나 도보로 국경을 넘어 인도로 이주하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겪어낸 돌카가 또다시 치러내야 하는 또 다른 운명적 선택 <레퀴엠>, 잠시 머물게 된 손자와 함께 개조한 작은 오토바이로 친구의 병문안을 위해 여행을 시작한 시골 할아버지의 가슴 따뜻한 로드무비 <자오관으로 가는 길>, 한 부부가 시작해 여정의 끝에 셋이 되어버린 히치하이킹과 배편으로 세계 일주하는 이야기 <저 멀리-그들의 세계여행 이야기>까지, 이 영화로 관객들과 함께, 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라는 여행의 길을 떠나보려 한다.

This year'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slogan is 'The Road Together'. The passion and efforts of the staff preparing the film festival is the road to meet the audience. Yeongnam Alps will also become the road to bring man and film together in nature during this festival.

The beginning of the road together is a journey. It is always thrilling to be standing at the starting line. The journey can be a departure from daily life, a visit into the unknown, or a solo getaway trip. There is also the journey in search of freedom for political reasons such as war. On a large scale, we could say that every day is a continued journey. And the road that we take can be a standard road, a road by the seaside, or a treacherous road along a rugged mountain. It can be a literal journey or the long road of life we must travel. This section will cover the various aspects and methods of 'The Road Together.'

Beginning with *The Kid*, a film by the acclaimed silent film director Charlie Chaplin about a road travelled with a young child, the 4th UMFF will take a journey with the audience with the following films: *Whale Hunting*, a road movie about college kids traveling to Udo during the 1980s; *The Sweet Requiem*, about the fateful choice Dolkar must make after making the treacherous journey from Tibet to India; *Crossing the Border - Zhaoguan*, a feel-good road movie about a grandfather taking a journey with his grandson on a repaired motorcycle to visit a sick friend; and *FAR. The Story of a Journey Around the World*, a story about a couple beginning a journey around the world by boat and through hitchhiking and ending up with a third journeyman.

## 고래사냥 Whale Hunting

Korea | 1984 | 110min | Color | Fiction



09. 07 | 19:00 | UC | SG  
09. 08 | 16:30 | ET 2 | SG



### 배창호

1953년 대구 출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창호 감독의 조감독을 거쳐 1982년 <고방동네 사람들>로 데뷔한 이래 <고래사냥>(1984), <길고 푸른 밤>(1985),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등 80년대에 발표한 작품 대부분이 흥행성과 작품성에서 모두 성공한다. 이후 <황진이>(1986), <꿈>(1990), <정>(2000) 등 작가주의 계열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영화미학을 보여주었다. 2010년 <여행>을 만들며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울주세계 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BAE Chang-ho

After working as an assistant director to director Lee Jang-ho, he made his debut with *People in a slum*(1982) and went on to make *Whale Hunting*, *Deep Blue Night*(1984), *Hwang Jin-I*(1986), *Our Joyful Young Days*(1987), *The Dream*(1990), and *Love Story*(1996), *My heart*(2000). He holds international awards from Philadelphia Film Festival(US), Udine Far East Film Festival(Italy), Benodet International Film Festival(France). Currently he is the festival director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한국의 스피버그', 80년대 한국 영화의 흥행과 부흥을 주도한 감독 배창호의 1984년 작 <고래사냥>은 대학생 병태가 민우와 함께 창녀로 만난 춘자의 고향, 우도로 떠나는 로드무비이다.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병태가 끈질기게 외쳤던 '고래'는 무엇이었을까? 영화는 엄혹한 시절만큼이나 추운 겨울, 포주에 쫓기고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춘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병태의 몸부림을 통해 사랑을 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쁜 고래가 된다. 젊은 안성기, 이미숙, 김수철의 영화음악, 지금은 사라진 80년대 풍경을 보는 재미는 현재의 덤이다. (유순희)

Recognized as the 'Spielberg of Korea', hitmaker and a key figure of the 80s Korean cinema renaissance, Bae Chang-ho's 1984 film *Whale Hunting* is a road movie following university students Byeong-tae and Min-u's journey to the island of Udo, the hometown of Chun-ja, a prostitute they meet by chance. What did Byeong-tae, who wants to escape from his suffocating reality, mean whenever he cried 'whale'? Through Byeong-tae's struggle to protect Chun-ja as they flee through the winter cold as biting as the harsh social climate, and Chun-ja's pimp coming after them and beating them down, the film seeks love and the precious whale that we all have in our hearts Ahn Sung-ki, Lee Mi-sook and Kim Soo-chul who also worked on the original soundtrack presents an interesting landscape of the 80s. (YOO Sun-hee)

## 레퀴엠 The Sweet Requiem

India, USA | 2018 | 91min | Color | Fiction



09. 08 | 10:30 | ET 1 | Korean Premiere



### 리투 사린, 텐징 소남

이들은 화이트 크레인 제작사에서 20편이 넘는 다큐멘터리와 한 편의 극영화를 만들었다. 그들은 주로 티베트인들이 직면한 망명, 정체성, 문화,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인도 다람살라국제영화제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 Ritu SARIN, Tenzing SONAM

Working through White Crane Films, they have made more than 20 documentaries, and one dramatic feature. Their work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subject of the issues of exile, identity, culture and politics that confront the Tibetan people.

돌카는 티베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간다. 그런 그녀 앞에 티베트 독립운동 활동가 갓초가 나타난다. 돌카는 갓초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히말라야를 넘던 어릴 적 기억이 이 낯선 남자가 꿈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 남자의 주변을 맴돌면서 돌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깨닫게 되고, 마침내 그녀의 기억의 조각은 갓초-곰보의 그것과 더해지면서 완전한 것이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과 그것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는 <레퀴엠>은,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성찰로 우리를 이끈다. (산까지)

Dolkar is slowly losing her identity as a Tibetan. Then one day she meets Tibetan independence activist Gatso whom she is rather suspicious of. This is because the faint childhood memory of climbing the Himalayas seems to suggest that this stranger is actually Gampo. Through their encounters, Dolkar comes to terms with her identity, and pieces of her memory along with those of Gatso-Gampo help her find perfect closure. *The Sweet Requiem* deals with a life deprived of choice and the resistance of this reality may require some level of imagination to understand, but in the end, leads us to an endless realm of soul-searching. (H.Jay LEE)

## 자오관으로 가는 길 Crossing the Border - Zhaoguan

China | 2018 | 93min | Color | Fiction



09. 07 | 13:30 | BT | GV

09. 08 | 17:00 | ST | SG



### 명 후오

명 후오는 1984년 허난성 타이캉현 출생으로, 2006년 중국전매대학의 영화과대학원에 입학하였다. 학생 시절 만든 <홍구양의 휴일>은 베이징대학영화제에서 최우수학생단편상을 수상하였고 제3회 아시아청소년이미지전시회에 초청되었다.

### MENG HUO

Meng Huo was born in Taikang County, Henan Province in 1984. In 2006, he was admitted to the Film Scienc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University of China. While at the school, his short film *Hongguang's Holidays* was awarded the Best Student Short Film Award of the Beijing University Film Festival and was included in the 3rd Asian Youth Image Exhibition.

문화혁명 시기에 죽음의 고비를 넘긴 할아버지는 당시 함께 지낸 친구가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며칠에 걸친 여정을 떠난다. 삼륜 오토바이의 짐칸에 일곱 살 난 손자를 태우고서, 길 위에서 여러 인간군상을 만나는 로드 무비의 외형 안에서 할아버지가 전하는 말의 온기와 무게가 범상치 않다. 작품이 실제 감독의 조부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 덕이다. 중국 시골길을 느리게 따라가는 동안 낯선 것을 만날 때마다 무서워하던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친숙함의 이로움을 가르친다. 그가 공유해주는 지혜는 우리 마음의 장벽에도 힘을 발휘한다. (한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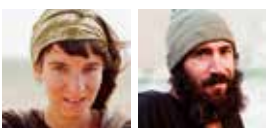
An old man who barely survived from the Cultural Revolution is told that his friend is currently suffering from hemiplegia. Having survived the Cultural Revolution together, the old man set off on a journey to see his friend. By tricycle, he takes his seven-year-old grandson on the back seat. With the form of a Road Movie, he meets a wide range of people on the road while sharing warm words as he travels. This film is based on the memory of the director's grandfather. Whenever the little grandson is terrified by something strange while slowly following the country road in China, the grandfather teaches the kid the benefits of familiarity. The wisdom he shares gives us the strength of mind to melt emotional barriers. (HAN Song-i)

## 저 멀리 - 그들의 세계여행 이야기 FAR. The Story of a Journey around the World

Germany | 2017 | 127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9:00 | BT



### 그벤돌린 바이저, 패트릭 알가이어

패트릭 알가이어는 1983년 독일의 발트키르히 출생으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여행 영화를 찍기 시작하였다. 독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몇 년 동안 카메라맨과 편집자로 근무하였다. 그벤돌린 바이저는 1992년 독일 오베리드 출생으로 영화감독을 꿈꾸었다. 패트릭과 그벤돌린은 여전히 세계 일주 중이다.

### Gwendolin WEISSER, Patrick ALLGAIER

Patrick Allgaier was born in 1983 in Waldkirch, Germany. He started to film his first travelling movies while he travelled the world. He worked for several years for German Television Stations as a cameraman and editor. Gwendolin Weisser was born in 1992 in Oberried, Germany. Gwendolin also dreamt of becoming a director. Patrick and Gwen started to journey around the world.

히치하이킹과 배편만으로 세계 일주하기. 패트릭과 그벤돌린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동쪽으로 출발해, 서쪽 멕시코에서 돌아오는 세계 일주를 실행에 옮긴다. 그들의 3년 반 여정은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준다. 환상이 경험으로 대체되는 순간, 그리고 낯선 세계에서 신뢰가 가져오는 따뜻한 환대를 통해 세상의 경계와 편견은 의미가 없다고 그들의 여정은 말한다. 둘이 출발했으나 셋이 되어 돌아온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대지에 발을 드리우고 있는 인간의 이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무엇보다 신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산까지)

Journeying around the world by hitchhiking and by boat, Patrick and Gwendolin put their plan of travelling around the world into action. Starting in the East in Freiburg, Germany, they plan to end in Mexico in the West. Their 3 and a half year trip reveals how diverse, yet close the world is. As fantasy is replaced by experience and warm welcomes based on trust are offered in foreign places, their journey proves boundaries and prejudices that exist in this world are meaningless. Their amazing story starts with two but ends with three when they finally return. Their marvellous journey shows us that achieving dreams is possible and reminds viewers of the importance of trust. (H.Jay LEE)





# 움프 라이프

## UMFF Life

2018년부터 신설한 움프 라이프는 산, 자연, 인간이라는 주제 안에서 모든 연령층의 관객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로 구성하였다.

그 첫 번째, 움프 투게더는 총 장편 10편과 단편 20편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양한 시대와 장소를 배경으로 한 아시아의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볼만한 가족영화들, 그리고 연령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단편 모음까지, 다양한 영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움프 클래식은 영화의 배경을 '산'에서 '자연'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제작국가도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 다양화하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데이비드 린 감독의 <아라비아의 로렌스>와 프랑스의 영화감독 자크 타티의 초기 장편 2편 <축제일>, <윌로씨의 휴가>, 그리고 루 추안 감독의 <커커시리>가 소개된다.

새롭게 신설된 섹션인 랜스케이프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관찰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좁게는 민족지 관점에서 읽힐 수도 있는 영화들이면서, 넓게는 자연 속 인간이 살아온 자취나 사는 모습을 문화의 관점에도 볼 수 있는 작품들 7편이 소개된다.

올해는 움프 라이프의 상영관도 다채로워져, 별빛 야영장의 별빛 극장과 안양읍행정복지센터 내 극장, 울주 선바위도서관 상영관까지, 다양한 지역의 울주군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관객과의 대화가 없는 상영에는 상영 전 해설이 제공될 예정이다.

Since its beginning in 2018, UMFF Life has screened a diverse range of films for audiences of all ages under the theme of Mountain, Nature, and Human.

First of all, UMFF Together will screen a total of 10 features and 20 shorts that include family films for parents and children, about people and nature in Asia in a variety of settings, as well as shorts that can be enjoyed by all age groups.

UMFF Classic has extended its range of settings from 'mountain' to 'nature', and now brings films from more countries like the UK, France, and China. Films include David Lean's masterful *Lawrence of Arabia*, two early features by French director Jacques Tati, *The Big Day* and *Mr. Hulot's Holiday*, and Lu Chuan's *Kekexili: Mountain Patrol*.

Seven films will be presented in the new section, Landscape, which endeavors to make respectful and sincere observations of people living amid nature. The films can be read in an ethnographic manner, as well as from a cultural perspective that shows how people have lived and continue to live within nature.

This year, UMFF Life will be presented in various theaters, including the outdoor Starlight Theater, Eonyang Theaters inside the Eonyang Service Center, and Seonbawi Theater. This will allow for more active participation by Ulju residents in various parts of the city. For some screenings, a commentary will be provided before the screening.

# 움프 투게더

## UMFF Together

자연과 인간의 삶을 다룬 다양한 장르영화 -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 를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하였다. 총 10편의 장편영화와 20편의 단편영화가 관객을 찾아갈 준비를 마쳤다.

올해 움프 투게더 영화는 다양한 시대와 장소를 배경으로 한 아시아의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했다. 중국: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비극적 운명의 수레바퀴를 다룬 <겨울, 그리고 겨울>, 대만: 소수민족 아타얄 세 소년의 성장기를 극영화로 만든 <로카 라퀴>, 일본: 디케야마 오난지야마 산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아오이 유우가 출연한 <봄을 짊어지고>, 키르기스스탄: 말을 유목하며 살아가는 한 가족, 그 안에서 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와 문명의 변화가 그려지는 <천상의 유목민>, 네팔: 산간 마을의 수도승과 내전에 참전한 소년병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슈퍼 동자승>, 그리고 한국영화 <별들은 속삭인다>, <달, 실>, <프놈펜에서 온 편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볼 만한 가족영화들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연상시키는, 동화적 상상력과 현실의 감동이 연결되는 또 다른 동화 <초콜릿 데이>, 부모가 게임에 빠진 브루노를 데리고 스웨덴 산간지방으로 여행을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타이키>, 다양한 단편 모음 영화 <마마>, <출항> 등이 가족 관객을 기다린다.

그 외 미국 산불 진화팀 그래닛 마운틴의 성장과 활약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온리 더 브레이브>와 인도 라다크 산골 마을, 열여섯 왕모의 출가와 순례길 이야기 <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는 움프 시네마에서 만나게 된다.

Films about man and nature in various genres - fiction, documentary, and animation - will be presented for all generations from preschool children to the elderly. A total of 10 feature films and 20 short films have been prepared.

This year, UMFF Together will talk about the stories of people and nature in Asia, set in different times and places. China: taking pla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 family's tragic destiny is portrayed in *Winter after Winter*. Taiwan: a coming of age film about 3 Atayal minority boys, *Hang in There, Kids!* Japan: a story with a backdrop in the mountain home in Onanjiyama starring Aoi Yu, *Climbing to Spring*. Kyrgyzstan: a Nomadic family raising horses, and the lives of three women portray the period and changes in civilization - *Heavenly Nomadic*. Nepal: *Supermonk*, a story about the friendship between a boy soldier fighting in a civil war and a mountain village monk. Korea: *The Stars Whisper*, *Moon*, *Thread*, and *A Letter from Phnom Penh*.

Family films for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clude: *The Day of Chocolate*, an imaginative fairy tale reminiscent of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Taiki*, a story about what happens when Bruno's parents take him to the Swedish mountains away from games, and various shorts such as *Mama* and *Cast Off*.

Other films to see at the UMFF Cinema include: *Only the Brave*, an American biographical film based on the bravery of the Granite Mountain Hotshots; and *Goodbye, My Girlhood*, dealing with the pilgrimage of 16-year-old Wangmo from the mountain village Ladakh, India.

## 겨울, 그리고 겨울 Winter after Winter

China | 2019 | 110min | Color | Fiction



09. 06 | 15:00 | AC 1 | Korean Premiere



### 싱 지안

1984년 중국 라오닝성 출생. 싱 지안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회화를 배웠다. 루쉰미술아카데미의 중등과정을 거쳐 충칭대학교의 메이시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 촬영을 전공했다. 그의 장편 데뷔작 <세븐 데이즈>는 2015년 제39회 몬트리올세계영화제에서 최고예술가상을 수상했다.

### XING Jian

Born in 1984 in Liao Ning Province. Xing Jian starts to learn painting at a very young age. He graduated from Lu Xun Academy of Fine Arts Middle School and majored in film photography at the Meishi Film Academy of Chongqing University. His debut feature, *Seven Days* won the Best Art Contribution Award at the 39th Montreal World Film Festival in 2015.

중일 전쟁의 막바지인 1944년 중국 동북 성의 한 마을, 대가 끝까지 걱정인 아버지는 세 아들이 일본군에게 징집되기 전 어떻게든 손자를 보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징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더욱 절망한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추궁한다. 영화는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 개인의 기구한 삶과 전통적 가치관 아래 일반적으로 희생을 요구당하는 여성의 운명을 이야기하며 기존의 중일 전쟁을 다룬 중국 영화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 (안정아)

In 1944, as the Sino-Japanese War was almost coming to an end, a father who lived in a village in the Northeast Province, China, tries to get his grandson before his three sons get drafted into the Japanese army, but things don't go his way. He falls into deeper despair when his first son dies soon after he's drafted, and when he learns his daughter-in-law is pregnant, he tries to find out who the father of the child is. The film deals with the weary life of an individual and women's fate to sacrifice themselves under traditional values in an extreme situation such as war. This film sets itself apart from other Chinese works dealing with the Sino-Japanese War, with the different tone and approach it presents. (AHN Jung-ah)

## 로카 라퀴 Hang in There, Kids!

Taiwan | 2016 | 90min | Color | Fiction



09. 08 | 11:30 | ET 2



### 라하 메보우

대만 소수민족인 아트알 출신. 세신대학의 라디오, TV, 영화과를 졸업했다. 감독 본인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대만 소수민족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작품으로는 <사유를 찾아서>(2011)과 <로카 라퀴>, <오랜 시간이 지난 뒤>(2018)의 장편 트릴로지와 단편 <32킬로미터-60년>은 2018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소개되었다.

### Laha MEBOW

Taiwanese aboriginal Mebow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Radio, TV and Film at Shih Hsin University. Due to her indigenous identity, her works focus on aboriginal-themed documentary and drama, as shown in *Finding Sayun*(2011) and *Hang in There, Kids!* which is her second feature film.

대만의 원주민 마을,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와단, 술만 드시면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을 둔 린산, 아버지와 살면서 타이베이에 있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보지 못한 천하오는 이러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고 밝게 지낸다. 이들은 시내로 나가 복숭아를 팔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름다운 라와 선생님을 위해 이벤트도 준비한다. 소소한 일상 속, 가슴 한쪽이 짙해지는 감동과 함께 유쾌함이 어우러지는 장난꾸러기 세 소년의 성장 일기. (안정아)

In a village in Taiwan, three young boys are growing up. Watan is parentless and is living with his grandmother. Lin Shan's parents fight every time they drink. Chen Hao lives with his father but hasn't seen his mother who lives in Taipei for a long time. They all bravely deal with their lives despite their familial misfortunes. They sell peaches downtown and organize an event for their lovely teacher, Lawa who cannot walk after getting into an accident. This film is like a collection of heartwarming and delightful coming-of-age diaries of the three mischievous boys as they go about the ordinary courses of their lives. (AHN Jung-ah)

## 봄을 짊어지고 Climbing to Spring

Japan | 2014 | 116min | Color | Fiction



09. 07 | 16:30 | ET 2  
09. 09 | 12:30 | AC 1



### 기무라 다이사쿠

기무라 다이사쿠는 <하코다산>, <바이러스>, <유카이>, 그리고 <철도원> 촬영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감독 데뷔작 <츠루기다케 점의 기록>(2009)은 극장개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일본아카데미의 감독상 역시 수상했다.

### KIMURA Daisaku

Kimura Daisuke demonstrated his prodigious talent as a cinematographer in the Japanese film masterpieces *Hakkodasan*, *Day of Resurrection*, *Yukai* and *Railroad Man*. His directorial debut *Mt. Tsurugidake*(2009) was a huge hit, winning him the best director award at the Japan Academy Awards.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의 해발 3천 미터에서 산장을 운영하는 청년 토오루의 이야기다. 실제 다테야마의 오난지야마 휴게소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장지기가 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식재료를 짊어지고 등반하는 것에서 날씨를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토오루에게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이런 초보 산장지기에게 선뜻 도움을 손길을 내민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하던 산장의 선배들이다. 도시의 치열함에서 벗어나 자연적 삶으로 복귀하는 힐링 영화로, 산장 식구들 간의 가족애와 가업에 대한 소명 의식이 돋보인다. (한송이)

This is the story of Toru, a young man running a mountain cabin located 3,000m above sea level in Tateyama, known as the Alps of Japan. The film was shot on location in Tateyama's Onanjiyama service area. To run the cabin after his father passes away, Toru returns to his hometown, but everything is a challenge for him, from climbing the mountain with food supplies hoisted on his back to predicting the weather. It is his father's cabin staff who offer help to the rookie cabin keeper. A healing film that steps away from the intensity of the city to return to a natural lifestyle, it highlights the family-like ties between the cabin staff and the vocation of a family business. (HAN Song-i)

##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 Goodbye, My Girlhood

Korea | 2018 | 81min | Color | Documentary



09. 08 | 19:00 | UC | SG



### 김한석

KBS 대기록 4부작 다큐멘터리 <순례>의 1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영화화 한 <안녕, 나의 소녀 시절 이여>는 많은 화제를 불러모았다. 영화와 더불어 <순례>의 연출과 기획을 맡은 김한석 감독은 이 작품으로 2018년 한국방송대상에서 TV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현재 KBS PD로 재직 중이다.

### KIM Han-seok

*Goodbye, My Girlhood*, a film based on the first part of KBS four-episode documentary *Pilgrimage* drew a lot of attention when it introduced. As a KBS producer, director Kim Han-seok, who organized the direction as well as the project plan, won the 2018 Korean Broadcasting Awards for Best Television Documentary.

열여섯의 평범한 소녀 왕모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출가한 후 패드 야트라, '발의 여정'에 오른다. 영화는 히말라야의 혹독한 추위 속 고행길과 출가 전 봄날과도 같은 그녀의 소녀 시절을 교차로 보여주며 더욱 극명한 대비를 끌어낸다. 패드 야트래에 필요한 세 가지는 인내와 인내, 그리고 인내라는 늙은 수행자의 말에 의아해하던 그녀는 끊임없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고행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낸 왕모는 마침내 눈부시던 자신의 소녀 시절에 안녕을 고한다. (안정아)

An ordinary sixteen-year-old girl, Wangmo, is forced to leave home due to poverty and sets out on a 'Pad Yatra', the Journey of feet. The film cross-cuts between the difficult path she takes through the Himalayas' harsh cold and the spring day-like times she enjoyed before leaving home, showing the clear contrast her life before and after she set out on her course. Puzzled by the elderly trainee's advice that perseverance, perseverance and perseverance are the three things required for Pad Yatra, she constantly raises the question, 'Where am I going?' And through the process of penance, Wangmo finds the answer herself, and finally bids farewell to the brilliant years of her youth. (AHN Jung-ah)

## 여전히 푸른 인생 As Green As It Gets

Germany | 2018 | 115min | Color | Fiction



09. 07 | 11:00 | AC 3



### 플로리안 갈렌베르거

1972년 뮌헨 출생. 장편 데뷔작 <시간의 그림자> (2004)는 바바리안영화상에서 신인감독상을 받았고 두 번째 영화 <존 라베> (2009)는 최고작품상을 포함해 두 개의 바바리안영화상과 4개의 독일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세 번째 장편 <콜로니아>는 바바리안영화상에서 최고작품상을 그리고 독일아카데미상의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현재 뮌헨영화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Florian GALLENBERGER

Born in Munich in 1972. He won the Bavarian Film Award for Best New Director for *Shadows of Time* (2004), and two Bavarian Film Awards and four German Academy Awards, including Best Film for *John Rabe* (2009). Also *Colonia* (2015) received the Bavarian Film Award for Best Film and was nominated for five German Film Awards. Gallenberger is also a professor at HFF.

여행이 항상 그렇진 않지만, 간혹 어떤 여행은 사람의 삶 자체를 뒤엎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영화는 무작정 떠난 여행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삶을 바꾸어버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원으로 일하는 주인공은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가족관계에다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하게 되어 파산 지경에 놓여 있다. 답답한 상황을 도망치기라도 하듯 유일한 즐거움이었던 경비행기를 몰고 시작한 여행은 감히 그 결말을 예측하기 힘들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항공 샷의 풍경과 함께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진정한 힐링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김세진)

Although it's not always the case, a trip can become a life-altering event. This film tells the story of a spontaneous trip that ends up changing not just one person's life, but a group of people's lives. The protagonist, who works as a gardener, is in dire straits with family relationships already a mess and facing bankruptcy when he's not paid the money he's expecting. As if running away from his dismal situation, he sets out on a trip, driving the light plane, which was his sole source of happiness. However, the conclusion to his journey is far from predictable. This film offers a chance for healing in the true sense alongside the breathtaking aerial shot landscapes by urging us to rethink the meaning of life. (KIM Se-jin)

## 온리 더 브레이브 Only the Brave

USA | 2017 | 133min | Color | Fiction



09. 09 | 19:00 | UC



### 조셉 코신스키

조셉 코신스키는 자신만의 독특한 영화스타일로 영화계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졌다. 장편 데뷔작인 <트론: 새로운 시작>은 전 세계에서 약 4천 4백억의 수익을 올렸으며 아카데미와 그래미어워드에도 노미네이트되었다. 블래라벨 미디어와 콜롬비아 픽처스에서 만든 그의 3번째 장편영화는 영화 <온리 더 브레이브>로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 Joseph KOSINSKI

Joseph Kosinski is a director whose uncompromising visual style has quickly made a mark on the filmmaking zeitgeist. His feature film debut, *Tron Legacy* grossed over \$400 million worldwide and was nominated for several awards including an Academy Award and a Grammy. His third feature was the acclaimed action-drama *Only the Brave* produced by Black Label Media and Columbia Pictures.

미국의 산불 진화팀 그레이트 마운틴의 성장과 활약을 그린 실화로, 현대의 영웅들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가에 대한 드라마이다. 후방의 산불 수습팀에서 전방의 핫샷 팀이 되기까지의 플롯에 마약중독자였으나 딸을 위해 팀에 합류하게 되는 청년의 성장이 더해졌다. 거대한 면적의 숲을 삼시간에 태우는 불의 스펙터클도 무시무시하지만, 불에 불로 대응하는 맞불 진화도 아슬아슬하고 위험스럽긴 마찬가지다. 타오르는 숲과 더운 노을이 화면을 붉게 물들여도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것은 잣대미가 될 자연과 늘 가슴 졸여야 하는 가족들에 동화되어서일 것이다. (한송이)

This is a true story of modern-day heroes, the Granite Mountain firefighters and the risks they take. While following the course of the mountain fire team, the film adds the coming-of-age tale of a young drug addict who joins the team to help support his daughter. The spectacle of flames rapidly consuming the vast forest area is threatening, but the counterattack that responds to the fire is also breathtaking and dangerous. Perhaps the dread of witnessing the blazing forest and the fiery setting sun as it bleeds into the screen is from empathizing with the fact that this part of nature is fated to be turned into ashes. All the while, the firefighters' families are nervously waiting around, wishing for the best. (HAN Song-i)

## 위드 더 윈드 With the Wind

Switzerland, France | 2018 | 86min | Color | Fiction



09. 10 | 14:30 | AC 2



### 베티나 오베를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취리히의 HGKZ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그녀에게 첫 상을 안겨 준 영화, <북풍>(2004) 이후, 두 번째 영화 <할머니와 란제라>(2006)는 1년간 스위스 전역에서 개봉하여 60만 관객이 영화를 관람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배급되었다. 그녀는 현재 새로운 장편 영화와 두 편의 TV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 Bettina OBERLI

From 1995 to 2000, she studied cinema at the Hochschule für Gestaltung und Kunst in Zurich. After her first prize-winning film *Im Nordwind* (2004), her second film, *Die Herbstzeiten* (2006) was distributed in Swiss cinemas for a year and seen by over 600,000 spectators, as well as being sold throughout the world. She is currently working on a new feature film and two television series.

마을로부터 외따로 떨어져 있는 한 농장, 폴린과 알렉스는 온전한 자급자족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전기 자급을 위해 농장에 풍력 발전기를 놓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잠시 머물게 된 사무엘은 둘의 삶을 뒤흔들게 된다. 메인 플롯은 격정적 사랑에 휩싸인 한 여성의 욕망과 성장을 다룬 이야기이지만, 작품의 배경은 특정한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장치로 채워져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반기를 제기하는 그룹의 선택이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소통을 거부하고 고립을 택한 극단주의적 가치관에 대해 고민을 던지는 작품이다. (김세진)

Set in a remote farm far from the village, Pauline and Alex work hard at sustaining a self-sufficient life. They decide to install a wind power generator for electricity at the farm, but Samuel, who is hired to stay at the farm for the installation, ends up shaking up their lives. The main plot deals with the desire and growth of a woman who falls into a passionate relationship, but in fact, the film's background is filled with various things that seriously question a specific value and philosophy. Although it isn't fair to claim that a particular group's defiance against a capitalist production system is wrong, the film does raise the dilemma regarding an extremist value that blocks communication and chooses isolation. (KIM Se-jin)

## 천상의 유목민 Heavenly Nomadic

Kyrgyzstan | 2015 | 81min | Color | Fiction



09. 08 | 19:30 | ET 2



### 미를란 압디칼리코프

1982년 출생. 8세부터 그의 아버지 약탄 압디칼리코프가 연출한 3편의 영화에 <그녀>, <양자>, <원숭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영화일을 시작했다. 2010년 단편 <개미와 맞서는 연필>을 만들었고, <천상의 유목민>은 그의 장편 데뷔작이다.

### Mirlan ABDYKALYKOV

Born in 1982. He has been working in the film industry since he was eight years old. He has played the lead role in three films, *The Swing*, *The Adopted Son* and *The Chimp*, directed by his father Aktan Abdykalykov. In 2010 he debuted as a director with the short film *Pencil Against Ants*, and *Heavenly Nomadic* is his feature debut film.

키르기스스탄 산골 마을에 사는 유목민 가족 -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7살 손녀가 한 가족으로 말을 키우며 살아간다. 아들은 도시에 공부하러 나갔다가 여름이라 잠시 들린다. 남편은 새끼 당나귀를 구하려다 몇 년 전 강물에서 익사했다. 집 근처 기상조사관과 며느리는 사랑하는 사이로, 며느리에게 도시로 가자고 제안하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와 위협의 조짐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족, 특히 세 여성의 이야기이다. 2016년 키르기스스탄 대표 오스카 외국어영화상 후보작이다. (이정진)

A family of nomads live in the high, remote mountains of Kyrgyzstan; elderly herdsman Tabyldy, his wife Karachach, their daughter-in-law Shaiyr and their 7 year old granddaughter Umsunai. Shaiyr's son studies in the city and visits them only during the summer holidays. Her husband died many years ago when he was drowned in a mountain river, trying to save a foal. The family breed horses and life goes on as normal amidst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mountain Gorge. But meteorologist ErmeK, whose weather station is located near to the family's home appears in Shaiyr's life. Everything changes so fast except the tradition and it's a kind of threat of family union focused on 3 women generations. This film nominated in Kyrgyz entry for Oscar 2016. (Jinna LEE)

## 초콜릿 데이 The Day of Chocolate

Poland | 2018 | 86min | Color | Fiction



09. 07 | 11:30 | ET 2

09. 08 | 19:30 | ST



### 야체크 피오토르 브와부트

감독,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제이 바이다학교와 브로츠와프에 있는 타인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했다.

<초콜릿 데이>(2010)로 크뤼시토프 키에슬롭스키 어워드에서 최고중부유럽시나리오상을 수상하였고 크라카우영화제에서 최고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폴란드 영화아카데미의 회원이다.

### Jacek Piotr BLAWUT

Director, script writer and cinematographer. A graduate of the Andrzej Wajda School and the Academy of Fine Arts in Wrocław. Winner of the Krzysztof Kieslowski Award for the Best Central European Script for *The Day of Chocolate*(2010), awarded with the Best Documentary Prize at Cracow Film Festival(2012). A member of the Polish Film Academy.

상처의 기억이란 게 어찌 어른들만의 전유물일까? 아이들도 상처의 기억이 있다. 그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잊을 것이라 어른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상처의 기억을 극복하려 한다. 다락방, 오래된 시계, 고양이, 덩불, 마녀, 그리고 초콜릿을 좋아하는 시간 마술사.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떠올리게 하는 극 중 환상의 장치들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동화적 매력과 현실적 감동을 연결한다는 데에 있다. 각 시퀀스의 시작을 동화 속 소재목과 같이 표현한 구성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김세진)

How can one claim that hurtful memories are exclusive to adults when children have them as well? Perhaps adults easily believe children will naturally grow out of them, but the fact is, children struggle at overcoming such memories on their own. This is a film about a time magician who likes things like attics, old clocks, cats, bushes, witches and chocolate. The best thing about this film, which recalls the likes of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by how it perfectly uses fantastic apparatuses, is that it brings out real emotions through a fairytale-like appeal. It's also quite delightful to see how each sequence is constructed and how they begin with a subtitle often found in fairytales. (KIM Se-jin)

## 타이키 Taiki

Netherlands | 2018 | 86min | Color | Fiction



09. 07 | 14:00 | ET 2

09. 08 | 16:00 | BT



### 미리암 드 위스

미리암 드 위스는 브뤼셀 신틸 루카스 아카데미에서 극영화를 전공하고, 2007년 졸업작품 <이 세상의 끝>을 연출했다. 브뤼셀에서 만든 다른 영화로는 <비스트제스>와 <게임 오버>가 있다. 브뤼셀로 이주하기 전, 그녀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영화아카데미에서, 그리고 시청각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NHL에서 두 개의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 Mirjam DE WITH

Mirjam de With graduated in fiction from Film Academy Sint Lukas in Brussels with *De Ein fan 'e Wrâld'*(2007). Other films she directed in Brussels are *Beestjes* and *Game Over*. Before moving to Brussels, Mirjam received both her bachelor at the Netherlands Film Academy in Amsterdam and her bachelor's degree in Audiovisual Communication at the NHL.

컴퓨터 게임에 빠진 브뤼노에게 진짜 자연을 가르치고자 부모는 스웨덴으로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계획한다. 하지만 여행은 녹록지 않다. 배터리 문제로 내비게이션은 물론 어떠한 전자장치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안에서 아이들은 점점 지루해지고 부모들은 서로를 탓하기 바쁘다. 결국 모두가 조금씩 잘못된 선택을 한 탓에 이야기는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삐거덕거리며 굴러간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자란다고 했던가. 영화는 아이보다 부모의 변화와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이제 부모부터 스마트폰을 내려놓자. (김세진)

Bruno's parents, who wish to show their game-addicted son the true face of nature, plan a long-distance car trip through Sweden. However, it's not as easy as they imagined. The GPS doesn't work due to battery problems, and the children, without the comforts of an accessible electronic game, gradually get bored, while the parents are busy blaming each other. Eventually, bad choices made by each member of the family lead to problems. They say parents grow up with their children, and likewise, the film clearly delivers the message that the parents must change and grow up before they can do the same for their children. Now it's time for the parents to put down their smartphones. (KIM Se-jin)

## 둘세 Dulce

Colombia, USA | 2018 | 10min | Color | Documentary



콜롬비아 이스쿠안데 지역, 둘세의 부모는 수영을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다. 기후변화로 인해 둘세가 사는 지역은 점차 물에 가라앉고 있고, 맹그로브 나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세의 물에 대한 공포는 지구 온난화로 이미 가라앉고 있고, 둘세는 살기 위해 수영을 배워야 한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2019 탐페레영화제 국제경쟁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정진)

On Iscuandé region in Colombia, a mother teaches her daughter, Dulce, how to swim. It is an essential skill in this remote region, where livelihoods are made worse by climate change, have swept entire villages away in recent years even Mangroves. Overcoming her fear of the water is just one element of Dulce's survival. Strong message implied about the awareness of climate change received The Grand Prix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t 2019 Tampere Film Festival. (Jinna LEE)

09. 09 | 09:30 | AC 2  
09. 09 | 13:00 | UA  
09. 10 | 09:30 | AC 2  
09. 10 | 13:00 | UA



### 길레 이사, 안젤로 파치니

길레는 감독이자 프로덕션 디자이너이다. 파리의 정글들 프로덕션에서 7개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공동 연출했고, 이 작품들은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안젤로는 파리의 정글들에서 <둘세>를 연출했고 칸영화제에서 젊은감독상을 수상한 <Lina>(2016)의 촬영 감독이다.

### Guille ISA, Angello FACCINI

Guille is a director and production designer. The seven documentaries he has co-directed for Jungles in Paris screened at many film festivals. Angello directed Dulce for Jungles in Paris and was cinematographer of Lina, winner of a Young Directors Award at Cannes.

## 슈퍼 동자승 Supermonk

Nepal, Taiwan | 2018 | 18min | Color | Fiction



11세의 동자승 타쉬는 액션영화를 좋아한다. 몰래 마을로 영화를 보러 다니던 타쉬는 어느 날, 사찰에 군복을 입고 숨어있는 자기 또래의 소년을 만난다. 그리고 이 소년병을 찾는 정부군과 반란군이 차례로 짝에 들이닥친다. 네팔의 긴 내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과연 진정한 액션 히어로는 영화에서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이정진)

Tashi is an 11 year old monk who's crazy about action films. While sneaking out to watch a film in the village, he meets another boy his age wearing an army uniform. Soon the army and the rebels arrive at the temple looking for the boy soldier. This film's background is Nepalese Civil War prolonged over 10 years and real action hero lives only in a movie but in our lives also. (Jinna LEE)

09. 09 | 09:30 | AC 2  
09. 09 | 13:00 | UA  
09. 10 | 09:30 | AC 2  
09. 10 | 13:00 | UA



### 세낭 기암조 타망

세낭 기암조 타망은 학교에서 정식으로 불교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나, 불교에 조예가 깊으며, 10년 정도 부탄, 인도, 네팔 등지의 사원을 돌며 티베트어를 가르쳤다. 그의 데뷔작, <새의 해>는 2018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소개되었다.

### Shenang GYAMJO TAMANG

Shenang Gyamjo Tamang holds a non-academic degree in Buddhist philosophy and has taught at Tibetan language monasteries in Bhutan, India and Nepal for almost a decade. Year of the Bird, his directorial debut, was invited to the 3r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 지빌라 Zibilla

Switzerland, Belgium, France | 2019 | 27min | Color | Animation



얼룩말 지빌라는 다른 말들과 외양이 달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지빌라는 잃어버린 인형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고, 서커스단을 탈출한 사자를 만나면서 자신감을 찾아가간다.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편견과 따돌림을 당할 이유는 없고, 이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는 교훈적 애니메이션. (이정진)

Zibilla is different and children at school don't accept her. When she falls into an exciting adventure for finding her doll and meets a wild lion, she gains the self-confidence to roar back. She also finds two and together they are stronger. This film has a strong lesson who has no right to be discriminated by different shape and everybody knows about I can be one of them. (Jinna LEE)

09. 09 | 09:30 | AC 2  
09. 09 | 13:00 | UA  
09. 10 | 09:30 | AC 2  
09. 10 | 13:00 | UA



### 이자벨 파베즈

1974년 스위스 베른 출생. 1994년부터 99년까지 취리히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에서 공부하였다. 현재 독립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 Isabelle FAVEZ

Born in 1974 in Bern, Switzerland. From 1994 to 1999, she studied at the Film and Video Department of Zürcher Hochschule der Künste. Currently she works as an independent animation filmmaker.



## 가을의 마지막 날 The Last Day of Autumn

Switzerland, France | 2019 | 8min | Color | Animation



가을의 마지막 날, 동물들은 각자 체격에 맞게 버려진 자전거의 부품을 모아 경주를 시작한다. 계절의 변화를 동물들의 경주로 표현한 이 애니메이션은,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에 첫 공개 후, 수많은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정진)

Some forest animals collect abandoned bike parts with the intention of building vehicles that fit their size to prepare a great race on the last day of Autumn. This animation expressed that climate change gently insinuated animal's race and world premiered at Berlinale 2019 Generation section. (Jinna LEE)

09. 09 | 09:30 | AC 2  
09. 09 | 13:00 | UA | Live Dubbing  
09. 10 | 09:30 | AC 2  
09. 10 | 13:00 | UA | Live Dubbing



### 마르졸렌 페레텐

1990년 로잔 출생. 프랑스의 발랑스 뷔드리에르 학교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그녀는 나다시제작사에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영화를 만들고 있다. 2017년 사비니애니메이션영화제를 개최했다.

### Marjolaine PERRETen

Born in 1990 in Lausanne, she studied at the school La Poudrière in Valence, France. She is working at Nadasdy film's as an animation film director on her own film. In 2017, she founded the Animation Film Festival of Savigny.

## 양 Sheep

Germany | 2018 | 4min | Color | Animation



한 어린 양이 모험을 시작하고, 나머지 네 성인양은 이를 보고 어쩔 줄 모른다. 어린 양의 도전은 그들의 협동의 경험을 끌어내고, 더불어 다른 동물과도 친구가 된다. 동물을 소재로 시리즈를 만들어 온 줄리아 오커 감독의 신작으로, 동물의 특징을 잘 살린, 재미와 교훈을 담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작업해오고 있다. (이정진)

A lamb begins an adventure, and four other adult sheep look on, perturbed. The lamb's adventures bring out their cooperation, and they become friend other animals. It is the latest of a series of animal animations by director Julia Ocker, who has made various short animations about animals that are fun and educational. (Jinna LEE)

09. 08 | 15:00 | ET 2  
09. 09 | 11:00 | UA  
09. 10 | 11:00 | UA



### 줄리아 오커

1982년 독일의 포르츠하임 출생. 줄리아 오커는 애니메이션 감독, 디자이너, 그리고 작가로 필름아카데미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그녀의 영화는 어둡고 무서운 극영화 <Kellerkind>부터 재치있는 동물 영화시리즈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Julia OCKER

Born in 1982 in Pforzheim, Germany. She graduated from Filmakademie Baden-Württemberg, majoring in Animation. Her films cover a wide range of subjects, from her dark and frightening drama *Kellerkind* to ingeniously funny animal films.

## 물망초 Forget Me Not

Denmark | 2019 | 8min | Color | Animation



노르웨이 깊은 산속, 늙은 노인이 세상과 동떨어져 홀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그에겐 오래된 벗 트롤과 함께 차를 마시는 게 유일한 일상이다. 그러던 어느 날, 트롤이 사라지고, 자신의 일상이 깨진 노인은 트롤을 찾아 나서는데... 누구나 인생에서 친구나 가까운 사람과의 헤어짐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이다. (이정진)

Deep in the Norwegian forest, there is an old man, living an orderly and quiet life. Closed off from the rest of the world, he spends his days together with his lifelong friend, a troll. Together they share an everyday routine, drinking tea. One morning, the troll is gone. Trying to restore balance to his life, the old man leaves his home in search of the troll, only to find himself getting lost in his own mind, entangled in his fears. Everybody will have a moment that close friend or family will leave. When it comes, forget- me-not. (Jinna LEE)

09. 08 | 15:00 | ET 2  
09. 09 | 11:00 | UA  
09. 10 | 11:00 | UA



### 카타리나 룬드퀴스트

1993년 출생인 카타리나는 노르웨이의 감독이자 CG아티스트이다. 덴마크 비보르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대학에서 컴퓨터 그래픽 아트 학사 과정을 마쳤으며 2D와 3D 프로젝트 모두 아우르며 이야기, 콘셉트, 이미지 개발에 열정을 쏟고 있다.

### Katarina LUNDQUIST

Born in 1993, Katarina is a director and CG-artist from Norway who just finished a BA degree in computer graphic arts at The Animation Workshop in Viborg, Denmark. She has a deep passion for story, concept and visual development in both 2D and 3D projects.

## 스트롤리카 Strollica

Italy | 2017 | 11min | Color | Animation



10살 소녀 스트롤리카는 마을을 둘러싼 자연과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하는 마을에 풍력 발전기가 세워지고, 이로 인해 새도 울지 않고, 주변 경관도 예전처럼 아름답지가 않다. 전체 이야기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선율은, 애니메이션의 움직임과 장면 전환을 더욱더 부드럽게 연결하는 데 일조한다. 자연 개발과 공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 (이정진)

Strollica, a ten-years-old girl, find that a wind power plant will be built in her favorite park. She's worried, she notices birds don't sing anymore and landscape doesn't look very beautiful anymore. The whole animation fulfilled and connected with beautiful music composed by Chiara Effe and make people think over development and coexistence with nature. (Jinna LEE)

09. 08 | 15:00 | ET 2 | Korean Premiere

09. 09 | 11:00 | UA

09. 10 | 11:00 | UA



### 피터 마르차스

피터 마르차스는 로마에 거주하면서 영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 이탈리아의 여배우, 피에라 델리 에스포스티에 관한 다큐멘터리 <피에라에 관한 모든것>으로 2014년에 나스트로 디아르겐토 상을 수상하였다.

### Peter MARCIAS

Peter Marcias works and lives in Rome. His works show a strong interest in social and political issues. In 2014, he won the Nastro d'Argento award for *Tutte le storie di Piera* which is a documentary about Italian actress Piera Degli Esposti.

## 큰 늑대와 작은 늑대 Big Wolf & Little Wolf

France, Belgium | 2018 | 14min | Color | Animation



큰 늑대는 큰 나무 아래 홀로 지내며 삶에 만족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늑대가 다가와 그와 함께 지내고, 큰 늑대는 작은 늑대가 자신의 일상과 조용한 삶을 방해하는 것 같아 귀찮기만 하다. 그러나 계절이 지나고, 큰 늑대의 생각은 점차 변해간다. 나딘 브랑코스슴과 올리비에 탈레크의 동화책 『큰 늑대 작은 늑대』를 원작으로 만든 이 애니메이션은, 가족뿐 아니라 여러 관계 맺기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진)

Big wolf lives quite contentedly alone under his tree. One day he sees a little wolf approaching him who seems determined to keep him company. But big wolf has no need for his company. He likes the quiet life and his routine. At least, that's what he thought... Based on the kid's book *Grand loup et petit loup* by Nadine Brun-Cosme and Olivier Tallec and expres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with different people. (Jinna LEE)

09. 08 | 15:00 | ET 2

09. 09 | 11:00 | UA

09. 10 | 11:00 | UA



### 레미 뒤펽

레미 뒤펽은 본인이 설립한 앙끌름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광고, 영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로는 <너무 가까운>(2009), <당근의 향기>(2014), <왕과 유니콘>(2016)이 있다. 현재 그는 어린이를 위한 장편 영화 <유쿠와 히말라야의 꽃>을 준비 중이다.

### Rémi DURIN

Rémi Durin set up L'Enclume Animation where he made adverts, and films like *De si près*(2009), *The Scent of Carrots*(2014), *The Unicorn*(2016).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feature film for children, *Yuku and the Flower of the Himalayas*.

## 할아버지가 숨어있어요 My Grandpa is Hiding

France | 2018 | 7min | Color | Animation



집 앞 정원을 가꾸며 손자와 놀아주던 할아버지는 슬며시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 아직 어린 손자는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손자의 눈에 보이는 정원의 모습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이해한 내용은, 아름다운 유화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하여 그림처럼 펼쳐진다. (이정진)

A grandfather explains to his grandson that he'll have to take care of his flower garden after he dies. There follows a touching and poetic discussion about losing loved ones and on the marks they leave behind. Grandson's point of view's scenery and understood grandfather's story expressed fluid oil painting animation. (Jinna LEE)

09. 08 | 15:00 | ET 2

09. 09 | 11:00 | UA

09. 10 | 11:00 | UA



### 안느 윈

1994년 출생, 파리 생뜨즈네비에브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그녀의 작품으로는 자크 프레베르의 시 「국립미술학교」를 각색하여 만든 <학교에서 나오다>와 장 레노와 공동으로 연출한 <할아버지가 숨어있어요>가 있다.

### Anne HUYNH

Born in 1994, she majored in animation film at the Institut Sainte-Geneviève(Paris). Her works are *En sortant de l'école* where she adapted the poem *L'école des Beaux-Arts* by Jacques Prevert and *My Grandpa is Hiding* co-directed by Jean Regnaud.

## 출항 Cast Off

Canada | 2016 | 20min | Color | Fiction



09. 06 | 13:30 | AC 3 | Asian Premiere

작은 섬에 부모님, 동생과 살고 있는 시몽은 진학을 위해 육지로 나가야 한다. 어느 날, 여동생과 놀던 중 해변에 떠내려온 작은 나무 보트를 발견하고, 이를 수리하려 한다. 어쩔 수 없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여행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누군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 쓰고 도전하는 항해, 두 가지 모두 시몽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큰 계기이다. (이정진)

Simon is about to leave his island to start boarding school on the mainland. One day, while playing with his sister, he finds a little wooden boat beached on the shore. Through his attempt to repair it, he will decide, or not, to cast off. Inevitably he moved to mainland and someone's wish prolong with his help, both tasks are a big task and change in his whole life. (Jinna LEE)



### 상드린 브로듀 데로지에

영화제작 학사학위를 받았고, 연기전공으로 석사학위를, 그리고 장편 시나리오 작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음악가로도 활동하면서 본인 영화음악을 직접 작곡하기도 하였다. 단편영화를 16편 이상 연출하였으며 이 영화들은 유수의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현재 장편 데뷔작의 시나리오를 작업 중이다.

### Sandrine BRODEUR-DESROSIERS

She has a BFA in film production, MA in acting and certificate in feature writing. She is also a musician and scored some of her films. She directed over 16 short films, that were screened worldwide. She is now writing her first feature.

## 바다까지 5분 Five Minutes to Sea

Russia | 2018 | 8min | Color | Animation



09. 06 | 13:30 | AC 3

바다에서 신나게 놀던 소녀는 저체온증을 우려한 엄마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싶다면 5분 뒤 가능하다. 이 어린 소녀에게 5분은 지난한 시간이기도, 바닷가 휴양지에 온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상대적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린이의 상상력과 접목해서 영화적으로 현명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풀어내었다. (이정진)

The mother issues her decree: Before you get back in the water, you have to take a break and it quietly for five minutes. For the little girl, these five minutes are an ocean of boredom that stretches on forever and ever. She starts to watch the other bathers and how they spend their five minuets. This animation mixed with children's imagination and film language for express relevant time wisely with heartwarming perspective. (Jinna LEE)



### 나탈리아 미르조얀

상트페테르부르크 장식응용미술대학에서 이젤그래픽 학부를 다녔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튜디오에서 감독이자 애니메이터로 근무하고 있다. <나의 어린시절 신비로운 나무>와 <치니티>는 많은 영화제에서 소개되었고,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다.

### Natalia MIRZOYAN

She attended the faculty of easel graphics in Saint Petersburg Institute of Decorative-Applied Arts. Currently she works at Peterburg Studio as an animator and a director. *My Childhood Mystery Tree* and *Chinti* participated in many festivals and won various prizes.

## 하라리유 자매 The Jarariju Sisters

Switzerland, Colombia | 2018 | 21min | Color | Fiction



09. 06 | 13:30 | AC 3 | Asian Premiere

콜롬비아의 황량한 탄광촌, 이미 오염되어버린 지역은 미래가 없다. 풍요함과 가리가 먼 이곳에서 아버지를 잃은 소녀들이 갈 곳은 오직 낡은 전통의 속박이다. 겁쟁인 어둠을 뚫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떠난 자매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이슈인 난민 문제를 직접 드러내진 않지만, 마치 그것의 전사(前史)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김세진)

There is no future for a place already contaminated like this desolate coal-mining town in Columbia. Young girls who have lost their father here have no choice but to live within the confines of old traditions. What will the final destination be for the sisters who find the courage to break free from this darkness to change their futures? Although this film doesn't directly confront the global refugee issue, it can be read as a prequel to it. (KIM Se-jin)



### 호르헤 카데나

1985년 콜롬비아 바랑키야 출생. 제네바미술대학에서 <더 테일 오브 안토니아>(2016)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이 영화는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단편 타이거상을 수상하였다. 2018년 <하라리유 자매>로 같은 대학에서 영화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Jorge CADENA

Born in Barranquilla, Colombia, in 1985. He gained a BA degree in film at HEAD-Geneva with his film *Antonia's Tale*(2016), which won the Tiger Award at the Rotterdam Festival. He obtained a MA degree at ECAL/HEAD in 2018 with the film *The Jarariju Sisters*.

## 의자 The Size of Things

Colombia | 2019 | 12min | Color | Fiction



09. 06 | 13:30 | AC 3 | Asian Premiere

소년 디에고는 아버지와 산속에서 단둘이 살고 있다. 어느 날, 산속에서 의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오는데, 아버지는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 하고, 의자가 있던 자리엔 엄청나게 커져 버린 의자가 있다. 다음날 아버지와 함께 확인하러 간 그 자리에, 다시 엄청 작아진 의자를 발견하고, 집에 가져오지만, 또다시 의자가 커질 것을 직감한 디에고는 이를 강물에 던져버린다. 의자를 매개를 한, 환상여행. (이정진)

Diego lives with his father in a house without things. One day he finds a chair deep in the woods takes the chair home. But the father disagrees and orders him to return it. At night, the father allows Diego to bring the chair again. Diego returns to the forest but something really big. He can't bring the chair this time. The next day he goes with Diego to see it with his own eyes. Finally having the chair at home, and the boy realizes his house is at risk. Only then he will uncover the secret that hides in the size of things. (Jinna LEE)



### 카를로스 펠리페 몬토야

1981년 콜롬비아 메델린 출생. 콜롬비아국립대학교에서 시나리오 작법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첫 단편 <물의 길>은 2015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콜롬비아촬영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최우수단편영화상, 마콘도어워드를 수상하였다.

### Carlos Felipe MONTOYA

Born in Medellín, Colombia in 1981. He has a MA degree in script writing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of Colombia. His first short film *Water Path* was invited to Berlinale 2015 and won the Macondo Award from the Colombian Academy of Cinematography Arts and Sciences.

## 별들은 속삭인다 The Stars Whisper

Korea | 2019 | 18min | Color | Fiction



09. 06 | 13:30 | AC 3 | GV

청각장애를 가진 소녀와 별을 좋아하는 시골 소녀의 이야기로, 동화적인 색채가 가득한 뮤지컬 영화이다. 청각장애 소재와 뮤지컬의 형식이라는 모순적 장치가 잘 어우러지도록 가사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노력한 연출이 돋보인다. 특히 아이들의 연기가 좋고, 학교와 같은 일상적 공간을 훌륭하게 무대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시골의 풍경과 정서를 잘 담은 작품이다. (김세진)

This is a musical film filled with fairytale-like tones dealing with the story of a young hearing-impaired girl and a young boy who likes the stars. The film is quite exceptional in its delicate and detailed directorial treatment. Each line in the song lyrics harmoniously combine the contradicting aspects of the subject of deafness and the film's musical structure. Especially the children's performances are outstanding, while the film turns daily spaces such as the school into an impressive stage. In addition, beautiful rural landscapes and sensibilities are captured well. (KIM Se-jin)



### 여선화

1992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단편영화 <전쟁이야>, <사요나라>, <별들은속삭인다>, VR 단편영화 <끝까지 3분>을 연출했다.

### YEO Seon-hwa

Born in 1992, studied Film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has been directed shorts including *It's a War*, *SAYONARA*, *The Stars Whisper* and a VR short film *3 Minutes to Go*.

## 마마 Mama

Estonia | 2018 | 19min | Color | Fiction



09. 06 | 16:00 | AC 3 | Asian Premiere

젊은 두 사회 복지사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간 아나스를 엄마에게 인도하기 위해 페리에 태워 돌아오는 길이다. 그러나 소년은 돌아가기 싫은 듯, 도망치기 바쁘다. 페리가 지나가는 열음이 얼어있는 발탁해는, 얼어붙은 소년의 마음과 같고 또한 소년의 미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영화의 마지막에 흐르는 에스토니아 전통 자장가는 소년의 미래에 대한 진혼곡처럼 느껴진다. (이정진)

Two young social workers are taking a runaway child-Yanis back to his mother by ferry. But he is trying to escape even in the ferry. In the middle of the icy Baltic Sea, sea itself represent boy's mind and his future. The Estonian traditional lullaby in the last scene sang by woman social worker feels like the requiem for the boy. (Jinna LEE)



### 블라디미르 코트

블라디미르 코트는 러시아에서 잘 알려진 영화감독이다. 그는 러시아고등인스티튜트에서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감독을 위한 과정에서 연출을 전공하고, 블라디미르 호티넨코 클래스를 수료하였다. 그의 장, 단편 영화들은 여러 국제 영화제의 경쟁부문에서 소개되었다.

### Vladimir KOTT

Vladimir Kott is a well known Russian film director. He graduated from the directing department of Russia Higher Institute of Scriptwriters and Film directors(VKSR). His short and full length films were nominated at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 물 밖에서 Hors de L'eau

France | 2018 | 9min | Color | Animation



마카크 원숭이의 무리 내 위계질서를 소재로 한 이 애니메이션은,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낮은 서열의 원숭이가 내쳐질 수밖에 없는, 적자생존의 질서를 어미 원숭이의 시점에서 다루고 있다. 냉혹하고도 사실적인 이야기는, 강렬한 시점 쇼트와 실사 위에 채색한 그림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정진)

This animated short is a parable about exclusion, telling a story about a macaque mother who encounters hostility from a group of snow monkeys due to strict rules which govern their community. The POV shot is really striking and allows us to empathize harrowing story. Moreover, the drawing was done in real mountain image. (Jinna LEE)

09. 06 | 16:00 | AC 3



**안드레 시타리, 조엘 뒤랑, 시몽 뒁 반 위엔, 티볼트 르클레르크, 발랑탱 뤼카**

그들은 모두 감독이자 캐릭터 디자이너, 2D / 3D 애니메이터, 그리고 스토리 보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Andrei SITARI, Joël DURAND, Simon DUNG VAN HUYEN, Thibault LECLERCQ, Valentin LUCAS**

They are all directors, character designers, 2D / 3D animators, and storyboard artists.

## 수도승 The Monk

Macedonia | 2018 | 13min | B&W | Animation



마을과 떨어진 외딴 깊은 산중에 작은 수도원에서 젊은 수도승이 벽에 프레스코화를 그리며 열심히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어느 햇빛 나는 날, 호수 중간까지 작은 보트를 타고 가 낚시를 하던 수도승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시험에 들게 되는데... 고독한 수도승의 수행을 다룬 애니메이션은 인간의 욕망과 이성애에 대해 생각해볼게 만든다. (이정진)

In a small monastery, hidden in the rocky mountains along a lake far from civilization, a lonesome young monk paints frescos of saints on the walls. On a quiet sunny day, while fishing in his small rowboat in the middle of the lake, he suddenly hears female voices. This animation make the audience think over human's nature and logoss. Is he being tempted? Is his conscience being tested? (Jinna LEE)

09. 06 | 16:00 | AC 3 | Korean Premiere



**살코 이바노프**

1976년 출생. 스킵페대학에서 문화연구를, 시정각예술대학교에서 애니메이션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그의 애니메이션 <왕복여행> 3부작은 100여개 이상의 영화제에서 상영됐으며 15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다.

**Zharko IVANOV**

Born in 1976. Zharko majored in Cultur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Skopje and Animation Film Directing at the the University of Audiovisual Arts. His animated trilogy *Round Trip* has been shown at more than 100 film festivals, winning more than 15 awards.

## 타니 메나 Tany Mena

Madagascar, Mauritius | 2019 | 7min | Color | Animation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관한 다양한 주민들의 시선과 삶이 그들의 목소리로 증언된다. 안타나나리보의 다양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레이션 내용과 장소에 따라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며, 그들의 애정과 관심이 전달된다. (이정진)

An unusual and intriguing portrait about the capital of Madagascar, Antananarivo, told through the eyes of its inhabitants. The stories told and narrated by people living in Antananarivo expressed by stop motion animation with their love and intention about their place. (Jinna LEE)

09. 06 | 16:00 | AC 3 | Asian Premiere



**킴 입 통**

킴 입 통은 모리셔스 출신으로, 영국왕립예술대학교에서 정보경험디자인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여러 매체 - 무빙 이미지, 애니메이션, 비디오 전시, 그림 등을 만나들며 작품들을 소개, 제작해왔으며, 오늘날 환경파괴의 위기라는 맥락 속에서, 자연사와 식민경험 후 자아정체성 구축의 개념에 대해 작업을 준비중이다.

**Kim YIP TONG**

Kim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Working across media, Kim likes her art to be in motion, whether through moving image, animation, kinetic installations. Her projects bring people together, triggers their imagination and encourages them to learn and wonder.

## 프놈펜에서 온 편지 A Letter from Phnom Penh

Korea | 2019 | 17min | Color, B&W | Documentary



09. 06 | 16:00 | AC 3 | GV

작품은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의 생태적 농업을 연구하기 위해 프놈펜과 바탐방을 오가는 한국인 여성의 여행 기록지,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는 또 다른 여성의 내레이션이다. 감독은 전자의 다큐멘터리 이미지에 후자의 픽션 서사를 엮어 프랑스와 한국, 캄보디아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숙제인 환경적 메시지를 담아낸다. (김세진)

This film follows two major strands. One is a travelogue of a Korean woman as she journeys between Phnom Penh and Battambang to conduct research on Cambodia's ecological farming, and the other is another woman's narration of her letters written to her father in France. The filmmaker applies the fictional narrative of the latter to the former's documentary images to create a connection between France, Korea and Cambodia, and by doing this, conveys an environmental message. (KIM Se-jin)



### 서원태

독립영화, 실험영화 작가. 첫 장편 <싱킹블루>(2007)는 밴쿠버국제영화제 경쟁부문과 전주국제영화제에 소개되었다. 그의 영화들은 그 외 마르델플라타, 부산국제영화제 등에도 소개되었고, 전시 작가로도 활동하였다. 국립공주대학교 예술대학 영상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SEO Won-tae

Korea-Born filmmaker and visual artist. His first feature film, *Synching Blue*(2007) was introduced Vancouver IFF and Jeonju IFF. Some of recent films went film festivals; Mar del Plata IFF, Busan IFF and etc. Now he is a Prof. of VIS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 달, 실 Moon, Thread

Korea | 2018 | 14min | Color | Fiction



09. 06 | 16:00 | AC 3 | GV

엄마를 잃고 할아버지와 외딴곳에서 지내고 있는 소녀, 민희.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까지 세상을 뜨고 소녀는 엄마를 찾아 홀로 길을 나선다. 늘어뜨려진 실, 낡은 시계, 촛불, 동굴, 그림자,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와 같은 다소 관념적인 장치들로 외로운 소녀의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강과 들판 등 자연적 요소를 환상적인 달의 이미지와 연결하고 있는 작품이다. (김세진)

Min-hee is a young girl who lives with her grandfather in a remote location after she loses her mother. When her grandfather also dies soon after, she sets out alone to find her mother. The film expresses the little girl's emotions through conceptual symbols such as a hanging thread, an old clock, candlelight, a cave, shadows, and a story of a prince and princess, while linking natural elements such as the river and fields with the fantastic image of the moon. (KIM Se-jin)



### 정성, 이도

1965년 담양 출생인 정성은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 <시네마 오딧세이>를 준비하고 있다. 1972년 부산 출생인 이도 감독의 다큐멘터리 연출작, <발 만져주는 여자>(2003)는 제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 상영되었고 우수상을 수상했다.

### CHUNG Sum, LEE Doh

Born in Damyang in 1965, Chung is working on his new project, *Cinema Odyssey*. Born in Busan in 1972, Lee's documentary, *She Loves to Massage Feet*(2003), was invited to the 5th Seoul Woman Film Festival and received the Excellence Award for Best Picture.

**YABUL**  
PORTABLE FOOD WARMER

✓ **불 없이 조리하는  
캠핑용 라면!**



www.honestfood.com

# 옴프 클래식

## UMFF Classic

이 섹션은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거나, 새로운 세대에게 고전의 매력을 흠뻑 선사할 영화들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2018년에는 '산'을 배경으로 한, 본격 할리우드 영화를 소개했다면, 올해는 영화의 배경을 '산'에서 '자연'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제작국가도 영국, 프랑스, 중국으로 다양화했다.

<닥터 지바고>, <콰이강의 다리>를 기억하는 관객이라면, 영국의 거장 감독 데이비드 린의 <아라비아의 로렌스> 역시 친근할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중 아랍민족의 영웅이었으나, 제국주의 국가와 아랍의 사이에 놓인 장교 로렌스의 고뇌가 광활한 사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작을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소환한다.

또한 평생 장면 6편과 단편 4편만을 연출하였으나, 코미디 영화부터 예술영화 감독까지 그의 영향력을 언급해 마지않는, 프랑스의 영화감독 자크 타티의 초기 장면 2편 <축제일>, <월로씨의 휴가> 역시 준비했다. 슬랩스틱 연기와 코미디적 상황은 모든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좀 더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의 영화 세계가 담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 대한 당혹감과 그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판을 따라가면서 영화적 모더니즘적 형식미와 두터운 해석의 층위를 가진 '타티빌'의 창시자 자크 타티의 세계로 입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중견 영화감독으로 성장한 루 추안 감독의 역작 <커커시리>는 티벳을 배경으로 한 본격 산악 드라마이다. 극영화 형식을 따르나,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차용해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생존에 대한 문제가 서로 대칭을 이루며 가치판단과 윤리적 잣대에 대한 판단을 관객에게 넘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이 살아있는 영화가 마지막으로 옴프 클래식을 채울 예정이다.

This is a section that will stimulate nostalgia for the older generation and present the younger generation with the magic of classics. Whereas in 2018 we presented Hollywood classics set on the 'Mountain', this year we will present films from additional countries like the UK, France, and China, with an expanded setting of 'Nature'.

Those who remember *Doctor Zhivago* and *The Bridge on the River Kwai* will also be familiar with British master director David Lean's *Lawrence of Arabia*. UMFF will screen this masterpiece set in the vast desert during WWI about army officer Lawrence and his troubles when stuck between Arabia and the imperial nation.

Also to be screened are *The Big Day* and *Mr. Hulot's Holiday*, two early works by French director Jacques Tati who only directed six features and four shorts in his lifetime but proved to be very influential in genres ranging from comedy to art film. Slapstick and comic situations will bring laughter to everyone in the audience. Those who are more serious about films will enter the world of 'Tativille' creator Jacques Tati, whose modern film conventions and layered interpretation will be evident in his films that deal with his bewilderment and careful criticism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Lastly, there is the Chinese director Lu Chuan's true mountain film masterpiece, *Kekexili: Mountain Patrol*, which is set in Tibet. It follows the form of a fiction film but uses documentary techniques to allow the audience to make their own judgments on the value of ethical issues of living with conviction, and of survival. This moving film is based on a true story and will be the last UMFF Classic to be screened.

## 아라비아의 로렌스 Lawrence of Arabia

UK | 1962 | 219min | Color | Fiction



09. 08 | 17:30 | AC 1



### 데이비드 린

영화 감독이자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편집자. 영국의 중요한 영화 감독으로 1945년 그는 노엘 코워드와 공동 감독으로 만든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으로 데뷔하였다. 이 작품은 문학의 영화화에 있어 그의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다. 그는 장대한 스케일의 서사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표작으로는 <콰이 강의 다리>(1957), <아라비아의 로렌스>(1962), <닥터 지바고>(1965), <인도로 가는 길>(1984) 등이 있다.

### David LEAN

David Lean was filmmaker, producer, screenwriter, and editor. In 1945 he made his debut as *In which We Serve* which was the collaborations with Noël Coward. It shows his excellent talent for filming of literature. He made large-scale epics such as *The Bridge on the River Kwai*(1957), *Lawrence of Arabia* (1962), *Doctor Zhivago*(1965) and *A Passage to India* (1984).

<콰이강의 다리>, <닥터 지바고> 등으로 유명한 감독 데이비드 린의 1962년 연출작. 영국 정보국 소속 장교 T.E 로렌스의 자서전 <지혜의 일곱 기둥>을 토대로 극화된 영화다. 1차 대전 중 아랍지역으로 파견된 로렌스는 분열된 아랍의 통합과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운다. 그 헌신을 추앙받아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칭호도 받게 되지만 영화는 당시 치열한 이해관계로 얽힌 제국주의 서양과 격동의 아랍 사이에 낀 로렌스의 고뇌도 함께 그린다. 자연의 묘사가 탁월했던 책처럼 세련된 연출은 와디렘 사막을 또 다른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다. (유순희)

Based on the former British Army Royal Air Force Colonel T.E. Lawrence's autobiography *Seven Pillars of Wisdom*, this film was made in 1962 by David Lean, famed filmmaker of *The Bridge on the River Kwai* and *Doctor Zhivago*. Dispatched to an Arab region during the 1st World War, Lawrence fought for the integ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Arabic world. His dedication earned him the title, 'Lawrence of Arabia'; but the film also depicts Lawrence's dilemma as he was caught between the fierce interests of the Western imperialist world and the turbulent Arabic world. Like the book's superb presentation of nature, Lean's sophisticated direction turned Jordan's Wadrumir Desert into another main character in the film. (YOO Sun-hee)

## 윌로씨의 휴가 Mr. Hulot's Holiday

France | 1953 | 87min | B&W | Fiction



09. 08 | 13:00 | ET 1



### 자크 타티

프랑스의 마임배우이자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 그는 생애 동안 6편의 장편영화와 4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었는데, 근대 도시의 전형 타티빌을 세트장으로 세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첫 장편은 <축제일>(1949)이며 대표작으로는 <윌로씨의 휴가>(1953), <나의 삼촌>(1958), <플레이타임>(1967) 등이 있으며, 그가 각본을 쓴 <일루셔니스트>는 실버 쇼메 감독에 의해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하였다.

### Jacques TATI

Jacques Tati was a French mime, filmmaker and screenwriter. He directed six feature films for his whole life, four of that appeared as Hulot. His first major feature was *The Big Day*(1949), and his works include *Mr. Hulot's Holiday*(1953), *Mon Oncle*(1958), *Play Time*(1967). One of his script was made animation *The Illusionist*(2010) by Sylvain Chomet.

자크 타티 영화에 꾸준히 등장하는 대표 캐릭터이자 영화적 분신인 '윌로 씨'는 이 영화에서 탄생했다. 감독인 그가 직접 연기한 '윌로 씨'는 중절모에 파이프를 문, 정장 차림의 전철한 신사 같지만 큰 키에 엉거주춤한 자세, 엉뚱한 행동이 불러오는 결과들로 사고뭉치가 된다. 프랑스 어느 시골,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곳에 '윌로 씨'도 휴양객으로 등장하면서 휴가지는 순식간에 슬랩스틱 코미디의 장이 된다. 영화 속 테니스 경기나 불꽃놀이 장면 등은 대사 한마디 없고 요란하지도 않지만 재치 넘치는 타티 코미디의 명장면들이다. (유순희)

Filmmaker Jacques Tati's recurring character and on-screen persona, 'Mr. Hulot', was born through this film. The filmmaker who also starred as Mr. Hulot seems like a gentleman in his fedora, pipe and suit, but his tall height and stooped posture, as well as the outcomes of his unpredictable behavior earn him the reputation of 'troublemaker'. People flock to the French countryside when the holiday season comes - there 'Mr. Hulot' also pops up as a holidaymaker, transforming the holiday site into a stage of slapstick comedy. The tennis match or firework scenes in the film have no lines and are not overdone yet stand as some of the most memorable scenes in Tati's world of comedy. (YOO Sun-hee)



## 축제일 The Big Day

France | 1949 | 79min | B&W | Fiction



09. 07 | 16:00 | ET 1



### 자크 타티

프랑스의 마임배우이자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그는 생애 동안 6편의 장편영화와 4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었는데, 근대 도시의 전형 타티빌을 세트장으로 세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첫 장편은 <축제일>(1949)이며 대표작으로는 <월로씨의 휴가>(1953), <나의 삼촌>(1958), <플레이타임>(1967) 등이 있으며, 그가 각본을 쓴 <일루셔니스트>는 실빙 쇼메 감독에 의해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하였다.

### Jacques TATI

Jacques Tati was a French mime, filmmaker and screenwriter. He directed six feature films for his whole life, four of that appeared as Hulot. His first major feature was *The Big Day*(1949), and his works include *Mr. Hulot's Holiday*(1953), *Mon Oncle*(1958), *Play Time*(1967). One of his script was made animation *The Illusionist*(2010) by Sylvain Chomet.

프랑스의 '찰리 채플린'이라 불리는 자크 타티 감독은 자신만의 코미디를 구사하는 거장 감독일 뿐 아니라 배우이다. 이 영화는 감독의 데뷔작으로 감독 자신이 주인공을 맡았다. 축제를 준비하는 프랑스 시골 마을, 우연한 기회에 미국의 우편배달 시스템에 반한 프랑스 시골의 우편배달부는 현대적인 미국식 배달을 꿈꾸지만, 그에게 고작 자전거 한 대뿐이다. 한계가 뚜렷해서 실수와 사고투성이지만 그의 고군분투하는 과정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효율성, 합리성과 프랑스 전통의 충목이자 나아가 '현대 문명의 가치'에 대한 질문과 풍자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유순희)

Jacques Tati, the 'Charlie Chaplin' of France, is a great filmmaker with his own style of comedy and an actor. This debut film in which he stars is set in a rural French village gearing up for a festival. A country postman obsessed with the American postal system, dreams of delivering the mail modern American style. Unfortunately, he only has a single bike for transportation. Such physical constraints lead to a series of mishaps and accidents. The course of his endeavors displays the clash between efficiency and rationality represented through the 'American way' and tradition represented through the 'French way', not to mention an attempt to question and satirize the 'values of modern civilization'. (YOO Sun-hee)

## 커커시리 Kekexili: Mountain Patrol

China, Hong Kong | 2004 | 89min | Color | Fiction



09. 07 | 09:30 | AC 2



### 루 추안

루 추안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젊은 감독으로 손꼽히고 있다. 1998년 베이징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텔레비전 드라마 '블랙홀'의 공동 작가로 경력을 시작했고 이 작품은 이후 중국인이 가장 많이 본 드라마가 되었다. 루 추안의 두 번째 작품 <커커시리>는 전 세계 비평가의 찬사를 받았다.

### LU Chuan

Lu Chuan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talented young directors in China. After receiving a MA degree in film studies from Beijing Film Academy in 1998, Lu Chuan started his career as a co-writer for *Black Hole*, which became one of the most-watched TV series in China. Lu Chuan's second feature, *Kekexili* won praise from critics around the world.

중국 최후의 원시 고원인 '커커시리'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티베트 영양을 사냥하는 밀렵꾼과 산악경비대원들 간의 충돌을 그린다. 그러나 영화는 이들을 선불리 선과 악으로 설정하거나 어느 한 쪽에만 무게를 실어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극영화의 전개를 따르지만,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차용해 시종일관 객관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카메라는 황폐한 고원을 배경으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삶과 죽음이라는 생존의 문제에 관한 화두를 던진다. 가치판단과 윤리적 사유의 선택은 결국 관객의 몫인 셈이다. (안정아)

Based on a true story of China's last primitive highlands, *Kekexili*, this film deals with the clash between poachers hunting Tibetan antelopes and mountain rangers. However, the film never attempts to define any side as good or evil or defend or critique. It follows the storytelling developments of film, but borrows documentary techniques, constantly maintaining an objective gaze on the desolate highlands to raise the subject of nature and humans, and life and death-related issues of survival that surround them. Ultimately, it's up to the audience to make any value judgment or choose the ethical grounds they wish to stand on. (AHN Jung-ah)

# 랜드스케이프

## Landscape

새롭게 신설된 섹션인 '랜드스케이프'에서 단어의 의미 그대로 '풍경', '전원'을 담아내 보고자 한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관찰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좁게는 민족지 관점에서 읽힐 수도 있는 영화들이고, 넓게는 자연 속 인간이 살아온 자취나 사는 모습을 문화의 관점에도 볼 수 있는 작품들일 것이다. 우리의 잣대로 타인의 삶을 규정짓는다면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기에,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영화들을 이 섹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비러브드>는 이란 알부르즈 산맥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며 살아가는 80세 목동 할머니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녀는 영화의 제목처럼 충분히 사랑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수탉지의 침입에 애써 키운 농작물이 상할까 봐 노심초사 밤을 지새우며 지키는 한 농부의 이야기 <이오나쉬의 꿈>, 40여 년간 독일에 이주했다가 터키 고향 산골로 돌아와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집을 수리하는 이야기 <타임 투 리브>까지, 자연 속 노년의 삶 속에 그들의 이야기와 꿈, 역사가 녹아들어 있다. 러시아 사하 공화국, 겨울이면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매서운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24년간 말을 기르는 세르게이의 이야기 <24 스노우>, 오스트리아의 울창한 숲과 다양한 자연 속 목재가 브라질의 원시림의 자연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영화적 형식미 안에서 송고하게 담아낸 <월든>, 가나 보조 해변 어부의 작업 과정을 카메라의 시선 없이 일상의 모습으로 담아낸 <보조 해변>, 미국 시골 마을 텍사스 말파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담아낸 <텍사스 말파>까지 관찰하고 나면, 다양한 전 세계인의 모습과 삶의 양식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Landscape' is our new section dealing with exactly what the name entails - 'landscape' and 'scenery'. Take an earnest look at the people living amid nature. These films can be seen from an ethnographic perspective, or on a larger scale, a cultural perspective on films about the living conditions or footprints left by men in nature. To judge the life of others is a type of violence, so the films screened in this section will simply accept and introduce lives different from ours.

*Beloved* is a film about an 80-year-old shepherdess who moves around the Iran Elburz Mountains depending on the changing season. As hinted by the title, she is truly, beloved. *Ionas Dreams of Rain* is the story of a farmer standing guard all night long to protect his precious crops from wild boars. *Time to Leave* is a story about returning and fixing up a home in the mountains of Turkey after 40 years of life in Germany. Their stories, dreams, and history are melted and weaved into nature.

Take the opportunity to observe the various lives of people from around the globe through the following films: *24 Snow*, the story of Sergei, who has raised horses for 24 years in the harsh winters (that reach -70 degrees) of the Sakha Republic in Russia; *Walden*, a beautiful film depicting how timber from the dense Austrian forest travels to the virgin forests of Brazil; *Bojo Beach*, a sans-camera look into the daily life of a fisherman in Ghana's Bojo Beach; and Texas, *Marfa*, an animation about the countryside of Marfa, Texas.

## 24 스노우 24 Snow

Russia | 2017 | 90min | Color | Documentary



09. 07 | 10:30 | ET 1



### 미하일 바리닌

모스크바 출생. 미하일 바리닌은 2013년에 S.V 미로슈니첸코 워크샵의 논픽션 영화과를 졸업했다. 졸업작품은 가장 오래된 알타이 부족 중의 한 부족을 다룬 <메이만>인데, 이 작품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촬영 감독으로 결정했다. 그의 모든 작품은 러시아에서 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이다.

### Mikhail BARYNIN

Born in Moscow, Mikhail Barynin graduated from the Non-fiction Film Department (S.V. Miroshnichenko's workshop) in 2013. Mikhail's graduation project was *The Maimans* which is about one of the oldest Altaian tribes. By working on this film Mikhail chose his future path in cinematography. All of his works are dedicated to people who live in the remote corners of Russia.

겨울이면 타이가 지대로 들어가 말을 기르는 일을 하는 세르게이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가축을 두고는 있지만, 거의 유목민처럼 생활한다. 영하 70도를 밑도는 상상할 수 없는 추운 기후에서 생존을 위해 소박한 삶을 일구어내는 그의 모습은 마치 <북극의 나누크>의 주인공을 보듯 경외감을 만들어낸다. 1인 내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절한 음악이 좋다. 특히 작품의 후반부는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특정 부분이 무시된 자연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에게 다소 충격적이거나, 온전히 자연의 순리를 따른 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세진)

Every winter, Sergei moves to the taiga area to breed horses. Although he has a family who lives in a village far from where he stays, his life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a nomad. One cannot help but watch with wonder the humble life he must survive in amid the unimaginable below 70 degree Celsius temperature, which resembles the protagonist of the film *Nanook of the North*. The film tells its story in first-person narration, while the soundtrack adds to the atmosphere. The latter part of the film might be slightly shocking for an audience accustomed to the factory-style livestock industry, but it sends a strong message about those who follow the laws of nature. (KIM Se-jin)

## 월든 Walden

Switzerland | 2018 | 107min | Color | Documentary



09. 06 | 14:30 | AC 2 | Korean Premiere



### 다니엘 짐머만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극작가이며 영화감독이다. 그의 작품은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 사이에 위치한 허구적 액션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의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영화이고 이 영화들은 베를린국제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선댄스영화제 등에서 상영되고 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2005년 나다프로덕션 예술인협회를 설립하였다.

### Daniel ZIMMERMANN

Zimmermann is a visual artist, dramaturge and film director. His works are based on a fictional actionism located between visual and performance art. His projects also comprise films that have been shown at renowne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ch as Berlinal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and Sundance Film Festival. He founded in 2005 the artist association nadaproductions.

스위스의 다큐멘터리 감독 다니엘 짐머만의 인상적인 데뷔 다큐멘터리다. 특히 콘셉트와 형식이 돋보이는데, 영화 전체는 단 13개의 롱샷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샷트는 모두 360도 패닝샷이다. 오스트리아 숲속의 나무가 목재가 되어 브라질의 아마존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엄격하고 정제된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는 글로벌한 세계의 경제적인 부조리함을 역설적이면서도 은유적으로 성찰한다. <월든>이라는 제목은 자연과 자급 자족적인 삶을 담아낸,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대표적인 동명 수필집에서 따온 것이다. (조지훈)

This is an impressive debut documentary from Swiss filmmaker Daniel Zimmermann, especially in its idea and structure. The film consists of a total of 13 long shots which all are 360-degree panning shots. As it meticulously captures how trees from Austrian forests are turned into lumber and travel to the Brazilian Amazon, it reflects upon the absurdities and paradoxes of the global economy. The title *Walden* comes from the famous essay of the same title by Henry David, the American writer and philosopher who focused on simple living and self-sufficient life in natural surroundings. (JO Ji-hoon)

## 보조 해변 Bojo Beach

Austria | 2017 | 25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5:00 | AC 1 | Asian Premiere



### 엘케 그로엔

1969년 오스트리아 바트이슬 출생.  
건축과 사진을 공부했다.

### Elke GROEN

Born 1969 in Bad Ischl, Austria. Studied architecture and photography.

가나의 보조 해변, 고정된 카메라는 일군의 어부들 모습을 관찰한다. 힘들게 파도를 거스르고, 힘을 합쳐 줄을 끌어당겨 거두어들이는 노동의 결과는 어떠할까? 이 작품에서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는 공고할 정도로 멀게 유지되고 있다. 강도가 높고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 노동에도 어떠한 클로즈업도, 내레이션도 허용하지 않는다. 군더더기 없는 관찰은 강한 인상을 남긴다.

(김세진)

At Ghana's Bojo Beach, a static camera observes a group of fishermen. What is the result of their labor as they struggle against the waves and tow the lines together? This film maintains a strict distance between the camera and the subjects it focuses on. No close-up shots or voice-overs are applied to the labor that is quite demanding, even dangerous at times, leaving a strong impression with its seamless observation.

(KIM Se-jin)

## 비러브드 Beloved

Iran | 2018 | 61min | Color | Documentary



09. 09 | 15:00 | AC 1 | GV



### 야세르 탈레비

야세르 탈레비는 1982년 이란 북쪽의 사리 출생이다. 영화감독,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도 유명하다. 고향의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그는 다른 지역의 사람, 환경, 역사, 그리고 문화를 탐구하고 있다. 이란 다큐멘터리 감독협회의 회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Yaser TALEBI

Yaser Talebi was born in Sari, North of Iran in 1982. A film director, producer, screenwriter and Editor. He is famous as a creative director. He travels around his home town meeting its people and exploring the environment, history and culture of the different regions. Also an active member of Iranian Documentary Filmmakers Association (IRDFA).

눈이 온 대지를 덮듯 근심과 걱정이 겨울과 함께 무겁게 내려오고, 꽃이 만발하자 봄바람처럼 사라진다. 80세 목동 할머니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은 신과 자연에 순응하는 그녀의 삶을 대변하듯 거친 알부르즈 산맥을 닮았고, 또한 그녀의 굴곡진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카메라는 계절이 바뀌어 산에서 내려와 마을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찾아오자 다시 산으로 향하는 할머니의 삶을 담는다. 무엇보다 박복한 그녀의 삶에 대한 넋두리와 무정한 자식에 대한 푸념을 뒤쫓는다. 그래서 할머니의 깊은 주름으로 끝나는 마지막 장면은 어렵게 토해낸 그녀의 고해성사와도 같다. (산까지)

Anxiety and worry fall heavily during the winter like snow blanketing the land, but disappear like the spring wind when flowers start to bloom. The deeply set wrinkles on an 80-year old lady shepherd's face resemble the Alborz range as if it represents her life of surrendering to God and nature, as well as the rocky course she has taken. The camera captures the old lady's life as she abandons the mountains during the season change to spend the winter in her village, and then go back up the mountains when spring comes. But most importantly, the film follows her as she grumbles about her unfortunate life and her heartless children. And this is why the last scene of the film feels like a confession. (H.Jay LEE)

## 이오나쉬의 꿈 Ionas Dreams of Rain

Romania | 2017 | 28min | Color | Documentary



노인 이오나쉬는 멧돼지로부터 옥수수밭을 지키기 위해 밭 옆의 창고에서 밤을 지새운다. 펜스를 체크하고, 주기적인 대포 소리에 더해 어둠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노인. 작품은 꿈꼬하고 강인하게 이루어지는 노인의 삶의 행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대비시킨다. 멧돼지와 싸움에는 이길 수 있으나, 죽음은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묵직한 진실. (김세진)

Ionas is an old Romanian countryman who spends his summer nights guarding his cornfield against the starving boars that come to eat his crops. He double-checks the fences and occasionally shouts in the darkness. The film meticulously shows the life of the strong-willed old man, who doesn't have that much time left. He might be able to win the fight with the boar, but the film reveals the solemn truth that death cannot be defied. (KIM Se-jin)

09. 09 | 19:30 | AC 2 | Asian Premiere



### 드라고스 하차네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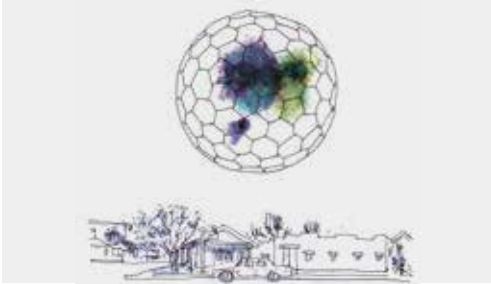
1993년 루마니아 출생. 부쿠레슈티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그는 2014년, <부유하는 다리>와 비종필영화제에 상영된 <이오나쉬의 꿈>을 연출했다. 현재 첫 장편 다큐멘터리를 편집 중이다.

### Dragoș HANCIU

Born in 1993 in Romania. He studied Film Directing in Bucharest. He directed *The Floating Bridge* (2014), and *Ionas Dreams of Rain* which premiered at Visions du Réel. Currently, he is editing his first feature documentary.

## 텍사스, 말파 Marfa

UK | 2018 | 9min | Color | Animation



텍사스주 경계선에 있는 소도시 말파는 시간이 비껴간 곳이다. 밤에는 불빛이 춤추는 사막의 하늘을 품고 있고, 미니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메카이기도 하다.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맥레오드 형제는, 영화제 방문차 가게 된 말파의 매력- 사람들의 이야기와 공간, 음식 등-에 대해 잉크와 수채화 방식의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말파 자체가 주인공인 셈이다. (이정진)

A town on the borderlands of Texas. A place out of time. A desert where strange lights dance in the night sky. A mecca for lovers of minimalist art. The Brothers McLeod visited Marfa as a film festival guest and had an anecdotal experience of being in a new and unexpected place with the tiny, crazy moments. And they settled on an ink and watercolour style. The place, Marfa is the character itself. (Jinna LEE)

09. 09 | 19:30 | AC 2



### 그렉 맥레오드, 마일스 맥레오드

그들은 애니메이터, 그리고 감독이다. <Marfa>는 온전히 혼자 만든 작품으로 BAFTA 영화상의 영국단편애니메이션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 마일스는 성우이자 작가이다. 지금까지 80편이 넘는 방송 대본을 썼으며 현재 액션 드라마를 준비 중이다.

### Greg MCLEOD, Myles MCLEOD

McLeod is an animator and director. *Marfa*, entirely drawn and animated by him alone, was nominated for a BAFTA Film Award. Myles is a voice artist and writer. He has written over 80 broadcast scripts so far. Currently he is preparing a live action drama.

## 타임 투 리브 Time to Leave

Turkey | 2018 | 52min | Color | Documentary



혹해 연안 산악지대에 자생하는 백합목 콜키쿰이 피면 주민들은 혹독한 겨울을 피해 산을 떠난다. 80세 하산 아탈라이는 위독한 아들 아흐멧을 위해 산자락 오두막에 아들의 방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드디어 방이 완성되고 아흐멧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하산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뜻밖의 소식이 날아오고, 콜키쿰이 피기 시작한다. (산카치)

When lilies colchicums growing wild along the mountainous areas of the Black Sea coast bloom, villagers leave the mountains to avoid the harsh winter. 80-year old Hasan Atalay invests all his time and energy to make a room in the cabin on the mountain edge for his critically ill son Ahmet. Finally the room is finished and the news that Ahmet will soon arrive has the inexpressive Hasan to toss and turn in his sleep. However, he receives unexpected news, and colchicums start to bloom. (H.Jay LEE)

09. 09 | 19:30 | AC 2 | GV | Korean Premiere



### 오르한 테케오글루

2013년 완성한 그의 첫 장편 영화 <아이 러브드 유 소 머치>는 캐나다영화제와 포르토벨로영화제에서 최우수외국영화상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으로는 <Extraordnatry People>, <Rudolf Nureyev: Island of His Dreams>이 있다. 현재 이스탄불 에센유르트대학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다.

### Orhan TEKEOGLU

He finished his first feature film *I Loved You So Much* (2013) which won the best foreign film award from Canada Film Festival and Portobello Film Festival. His feature films are *Extraordnatry People*, *Rudolf Nureyev: Island of His Dreams*.

# 움프 프로젝트

## UMFF Project

2015년부터 산악 문화를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소개해 온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올해에도 전문가 제작지원 프로그램 ‘울주서밋’과 일반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프로그램 ‘울주멘터리’를 진행, 그 결과물을 발표한다.

‘2019 울주서밋’ 작품들은 전년도에 제작지원 받은 단편 극영화 3편과 단편 애니메이션 1편이 월드 프리미어로 소개될 예정이다. 또한, 2018년부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주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 교육 및 지원하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인 ‘울주멘터리’는 ‘울주’와 ‘다큐멘터리’의 합성어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장이다. 올해도 4팀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정, 15분 내외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멘토의 지도 아래 완성하였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움프 프로젝트의 제작지원 프로그램들은 시련과 극복, 동경과 모험, 도전과 실패, 갈등과 공존 등의 다양한 자연 속 삶을 다룬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그 영역의 폭을 넓혀줄 프로그램이 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2020 울주서밋 제작지원 작품들 역시 내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풍성하게 채워 줄 어트랙션 중의 하나로 기대된다.

Since 2015,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has presented images of man and nature centered on mountain culture. Again this year, the professional production support program ‘Ulju Summit’ and the public documentary production support program ‘UljuMentary’ will announce their outcomes.

The ‘2019 Ulju Summit’ will present as world premieres the three fiction shorts and one animation short that received production support last year. The media education program ‘UljuMentary’ began in 2018 and is hosted with the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to provide production education and support to the public. It is a compound word formed with ‘Ulju’ and ‘Documentary’, and provides an arena for those of us living in Ulju-Gun of Ulsan Metropolitan city to personally express our lives. This year, four teams were selected amid fierce competition. Under mentor guidance, they completed 15-minute short documentaries that will be screened for the first time at UMFF.

The production support programs of UMFF Project will present an array of films that deal with various lives in nature, with trials and conquest, yearning and adventure, challenge and failure, and conflict and coexistence. It will be a program that will put UMFF on the map and broaden its scope. The 2020 Ulju Summit projects selected this year will also be an attraction that will enrich next year’s UMFF.

## 계양산 Uncomfortable

Korea | 2019 | 26min | Color | Fiction



09. 07 | 19:30 | AC 2 | GV | World Premiere



### 주영

인천을 기반으로 여성과 영화 관련 활동을 해왔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무처장, 프로그래머를 거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더불어 2018년에는 영화제 트레일러를 만들고, 2017년 한겨레영화연출학교를 수료했다. 첫 작품 <늦은 오후> 이후 <계양산>이 두 번째 연출작이다.

### Joo-young

Based in Incheon city, she has worked for the Incheon Women's Film Festival for a long time as a general manager and programmer. From 2011 to 2016, she was a festival director for the IWFF. She made a trailer for IWFF in 2018 and finished the filmmaking course at the Hankyoreh Education Center in 2017. She directed her first short film *Late Afternoon* and *Uncomfortable* is her second film.

## 2019 울주서밋 Ulju Summit 2019

이 프로젝트는 UMFF Project

최근 남편 기용과 이혼한 현남, 주변인들의 배려와 관심이 달갑지만은 않다. 마치못해 직장 내 신년 계양산 산행에 따라나서게 된 현남은, 정상으로 가는 길, 전남편과 연결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산행을 마치고 이어진 술자리, 더 나은 보직을 미끼로 강도를 더해가는 위원장의 성희롱에 참다못한 현남은 자리를 파하고 나오게 되는데. 한국 사회에 살면서 여성으로, 이혼녀로, 직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녹록하지 않다. 이 영화에서 신년 산행은 그녀가 처한 환경과 위치, 직장 내 성희롱까지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설정된다. 한국 사회에서 현남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그 날은 요원해 보인다. (이정진)

Hyun-nam has recently divorced her husband Gi-yong, and the consideration and care others show her seem more of a burden than anything else. She reluctantly tags along on a new year hiking trip with her coworkers to Gyeyangsan. Along the way, she meets many of her ex husband's acquaintances. After the hike, the group decides to grab some drinks, and her boss begins to sexually harass her while promising her a better paying position at work. Fed up, Hyun-nam leaves, feeling the hardships of surviving Korean society as a divorced career woman. The new year hiking trip becomes a metaphor representing the circumstances, position, and even the sexual harassment she must endure. The day Hyun-nam can feel at peace within the Korean society still seems far off. (Jinna LEE)

## 미명 Before Dawn

Korea | 2019 | 25min | Color | Fiction



09. 07 | 19:30 | AC 2 | GV | World Premiere



### 김대철

1985년 출생. 현재 인권태권화영상예술대학 영화과 연출석사과정 재학중이다. 2015년 단편영화 <낯선 가족>이 제18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소개됐고, 중국 호북성 조양시에서 개최한 제11회 아시아국제청년영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장편 극영화 준비중에 있다.

### KIM Dae-cheol

Born in 1985. Kim is taking an MFA course at the IM KWON TAEK College of Film & Media Arts. In 2015, his short film *Unfamiliar Family* was introduced at the 18th Seoul International Youth Film Festival. He was awarded 'Excellent Film' in the 11th Asia International Youth Film Festival (held in the Hubei Province, China). He is currently preparing a feature film.

화면 해설사 과정을 수강 중인 지은, 그러나 교육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웹툰 작가로서의 일도 쉽게 진척되지 않는다. 함께 수강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화면해설을 진행하게 되고, 여기서 만난 시각장애인 혜진은 지은 보다 능숙하게 화면해설을 진행하는데... 액자식 구성으로 표현한 지은의 세계와 화면 해설의 세계는, 혜진의 해설을 통해 절묘하게 융합한다. 그리고 울주 간월재 드넓은 갈대밭을 배경으로 그리움과 애잔함이 느껴지는 해설 속 화면은,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하면서 지은의 이입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화면 해설사라는 흥미로운 분야를 소재로 한 영화는, 관객에게 눈을 감고 귀로 느낄 수 있는 세상도 있음을 조용히 피력한다. (이정진)

Ji-eun is taking classes to become an audio describer, but is not really interested in what she is learning. Her side work as a webtoon artist has also hit a wall. She is asked to work on an audio description project, and meets Hye-jin, who is visually impaired but much more skillful in audio description... Ji-eun's world and the world of audio description is expressed as a frame narrative, and Hye-jin's audio description brings them perfectly together. The backdrop of the wide-open field of reeds in Ulju Ganwoljae brings to screen the feelings of plaintive longings. When it turns from black and white to color, it becomes an effective introduction for Ji-eun. By using the interesting field of audio describer as its material, the film impresses on the audience that there is a world we can feel through closed eyes and open ears. (Jinna LEE)

## 여름에 내린 눈 The House of Rising Sun

Korea | 2019 | 17min | Color | Fiction



09. 07 | 19:30 | AC 2 | GV | World Premiere



### 이가경

전주 출생. 배우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더킹>(2016), <인랑>(2018), <기묘한 가족>(2018) 등에 출연하였으며, <탈>이라는 단편영화를 연출했다.

### LEE Ga-kyung

Lee was born in Jeonju City, Korea. She is working as an actress and a film director both. She has acted in the films: *The King* (2016), *Illang: The Wolf Brigade* (2018), *The Odd Family: Zombie on Sale* (2018), and directed the short film *Escape*.

집안 사정으로 발레를 관두게 된 초등학생 은주. 그리고 은주의 부모님과 친척은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가족은 가세가 기울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뒷자리로 돌린다. 너무나 발레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은주. 친척 동생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명당에 모셔다 드리기 위한 짧은 여행을 떠난다. 영화는 가족이란 간섭의 대상이 아닌,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이고, 기존 관습과 풍습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고 발칙한 상상력을 통해 말하고 있다. 배우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감독은, 어린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 연출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를 관객에게 선사한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타로 마스터의 타로점을 유심히 본 이들은 영화의 끝을 추측할 수 있겠다. (이정진)

Eunju must give up ballet because of the situation at home. And her parents are always fighting with other relatives. Everything begins to go wrong, and it seems that the cause is her dead grandfather's gravesite. Eunju really wants to continue her ballet lessons, so decides to take a trip with her younger cousins to bring her grandfather to a better gravesite. The film is a cheeky reminder that family is not just a bunch of meddlers, but our partners to rely on, and that we must not be tied down by traditions. As an active actor herself, the director brings solid acting by children in this film that makes us think about our life at least once. Those who pay close attention to the tarot cards appearing at the beginning of the film will be able to make a prediction of how the film will end. (Jinna LEE)

## 친화득 B Chouinard B

Korea | 2019 | 8min | Color | Animation



09. 07 | 19:30 | AC 2 | GV | World Premiere



### 최원재

2004년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 단편 애니메이션 <Perfect Family>, <2D or not 2D>, <Master Peace> 등을 제작, 연출했으며 드로잉, 클레이, 오브제 등 소재의 제한없이 픽셀레이션, 스톱모션, 35mm 촬영, 디지털 합성 편집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다.

### CHOI Won-jae

Choi graduated from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in 2004. He produced and directed short animations such as *Perfect Family*, *2D or Not 2D* and *Master Peace* etc. He has been making animation films with various materials and different methods, such as stop-motion, filming in 35mm and so on, throughout his career.

산을 오르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서는 한 남자. 그는 이른 아침 아내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도심 속 시위대를 지나 산에 도착, 암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산을 오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걱정들은 휴식 때 취한 한 모금의 물과 함께 강물처럼 사라진다. 드디어 인수봉 정상에 오르면, 무뎠던 파트너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드리우며, 취나드 B코스를 개발한 이본 취나드와 만나는 환상과 정상에 올랐다는 기쁨까지. 이 모든 것이 절묘하게 봉합되는 순간이 다가온다. 산에 오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게 만드는 이 애니메이션은, 수채화처럼 솔직 담백하게 다가와 관객에게 "어서와, 우리 산에 오르자"라며 손짓한다. 더불어 유지태 배우의 내레이션은 주인공의 캐릭터화를 강화했다. (이정진)

A man leaves home early in the morning to begin climbing. He leaves his wife's nagging and city protesters behind, arrives at the mountain and begins to climb. While he is climbing, all the worries troubling him disappear like the rushing river. When he finally reaches the summit of Insubong, there is a smile even on his gruff partner's face. He imagines meeting with Yvon Chouinard, who invented the Chouinard B, in his happiness at the summit, and there is a moment when all of this comes together beautifully. The animation makes us think about climbing a mountain, and like a watercolor painting, calls out in candor, "Come, let's climb the mountain." The narration by actor Yoo Ji-tae brings the audience closer to the main character of the film. (Jinna LEE)



## 2020 울주서밋 Ulju Summit 2020

울주서밋은 국내 산악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속해 온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이다. 매년 3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31편의 접수 작품 중 예심과 본심을 거쳐 장편 다큐멘터리 2편과 장편 극영화 1편을 선정했다. 2020 울주서밋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내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Ulju Summit is a program th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has supported since 2015 to encourage domestic productions with the theme of Mountains. The festival selects around three titles and supports them every year. This year, two documentaries and one feature film were chosen from among 31 submissions through 2 stages, preliminary and final selection. The selected projects for Ulju Summit 2020 will be world-premiered this coming year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 2020 울주서밋 지원작

#### 달리다굼, 식물에게 일요일은 없다

서원태, 다큐멘터리 | 장편

#### 산의 보물

코메일 소헤일리, 다큐멘터리 | 장편

#### 숨어드는 산

최창환, 극영화 | 장편

### Ulju Summit 2020 Projects

#### Talitha Kum, Stayless Plants Life

SEO Won-tae, Documentary | feature-length

#### The Diamonds of Mountains

Komeil SOHELLI, Documentary | feature-length

#### A Hiding Mountain

CHOI Chang-hwan, Fiction | feature-length

### 본선 심사위원 Final Jury

#### 김희정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를 졸업 후 폴란드우즈글립영화학교에 입학, 단편 <만남>(2000), <언젠가>(2001)등이 시카고영화제, 크라쿠프영화제 등에서 수상했다. 장편 데뷔작 <열세 살, 수아>(2007)로 서울국제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고, 세 번째 장편 <선행, 눈길을 걷다>(2015)는 전주국제영화제, 카를로비바리, 에테보리국제영화제 등에서 소개되었으며, 신작 <프랑스여자>(2019)는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현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영상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 이혁상

미디어 액티비즘 단체 '연분홍치마'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이슈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데뷔작 <종로의 기적>으로 2010년 부산영화제 비프메세나상을 받았으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두 개의 문>(2011)에 이어 속편 <공동정범>을 공동연출, 2016년 DMZ국제다큐영화제 최우수 한국작품상과 관객상을 수상했다. 현재 디아스포라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연분홍치마 프로젝트 <너에게 가는 길>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첫 극영화 <조선의 태양>을 준비 중이다.

#### 최윤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아시아영상위원회 의장,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교장,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에 출강하였다. 다수의 영화에 프로듀서 및 제작자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VR HMD 제작과 플랫폼 개발,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제작회사인 VREZ CREATIVE INC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 KIM Hee-jung

After graduating from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he entered Lodz Film School and directed short films such as *Portrait of the Father* (1999), *The Appointment* (2000), and received awards at the Chicago IFF, Krakow FMF. Her feature debut *Girl Thirteen* (2007) led her to the New director prize of Seoul IFF. Also, *Snow Paths* (2015) was previously screened at Jeonju IFF. *A French Woman* (2019) also invited at Jeonju IFF. Currently, she's teaching at the Creative Writing Department of Chosun University.



#### LEE Hyuk-sang

Lee Hyuk-sang, a director of the media activism group Pinks, has produced various social documentaries since 2003. His debut feature *Miracle on Jongno Street* won the BIFF Mecenat Award at Busan Int'l Film Festival and his latest *The Remnants* (2016) won the Best Korean Documentary Award and Audience Award at DMZDocs. He's preparing his first fiction film *His Son, Our Sun* and working as a programmer for Diaspora Film Festival in Incheon.



#### CHOI Yoon

Choi Yoon was Director of Busan Film Commission, President of the Asian Film Commission, Director of Busan Asian Film School (AFiS), and professor at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Film Studies), attended the department of art and culture at Busan University. He has been a producer and Chief producer for several movies. Currently, he is vice president of VR HMD production, platform development, and film and video content company VREZ CREATIVE INC, preparing for various genres of film and drama projects.



## 예심 심사위원 Preliminary Jury

### 김영조

동의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과 교육전담교수. 현재 독립영화제작사 월요일아침 대표 및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영화 <가족초상화>, <태백, 잉걸의 땅>, <프로메테우스의 후예들>, <마지막 광부>, <사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불>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2018 들꽃영화제 다큐멘터리부문 신인감독상을 수상했고, <편지불>은 2019서울환경영화제 한국환경영화상 우수상과 관객심사단상을 수상했다.

### KIM Young-jo

Kim Young-jo is a professor of Digital Culture Contents department at Donggeui University, runs film production 'Monday Morning', and BISFF's executive committee. *My Family Portrait, Taebaek, Land of Embers, Descendant of Prometheus, The Last Miner, The Hunt, Still and All* won the Best New Director Award at the Wildflower Film Awards(2018) and *Punch Ball* won the Best Film & Audience Jury Award in Seoul Eco Film Festival in 2019.



### 김은영

추계예술대학교 문학영상대학 영상비즈니스과 교수이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영상사업단에서 영화 사업을 기획하고 영화투자를 담당했으며, 미국 리젠시 프로덕션이 제작한 <미러>(2008)의 공동 프로듀서, <뜨거운 것이 좋아>(2007), <사랑니>(2005), <거울 속으로>(2003) 등을 제작했다. 『영화 비즈니스 입문』(2014)과 『영화 카피』(2015)의 저자이며, 『로셀리나의 <이탈리아 여행>(1953)분석』(2011)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 KIM Eun-young

Kim Eun-young i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Literature and Visual Communications of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in Film and Entertainment Business and a Committee member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he planned the film business at Samsung Electronics. She co-produced *Mirrors* (2008) and produced *Hellcats, I Like It Hot* (2007), *Blossom Again* (2005) and *Into the Mirror* (2003). She authored *Introduction to Film Business* (2014) and *Cinema Copies* (2015) and wrote many theses including *Analysis of Rossellini's 'Journey to Italy (1953)'* (2011).



### 민용근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와 동대학원 영화학 실기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첫 단편 <주말>(1996)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후, <도둑소년>(2006)으로 삿포로 단편영화제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고, 옴니버스 영화 <원나잇 스탠드>(2009)는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다. 첫 장편 <허화,동>(2010)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비전 부문 감독상과 서울독립영화제 최우수작품상 등을 수상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 <아편 시선>(2013)과 단편 <자전거 도둑>(2014), <고양이춤>(2015) 등을 연출했다.

### MIN Yong-keun

He graduated MFA and DFA in filmmaking at Hanyang University. His first short *The Weekend* was introduced in Busan IFF (1996), and *The Little Thief* (2006) won a best director award in Sapporo Int'l Short Film Festival. Omnibus Film *One Night Stand* (2009) was introduced as an opening film at the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His first feature film *Re-encounter* (2010) won Best Director Award at Busan IFF and Best Film Award at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He has filmed several shorts, for the omnibus *If You Were Me 6* (2013), and also *The Bicycle Thief*(2014), and *Dancing Cat* (2015).



### 이정진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영화이론전공 석사과정 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5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에서 근무, 현재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로그래머이다. 족자넷팩영화제, SAARC영화제, 가오송영화제, 마르델플라타영화제, 금마장영화제, 올라이트인도국제영화제 등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 Jinna LEE

Jinna Lee is a programmer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he graduated with an MA in Film Studies from Hanyang University and finished the PhD course. Since 2005, she has worked at JeonjuIFF, JecheonIMFF, DMZDocs, BusanISFF, IIFF. Also, she served on the jury at the Jokja Netpac Asian Film Festival, SAARC Film Festival, Kaohsiung Film Festival, Mar del Pla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Golden Horse Film Festival and All Lights Ind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2019 울주멘터리 UijuMentary 2019

제4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울주멘터리(UijuMentary)’는 울주(Ulju)와 다큐멘터리(Documentary)의 합성어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주최하여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다. ‘울주멘터리’에 선정된 팀은 총 4팀이며, 울주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멘토와 함께 진행한다. 팀당 15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각 팀에서는 15분 내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한다. 완성된 영화는 영화제 기간 중 공식 상영되며, 완성도에 따라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UijuMentary is a combination of the two words: Uiju and documentary. It is a media education program hosted by the Ui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ilms. A total of four teams were selected for UijuMentary for a chance to work with mentors in discovering and producing documentaries about Uiju. Each team will be given 1.5 million won in production costs, and will produce a short film under 15 minutes. Completed films will be formally screened during the film festival, and depending on merit, may be submitted to other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제작기간 4월 ~ 7월  
 상영 9월 9일(월) 20:00 ~ 22:00  
 장소 알프스 시네마 1  
 공동·주최 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Production Period April ~ July  
 Screening Sep. 9(Mon) 20:00 ~ 22:00  
 Venue Alps Cinema 1  
 Joint Hosting Uiju Mountain Film Festival  
 Community Media Foundation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 멘토 Mentor

#### 정성욱

부산출생. 전수일 감독의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으로 장편영화의 촬영을 시작하였다. 이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장편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작업하였다. 대표 촬영 작품으로 <이웃사람>, <그림자들의 섬>, <괴물들>, <파미르> 등이 있고, 현재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JUNG Sung-uk

Jung was born in Busan and started working as a cinematographer for feature films with Jeon Soo-il. Afterwards, he worked on several feature films and documentaries based in Busan City. He was the DOP of *Time Between Dog and Wolf*, *The Neighbors*, *The Island of Shadows*, *Wretches*, and *Pamir*. He is a professor at Dong-eui University (Dept. Film studies).



#### 신나리

신나리는 삶과 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심도있게 풀어내는 감독이다. 영화 <그 자리>(2015)로 FlashEye 영화제 나의 도시부문 1등상을 수상했고, <천국 장의사>(2015), <9월>(2017)은 전 세계 14곳의 영화제에 소개되었으며, <붉은 곡>(2018)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늑>(2018)은 부산독립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 SHIN Na-ri

Shin Na-ri's documentaries provide an in-depth look into the hidden stories in life and cities. Her first short *That Place* won first place in the My City section at the FlashEye Festival and the other films are *Heaven's Touch*, *September* which was introduced at 14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The Red Cave* which was shown at UMMF2018, and *The Rust* which received the Special Jury Prize at the Busan Independent Film Festival.



#### 장희철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주된 인물로 등장시켜 위안과 희망의 시선을 보내는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다. <모자이크>(2007) <용용~ 죽겠지?>(2010), <변신>(2010) <Walking plot>(2015) <달지않는>(2015) 등의 단편을 각본·연출하였고, 장편 <미스진은 예쁘다>(2011), <눈이라도 내렸으면>(2015)의 각본과 연출을 담당하였다.

#### JANG Hee-chul

Jang Hee-chul has made independent films that portray the socially weak and ordinary people as the main characters. He directed the short films: *Mosaic* (2007), *It's annoying, right?* (2010), *Transformation* (2010), *Walking Plot* (2015), *Beyond One's Reach* (2015) and the feature films: *Beautiful Miss Jin* (2011), *Waiting for the Snow* (2015).



#### 김영조

동의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과 교육전담교수. 현재 독립영화제작사 월요일아침 대표 및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영화 <가족소식화>, <태백, 잉걸의 땅>, <프로메테우스의 후예들>, <마지막 광부>, <사냥>, <그림에도 불구하고>, <편치불>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특히 <그림에도 불구하고>는 2018 들꽃영화제 다큐멘터리부문 신인감독상을 수상했고, <편치불>은 2019서울환경영화제 한국환경영화상 우수상과 관객심사단상을 수상했다.

#### KIM Young-jo

Kim Young-jo is a professor of Digital Culture Contents department at Dongeui University, runs film production 'Monday Morning', and BISFF's executive committee. *My Family Portrait*, *Taebaek*, *Land of Embers*, *Descendant of Prometheus*, *The Last Miner*, *The Hunt*, *Still and All* which won the Best New Director Award at the Wildflower Film Awards(2018) and *Punch Ball* won the Best Film & Audience Jury Award in Seoul Eco Film Festival in 2019.



## 양지탕 Yangjitang

Korea | 2019 | 11min | Color | Documentary



20년 전, 울주군 범서읍의 양지탕은 늘 북적였다. 세월과 함께 양지탕은 폐업해버리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 양지탕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남았다. 20년 만에 범서에서 '양지탕 멤버'들이 모인다. 그들에게 양지탕과 양지탕 사람들은 어떤 의미일까?

Twenty years ago, 'Yangjitang', a public bath house, in Beomseo-eup, Ulju-gun was always crowded. With time, Yangjitang closed and disappeared. However, those who used Yangjitang at that time still exist. After 20 years, 'Yangjitang members' gather in Beomseo. What do Yangjitang and Yangjitang members mean to them?

09. 09 | 20:00 | AC 1 | GV | World Premiere

이진수, 이상선, 손성민, 고수빈 LEE Jin-soo, LEE Sang-seon, SON Seong-min, KO Su-bin 멘토 정성욱 Mentor JUNG Sung-Uk

## 왕할머니께 A Movie for You Only

Korea | 2019 | 13min | Color | Documentary



영화감독을 꿈꾸며 나아가는 동욱. 그런 동욱에게는 100세가 다 되어가는 증조할머니가 있다. 증조할머니께 얼굴을 못 비추지 오래되었고, 촬영을 하기 위해 후평 마을로 향한다.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성장을 겪는다.

Dong-wook dreams of becoming a film director. He has a great-grandmother who is almost 100 years old.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he last saw her, so he heads to Hupyeong village for some filming. It's not an easy task, but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ome growth.

09. 09 | 20:00 | AC 1 | GV | World Premiere

김정현, 김동욱, 양연나, 엄다경 KIM Jeong-hyeon, KIM Dong-uk, YANG Yeon-na, UM Da-gyeong 멘토 신나리 Mentor SHIN Na-ri

## 살티 Salti

Korea | 2019 | 14min | Color, B&W | Documentary



전쟁 시 화살을 만들던 곳이라 하여 '살타'로 불리던 그 곳에 노부부가 살고 있다.

The place is called 'Sal-tuh' because it was where arrows were made during war. An old couple lives here.

09. 09 | 20:00 | AC 1 | GV | World Premiere

김분화, 김태훈, 김전자, 진희정 KIM Bun-hwa, KIM Tae-heun, KIM Jeon-ja, JIN Hee-jung 멘토 장희철 Mentor JANG Hee-chul

## 나마스테 Namaste

Korea | 2019 | 11min | Documentary



울주에 거주하는 동래 산악회 회원들이 히말라야 골자락 반지살산 원정 등반을 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원정 등반을 떠난다. 하지만 생각도 못한 고소증과 폭우로 인한 저체온증에 정상을 얼마 남겨두고 포기하며 산을 내려온다. 하지만 귀국 후에도 산악회원들과 원정대장은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한다.

Ulju town's mountain climbing club members train for a climbing expedition in the snow-covered Himalayas. Alas, they give up just a little shy of the summit when faced with unimaginable heights, snowstorms, and hypothermia. But upon returning to Korea, the members prepare for another challenge.

09. 09 | 20:00 | AC 1 | GV | World Premiere

김형택, 임상훈, 박준철, 서민주, 유명상 KIM Hyeong-taek, LIM Sang-hun, PARK Jun-cheol, SEO Min-ju, YOO Myung-sang 멘토 김영조 Mentor KIM Young-jo

# ULSAN MEDIA FOREST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시청자와 함께 일구어가는 미디어숲 [林]



### 미디어제작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합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에 흥미를 갖고 방송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 교육

누구나 자유롭게 미디어를 읽고 만들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령별, 여체별,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만든 방송콘텐츠입니다. 창작물이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제작단 운영, 멘토링 시스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장비대여·시설대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제작 장비 및 제작시설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비 숙련자에 한해 정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와 함께 일구어가는 미디어숲 [林],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시설·장비 등을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 자원 시설입니다.



#### ○ 개방시간

- 월~금 10:00-22:00
- 토요일 10:00-18:00

#### ○ 휴관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기념일 (5월 15일)
- 기타 천재지변이나 점검, 임시공휴일 등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10길 78

대표전화 052-960-7000

팩 스 052-960-7099

홈페이지 <http://kcmf.or.kr/comc/ulsan/>

블 로그 [http://blog.naver.com/comc\\_ulsan](http://blog.naver.com/comc_ulsan)

# 페스티벌 프로그램

## Festival Program

영화제가 펼쳐질 산자락에서,  
자연과 인간을 존중하는 공간을 구성하고,  
함께 만들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했다.

### Pre-cycling

새로운 기능으로 재탄생할 소재로 축제의 공간을 만들고

### With Nature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연과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채워가는' 프로그램을  
펼친다.

### Together

특별히 올해는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숲산책' '어린이  
업사이클자동차극장'과 이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만든  
'언양 극장 & 시장', '라이브 더빙 극장', 그리고 영화와 공연이  
함께 어울러지는 <고래사냥>, <키드>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소설가 황선미, 시인 정일근, 가족 심리 전문가 서천석,  
그리고 산악인 김병준, 산악인 유학재와 산과 자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토크를 영화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At the foothills of the mountain showcasing the film festival,  
we hope to bring a program made and shared together  
in an arena where man and nature respect one another.

### Pre-cycling

Create a festival full of material reborn with new functions,

### With Nature

On the trail headed up the mountain  
with a program to 'Sing', 'Read', and 'Play' Nature.

### Together

Specially prepared this year are programs to bring families  
together, such as 'Forest Walk', 'Kid's Boxcar Theater',  
'Eonyang Theater & Market' brought to you by the people  
living here, 'Live Dubbing Theater', and screenings with  
performances, *Whale Hunting* and *The Kid*.  
Be ready to meet and talk with celebrities throughout  
the film festival, including author Hwang Sun-mi, poet  
Chung Il-keun, family psychologist Suh Cheon-seok, and  
mountaineers Kim Byung-jun and Yoo Hak-jae.

8000미터의 카메라맨  
쿠르트 디베르거



The Filmmaker of the 8000s  
Kurt DIEMBERGER

**8000미터의 카메라맨 쿠르트 디베르거**  
**The Filmmaker of the 8000s Kurt DIEMBERGER**

일시 8월 13일(화) ~ 9월 10일(화) 09:00 ~ 18:00, 월요일 휴관

장소 영남알프스 영상체험관 지하 1층

Time Aug. 13(Tue) ~ Sep. 10(Tue) 09:00 ~ 18:00, except Monday

Venue B1, Yeongnam Alps Experience House



알프스 - 오스트리아 Alps - AUSTRIA

## 오스트리아 보랄버그, 건축 환경의 진화 Evolution of the Built Environment in Vorarlberg

일시 8월 13일(화) ~ 9월 10일(화) 09:00 ~ 18:00, 월요일 휴관

장소 영남알프스 영상체험관 지하 1층

Time Aug. 13(Tue) ~ Sep. 10(Tue) 09:00 ~ 18:00, except Monday

Venue B1, Yeongnam Alps Experience House





## 김창호 - Himalaya Wanderer KIM Chang-ho – Himalaya Wanderer

일시 7월 29일(월) ~ 9월 10일(화) 09:00 ~ 18:00, 월요일 휴관

장소 영남알프스 산악문화관 2층

Time July. 29(Mon) ~ Sep. 10(Tue) 09:00 ~ 18:00, except Monday

Venue 2F, Yeongnam Alps Mountain House



1989년 10월 13일 12시 30분 에베레스트 정상에 선 조광제 대원.  
CHO Kwang-je at the summit of Mount Everest on October 13, 1989, 12:30PM

## 경남 마산산악동지회 에베레스트 등정 30주년 기념 장비 및 사진 전시회 The 30<sup>th</sup> anniversary of the Mt. Everest climb by Kyeongnam Masan Alpine Fellow Club

일시 9월 6일(금) ~ 9월 10일(화) 09:00 ~ 18:00

장소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대

축하의 밤 - 2019년 9월 7일(토) 오후 5시 30분. 전시장 입구 특별무대

Time Sep. 6(Fri) ~ Sep. 10(Tue) 09:00 ~ 18:00

Venue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Celebration Evening: 2019. Sep. 7(Sat) 17:30. Special stage by the exhibition entrance

## 2019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포럼

### 김창호, 히말라야의 방랑자

일시 9월 8일(일) 13:00 ~ 15:00

장소 세미나실

한국 산악계의 큰 별이 졌다. 2018년 10월 네팔에서 사망한 산악인 김창호는 당대 세계 최고의 산악인이었지만 아직 만개하지 않은 꽃이었다. 가까이서 산악활동을 해 온 전문가들이 불세출의 동반자이자 원정대장, 탐험가, 기록자, 역사가, 비평가로서의 김창호를 평가하고 남겨둔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산악계를 진단한다.

사회 **박정원** 월간 산 편집장  
발제 **최석문** 동반가  
**오영훈**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캠퍼스 인류학, 종교학 강사  
토론 **남선우** 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장  
**이동훈** 한국대학산악연맹 회장  
**이성원** 히말라얀클럽 부회장

## Ulju Mountain Film Festival Forum 2019

### KIM Chang-ho, Himalayan Wanderer

Time Sep. 8(Sun) 13:00 ~ 15:00

Venue Seminar Room

A bright star of the Korean mountain community has fallen. Mountaineer Kim Chang-ho (died on Nepal in October 2018) was one of the world's top climbers with still much left to give. Other professionals who have worked alongside him will evaluate the incomparable Kim Chang-ho as a climber, expedition leader, explorer, recorder, historian and critic, and further examine the Korean mountaineering industry as left behind by this outstanding man.

Moderator **PARK Jung-won** Monthly San Editor  
Presenter **CHOI Suk-mun** Alpinist  
**OH Young-hoon** UC Riverside Anthropology and Religious Studies Professor  
Discussant **NAM Sun-woo** President Alpine training institute of K.A.F.  
**LEE Dong-hun** President of Korea Student Alpine Federation  
**LEE Seung-won** Vice President of the Himalayan Club

## 2019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씨네 토크

### 씨네 토크 1

#### 임일진 - 한국 산악영화의 역사

일시 9월 7일(토) 20:00

<알피니스트 -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 상영 이후

장소 알프스 시네마 1

故 임일진 감독의 유작 <알피니스트>를 재편집한 <알피니스트 -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 상영 후 공동 감독인 김민철, 시나리오 작가이자 산악문학 작가인 심산, 산악인 오영훈, 김영주 산악전문 기자와 함께 임일진 감독의 삶과 영화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사회 **김영주** 패널 **김민철, 오영훈, 심산**

## Ulju Mountain Film Festival Cine Talk 2019

### Cine Talk 1

#### LIM Il-jin - The History of Korean Mountain Film

Time After the film *Alpinist - Confession of a Cameraman* screening, Sep. 7(Sat) 20:00

Venue Alps Cinema 1

A place to watch *Alpinist - Confession of a Cameraman*, a remake of the late director Lim Il-jin's posthumous film *Alpinist*, and then talk about the life and film of Lim along with director Kim Min-chul, screenwriter and mountain culture writer Sim San, mountaineer Oh Young-hoon, and mountain reporter Kim Young-joo.

Moderator **KIM Young-joo**  
Panel **KIM Min-chul, OH Young-hoon, SIM San**

### 씨네 토크 2

#### 산, 자연 그리고 오스트리아 영화

일시 9월 8일(일) 19:30 마운틴 라이프 단편 상영 이후

장소 알프스 시네마 2

마운틴 라이프 단편 프로그램은 산을 소재로 한 다채로운 영화 형식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영이다. 영화제에 찾은 오스트리아 영화인들이 참석, 오스트리아 영화 속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

사회 **이정진**  
패널 **다니엘 에브너, 아드린 피터 비드론, 마라 살미나**

### Cine Talk 2

#### Austrian Films Related to Nature & Life

Time After the Mountain Life Shorts screening, Sep. 8(Sun) 19:30

Venue Alps Cinema 2

The Mountain Life Shorts program is a screening of mountain films that provide a diversity of film forms. Austrian filmmakers attending the festival will be present to talk about the nature, people, and mountain in the Austrian films.

Moderator **Jinna LEE**  
Panel **Daniel EBNER, Adrin PETER BIDRON, Mara SALMINA**



## 황선미

###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관계의 미래

일시 9월 7일(토) 16:00 ~ 17:30

장소 선바위 극장

단절된 관계로 인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사연을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엑시트」, 「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 속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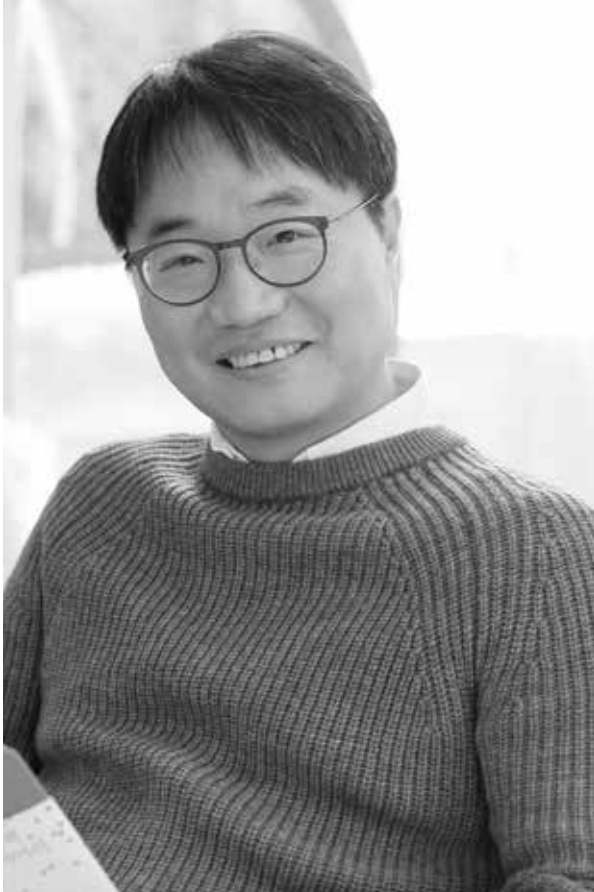
## HWANG Sun-mi

### What we lost: The Future of Relationships

Time Sep. 7(Sat) 16:00 ~ 17:30

Venue Seonbawi Theater

The stories of those lonely in isolation will be played out in Hwang Sun-mi's *The Hen Who Dreamed She Could Fly*, *EXIT*, and *Nuisances in the Backyard*.



## 서천석

###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상처, 아픔, 그리고 치유

일시 9월 8일(일) 16:00 ~ 18:30

장소 선바위 극장

영화 <타이키> 상영 후 육아 멘토 서천석 박사와 영화 속 상처, 아픔, 치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 SUH Cheon-seok

### What we lost: Hurt, Pain, and Healing

Time Sep. 8(Sun) 16:00 ~ 18:30

Venue Seonbawi Theater

After the screening of *Taiki*, there will be a discussion with a childcare mentor, Doctor Suh Cheon-seok, regarding the pain and healing from the film.

# 백지영 BAEK Z YOUNG

9월 6일(금) 19:00 움프 시네마  
Sep. 6(Fri) 19:00 UMFF Cinema

\* 공연은 개막식 중 약 15분간 진행된다.  
\*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15minutes during the opening ceremony.

# 윤미래 타이거 JK 비지 Yoonmirae Tiger JK Bizzy

9월 10일(화) 21:00 움프 시네마  
Sep. 10(Tue) 21:00 UMFF Cinema

\* 공연은 영화 상영 후 60분간 진행된다.  
\*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60minutes after the Flim screening.



## 김수철 & 크라이닝넛

## KIM Soo-chul & Crying Nut

일시 9월 7일(토) 19:00  
장소 음프 시네마

Time Sep. 7(Sat) 19:00  
Venue UMFF Cinema

\* 공연은 영화 <고래사냥> 상영 후 60분간 진행된다.

\*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for 60minutes after the Film *Whale Hunting* screening.



## 진수영 시네마 앙상블

## CHIN Soo-young Cinema Ensemble

진수영 X 황태룡 X 김오키

CHIN Soo-young × HWANG Tae-ryong × KIM O-ki

일시 9월 8일(일) 22:00  
장소 알프스 시네마 4

Time Sep. 8(Sun) 22:00  
Venue Alps Cinema 4

\* 영화 상영과 공연이 함께 진행된다.

# 어쿠스틱 음악 공연

## Acoustic Music Performance

언양 극장 2와 별빛 극장에서는 매일 밤 19시에 어쿠스틱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Every night at 7PM, there will be Acoustic Music Performance at the Eonyang Theater 2 and Starlight Theater.

### 일정

9월 7일(토) 19:00 ~ 19:30, 언양 극장 2, 별빛 극장

9월 8일(일) 19:00 ~ 19:30, 언양 극장 2, 별빛 극장

### Schedule

Sep. 7(Sat) 19:00 ~ 19:30, Eonyang Theater 2, Starlight Theater

Sep. 8(Sun) 19:00 ~ 19:30, Eonyang Theater 2, Starlight Theater



# 울주인 한마당

## Ulju IN Festival

일시 9월 7일(토) ~ 8일(일) 13:00 ~ 14:30

장소 움프시네마

Time Sep. 7(Sat) ~ 8(Sun) 13:00 ~ 14:30

Venue UMFF Cinema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영화제가 개최되는 울주에 거주하는 울주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울주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동아리 등의 공연으로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울주를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제공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지역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 올해 2회째를 맞고 있다.

A program for residents of Ulju, where the film festival is being held under the theme 'The Road Together'. Individuals, groups, and clubs with activities based in Ulju will perform for those visiting Ulju for the film festival. This is an arena for the revitalization of Ulju provided for the 2nd year by UMFF, which allows visitors to come to know Ulju and for residents to have some fun.



# 북토크 Book Talk

**장소**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아고라  
**Venue** UMFF Agora,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김병준**  
**KIM Byung-jun**

일시 9월 7일(토) 11:00 ~ 12:00  
Time Sep. 7(Sat) 11:00 ~ 12:00



**유학재**  
**YOO Hak-jae**

일시 9월 8일(일) 11:00 ~ 12:00  
Time Sep. 8(Sun) 11:00 ~ 12:00



**정일근**  
**CHUNG Il-keun**

일시 9월 9일(월) 17:00 ~ 18:00  
Time Sep. 9(Mon) 17:00 ~ 18:00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함께하는 '자연에서 채우다'는 영화와 더불어 즐길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고 함께하는 '자연에서 채우다'를 통해 더욱 풍성한 영화제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Playing in Nature' is made up of various interactive programs to go along with the films from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FF). Playing together inside the beautiful nature will provide a chance to experience the film festival more fully.

## 시청자미디어극장

움프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자연에서 채우다'는 지난 1년간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통해 소개하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미디어 꿈나무 양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체험들과 미디어 소외계층, 사회적 소수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디어 체험 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을 영화제 관람객들과 함께 감상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일시** 9월 7일(토) 14:30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부모나라미디어동화

**9월 8일(일) 14:30**  
세대공감 보이는 라디오 「별난 천상 여자들과 오딧세이」

**9월 9일(월) 14:30**  
열린미디어교실 수료작 상영

**9월 10일(화) 14:30**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땡작상영회

**장소**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 아고라

## Community Media Program

'Playing in Nature' program is working with the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The program will introduce video contents produced by the Ulsan Community Media Center's education program. It will include various programs prepared by the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including content producing experience for young media enthusiasts, and learning experiences for social minorities and the underprivileged.

**Time** Sep. 7(Sat) 14:30  
Parent World Children's Stories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p. 8(Sun) 14:30**  
Generation Identity Radio Live *Odyssey with the Peculiar Girls*

**Sep. 9(Mon) 14:30**  
Open Media Class Projects Screening

**Sep. 10(Tues) 14:30**  
Viewer Participation Program Screening

**Venue** UMFF Agora,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또 하나의 '자연에서 채우다' 프로그램은 영화더빙 교육을 수료하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상영작 중 단편 애니메이션 <가을의 마지막 날>의 대본을 직접 각색하여 더빙연기까지 하는 더빙극장이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통해 현장 더빙 발표를 진행하고, 관람객들은 현장감 넘치는 더빙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Another 'Playing in Nature' program is the dubbing theater, where individuals will learn how to produce film dubbing, then make a dubbing adaptation of one of UMFF short films from this year, *The Last Day of Autumn*. Students will learn how to make dubbing programs through UMFF, and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enjoy the live dubbing of the film.

**일시** 9월 9일(월) 13:00  
9월 10일(화) 13:00

**Time** Sep. 9(Mon) 13:00  
Sep. 10(Tue) 13:00

**장소**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 아고라

**Venue** UMFF Agora,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 힐링 요가

영남알프스 산속 열린 공간에서 진행되는 힐링 요가는 영화제의 아침을 열어준다. 9월 7일부터 9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되는 힐링 요가는 자연과 만나는 시간이다.

**일시** 9월 7일(토) ~ 9일(월) 08:30  
**장소**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달팽이 책방

## Healing Yoga

'Healing Yoga' will open up the morning of the film festival in the open area of Yeongnam Alps. It will be a time to meet with nature, between September 7 and 9, beginning at 8:30 AM.

**Time** Sep.7(Sat) ~ Sep.9(Mon) 08:30  
**Venue** Cittaslow,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 숲산책 - 영남알프스가 품은 나무 이야기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함께 하는 숲산책은 숲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다.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걷는 숲산책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일시** 9월 7일(토) ~ 8일(일) 10:00  
 9월 7일(토) ~ 8일(일) 15:00  
**장소**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 아고라

## Forest Walk - A story of the Yeongnam Alps trees

'Forest Walk' is a time to learn and feel the forest while listening to the stories told in nature. A professional forest narrator will walk along with you during the program. You can sign up for the program on our website.

**Time** Sep. 7(Sat) ~ Sep. 8(Sun) 10:00  
 Sep. 7(Sat) ~ Sep. 8(Sun) 15:00  
**Venue** UMFF Agora,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 어린이업사이클자동차극장

직접 만들고 꾸미는 나만의 박스자동차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 예술놀이터, 업사이클링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엄아롱 작가와 함께 박스자동차도 만들고 영화도 즐기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자동차극장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일시** 9월 8일(일) 14:00  
**장소** 안양음행정복지센터 안양 극장 2

## Kid's Boxcar Theater

Enjoy a film in your own boxcar that you create. This is a program for children to experience making their own boxcars along with an art playground and upcycling artist Um A-rong. You can sign up for the program on our website.

**Time** Sep. 8(Sun) 14:00  
**Venue** Eonyang Theater 2, Eonyang Service Center

**일시** 9월 9일(월) ~ 10일(화) 10:00  
**장소**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움프 아고라

**Time** Sep. 9(Mon) ~ 10 (Tues) 10:00  
**Venue** UMFF Agora,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 북한산 하루재에서 인수봉을 바라보며 가진 산과 등반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않는 산악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외 山冊을 전문적으로 번역 출판하는 하루재클럽은  
북클럽의 운영을 통하여 열악한 山冊 번역서 발행여건을 주도적으로 개선하여  
좋은 번역서가 넘쳐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북클럽 회원 가입으로 산악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재 북클럽  
가입 신청 방법  
(CMS자동 이체)

신청인 성명:  
소속:  
도서수령지 주소:  
E-Mail: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상의 앞6자리)  
납부금액: 10,000원  
납부일: 매월 1일 또는 매월 25일 중 택일

위 내용을 문자(010-5355-8005)로 보내주시면 간편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재 북클럽 번기태 배상

주최/주관 오영수문학관

후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울주 출신 작가 오영수의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 <갯마을>과 <화산맥>을 통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추구하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갯마을>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상영일시 2019년 9월 7일(토) 오후 6시

감독과의 대화 영화 상영 후(2019년 9월 7일 오후 7시 40분)

장소 오영수문학관 2층 난계홀

#### 영화 기본 정보

원작 오영수 감독 김수용 제작사 대양영화(주) 제작자 호현찬

출연 신영균 고은아 황정순 이낙훈 이민자 등 개봉 1965년 11월 19일

상영시간 91분

#### 줄거리

무대는 경상남도 동해군(현재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어민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마한 해변마을이다. 갯마을과 바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정한을 서정적으로 묘사한 영상이 뛰어나다. 특히 성구가 죽고 난 뒤 상수를 맞이하는 해순의 갈등이 차분하게 잘 묘사되고 있다. 갯바람 속에서 자란 해순의 바다에 대한 향수, 어머니와 죽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깊은 정서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변에 앉아서 과부아낙네들이 과부타령을 부르는 장면 등은 지금까지 다른 영화에서는 보지 못한 수려한 영상이다. 휘황한 달빛이 파도를 비추고 어망을 기우면서 과부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유려한 이동촬영으로 훌륭하게 묘사하였다.

#### 김수용 감독은?

- 1958년 영화 <공처가>로 감독 데뷔

- 제35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1990년)

- 영화 감독 최초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제33대 2007.12.20.~2009. 12. 19.) 역임

### Screening and Guest Visit of *The Seashore Village*, based on a novel by O Yeong-su

Screen Time September 7, 2019 (Sat) 6 PM

Guest Visit After the screening (September 7, 2019, 7:40 PM)

Venue O Yeong-su Memorial Hall, 2nd-floor Nangye Hall

#### Film Info

Original work O Yeong-su Director Kim Soo-Yong Producer Daeyang Films

Producer Ho Hyeon-chan Cast Sin Yeong-gyun Go Eun-a Hwang Jung-seun Lee Nak-hun Lee Min-ja, and others Release Date November 19, 1965 Duration 91 min

#### Synopsis

Set in Donghae-gun, Gyeongsangnam-do (present Gijang-gun, Busan), Ilgwang-myeon Yicheon-ri, a small seashore village housing 20 fishing families.

The video poetically expresses the seashore, the sea, and the dauntless women who have lost their husbands. Haesoon's inner conflicts are calmly depicted as she takes in Sangsoo after Sung-gu dies. Haesoon's nostalgia for the sea breeze and her love for her mother and dead husband are deep emotions expressed through the film. Also, the scene where the widows sit by the beach singing the widow's song is a beautiful one not seen before. Their singing is superbly expressed with moving cameras while the bright moonlight shines on the breaking waves.

#### Who is Kim Soo-Yoong?

- Debuted as a director in 1958 with *A Henpecked Husband*

- Recipient of the 35th NAA Award (1990)

- The first film director to preside as President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33rd officer, Dec 20, 2007, to Dec 19, 2009)



Presented by O Yeong-su Memorial Hall

Supportor Ulju Mountain Film Festival

Outline UMFF tells the story of 'Nature and Human Life' through the films Seaside Village and Madam Hwasan, both based on novels by O Yeong-su, who is from Ulju and had a deep seated love for nature and people.



## 어머니, 그 영원한 그리운 이름에 바치다-영화 <화산댁>

상영일시 2019년 9월 8일(일) 오후 6시

장소 오영수문학관 2층 난계홀

### 영화 기본 정보

원작 오영수 감독 장일호 각본 김기팔, 최인수, 라한봉

출연 황정순 김진규 신성일 남정임 최남현 김신재 남미리 전영주 등

제작사 연방영화(주) 제작자 주동진 개봉 1968년 5월 17일(국도극장)

상영시간 110분

### 줄거리

근대화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애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그려낸 오영수의 소설을 영상언어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시대는 변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아울러 형제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는지를 일깨워준다.

### 장일호(1926~2009) 감독은?

- 본명 : 장광석, 1926년 평양 출생
- 1961년 <의적 일지매>로 데뷔
- 한국영화감독협회 회장 역임(1991년)
- 2009년 2월 9일 타계(84세)
- 제7회 대중상영화제 특별장려상 수상(1968)



## Dedicated to Mother, a name forever dear - Madam Hwasan

Screen Time September 8, 2019 6 PM

Venue: O Yeong-su Memorial Hall, 2nd-floor Nangye Hall

### Film Info

Original work O Yeong-su Director Jang Il-ho

Screenplay Kim Ki-pal, Choi In-su, Ra Han-bong

Cast Hwang Jung-seun, Kim Jin-kyu, Shin Seong-Il, Nam Jeong-im, Choi Nam-Hyun, Kim Sin-jae, Nam Mi Ri, Jeon Yeong-ju, and others

Producer YeonBang Film Producer Ju Dongjin

Release Date May 17, 1968 (Kukdo Theater) Duration 110 min.

### Synopsis

O Yeong-su's novel about the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family ties due to the oncoming of modernization was adapted for the screen. It reminds us that times may change but a mother's boundless love never changes, and that family and brotherhood is what has your back no matter what.

### Who is Jang Il-ho (1926~2009)?

- Birth Name: Jang Kwang-suk, born in Pyeongyang, 1926
- Debuted in 1961 with *Ilgimae the Chivalrous Robber*
- President of Korea Film Directors Society (1991)
- Deceased February 9, 2009 (84)
- Awarded the Special Participation Award at the 7th Daejong Awards (1968)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Chairman of Board**

이선호 LEE Sun-ho

**이사**

**Board Members**

- 김달줄 KIM Dal-jul
- 김대창 Kim Dae-chang
- 김상용 KIM Sang-yong
- 김상일 KIM Sang-il
- 김영달 KIM Young-dal
- 김은영 KIM Eun-young
- 김인수 KIM In-soo
- 김진택 KIM Jin-taek
- 김해숙 KIM Hae-sook
- 박만영 PARK Man-young
- 박수곤 PARK Soo-gon
- 서희웅 SEO Hwi-woong
- 송삼원 SONG Sam-won
- 오세필 OH Se-pil
- 유홍섭 YOU Hong-sub
- 이순우 LEE Soon-woo
- 이창세 LEE Chang-se
- 전경술 JEON Gyeong-sul
- 정일근 CHUNG Il-keun

**감사**

**Auditor**

이창림 LEE Chang-rim

**고문**

**Adviser**

- 이인정 LEE In-jung
- 정기범 JUNG Ki-bum

**집행위원회**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배창호 BAE Chang-ho

**집행위원**

**Committee Members**

- 김은영 KIM Eun-young
- 김인수 KIM In-soo
- 박만영 PARK Man-young
- 심 산 SIM San
- 이창세 LEE Chang-se
- 정일근 CHUNG Il-keun
- 채윤희 CHAE Yoon-hee
- 홍종오 HONG Jong-oh

**선정위원**

**UMCA Committee**

- 김영도 KIM Young-do
- 최중기 CHOI Joong-ki
- 정영목 JUNG Young-mok
- 정호진 JUNG Ho-jin
- 정일근 CHUNG Il-keun
- 김동수 KIM Dong-soo
- 배경미 Christine PAE

**영화제 사무국**

**Festival Office**

**프로그래머**

**Programmer**

- 최선희 Billy CHOI
- 이정진 Jinna LEE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홍영주 HONG Yung-joo

김경빈 KIM Kyoeng-bin

김민정 KIM Min-jeong

김민제 KIM Min-je

김선국 Joseph KIM

김은지 KIM Eun-ji

서하나 SEO Ha-na

손가영 SON Ga-young

신혜연 SHIN Hye-yeon

안다슬 AN Da-seul

유현주 YOU Hyun-ju

윤영신 YOON Young-sin

이서하 LEE Seo-ha

이지연 LEE Ji-yeon

임대환 LIM Dae-hwan

최성호 CHOI Sung-ho

최슬기 CHOI Seul-gi

황정현 HWANG Jeong-hyun

황지현 HWANG Ji-hyeon

**디자인**

**Design of Festival**

무소속 연구소 Musosok Lab

**기술**

**Technical Team**

진미디어 JINMEDIA

**자막**

**Subtitle**

(주)푸르모디티 FURMO DT

**울주의 식탁**

**Ulju's Table**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University of Ulsan, The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

울주군 문화관광과	박경례, 이미희, 홍경숙, 김병한, 송윤정, 박제윤, 이연옥, 남경민, 정운지, 남용규, 김재경, 방성연, 김채린, 설석환, 강선영, 권경아, 송승현, 김영삼, 김길성, 정 태, 조정인, 최민정, 박상현, 김민수, 허은석, 박진수, 정광준, 최 정, 권지협, 최지현	로이뮤직팩토리 대표 (주)동심원조경기술사무소 소장 무주산골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숲이랑 나무랑 헌양사람들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주한캐나다대사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디아스포라영화제 한국영상자료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주)황기성사단 Film Critic Kaohsiung Film Festival Yakutsk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관객리뷰단	김태영 김윤경 신동환, 고영웅 김성준, 문병용 김은영, 이영옥 이만영, 김선동, 김지현 정은선, Franz JUNG 고미진, 최유경 박소정, 장은석 장슬기, 김휘연 이정엽 양경민, 이충교 안지은, 김세연, 노창우 전진수, 이미경 지세연, 곽연옥 임대근, 백은영 황기성, 홍경희 Philip CHEAH Ryan CHENG Sergey ANASHKIN 강경란, 권철웅, 김보민, 김학묵, 박덕희, 박수진, 박연미, 박유진, 박혜일, 사정희, 신단아, 신미옥, 유성용, 윤준식, 이병숙희, 이소영, 이정연, 이현주 정두영, 주경숙, 강성주, 김정택, 송문영, 정혜린, 정우철, 권준형, 장영미, 최경진, 최미영
IT문화예술콘텐츠연구소, 울주군의회	경민정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김상화		
현대미디어ONT	김성일		
YTN울산지국	김인철		
사회적경제개발원	배준호		
(주)답사친구	유문화		
연합뉴스	장영은		
The MC 협동조합	정훈식		
영화사 백두대간	최낙용		
영화사 문샷필름, PGK	최정화		

# 작품색인

<b>A-Z</b>		
100마일을 완주하는 방법	36	
15.7 KM	67	
1953 에베레스트 등정	38	
24 스노우	113	
K2 - 꿈 그리고 운명	52	
<b>ㄱ</b>		
가을의 마지막 날	103	
가자! 남극으로	61	
각인	77	
강 그리고 장벽	39	
겨울, 그리고 겨울	97	
계양산	117	
고래사냥	92	
그리즐리 세상	68	
꼬마 유목민	46	
꽉 잡아!	41	
<b>ㄴ</b>		
나마스테	122	
낭파파르밧의 꿈	53	
네 번째 단계	78	
늑대	85	
니콜라스 윌러의 동행	61	
<b>ㄷ</b>		
다비드 라마의 세로 토레	52	
달, 실	108	
달리는 가족	61	
더 트립	89	
둘세	102	
돌이서 하나	47	
드림라이드 3	62	
디스 마운틴 라이프	38	
<b>ㄹ</b>		
러브 오브 더 게임	68	
레퀴엠	92	
로카 라퀴	97	
<b>ㅁ</b>		
마마	106	
마운틴 프로포즈	81	
만조	76	
물 밖에서	107	
물랑초	103	
물의 사람들	62	
미명	117	
미션 투 스페이스	78	
<b>ㅂ</b>		
바다까지 5분	105	
바안탈라이 - 타이가의 주인	68	
밤빛	45	
벽	88	
별들은 속삭인다	106	
보이지 않는 물의 무게	37	
보조 해변	114	
붉을 짙어지고	98	
북극의 여왕	40	
브리드 투 클라임	89	
블러드 문	48	
블러치	62	
비러브드	114	
빅 월드	63	
빅토리아	75	
빈센트	69	
<b>ㅅ</b>		
사과	81	
산경	81	
산홀타리	69	
산이 준 선물	69	
살티	122	
삼천 개의 이야기	86	
수도승	107	
수정산	54	
순간	80	
숨	41	
숲속의 목소리	80	
슈퍼 등자승	102	
스키 형제단	63	
스트롤리카	104	
스티스	74	
스피드가 최고	57	
시절인연: 지리산	70	
세로 키시트와르 - 극한의 도전	49	
<b>ㅇ</b>		
아가	35	
아라비아의 로렌스	110	
아르티코	63	
아름다운 바보	48	
아이스 폴링 - 헌팅턴산	54	
아이티의 올림	42	
아프가니스탄을 오르다: 여성의 외침	46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	98	
알피니스트 - 어느 카메라맨의 고백	88	
야수	85	
양	103	
양지탕	122	
어나더 웨이	90	
에릭과 에리카	74	
에베레스트 - 최후의 한 걸음	47	
여름에 내린 눈	118	
여우	70	
여전히 푸른 인생	99	
영혼의 산 마나슬루	35	
오직 애나뿐	57	
오픈 스페이스	79	
온두라의 시대	43	
온리 더 브레이브	99	
왈마푸	64	
왕할머니께	122	
우를 찾아서	64	
우리 엄마	64	
우리, 돌만의 비밀	85	
워킹 온 에어	65	
월드	113	
위대한 루카스	57	
위드 더 윈드	100	
월로씨의 휴가	110	
유령 마을	84	
의자	106	
이오나쉬의 꿈	115	
임페리얼 계곡	77	
<b>ㅈ</b>		
자오관으로 가는 길	93	
자유롭게	58	
자이언트 베어	86	
저 멀리 - 그들의 세계여행 이야기	93	
전조	40	
절대 고평을 찾는 남데브 아저씨	67	
정상에서의 만남	80	
지빌라	102	
<b>ㅊ</b>		
챔피언 RJ	65	
천상의 유목민	100	
초콜릿 데이	101	
추수의 계절	84	
축제일	111	
출항	105	
친화득 B	118	
침묵의 영역	76	
<b>ㅋ</b>		
커커시리	111	
케이프 그라운드	76	
퀸모드랜드	37	
크레이그 효과	43	
크리스탈을 찾아서	54	
큰 늑대와 작은 늑대	104	
클라이밍 브로	58	
클라이밍 픽처스	58	
카드	94	
킬리언 조넷: 에베레스트로 가는 길	53	
<b>ㅌ</b>		
타니 메나	107	
타이키	101	
타임 투 리브	115	
타카이나	70	
텍사스, 말파	115	
토네이도 추격자	49	
토르	65	
트리라인	44	
트윈 갤럭시	79	
<b>ㅍ</b>		
파라솔 피크	45	
파인 라인	39	
프놈펜에서 온 편지	108	
프리 솔로	56	
피아노를 히말라야로	32	
핀 팜 포우	36	
<b>ㅎ</b>		
하늘	50	
하늘을 타는 서퍼	42	
하라리우 자매	105	
할아버지가 숨어있어요	104	
하니랜드	33	
호은 - 아쇼카의 전설	90	
홀로세	44	
홀리 투어	60	



## Index of Films

<b>0-9</b>		<b>H</b>		<b>S</b>	
(People) of Water	62	Hands Up to Heaven	80	Salti	122
15.7 KM	67	Hang in There, Kids!	97	Search for the Wooo, The	64
199 Little Heroes: Vincent from Austria	69	Harvest Moon	84	Sheep	103
24 Snow	113	Heavenly Nomadic	100	Size of Things, The	106
<b>A</b>		Hedge, The	69	Stars Whisper, The	106
Accidental Ties: on Jirisan	70	High Tide	76	Strollica	104
Ága	35	Hoeun - Legend of Ashoka	90	STYX	74
Age of Ondra	43	Hold Fast	41	Supermonk	102
Alpinist - Confession of a Cameraman	88	Holocene	44	Surf the Line	42
Anba, in the Depths of Haiti	42	Holy Tour	60	Sweet Requiem, The	92
Another Way	90	Honeyland	33		
Applesauce	81	Hors de L'eau	107	<b>T</b>	
Artiko	63	House of Rising Sun, The	118	Taiki	101
As Green As It Gets	99	How to Run 100 Miles	36	Takayna	70
Ascending Afghanistan: Women Rising	46			Tany Mena	107
Ascent of Everest, The	38	<b>I</b>		This Mountain Life	38
Auspice	40	Imperial Valley (Cultivated run-off)	77	Three Thousand	86
		Into Twin Galaxies - A Greenland Epic	79	Time to Leave	115
		Ionas Dreams of Rain	115	Time to Remember, A	69
<b>B</b>				Tor	65
Bayandalai - Lord of the Taiga	68	<b>J</b>		Treeline	44
Beautiful Idiot	48	Jarariju Sisters, The	105	Trip, The	89
Before Dawn	117	Just Anna	57		
Beloved	114	Just Me and You	85	<b>U</b>	
Big Day, The	111			Uncomfortable	117
Big Wolf & Little Wolf	104	<b>K</b>		Up to Speed	57
Big World	63	K2 - Mountain of Dreams and Destiny	52		
Blood Moon	48	Kekexili: Mountain Patrol	111	<b>V</b>	
Blutch	62	Kid, The	94	Victoria	75
Bojo Beach	114	Kilian Jornet: Path to Everest	53		
Boy Nomad	46			<b>W</b>	
Breath	41	<b>L</b>		Walden	113
Breathe 2 Climb	89	Last Day of Autumn, The	103	Wall, The	88
Brotherhood of Skiing	63	Lawrence of Arabia	110	Wallmapu	64
Brothers of Climbing	58	Let's Go to Antarctica!	61	Weight of Water, The	37
		Letter from Phnom Penh, A	108	Whale Hunting	92
<b>C</b>		Lukas the Climber	57	Where We Roam: Nicolas Müller	61
Cape Ground	76			Winter after Winter	97
Cast Off	105	<b>M</b>		With the Wind	100
Cerro Kishtwar - An Ice Cold Story	49	Mama	106	Wolfpack, The	61
Cerro Torre - A Snowball's Chance in Hell	52	Manaslu - Mountain of the Spirit	35	Wolves from Above	85
Chasing Monsters	49	Marfa	115	Working on Air	65
Chouinard B	118	Mi Mamá	64		
Cielo	50	Mission to the Edge of Space	78	<b>Y</b>	
Circular Inscription	77	Monk, The	107	Yangjitang	122
Climbing Pictures	58	Moon, Thread	108		
Climbing to Spring	98	Mount Everest - The Last Step	47	<b>Z</b>	
Connected	47	Mountain of the Crystal Diggers, The	54	Zibilla	102
Craig's Reaction	43	Mountain View	81		
Crossing the Border - Zhaoguan	93	Mountains of Crystal	54		
		Movie for You Only, A	122		
<b>D</b>		Mr. Hulot's Holiday	110		
Day of Chocolate, The	101	Mt. Huntington - Ice Calling	54		
Dream of Nanga	53	My Grandpa is Hiding	104		
DreamRide 3	62				
Dulce	102	<b>N</b>			
		Namaste	122		
<b>E</b>		Namdev Bhau in Search of Silence	67		
Erik & Erika	74	Night Light	45		
		<b>O</b>			
<b>F</b>		O.T	80		
FAR. The Story of a Journey around the World	93	Only the Brave	99		
Fauve	85	Open Space - FAT Biking the Wilderness	79		
Fine Lines	39				
Five Minutes to Sea	105	<b>P</b>			
For the Love of the Game	68	Parasol Peak	45		
Forest of Echoes	80	Piano to Zanskar	32		
Forget Me Not	103	Pin Pam Pou	36		
Fourth Phase, The	78				
Fox, The	70	<b>Q</b>			
Free Flow	58	Queen Maud Land	37		
Free Solo	56	Queen without Land	40		
		<b>R</b>			
<b>G</b>		Reign of Silence	76		
Ghost Town Anthology	84	River and the Wall, The	39		
Giant Bear	86	RJ Ripper	65		
Goodbye, My Girlhood	98				
Grizzly Country	68				
Guy Proposes to His Girlfriend on a Mountain	81				

<b>ㄱ</b>		<b>ㄴ</b>		<b>ㄷ</b>	
고수빈	122	바바라 젠드레이제크	53	자크 타티	110, 111
곤자가 만소	61	박준철	122	자히드 마와니	84
킬레 이사	102	발랑탱 뤼까	107	재커리 바	43, 57
그랜트 볼드윈	38	발레리 호시에	60	장성	108
그렉 맥레오드	115	배창호	92	제럴드 살미나	35
그벤올린 바이저	93	버나뎃 하우케	57	제레미 콩테	85
기무라 다이사쿠	98	베르하르트 뵘거	81	제레미 프레이	42
김대철	117	베티나 오베를리	100	제이드 베게이	64
김동욱	122	벤 마스터스	39	제임스 Q 마틴	64
김무영	45	벤 문	68	젯 하드워	45
김민철	88, 89	벤 스테글루스키	64	조단 맨리	44
김분화	122	벤 페이지	69	조셉 세라	53
김전자	122	벤야민 소토 페라리스	54	조셉 코신스키	99
김정현	122	볼프강 피셔	74	조시 로웰	43
김태훈	122	브렌든 레오나드	36	조엘 뒤랑	107
김한석	98	블라디미르 셸리에	42	조이 슈슬러	65
김형택	122	블라디미르 코트	106	존 클라츠키에비츠	78
				주영	117
<b>ㄴ</b>		<b>ㄷ</b>		줄리아 오커	103
나탈리아 미르조안	105	사데흐 자바디 니케	70	지미 친	56
남해원	58	살코 이바노프	107	진화정	122
넬 크리스토퍼	86	상드린 브로뉴 데르지에	85, 105	짐 에이크만	41
니오브 톨슨	46	서민주	122		
니콜라스 엘리엇	62	서원태	108	<b>웃</b>	
닉 로젠	57	세냥 기암조 타랑	102	찰리 채플린	94
닉 와고너	61	손성민	122	최원재	118
		손 피	61		
<b>ㄷ</b>		시그리드 클라우스만	69	<b>ㅋ</b>	
다니엘 짐머만	113	시더 라이트	37	카를로스 펠리페 몬토야	106
다니엘 페이지	86	시몽 뉘 반 위엔	107	카메론 마이어	43
다르 가이	67	심 지안	97	카타리나 룬드퀴스트	103
던컨 설리반	58			쿨린 아리즈먼	63
데벨자 코이	85	<b>ㅇ</b>		쿠르트 뎀베르거	52
데이비드 린	110	아네르 에체베리아 모랄	68	크리스토폴 드 알바 드 라 페나	54
데이비드 모튼	63	아스겔 헬게스타	40	크리스탈 라이트	49
드니 코테	84	아신나자크	86	김 입 통	107
드라고스 하차네체이우	115	안느 윈	104		
디나 크레이노	39	안젤로 파치니	102	<b>ㅌ</b>	
		안토넬로 파도바노	38	타마라 코테브스카	33
<b>ㄹ</b>		알렉산더 그랏처	81	타일러 윌킨슨 레이	63
라인홀트 메스너	47	알렉산드라 마치에이제크	47	테일러 키팅	37
라인홀트 빌제리	74	알렉스 로우더	70	텐징 소남	92
라하 메보우	97	앙드레 시타리	107	토마스 던호퍼	52
래미 뒤랭	104	앙헬 에스테반	40	토비 파이크	49
레드불 미디어 하우스	78	엘라스터 리	48, 57	트로이 에디지	68
롭 톨슨	48	엘리스 맥알폰	50	티볼트 르클레르크	107
루 추안	111	아세르 탈레비	114		
루보미르 스테파노브	33	아체크 피오트르 브와부트	101	<b>ㅍ</b>	
루스 올리바호 카펠르	80	양연나	122	파블로 비달 산토스	68
루이스 리조	36	엄다경	122	패트릭 알가이아	93
루카 빅	54	에릭 오스터홀름	46	포레스트 우드워드	62
루카스 막스트	75, 76, 77	에이단 할리	36	폴 디폴리	58
리나 슈츠	36	엘레나 고아텔리	40	플로리안 갈렌베르거	99
리사 머피 오라일리	79	엘리자베스 차이 베사헬리	56	피에르 카도	54
리안 아프리안시아	67	엘케 그로엔	114	피츠 카홀	63
리투 사린	92	여선화	106	피터 마르차스	104
		오르한 테케오크루	115	피터 모티머	43, 57
<b>ㄴ</b>		와타나베 유타	44		
마르졸렌 페르텐	103	요하네스 아이츠윌러	45	<b>ㅎ</b>	
마르쿠스 마이어	81	요한 슈물	79	한스 피터 스타우버	47
마르쿠스 슈러	80	율리세스 피에로	41	해리스 멘델	48
마이클 홀킨스	62	율리케 쾃제	80	허만훈	70
마이클 브라운	37	유명상	122	헤수스 마리 라즈카노	63
마일스 맥레오드	115	율리안 장커	49	호르헤 카데나	105
마트 페지엘	64	이기경	118	호수 베네로	63
마티아스 반 바렌	80	이냐키 우레스티 아르부르	65	힐러리 올리버	36
멍 후오	93	이도	108		
메릴 포트나-호시	60	이로빈	65		
미클란 압디칼리코프	100	이상선	122		
미리암 드 위스	101	이자벨 파베즈	102		
미켈 우레스티 아르부르	65	이진수	122		
미하우 솔리마	32	임상훈	122		
미하일 바리닌	113	임일진	88, 89, 90		
미하일 쿨루나코프	69				
밀코 라자로브	35				



## (People) of Water

Gnarly Bay  
dana@gnarlybay.com

## 15.7 KM

Montase  
Mozafari94@gmail.com

## 199 Little Heroes: Vincent from Austria

NEWDOCS  
sales@new.docs.de

## 24 Snow

Valery VALYAVKA  
vvalyavka@mail.ru

## Accidental Ties: on Jirisan

HEO Man-hoon  
ginmarukr@gmail.com

## Ága

Beta Cinema  
beta@betacinema.com

## Age of Ondra

Sender Films  
greg@senderfilms.com

## Alpinist - Confession of a Cameraman

Minch&Films  
minchnfilms@gmail.com

## Anba, in the Depths of Haiti

NOT Associés  
Olivier.testa@not-engineers.fr

## Another Way

Todeszone  
zweigg@naver.com

## Applesauce

Alexander GRATZER  
alex\_gratzer@gmx.at

## Artiko

SIGNO DIGITAL  
info@signodigital.net

## As Green As It Gets

Beta Cinema  
beta@betacinema.com

## Ascending Afghanistan: Women Rising

Erik OSTERHOLM  
osterholm.erik@gmail.com

## Ascent of Everest, The

Thyangboche Productions  
anto.pad@icloud.com

## Auspice

Altrove Films  
rcavallini@gmail.com

## Bayandalai - Lord of the Taiga

Gariza Films  
info@garizafilms.com

## Beautiful Idiot

Harrison MENDEL  
info@harrisonmendez.com

## Before Dawn

KIM Dae-cheol  
directordaecheol@gmail.com

## Beloved

ELI Image  
nobakht.e@gmail.com

## Big Day, The

Les Films de Mon Oncle  
philippe.gigot@tativille.com

## Big Wolf & Little Wolf

Short films' festivals agent  
mikhail.bak@gmail.com

## Big World

Duct Tape Then Beer  
anya@ducttapethenbeer.com

## Blood Moon

Posing Productions Ltd  
alee@posingproductions.com

## Blutch

Nicolas ALLIOT  
contact@nicolasalliot.com

## Bojo Beach

Sixpack Film  
office@sixpackfilm.com

## Boy Nomad

Handful of Films  
niobe@handfuloffilms.ca

## Breath

Ulises Fierro  
ulisesrfrn@gmail.com

## Breathe 2 Climb

Todeszone  
zweigg@naver.com

## Brotherhood of Skiing

Wild Confluence Media  
colin@wildconfluence.com

## Brothers of Climbing

Cause+Effect  
Duncan.sullivan@causeeffect.tv

## Cape Ground

Sixpack Film  
office@sixpackfilm.com

## Cast Off

H264 Distribution  
jc@h264distribution.com

## Cerro Kishtwar - An Ice Cold Story

Stephan Siegrist GmbH  
info@stephan-siegrist.ch

## Cerro Torre - A Snowball's Chance in Hell

Red Bull Media House GmbH  
Natasha.Bhattacharya@redbull.com

## Chasing Monsters

Krystle WRIGHT  
k@krystlewright.com

## Chouinard B

CHOI Won-jae  
aquapello@naver.com

## Cielo

Second Sight Pictures  
sean.farnel@gmail.com

## Circular Inscription

Sixpack Film  
office@sixpackfilm.com

## Climbing Pictures

NAM Hae-won  
heparee@naver.com

## Climbing to Spring

Pony Canyon Inc.  
remi.yamashiro@ponycanyon.co.jp

## Connected

KFF Sales & Promotion  
katarzyna.wilk@kff.com.pl

## Craig's Reaction

Bearcam Media  
cameronmaier@gmail.com

## Crossing the Border - Zhaoguan

HUO Meng  
113208282@qq.com

## Day of Chocolate, The

Aura Films  
maugo.jakubowska@gmail.com

## Dream of Nanga

TVP S.A Katowice  
barbara.jendrzejczyk@tvp.pl

## DreamRide 3

Juicy Studios  
mikehopkins.com@gmail.com

## Dulce

Jungles in Paris  
darrell@junglesinparis.com

## Erik & Erika

Beta Film  
Leandra.white@betafilm.com

## FAR. The Story of a Journey around the World

MAGNETFILM GmbH  
frau.knappe@magnetfilm.de

## Fauve

H264 Distribution  
jc@h264distribution.com

## Fine Lines

Drifting Dunes Production  
dinakhreino@gmail.com

## Five Minutes to Sea

Natalia MIRZOYAN  
n\_sec22@yahoo.com

## For the Love of the Game

Troy EDIGE  
hello@troyedige.com

## Forest of Echoes

Sixpack Film  
office@sixpackfilm.com

## Forget Me Not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 Fourth Phase, The

Red Bull Media House GmbH  
Natasha.Bhattacharya@redbull.com

## Fox, The

Documentary and Experimental Film Center  
int@defc.ir

## Free Flow

Hot Aches Productions  
paul@hotaches.com

## Free Solo

Park Circus Limited  
info@parkcircus.com

## Ghost Town Anthology

Films Boutique  
contact@filmsboutique.com

## Giant Bear

Taqqut Productions  
info@taqqut.com

## Goodbye, My Girlhood

Dreamfact Entertainment  
jeannie518@daum.net

## Grizzly Country

Moonhouse LLC  
ben@benmoon.com

## Guy Proposes to His Girlfriend on a Mountain

LEMONADE FILMS  
info@refreshingfilms.com

## Hands Up to Heaven

Sixpack Film  
office@sixpackfilm.com

## Hang in There, Kids!

Sky Film Co., Ltd.  
cs98h040@gmail.com

## Harvest Moon

Zahed MAWANI  
zmawani@gmail.com

## Heavenly Nomadic

Pluto Film Distribution Network GmbH  
info@plutofilm.de

## Hedge, The

Altay Films  
Zevs106@yandex.ru

## High Tide

Sixpack Film  
office@sixpackfilm.com

## Hooun - Legend of Ashoka

Todeszone  
zweigg@naver.com

## High Fast

Bedrock Film Works  
jim@bedrockfilmworks.com

## Holocene

Rightup Inc.  
yuta@rightup-inc.co.jp

## Holy Tour

Be For Films  
festival@beforfilms.com

## Honeyland

Deckert Distribution GmbH  
info@deckert-distribution.com

## Hors de L'eau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 House of Rising Sun, The

PARK Young-wan  
hiphop3go@nate.com

## How to Run 100 Miles

Semi-Rad Media  
brendanpleonard@gmail.com

## Imperial Valley (Cultivated run-off)

Sixpack Film  
office@sixpackfilm.com

## Into Twin Galaxies - A Greenland Epic

Red Bull Media House GmbH  
Natasha.Bhattacharya@redbull.com

## Ionas Dreams of Rain

Dragoş HANCIU  
dragoshanciu@gmail.com

**Jararaju Sisters, The**  
GoldenEggProduction  
yd@goldeneggproduction.ch

**Just Anna**  
Posing Productions Ltd  
alee@posingproductions.com

**Just Me and You**  
H264 Distribution  
jc@h264distribution.com

**K2 - Mountain of Dreams and Destiny**  
Kurt DIEMBERGER  
kurt.diemberger@gmail.com

**Kekekili: Mountain Patrol**  
Park Circus Limited  
info@parkcircus.com

**Kid, The**  
MK2  
intlfest@mk2.com

**Kilian Jornet: Path to Everest**  
Lymbus LIFE SL  
jordi.lorenzi@lymbus.com

**Last Day of Autumn, The**  
Short films' festivals agent  
mikhail.bak@gmail.com

**Lawrence of Arabia**  
Park Circus Limited  
info@parkcircus.com

**Let's Go to Antarctica!**  
OFF ECAM  
info@offecam.com

**Letter from Phnom Penh, A**  
SEO Won-tae  
cinewontae@gmail.com

**Lukas the Climber**  
Pangolin Doxx Films  
info@pangolin-doxx.com

**Mama**  
Leo Production  
katimons@gmail.com

**Manaslu - Mountain of the Spirit**  
Planet Watch GmbH & CoKG  
planetwatch@icloud.com

**Marfa**  
The Brothers MaLeod  
myles@bromc.co.uk

**Mi Mamá**  
Q Media LLC  
contactqmedia@gmail.com

**Mission to the Edge of Space**  
Red Bull Media House GmbH  
Natasha.Bhattacharya@redbull.com

**Monk, The**  
Flip Book Productions  
ubanob@gmail.com

**Moon, Thread**  
JUNG sum  
sumsum7@hanmail.net

**Mount Everest - The Last Step**  
Servus TV  
haspeter.stauber@servustv.com

**Mountain of the Crystal Diggers, The**  
Yucca Films  
pierre@yucca-films.com

**Mountain View**  
Markus MAICHER  
markus.maicher@gmail.com

**Mountains of Crystal**  
Luca BICH  
luca.bich@cervinocinemountain.it

**Movie for You Only, A**  
KIM Jeong-hyeon  
kt9135@naver.com

**Mr. Hulot's Holiday**  
Les Films de Mon Oncle  
philippe.gigot@tativille.com

**Mt. Huntington - Ice Calling**  
Zenith Adventure Media  
benjamin.soto.f@gmail.com

**My Grandpa is Hiding**  
Short films' festivals agent  
mikhail.bak@gmail.com

**Namaste**  
Fun media  
na5425082@naver.com

**Namdev Bhau in Search of Silence**  
Jugaad Motion Pictures  
pranit@jugaadmotionpictures.com

**Night Light**  
Void Space  
Voidspace2015@gmail.com

**O.T**  
Sixpack Film  
office@sixpackfilm.com

**Only the Brave**  
KOREA SCREEN Inc.  
PARK Jeong-moon  
yoakimpark@hanmail.net

**Open Space - FAT Biking the Wilderness**  
Red Bull Media House GmbH  
Natasha.Bhattacharya@redbull.com

**Parasol Peak**  
Tom Tanzer Artist Management  
office@tomtanzer.com

**Piano to Zanskar**  
Between Friends  
jarek@betweenfriends.co.uk

**Pin Pam Pou**  
Al Aire Films  
contact@alairrefilms.com

**Queen Maud Land**  
Cedar Wright Productions  
cedarwright@gmail.com

**Queen without Land**  
Norwegian Film Institute  
ts@nif.no

**Reign of Silence**  
Sixpack Film  
office@sixpackfilm.com

**River and the Wall, The**  
Fin and Fur Films  
Brendan@gravitasventures.com

**RJ Ripper**  
Joey Schusler Films  
joey@joeyschusler.com

**Salti**  
SMILE PICTURES  
skfkdrn@naver.com

**Search for the Woo, The**  
Red Bull Media House GmbH  
Natasha.Bhattacharya@redbull.com

**Sheep**  
Studio FILM BILDER GmbH  
studio@filmbilder.de

**Size of Things, The**  
MESTIZA FILMS  
isabel@mestizafilms.com

**Stars Whisper, The**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Strollica**  
Peter MARCIAS  
petermarcias@hotmail.com

**STYX**  
Beta Cinema  
beta@betacinema.com

**Supermonk**  
BLACKHAT  
ENTERTAINMENT CO.LTD  
Blackhat.jimmy@gmail.com

**Surf the Line**  
Hello Emotion  
arnaud@helloemotion.com

**Sweet Requiem, The**  
Dialectic  
ssathe@gmail.com

**Taiki**  
Fiction Valley  
Annemarie@fictionvalley.nl

**Takayna**  
Patagonia Films  
Emily.Grant@patagonia.com

**Tany Mena**  
Kim YIP TONG  
kimoei.yt@gmail.com

**This Mountain Life**  
Peg Leg Films  
peglegfilms@gmail.com

**Three Thousand**  
NFB  
D.Dussault@nfb.ca

**Time to Leave**  
MEDYA TDN LTD  
nurdan.tumbet@gmail.com

**Time to Remember, A**  
Ben Page Films  
ben@benpagefilms.com

**Tor**  
Garakordada  
garakordada@gmail.com

**Treeline**  
Patagonia  
Emily.Grant@patagonia.com

**Trip, The**  
Minch&Films  
minchnfilms@gmail.com

**Uncomfortable**  
Joo-young  
flywom@naver.com

**Up to Speed**  
Sender Films  
greg@senderfilms.com

**Victoria**  
Sixpack Film  
office@sixpackfilm.com

**Walden**  
Pascale Ramonda  
pascale@pascaleramonda.com

**Wall, The**  
Todeszone  
tozeigg@naver.com

**Wallmapu**  
DPS Cinematic  
dan.benshoff@dpskis.com

**Weight of Water, The**  
Serac Adventure Films  
michael@seracfilms.com

**Whale Hunting**  
Korean Film Archive  
rain@koreafilm.or.kr

**Where We Roam: Nicolas Müller**  
Tasty Pictures  
seanfee@tastypictures.com

**Winter after Winter**  
REDIACNE  
info@rediancefilms.com

**With the Wind**  
Be For Films  
festival@beforfilms.com

**Wolfpack, The**  
Patagonia  
Emily.Grant@patagonia.com

**Wolves from Above**  
Folk Film  
anita@folkfilm

**Working on Air**  
Fifi Film  
2020fyman@gmail.com

**Yangjitang**  
LEE Jin-soo  
miseen.kr@gmail.com

**Zibilla**  
Short films' festivals agent  
mikhail.bak@gmail.com

**발행인**  
배창호

**Publisher**  
BAE Chang-ho

**책임편집**  
최선희  
이정진

**Chief Editor**  
Billy CHOI  
Jinna LEE

**프로그램 노트**  
곽정혜  
김세진  
맹수진  
배경미  
산까치  
서도은  
신영철  
안정아  
오영훈  
유순희  
이영준  
이정진  
장보영  
조지훈  
최선희  
한송이

**Program Notes**  
GWAK Jeong-hye  
KIM Se-jin  
MAENG Soo-jin  
Christine PAE  
H. Jay LEE  
SEO Do-eun  
SHIN Young-chul  
AHN Jung-ah  
OH Young-hoon  
YOO Sun-hee  
LEE Young-jun  
Jinna LEE  
JANG Bo-young  
JO Ji-hoon  
Billy CHOI  
HAN Song-i

**콘텐츠**  
김선국  
유현주  
윤영신  
이서하  
최성호  
최슬기  
황정현  
황지현

**Contents**  
Joseph KIM  
YOU Hyun-ju  
YOON Young-sin  
LEE Seo-ha  
CHOI Sung-ho  
CHOI Seul-gi  
HWANG Jeong-hyun  
HWANG Ji-hyeon

**번역**  
남경희  
박송이  
손소영  
이한나

**Translation**  
NAM Kyung-hee  
Vivian PARK  
SOHN So-young  
LEE Han-na

**감수**  
배리 웰시

**English Proofreading**  
Barry WELSH

**디자인**  
테이크엠

**Design**  
takeMdesign

**인쇄**  
디오

**Print**  
Dio

## 울주세계산악화제 사무국 Ulju Mountain Film Festival

4495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2층 103-8,  
Yeongnam Alps Complex Welcome Center 2F 103-8 Alpeuseuoncheon 5-gil Sangbuk-myeon, Ulju-gun, Ulsan, Korea 44952  
TEL. 82 52 248 6451 | FAX. 82 52 248 6455 | www.umff.kr

\* 본 책자는 (출판날짜) 8월 13일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의 변동사항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his catalogue was printed off on August 13, Please check our official website for any changes after August 13.

직접 기르고  
마음 가득 담아  
손수 만든  
목장 수제 유제품

BON MILK & CHEESERY



SOWOLDANG FRESH BAKED PEAR CAKES

# 소월당 배빵

울산 큰애기 손맛 담은 소월당의 배빵

해외로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울산특산물 울산배**를 듬뿍 넣고,  
유기농 밀가루, 아몬드가루를 넣어 만들어 건강에 더욱 좋은  
울산명물 수제빵입니다. 석세포의 사각거림을 느껴보세요.  
배모양의 빵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상표등록 4020160054684 / 디자인등록 3009129100000

농림부 장관상 수상  
울산 관광기념품 공모전  
은상 수상



# 울주를 닮아 자연 그대로.



2019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TREVIER**<sup>®</sup>  
SINCE 2003



# 산악인의 자일 파트너. 트랑고



New Felx Cam set



BallNutz set



Ascender



Moor



Ligero



Comet



Sicuro



Gravity



Acrobat



New Rocker



Patron



Liquid Chalk



Crush Chalk



Chalk Bag



Billy Belay Gloves



Volta Chair



# AWAKE YOUR EMOTION

메마른 일상의 감성을 깨우는 문화콘텐츠, 바른손이 만들어갑니다.

바른손은 VR 문화콘텐츠 전문 기업으로서 VR 퍼블리싱 사업 및 VR 콘텐츠를 비롯하여 AR,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합니다.



## DEVICES

- VR 콘텐츠에 최적화된 디바이스 선정
- 다양한 VR장비, 모션체어 등 콘텐츠 맞춤형 디바이스 제공



## SOLUTION

- VR영상에 특화된 플레이어 솔루션
- 8K, 공간사운드, 리모트 플레이 등 다양한 기능 제공



## PLATFORM

- 플랫폼을 사용한 콘텐츠 제공
- 자체 CMS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응



## INSTALLATION

- 공간구성 및 인테리어 디자인
- 공간 특징과 콘텐츠 적합성을 고려한 커스터마이징 인테리어 기획



## OPERATION

- 효율적 운영 및 관리노하우 보유
-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이슈 대응



영화를 모아 문화를 만드는 곳

# 한국영상 자료원

시네마테크KOFA  
한국영화박물관  
영상도서관 상암/파주

상암 본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02-3153-2001  
파주보존센터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01 ☎ 031-830-8100  
[www.koreafilm.or.kr](http://www.koreafilm.or.kr)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